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신남방지역 우수학생 유치 및
맞춤형 교육·연구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 최종본**

2019. 12.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의 신남방지역 우수학생 유치 및 맞춤형 교육·연구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연구개발 기간 : 2019. 06. 17. ~ 2019. 12. 13.) 과제의 결과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9. 12. 13.

주관연구기관명: 한국과학기술원

주관연구기관책임자: 박 경 열

OOOOOOO훈령 제OO조에 따라 결과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보고서 요약서

과제 고유 번호	N06139002	해당 단계 연구 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세부과제명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의 신남방지역 우수학생 유치 및 맞춤형 교육·연구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박경열	해당단계 참여연구원 수	총: 7명 내부: 7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정부:50,000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총 연구기간 참여연구원 수	총: 7명 내부: 7명 외부: 명	총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 부서명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및 사유					

9대 성과 등록·기탁번호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 설·장비	기술요 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등록·기탁 번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 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NTIS 등록 번호

요약(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228 쪽

요 약 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신남방지역 이공계 우수인력 유치 및 맞춤형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연구개발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남방정책은 정부의 핵심 정책 어젠다로 자리매김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2019년 말 기준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 (KAIST, UNIST, DGIST, GIST, POSTECH)에 재학 중인 신남방지역 외국인 유학생 384명 중 193명(50.2%)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 - 기존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관련분야의 정책의 현황, 주요 성과, 시사점 도출 ○ 5개 과기특성화대학의 유학생 지원 비교 분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교육 혁신 및 국제화 전략 분석 - 대학구성원의 국제화 의식 부재 및 극복 방안 - 행정 및 제도 장벽 (학적관리, 비자, 정부 체류관리, 의료보험 등) 현황 분석 - 대학의 특성화된 우수인재 선발, 프로그램, 교육 및 연구협력 방안 도출 ○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인도.아세안 지역 인재유치 비교우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책의 거버넌스 분석, 우수 사례에서 정책 시사점 도출 - 새로운 융복합형 교육/연구협력 분야 육성안 벤치마킹 - 미국, 일본, 중국, 호주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 도출 ○ 신남방지역 과학기술분야 유학생의 현장 목소리를 최초로 정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동기 및 기대효과 분석 - 유학생 만족도를 세부항목으로 조사 및 시사점 도출 (제도, 재정, 교육인프라, 연구, 문화, 인간관계, 차별, 언어, 학교지원 등) -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기대 및 지원의 불일치, 향후 개선 방안 도출 ○ 신남방지역/과학기술 우수학생 유치의 장기적 비전 수립 및 과학기술협력 및 인재교류의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체계 수립을 위한 7대 세부 정책 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연구역량, 수월성, 전공적합성 중심의 유학생 유치 전략 - 둘째, 5개 과기특성화대학의 유학생 지원 정책 강화 및 상호교류의 중요성 - 셋째, 신남방지역 국가별 유학생 유치 전략의 다변화 - 넷째, 대학 거버넌스에서 국제협력처의 위상 및 역량 강화 - 다섯째, 유학생애주기를 고려한 유학생 지원 정책 수립 및 취업박람회 개최 - 여섯째, 한국어 교육 및 지원, 졸업 요건 강화의 필요성 - 일곱째, 유학생 유치/학업지원/취업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 석·박사 유치 및 학위/연구프로그램 구체적 개선에 반영 ○ 5개 과기특성화대학 유학생 지원정책, 유학생 만족도 향후 평가 체계로 활용 ○ 장기적으로, 정부의 신남방정책 비전과 국가연구개발정책 기초에 부합하는 융복합형 과학기술기반 국제협력/인재교류 방안 정책 제언 				
국문핵심어 (5개 이내)	과학기술	신남방	유학생	행정지원	국제협력
영문핵심어 (5개 이내)	science and technology	ASEAN / India	international student	administrative support	international cooperation

※ 국문으로 작성(영문 핵심어 제외)

참여연구원

박경렬 (Park, Kyung Ryul)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조교수

김소영 (Kim, Soyoung)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부교수

임문정 (Yim, Moonjung)

카이스트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 연수연구원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정보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Technology & Social Change Group에서 연구조교수로 일했다. 가나와 나미비아 사례에서 기술 활용과 개인의 역량 강화 및 교육적·경제적 효과를 연구하고, 이해관계자를 분석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에서의 프로그램 평가를 전문분야로 두고 있다.

금현아 (Keum, Hyunah)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사 과정

현재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카이스트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과학기술정책학을 부전공하였다. 과학기술정책을 환경의 관리측면에서 분석하며, 국내 공중 보건 논리와 폐기물 관리 및 환경 보호 논리의 충돌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연구 중이다.

박지원 (Park, Jiwon)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사 과정

현재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정치외교학 학부과정을 졸업했다. 연구 관심분야는 개발학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영향이다. 현재는 디지털 플랫폼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 있다.

우지수 (Woo, Jisu)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사 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와 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과학기술인력정책, 여성과학기술인정책, 과학기술과 젠더이다.

이인건 (Lee, Inkeon)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

과학기술 인력정책, 연구개발정책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목 차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2. 자료 수집 방법	2
1.3. 자료 분석 방법	4
1.4. 연구 보고서의 구성	4
2. 국내 관련 정책 현황 및 진단	6
2.1. 국내 유학생 정책 분석	6
2.1.1. 유학생 유치, 관리 정책의 배경	6
2.1.2.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 및 국제장학정책 관련 정책 동향	8
2.1.3. 신남방지역 유학생 유치 정책과 국제교육협력	9
2.2. 유학생 정책 거버넌스 및 유학생 현황	10
2.2.1. Study Korea 2020 프로젝트(2013~2020)	11
2.2.2.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초청 사업 (Global Korea Scholarship)	11
2.2.3.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13
2.2.4. 재한 외국인 유학생 현황	14
2.3.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주요 정책	21
2.3.1. 한국과학기술원 (KAIST)	28
2.3.2. 포항공과대학교 (POSTECH)	45
2.3.3. 울산과학기술원 (UNIST)	52

2.3.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58
2.3.5. 광주과학기술원 (GIST).....	63
2.4. 시사점.....	69
3.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71
3.1. 해외 사례 분석의 취지.....	71
3.2. 미국.....	75
3.2.1. 미국의 유학생 유치정책의 배경.....	75
3.2.2. 미국의 유학생 정책 프로그램 및 거버넌스.....	77
3.2.3. 미국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요약.....	79
3.3. 일본.....	82
3.3.1.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의 배경.....	83
3.3.2. 일본의 유학생 정책 프로그램 및 거버넌스.....	84
3.3.3.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요약.....	88
3.4. 중국.....	90
3.4.1. 중국의 유학생 유치정책의 배경.....	91
3.4.2. 중국의 유학생 정책 프로그램 및 거버넌스.....	91
3.4.3.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요약.....	94
3.5. 호주.....	95
3.5.1. 호주의 유학생 유치정책의 배경.....	95
3.5.2. 호주의 유학생 정책 프로그램 및 거버넌스.....	96
3.5.3.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요약.....	100

3.6. 정책적 시사점	103
3.6.1. 미국	103
3.6.2. 일본	103
3.6.3. 중국	104
3.6.4. 호주	105
4. 과기특성화대학 신남방지역 유학생의 유학동기, 만족도 및 진 로계획에 대한 연구	106
4.1. 양적 연구 및 결과 분석	106
4.1.1. 연구 설계 및 조사 방법론	106
4.1.2. 설문문항	108
4.1.3. 연구 결과 분석	113
4.2. 질적 연구 및 결과 분석	140
4.2.1. 연구 설계 및 인터뷰 조사	140
4.2.2. 비정형 인터뷰의 조사 문항	141
4.2.3. 연구 결과	143
4.3. 정책적 시사점	148
5. 결론 및 정책과제	151
참고문헌	165
별첨	170

그림 목 차

그림 1 연도별 유학생 수 추이 (2010-2019).....	14
그림 2 한국과학기술원: 유학생의 과정별 구성.....	32
그림 3 한국과학기술원: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 수.....	34
그림 4 한국과학기술원: 국제협력처 조직 구성도.....	36
그림 5 한국과학기술원: 국제개발센터 조직도.....	37
그림 6 한국과학기술원: 연도별 협약체결 횟수.....	38
그림 7 한국과학기술원: 주요 국가별 협약 대학 분포.....	39
그림 8 한국과학기술원: 모집절차 구분.....	42
그림 9 미국: 연도별 신규 유학생 수(명)	80

표 목 차

표 1 설문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요약.....	3
표 2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상위 6개국 과정별 현황.....	13
표 3 외국인 유학생 주요 출신 국가	15
표 4 신남방지역 유학생 현황, 과정별 (2018).....	16
표 5 신남방지역 유학생 현황, 과정별 (2019).....	17
표 6 외국인 유학생 교육 과정	18
표 7 신남방 국가 유학생 중 이공계 전공자 수.....	19
표 8 2019년 신남방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
표 9 2019년 과기특성화대학 신남방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21
표 10 5개 과기특성화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22
표 11 최근 3개년도 과기특성화대학교 재학생 현황.....	25
표 12 최근 3개년도 과기특성화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현황.....	26
표 13 최근 3개년도 신남방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27
표 14 한국과학기술원 상위 20개 연구분야 (2019년도).....	30
표 15 한국과학기술원 신남방 출신 유학생 재학 현황 (2018).....	33
표 16 한국과학기술원 국가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2019).....	35
표 17 한국과학기술원 신남방지역 기관 협약 현황.....	40
표 18 포항공과대학교 상위 20개 연구분야 (2019년도).....	46
표 19 포항공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현황.....	47

표 20	포항공과대학교 신남방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재학 현황	47
표 21	포항공과대학교와 신남방 국가 대학 간의 학술교류협정	48
표 22	울산과학기술원 상위 20개 연구 분야 (2019년도)	53
표 23	울산과학기술원 신남방지역 유학생 및 교원 현황	54
표 2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위 19개 연구 분야 (2019년도)	59
표 2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재적 학생 수	60
표 2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외국인 유학생 현황	60
표 2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신남방지역 출신 유학생 현황	61
표 28	광주과학기술원 상위 20개 연구 분야 (2019년도)	64
표 29	광주과학기술원 재적 학생 수	65
표 30	광주과학기술원 외국인 유학생 현황	65
표 31	광주과학기술원 신남방지역 출신 유학생 현황	66
표 32	광주과학기술원 신남방 국가 협력 기관	67
표 33	한·미·일·중·호 5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72
표 34	미국: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예산	79
표 35	미국: 외국인 유학생 주요 출신 국가	80
표 36	미국: 신남방 국가별 유학생 현황	81
표 37	미국: 외국인 유학생 교육 과정	81
표 38	일본: 일본 유학 동기에 대한 응답 (복수응답)	85
표 39	일본: 최근 5개년도 일본의 유학생 추이	88
표 40	일본: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주요 출신 국가 (2018)	89

표 41 일본: 신남방 국가별 유학생 현황 (2018).....	89
표 42 일본: 기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8).....	90
표 43 일본: 전공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8).....	90
표 44 중국: 외국인 유학생 주요 출신 국가	94
표 45 중국: 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95
표 46 호주 국가전략 2025 개요.....	97
표 47 호주: 최근 4개년도 호주의 고등교육 및 전체 유학생 추이.....	100
표 48 호주: 외국인 유학생 주요 출신 국가.....	100
표 49 호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주요 출신 국가	101
표 50 호주: 신남방 국가별 유학생 현황	101
표 51 호주: 고등교육기관 신남방 국가별 유학생 현황	101
표 52 호주: 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102
표 53 설문조사결과: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107
표 54 설문 문항 요약.....	108
표 55 조사내용 및 문항 수.....	111
표 56 설문조사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빈도와 백분율.....	114
표 57 한국으로의 유학 선택 요인.....	119
표 58 한국 유학에 대한 기대 수준.....	121
표 59 학교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	122
표 60 학교 선택 요인.....	123
표 61 한국 관련 정보 획득 경로.....	124

표 62 학교 관련 정보 획득 경로.....	125
표 63 진로계획.....	126
표 64 학교 지원 과정에 대한 만족도.....	128
표 65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129
표 66 연구에 대한 만족도.....	130
표 67 진로 설계 지원에 대한 만족도.....	132
표 68 커뮤니케이션 및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만족도.....	134
표 69 한국의 법/제도에 대한 만족도.....	135
표 70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	136
표 71 사회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137
표 72 개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138
표 73 유학 생활 스트레스 정도.....	139
표 74 반구조화 인터뷰 및 표적집단면접.....	141
표 75 회차별 인터뷰 질문지 구성 요약.....	142
표 76 각 과기특성화대학별 한국어 어학 능력 요구 수준.....	161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7년 11월 천명된 신남방정책은 올해 초 1월 10일 VIP의 신년회견사에서라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재확인되었고, 지난 11월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정부의 핵심과제로 자리매김되었다. 신남방 정책의 핵심 비전인 ‘People’, ‘Peace’, ‘Prosperity’ 중 특히 ‘People’은 사람중심의 국민외교 활성화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인재교류, 연구협력, 고등교육 등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 아세안·인도 신남방지역 이공계 우수인력의 유치와 과학기술협력은 가장 중요한 의제이며, 높은 정책 효과성을 위한 현재의 유학생 정책 진단 및 개선점 도출은 시의적절한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학생의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석·박사는 2012년 이후 5년간 베트남(2위), 인도(3위), 인도네시아(ASEAN본부) 등 ‘신남방지역’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하였기에, 현재 신남방지역 출신 이공계 학생 유치 정책 및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하 과기특성화대학)의 유학생 지원 방안을 평가하여, 앞으로 정부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과학기술/ICT 협력, 맞춤형 교육 전략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기특성화대학의 신남방지역 우수학생 유치 및 맞춤형 교육, 연구환경 조성에 관한 종합적 정책 제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부 연구 과제를 포함하였다.

첫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울산과학기술원(이하 UNIST),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 포스텍(이하 POSTECH), 5개 과기특성화대학의 외국인 학생 현황 분석, 운영 실태 조사 및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점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주요 선진국 이공계 우수인력 유치 및 과학기술 거점 전략 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네 나라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비교우위를 파악하고, 유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유학 동기, 현재의 만족도, 향후 진로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인재유치, 사후관리, 장기적

과학기술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셋째, 정부의 신남방정책 비전과 국가연구개발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장기적 인재교류, 융복합형 과학기술기반 국제협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세안(ASEAN) 및 인도 이공계 우수학생의 과기특성화대학 유치에 대한 연구로, 연구대상 및 표본이 신남방지역으로 초점을 맞추는 연구 지역적 차별성과 혼합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방법론적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종합적 정책 제언을 위한 연구방법을 설계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를 보완하였다. 특히, 2012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이공계 분야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현황과 유치방안> 연구는 2012년 공표된 STUDY KOREA 2020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시의적절했던 연구로, 국내 학령인구 감소 및 이공계 기피를 해소하는 전략의 하나로 접근하였다. 하지만,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에 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과기특성화대학은 설문조사 표본에 들어가지 않은 한계점이 있고, 이공계 유학생 전반을 대표하기에는 표본 (210명)이 매우 작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관련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을 병행하는 혼합방법론은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유학생 유치 및 각 과기특성화대학의 학위/연구프로그램, 유학생 지원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 새로운 융복합형 교육/연구협력 분야 육성 및 정책제언을 본 보고서에 담았다.

1.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자료 조사 단계 (2019년 6월 17일~7월 30일)에서는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등 2차 자료를 수집하고, 문헌 조사를 기초로 하여, 선행연구자에 대한 전문가 면담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 (2019년 8월~10월)에서는 신남방지역 유학생, 5개 특성화 대학 유학생 정책, 국제협력 담당자와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표적 집단면담(focus group discussion)을 진행하였다. 각 과기특성화대학을 방문하여 신남방지역 외국인 유학생 (KAIST 대학원 과정 재학생 5명, UNIST 학부 과정 재학생 3명, POSTECH 대학원 과정 재학생 5명)과 표적집단면담을 진행하였다. 유학생

정책 및 국제협력 담당자를 대상으로는 KAIST 국제 교원 및 학생 지원팀 (ISS) 직원 3명과의 표적집단면접을, UNIST 국제협력센터 직원 1명, DGIST 국제협력팀 직원 1명, POSTECH 국제협력팀 직원 1명과는 각각 개별 대면 인터뷰를 1시간 가량 동안 진행하였다.

세 번째 단계 (2019년 11월)에는, 정책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과기특성화대학에 현재 재학 중인 신남방지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모두 15일간 진행되었다. 5개 과학기술원에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 총 454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문제로 인해 응답자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메일 주소 확보가 가능했던 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것을 감안하면 참여자는 모두 193명으로 50.2%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설문조사는 주로 유학 동기와 기대, 현재 유학 생활의 만족도, 향후 진로 계획을 조사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은 사회인구학적 정보, 한국 유학 선택 동기, 재학 중인 과학기술원 선택의 동기, 한국 유학 생활 만족도, 진로 계획의 크게 5부분으로, 선택형, 개방형, 폐쇄형의 질문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총 17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설문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요약

구분	내용
모집단	5개과기특성화대학 신남방지역 유학생 (학사, 석사, 박사)
전체 표본크기	384명
회수대상	193명(50.2%)
실제분석대상	181명(47.1%)
표본추출방법	전수조사
조사기간	2019년 11월 19일 ~ 2019년 12월 4일(15일)

11월 15일 금요일 80여명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는 학계, 대학관계자, 신남방지역 출신 대학원생, 신남방지역 출신 한국대학교수, 신남방지역 전문가 등 총 여섯명의 전문가의 발제를 바탕으로 집중 토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자리에 참석한 유학생들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의미한 질적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설문조사 및 정책간담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부분에 대해 정책전문가, 유학생, 교직원 대상 면담을 통해 보완하였다.

1.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자료와 문헌조사, 인터뷰, 표적집단면접 등을 통한 질적자료를 바탕으로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설계에 있어서는 순차적 탐색 설계(sequential exploratory design)을 적용하였다¹⁾. 자료수집 1단계, 2단계에서 얻어진 질적 연구의 수집을 바탕으로 3단계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즉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 설계와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고, 마지막 해석 단계에서 수집한 질적 자료를 보완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1.4. 연구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기존 연구의 보완점, 연구 추진 절차, 자료 수집의 단계, 자료 분석의 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국내 관련 정책의 거버넌스, 5개 과기특성화대학의 신남방지역 유학생 현황, 지원을 비교 분석하고, 현황에 대해 진단하였다.

3장에서는 글로벌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네 국가를 선정하여 과학기술협력 및 유학생 유치 관련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유학생 및 국제처 인터뷰 결과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신남방지역 인재 유치 정책과 사후 관리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 신남방 인재교류, 연구협

1) Creswell, J. W., Plano Clark, V. L. (2011).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2nded.). Thousand Oaks, CA: Sage.

력에 대한 정책제언을 정리하였다.

2. 국내 관련 정책 현황 및 진단

2.1. 국내 유학생 정책 분석

2.1.1. 유학생 유치, 관리 정책의 배경

신남방지역 유학생 유치 정책은 기존의 외국인유학생 유치, 관리 지원체계에 대한 정책의 큰 틀에서 영향을 받는다. 본 절에서는 한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의 역사와 배경을 개괄한다. 정부 주도의 유학생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0년대 이후의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부간행물을 참고하고, 배소현과 김희수의 논문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분석’ (2014)를 주로 참조하였다.

한국의 유학생 전략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받아들이는 유학’ 보다는 ‘보내는 유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87년 민주화 이전, 유학은 소수의 특권 계층에만 허용되었다. 정부가 자격시험 등을 통해 유학생의 숫자를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유학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유학 선택이 가능해졌다. 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2010년대 들어 2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학을 선택하는 한국인의 급격한 증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고등교육 서비스의 수입과 수출의 불균형으로 인해 교육 무역수지에 큰 적자가 발생하였고, 유학을 통한 고급인력의 ‘두뇌 유출’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대학의 국제적 위상의 문제 역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고등교육이 점차 국제화되는 시대에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대비 한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한국 고등교육의 낮은 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배소현과 김희수(2014)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유학생 유치 전략을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먼저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첫 번째 단계에서 한국 정부는 유학생 규모의 확대를 제1의 목적으로 하였다. 2000년대 초 5000여 명에 불과하던 한국 내 유학생의 숫자를 2010년까지 5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다. 이러

한 계획의 일환에서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는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 을 내세우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 혹은 ‘Study Korea’ (2004) 제도를 실시하였다. 한국 내 유학생의 숫자가 2007년에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책 목표가 조기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유학생 유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유학생의 숫자만 늘었을 뿐 유학생의 관리 및 교육에는 미흡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배소현과 김희수(2014)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유학생 유치와 관리에 결부된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도입된 시기 (2008-2012)를 유학생 유치 전략의 2기로 분석한다. 2008년의 ‘Study Korea 프로젝트 발전 방안’ 은 2012년까지 유학생의 숫자를 1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우수 유학생의 선발을 비롯한 질적인 관리를 추구하였다. 정부는 이 밖에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개선방안’ (2009),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 전략 방안’ (2010),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 (2011)를 통해 개별 대학 층위에서 이루어지던 유학생 유치에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유학생 유치의 내실화 및 우수 인재의 유치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2년까지 지속되었던 ‘Study Korea 프로젝트 발전 방안’ 이 종료된 2013년부터의 정책을 유학생 유치 전략의 제3기라고 할 수 있다.²⁾ 정부는 ‘Study Korea 2020 프로젝트 추진계획’ (2012)을 통해 2020년까지 유학생의 숫자를 20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0년대 들어 정체되었던 유학생 증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2014)와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2015)을 추진하여 유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 및 제반 규제 완화를 통한 정주지원이 이루어지면서 2015년 이후 유학생 숫자의 증가율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 전략 방안’ (2010)에서 지적하듯이,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여전히 많은 부분 ‘차이나 특수’ 에 기대고 있다. 중국인 학생의 비율이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2019년에도 한국 유학생의 44%는 여전히 중국 출신이다. 이는 유학생 출신 국가의 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고등교육 수요의 많은 부분이 중국의 상황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내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남방 국가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고등교육 수출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한국의 점진적인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신남방

2) 스에요시 카요. (2017). “한국과 일본의 유학생정책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주, & 이미정. (2019).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내 지원 정책 연구. 인문사회 21, 10(4), 235-250.

국가들의 우수한 인력을 한국의 대학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2.1.2.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 및 국제장학정책 관련 정책 동향

과기특성화대학의 유학생 유치 정책은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전반적인 국내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및 대학의 국제화 정책의 영향을 받아왔다. 본 절에서는 유학생 정책과 사업의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범정부적인 국제화 정책의 변화와 국제장학 정책의 역사와 배경을 개괄한다. 이를 위해 안해정 외(2019) 연구보고서, 김미란 외(2013) 연구보고서를 참고하도록 한다. 2000년대 이후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도래한 기술 발전,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확대 등 전 세계적으로 대두된 국제화가 국내 고등교육 체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국제화 정책은 세 가지 모드(mode)로 분류해왔는데, 모드별 항목과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Mode 1(교육과정/프로그램 협력)에서 Campus Asia, EU-ICI 교육협력사업과 같은 해외 대학과의 공동 운영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Mode 2(해외 유학 및 해외 연수)에서는 정부 초청장학금(Global Korea Scholarship, GKS)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었고, 고등교육 분야 국제협력 중 그 규모가 가장 컸다. Mode 3(외국교육기관 설립)에서는 외국 고등교육기관과의 MOU를 체결하거나 국내에 분교를 유치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Mode 4(해외 교류)는 해외 파견 학생이나 국내 외국인 교원의 수, 해외 취업자 수 등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대학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그 현황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특징으로는 첫째, WTO와 FTA 체결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는 점이 있으며, 둘째, 유학 수지를 개선하거나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유학생 유치를 추진한 점이 으면, 셋째, 연구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석학 초청,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해왔고, 넷째, 대학의 국제화 성과 분석에서는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이, 지역별로는 지방보다 서울 소재 대학이, 대학 규모에 있어서는 소규모 대학보다는 대규모 대학이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추진” 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김미란 외 2013: i). 현대에는 국제 고등교육 학생 이동성의 추이가 서구로의 일방적 이동에서 서구와 아시아권 양쪽을 오가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비영어권 국가이자 비전통 유학 대상국으로서 새로운 지역 허브(Regional hub)로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Jon, Lee & Byun, 2014).

2.1.3. 신남방지역 유학생 유치 정책과 국제교육협력

앞서, 과기특성화대학의 유학생 유치 정책이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책과 연관됨을 살펴보았다. 신남방지역 유학생 유치 정책은 한국 정부의 국제교육협력, 특히 국제개발협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 이는 신남방지역의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의 대상국이기 때문이다. 아세안 10개국 중 ODA 협력이 가장 활발한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라오스, 캄보디아의 6개국 (확인필요)과 개발협력이 진행 중이고, 인도는 과학기술협력 및 개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왔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중 신남방국가 원조규모별 자료는 국가별, 유상, 무상 원조액별로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³⁾

과기특성화대학의 유학생 유치, 특히 신남방지역과 관련해서는 한국 고등교육의 ODA 구조와 분절화되어 있는 유학생 모집, 지원 정책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의 고등교육 ODA 구조, 정책 및 동향을 개괄하며, 이를 위해 안해정 외(2019), 홍문숙 외(2019) 및 채재은, 우명숙(2012)를 참고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부는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분야 고등교육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적교류 중심 사업으로 정부초청 장학제도인 Global Korea Scholarship (GKS) 사업을, 역량강화 지원 중심으로 아세안대학 이터닝 지원, 글로벌 교육지원,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UNESCO-UniTWIN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5~2017년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 국제협력 부문에서 교육부의 사업액이 46%를 차지하였다. KOICA는 사업 중 교육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KOICA의 고등교육 국제협력 사업으로 대학설립 프로젝트, 석사학위연수사업, 민관협력사업이 있으며, KOICA의 사업은 2015~2017년 우리나라 고등교육 ODA 사업 부문의 31%를 차지하였다. EDCF는 기관 특성상 우리나라와 활발히 교류하거나 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은 교통, 수자원·위생, 에너지·보건 분야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어, 교육 분야 국제협력의 비중은 2019년 기준 상대적으로 낮은 7%이다. EDCF의 고등교육 ODA 사업은 주로 대학설립 사업이 있으며, 2015~2017년 우리나라 고등교육 ODA 지원 중 17%를 차지하였다.

고등교육 분야 ODA 사업의 협력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유학생 및 연

3) <http://www.oda.go.kr/opo/masc/mainPage.do>

수생 지원, 기술협력, 프로젝트 원조로 나눌 수 있으며 연도별로 그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술협력 형태의 협력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다. 지원 형태(유·무상)별로 살펴보면, 순 지출액이 주로 무상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순 지출액에 있어 연도별로 유상과 무상지원의 변화가 매우 큰데,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 ODA가 지원 형태의 일관성 혹은 지속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 ODA의 주 수원국은 극동아시아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2015년에서 2017년 3년 동안 지출액 중 50% 내외가 ‘지역 미배분’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공 영역별 ODA 사업 빈도 및 순지출액에서는 ICT/과학기술, 보건/의료, 기타 분야로 나누었을 때 기타가 가장 많은 사업 빈도 및 순 지출액을 보였으며 ICT/과학기술 분야 또한 높은 수준이었다.

안해정 외(2019)에서는 이러한 고등교육 ODA 사업들을 2015년 국제연합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고등교육 목표(SDG 4.3과 4.b)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교육부, KOICA, EDCF 세 기관의 사업이 모두 주로 고등교육에의 접근성 확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나 낙후 지역 이슈, 질 제고 이슈 등을 간과하고 있었다. 또한, 세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홍문숙 외(2019)에서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민관협력사업의 형태로 수행되고 주로 대학, 연구소 등이 수행하는 아카데미협력 프로그램을 사례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사례 프로그램은 전 지구적 개발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계가 꾸준히 고려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의 국제개발관련 지식강화와 같은 성과가 발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2. 유학생 정책 거버넌스 및 유학생 현황

우리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는 교육부와 교육부 산하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 또한 출입국 관리와 체류허가(비자) 등을 통해 한국 내 유학생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국 대학을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유학생을 유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절에서는 ‘Study Korea’, ‘정부 초청외국인 장학생 초청 사업, 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비롯한 교육부의 대표적인 외국인 유치 정책들을 요약

하겠다.

2.2.1. Study Korea 2020 프로젝트(2013~2020)

유학생의 대대적인 유치를 위해 2004년 처음 수립된 Study Korea 프로젝트는 유학생 유치, 해외 인적 네트워크 형성, 유학생들의 국내 수학, 연구, 생활 환경 개선, 한국어의 보급, 이를 위한 전반적인 행정지원을 목표로 한다. 2008년 ‘Study Korea 프로젝트 발전 방안’을 통해 확장·보완되어 2단계에 진입한 Study Korea 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그 세 번째 단계가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애당초 2020년까지 국내 유학생의 숫자를 20만 명까지 확대하여 내국인 학생 대비 외국인 학생의 비율을 5%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지만, 유학생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자 2023년까지로 기한을 연장하였다. 하지만 ‘Study Korea 2020 프로젝트’는 유학생 수의 단순 확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2014)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수한 인재의 유치를 비롯한 유학생의 질적 관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부는 Study Korea 프로젝트(2013~2020)의 일환으로 ‘한국유학종합시스템’ (www.studyinkorea.go.kr)을 보강하고 법무부의 비자 시스템과 연계하여 유학생의 입국부터 출국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해 한국 대학과 유학 절차에 대한 각종 정보(어학 프로그램, 기숙사, 장학금 지원, 건강 보험 등)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유학생의 유치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2.2.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초청 사업 (Global Korea Scholarship)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 이하 GKS)은 1967년 처음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유학생의 In-Bound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Study Korea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비교적 작은 규모로 실시되었던 기존의 GKS 사업을 개편하고 대폭 확대하여 대학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한국에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2008년부터 선발 학생 수를 기존 연 100명에서 400~600명으로 늘리고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매년 1,000명에 달하는 내·외국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 혜택을 지원하였다. 나아가 Study Korea 20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연 2,0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 산하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GKS 사업은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외국인 우수 교환학생 지원 사업, 외국인 우수자비 유학생 지원 사업, 주요 국가 대학생 초청 연수 사업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 유학생 선발 및 파견 사업, 한·일 이공계 학부 유학생 선발·파견 사업, 마지막으로 외국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사업이 그것이다. 학부, 대학원 학위 과정을 지원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대학원 과정 지원은 1967년 이래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은 학부, 대학원 과정 모두 대사관 트랙과 대학 트랙 두 개가 있는데, 대사관 트랙에서는 학생들이 각국의 대사관에 직접 지원하여 대사관 측에서 선발을 담당하는 경우이고 대학 트랙은 학생들이 직접 지원하는 형태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등교육의 국제화 역량제고 및 지원조직 개편”(임천순, 2015)을 참고해 볼 수 있겠다.

GKS의 예산은 한국 정부의 ODA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즉, GKS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원조 사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GKS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국가에는 한국 정부 ODA 수원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인원이 배정된다. 또한, 대학원 과정의 경우 지원자가 ODA 수원국에서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본 사업의 나이 제한인 40세가 넘어도 지원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특징은 GKS의 한국어 프로그램이다. GKS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정 수준의 한국어 혹은 영어 실력이 요구되는데,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합격자가 의무적으로 1년의 어학연수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의 합격자에게는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한다.

현재 GKS 사업을 통해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46개국 830명의 대학원 재학생과 67개국 132명의 학부 재학생이 있다. 상위 6개국에 대한 과정별 학생 현황을 다음 표와 같다.

표 2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상위 6개국 과정별 현황

구분	학사	석사	박사	석박사	연구	연수	기타	합계
중국	0	251	158	1	17	0	9	436
베트남	61	203	68	1	1	0	44	378
몽골	77	165	90	1	6	4	33	376
일본	25	205	109	0	13	2	8	362
러시아	43	224	34	0	1	2	21	325
인도네시아	53	174	36	2	3	0	42	310

*출처: 국립국제교육원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 정부초청장학생 통계 (2019).

2.2.3.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정부는 유학생 숫자의 급격한 증가가 일으킨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이하 IEQAS)를 도입하였다. 정부의 유학생 유치정책이 본격화되었던 2001년부터 10년 동안 유학생의 숫자는 크게 늘었지만, 개별 대학들이 늘어난 유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유학생의 유치와 관리를 위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대학들을 선정하고 홍보하여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개별 대학의 ‘불법체류율 1% 미만 또는 중도탈락률 6% 미만’, ‘유학생 다양성’,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학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등이 주된 평가 지표이며 우수대학은 비자 심사 및 GKS 심사 과정에서 우대를 받는다. 현재 107개의 4년제 대학이 교육국제화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⁴⁾.

인증제를 시행하는 기관은 한국연구재단으로, 재단에서는 인증제 운영 업무와 관련된 지원 및 사업비 관리,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인증대학 선정은 신청 자격을 갖추고, 인증을 신청한 대학 중 1~3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대학에 IEQAS 인증을 수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단계 평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 중 신청대학에 한하여 대학정보공시 자료 및 대학이 제출하는 자체 보고서를 중심으로 서면심사를 한 뒤, 현장 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신청하지

4) https://www.studyinkorea.go.kr/ko/sub/college_info/certified_universities.do

않은 대학이라도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단계 평가에서는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평가 항목에는 대학 국제화의 비전, 유학생 모집 및 선발, 학사관리, 생활관리, 유학생 관리 및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및 대학별 특이사항이 있다. 3단계 평가는 정성적 평가로 현장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1, 2단계에서 각 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현장 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2.2.4. 재한 외국인 유학생 현황

재한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19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를 분석하고 요약 및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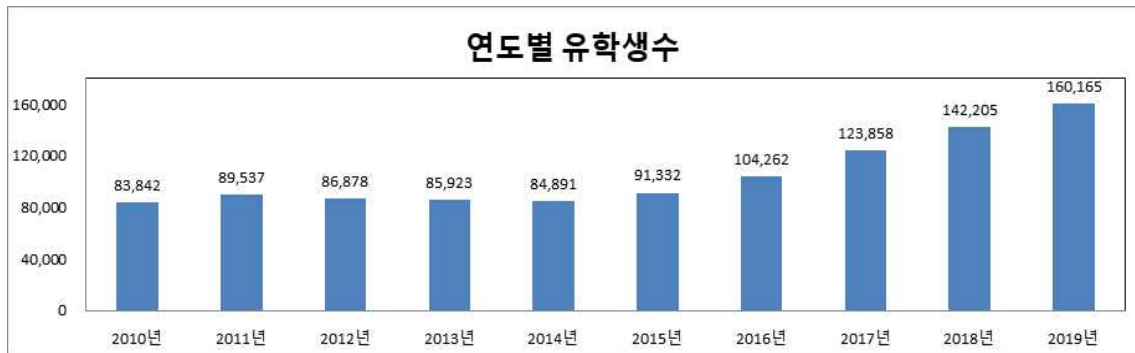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유학생 수 추이 (2010-2019)

*출처: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2019)

2019년 4월 1일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전체 유학생은 총 160,165명이다.<표 3> 이는 전년 대비 17,960명(13%)이 증가한 숫자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출신의 유학생이 71,067명(44.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론 베트남 37,426명(23.4%), 우즈베키스탄 7,492명(4.7%), 몽골 7,381명(4.6%), 그리고 일본 4,392(2.7%) 순이다.

신남방지역 출신 학생의 경우 44,414명으로 한국 유학생 전체의 27.7%를 차지한다(<표 5>). 이는 2018년 집계(33,681명)<표 4>에 비해 10,733명이 늘어난 숫자이다. 신남방지역 출신들이 이러한 유학생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신규 유학생의 대다수는 베트남 국적 학생들이다. 이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신남방 출신 학생들의 비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김미영 외(2018)는 베트남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1992년 한국-베트남 간의 공식 수교 이후 베트남이

한국을 경제발전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과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지며, 한국이 베트남의 여섯 번째 주요 교역상대국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베트남 학생들을 제외하면 인도네시아(1,615명), 인도(1,131명), 말레이시아(1,116명) 미얀마(830명) 순으로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 중이다.<표 5>

표 3 외국인 유학생 주요 출신 국가

2018							
구분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벡	일본	기타	계
학생 수(명)	68,537	27,061	6,768	5,496	3,977	33,116	142,205
비율(%)	48.2	19.0	4.8	3.9	2.8	21.3	100
2019							
구분	중국	베트남	우즈벡	몽골	일본	기타	계
학생 수(명)	71,067	37,426	7,492	7,381	4,392	29,492	160,165
비율(%)	44.4	23.4	4.7	4.6	2.7	18.4	100%

*출처: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2018, 2019)

표 4 신남방지역 유학생 현황, 과정별 (2018)

국가	과정					합계
	어학연수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기타연수	
베트남	18,791	5,351	1,497	953	469	27,061
인도네시아	189	433	421	199	196	1,438
말레이시아	242	649	77	39	162	1,169
인도	157	141	215	530	64	1,107
미얀마	190	203	209	67	6	675
필리핀	96	98	250	139	74	657
태국	230	137	104	69	108	648
싱가포르	64	55	20	7	267	413
캄보디아	46	97	160	34	20	357
라오스	25	20	48	10	6	109
브루나이	3	3	4	1	36	47
합계(명)	20,033	7,187	3,005	2,048	1,408	33,681
비율(%)	59.48	21.34	8.92	6.08	4.18	100

*출처: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2018)

표 5 신남방지역 유학생 현황, 과정별 (2019)

국가	과정					합계
	어학연수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기타연수	
베트남	23,594	10,337	1,910	974	611	37,426
인도네시아	173	484	424	237	297	1,615
인도	62	161	245	575	88	1,131
말레이시아	210	652	77	40	137	1,116
미얀마	225	298	224	79	4	830
태국	235	165	104	60	152	716
필리핀	80	101	249	125	67	622
싱가포르	58	56	17	5	301	437
캄보디아	50	98	156	33	14	351
라오스	17	25	52	7	1	102
브루나이	0	2	6	0	60	68
합계(명)	24,704	12,379	3,464	2,135	1,732	44,414
비율(%)	55.62	27.87	7.80	4.81	3.90	100

*출처: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2019)

국내 전체 유학생을 과정별로 살펴보면, <표 6>에 정리된 것과 같이, 학사과정이 65,258명(41.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어학연수(27.9%), 석사과정(14.7%), 박사과정(6.7%)의 순이다. 2018년도와 비교해보면 신남방 출신의 유학생은 1년 사이에 10,733명 증가하였으며, 어학연수생은 4,671명 증가하였으나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유학생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표 5> 따라서 전체 유학생 대비 어학연수생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신남방 출신 학생들의 경우 어학연수생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신남방지역의 유학생 44,414명 중 어학연수생은 24,704명으로 약 55.62%이며 이는 신남방 유학생 중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약 27.87%)을 크게 웃돈다.<표 5> 신남방 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베트남 출신 유학생의 경우 전체 37,426명 중 23,594명, 약 63% 가량이 어학연수생이다.<표 5> 어학연수생을 제외

한 신남방지역 출신 유학생은 2019년 기준으로 총 19,710명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 2018년도와 2019년도 모두 압도적으로 많으며, 인도네시아와 인도, 말레이시아 출신의 유학생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유학생을 유형과 전공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한국 유학생의 92%가 학비를 자비로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학초청(5.1%),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1.9%), 자국 정부 장학생(0.3%) 순이다. 전체 유학생 중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통틀어 이공계열(공학,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유학생은 총 20,628명으로, 전체 유학생 160,165명 중 약 12.88%에 해당한다. 이 중 신남방지역의 유학생들은 이공계열을 6,042명이 전공하고 있으며, 이는 신남방지역 전체 유학생 44,414명의 약 13.60%이다. 전체 유학생 대비 신남방지역의 유학생들이 이공계열을 전공하는 비율이 약간 높다.

표 6 외국인 유학생 교육 과정

구분	어학연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연수	계
학생 수(명)	44,756	65,258	23,605	10,782	15,194	160,165
비율(%)	27.9	41.1	14.7	6.7	9.5	100

*출처: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2019)

표 7 신남방 국가 유학생 중 이공계 전공자 수

국가	과정					
	대학(전문대학)		대학원(석사과정)		대학원(박사과정)	
	공학	자연과학	공학	자연과학	공학	자연과학
베트남	1,488	828	369	163	578	280
인도네시아	108	26	201	67	131	72
인도	23	6	88	14	332	143
말레이시아	381	27	30	7	18	13
미얀마	89	43	25	11	7	22
태국	35	5	14	7	31	16
필리핀	15	11	48	34	51	37
싱가포르	5	4	1	-	1	3
캄보디아	27	3	40	15	17	7
라오스	4	1	7	6	2	3
브루나이	-	-	1	1	-	-
합계(명)	2,175	954	824	325	1,168	596
총계(명)	6,042					

*출처: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2019)

표 8 2019년 신남방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연도	2019					합
	KAIST	DGIST	GIST	UNIST	POSTECH	
라오스	0	0	0	0	0	0
말레이시아	11	2	4	2	1	20
미얀마	3	0	0	0	0	3
베트남	73	6	21	46	11	157
브루나이	0	0	0	0	0	0
싱가포르	1	0	0	1	0	2
인도	28	8	14	23	13	86
인도네시아	54	3	3	10	9	79
캄보디아	2	0	0	1	0	3
태국	39	0	1	1	0	41
필리핀	13	2	8	4	2	29
합계(명)	224	21	51	88	36	420
전체유학생 대비(%) [†]	32.46	42	44.35	28.03	40.45	

*출처: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2019)

표 9 2019년 과기특성화대학 신남방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국가	과기특성화대학 내 재학생 수
베트남	157
인도	86
인도네시아	79
태국	41
필리핀	29
말레이시아	20
미얀마	3
캄보디아	3
싱가포르	2
라오스	0
브루나이	0
합계(명)	420

*출처: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2019)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유학생 수가 많은 경향은 과기특성화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유학생 수가 그 뒤를 이으며 미얀마, 캄보디아, 싱가포르, 라오스, 브루나이 유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2.3.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주요 정책

본 절에서는 학교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5개 과기특성화대학교가 어떻게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요약하였다. 본 절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순서로 작성했다. 주요 연구 분야 및 국제화에 대한 학교 개요, 외국인 구성원 관련 통계자료, 입학과정, 재정·행정·언어·생활·문화 지원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표 10 5개 과기특성화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구분	KAIST	POSTECH	UNIST	DGIST	GIST	
기관 개요	설립연도	1971년	1986년	2007년	2011년	1993년
	설립목적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기초 및 응용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	과학기술분야의 지도자적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과학 연구와 산학협동 연구를 통하여 인류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중심의 고등교육실시를 목적으로 설립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설립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	고급과학기술 인재양성,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 및 연구 교류촉진, 국가 과학기술 및 지역 균형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설립
	주요연구 분야	정보이론 .로봇/자동화기계.인공 위성	입자/장물리 .생화학/구조생물학.반 도체소자/시스템	기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신재생에너지 .기타 에너지/자원	정보이론 .치료/진단기기 .발생/신경생물학	정보이론 .분자세포 생물학.콘텐츠
	QS 랭킹	40(2019)	83(2019)	-	-	339(2018)
	THE 랭킹	102(2019)	142(2019)	1250(2018)	-	351-400 (2018)
	IAQA	인증대상	인증대상	인증대상	인증대상제외	인증대상제외

		KAIST	POSTECH	UNIST	DGIST	GIST
국제 협력 및유 학생 지원	소관조직	대외 부총장실 산하 국제협력처	기획처 산하 국제협력팀	국제협력센터	기획처 산하 국제협력팀	대외협력팀
	국제협력 현황	231개 해외대학 협력관계 신남방 국가 대상: 17개 대학 협력관계	107개 해외대학 협력 관계 신남방 국가 대상: 14개 대학 협력관계	24개 해외대학 협력관계 신남방 국가 대상: 2개 대학 협력관계	4개 해외대학 협력관계 신남방 국가 대상: 없음	108개 해외대학 및 연구기관 협력관계 신남방 국가 대상: 20개 대학 협력관계
	재정지원	1) 과기원장학생 2) 국비장학생	1) 대학원 대상 외국인 유학생 전원 교내 장학금 2)신입생 특별 정착 장학금 지원 3)아시아 국가 학생 대상 POSCO Asia Fellowship	1) Global Uni-star Silver & Gold 2) TA 장학금 3) 성적 기준 총적 외국인 학부 학생 대상 장학금 4) 대학원 대상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등록금 및 생활장학금)	GIST 외국인학생 장학금: 등록금 전액 ·생활비 ·연구장려비·국민건강보 험·항공료
	행정지원	비자와 건강보험 등록/갱신 지원팀 동행 또는 위임하여 수행	비자 등록/갱신 지원팀 동행하여 지원, 건강보험 등록 안내	비자/건강보험 관련 정보제공	비자 등록/갱신 지원 및 건강보험료 전액 환급	국민건강보험료 60% 환급

	KAIST	POSTECH	UNIST	DGIST	GIST
언어지원	<p>모든 과정 영어 강의 진행</p> <p>한국어 필수수업 규정 없음. 선택적으로 한국어 초중고급 강의 제공</p>	<p>영어공용화 캠퍼스, 영어인증제 운영</p> <p>한국어 필수 수업 규정 없음. 어학센터 또는 국제협력팀 지원</p> <p>한국어 교육</p>	<p>모든 과정 영어 강의 진행</p> <p>추가 금액을 통한 한국어 교육 제공</p>	<p>모든 과정 영어 강의 진행</p> <p>수업료 없이 한국어 강의 Korean Language 1,2 수강</p>	<p>모든 과정 영어 강의 진행</p> <p>외국인 학생 대상 한국어 강의 필수</p>
생활 및 문화지원	<p>1) 오리엔테이션 및 다양한 문화 행사</p> <p>2) 외국인 학생 대상 기숙사 및 공동 사용 기숙사</p> <p>3) 외국인 학생을 위한 책자 제공 및 한국어 가이드북</p> <p>4) 국제학생 심리상담 지원</p> <p>5) 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 및 국제학생회 지원</p>	<p>1) 3일간의 오리엔테이션 및 다양한 문화 행사</p> <p>2) 외국인 대상 기숙사, 또는 Dorm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운영</p> <p>3) 외국인 학생을 위한 책자 제공</p> <p>4) 외국인 전담 심리상담사 상주</p>	<p>1) 오리엔테이션 및 한국 정착 도움 프로그램 진행</p> <p>2) 외국인 유학생 대상 1인실/2인실 기숙사</p> <p>3) 학교 영문 소개 책자 제공</p> <p>4) UNIST 전체 학생을 위한 헬스케어센터와 인권 센터 상담 서비스</p> <p>5) UNIST 외국인 유학생회</p>	<p>1) 오리엔테이션 및 다양한 문화 행사</p> <p>2) 연4회 외국인 학생 대상 정기 간담회를 통한 피드백</p> <p>3) 학교 책자 및 생활가이드북 제공</p>	<p>1) 매년 Culture Night 개최</p> <p>2) 외국인 대상 기숙사 제공</p> <p>3) 외국인 학생을 위한 책자 제공</p>

* 출처: 본 보고서 2.2.1~2.2.5 내용 요약 ('주요 연구분야'는 2019년 기준 NTIS 자료 참고하였음)

최근 3개년도 과기특성화대학교 전체 재학생 수와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최근 3개년도 과기특성화대학교 재학생 현황

연도	2017		
	학부	대학원	합계(명)
GIST	834	1331	2,165
DGIST	756	481	1,237
UNIST	3800	1642	5,442
POSTECH	1714	1786	3,500
KAIST	4540	7043	11,583
연도	2018		
	학부	대학원	합계(명)
GIST	901	1318	2,219
DGIST	851	607	1,458
UNIST	3463	1784	5,247
POSTECH	1707	1810	3,517
KAIST	4597	7092	11,689
연도	2019		
	학부	대학원	합계(명)
GIST	946	1317	2,263
DGIST	898	688	1,586
UNIST	3090	1895	4,985
POSTECH	1697	1783	3,480
KAIST	4542	7230	11,772

*출처: 대학알리미 재적 학생 현황 (대학), (대학원) 각 년도

표 12 최근 3개년도 과기특성화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현황

연도	2017			
	학사	석사	박사	합계(명)
GIST	1	35	79	115
DGIST	0	11	27	38
UNIST	207	28	73	308
POSTECH	0	25	80	105
KAIST	202	205	172	579
연도	2018			
	학사	석사	박사	합계(명)
GIST	1	27	80	108
DGIST	0	19	33	52
UNIST	196	34	84	314
POSTECH	0	30	68	98
KAIST	230	217	196	643
연도	2019			
	학사	석사	박사	합계(명)
GIST	1	39	75	115
DGIST	0	15	35	50
UNIST	190	25	99	314
POSTECH	0	19	70	89
KAIST	274	227	189	690

*출처: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⁵⁾

5) 본 보고서가 작성될 시기, 2019년 교육통계연보는 업데이트가 되었으나, 각 학교별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서는 석/박사 과정별로 재학생 수를 제공하지 않아, 표12와 같이 전체 학부생 수, 전체 대학원 재학생 수(휴학생 포함) 내용만을 포함하였다.

최근 3개년도 신남방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3 최근 3개년도 신남방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연도	2017				
국가	KAIST	DGIST	GIST	UNIST	POSTECH
라오스	1	0	0	0	0
말레이시아	7	0	8	0	1
미얀마	5	0	0	0	0
베트남	52	5	22	36	26
브루나이	0	0	0	0	0
싱가포르	4	0	0	1	0
인도	25	10	15	16	14
인도네시아	40	0	1	8	3
캄보디아	4	0	2	0	1
태국	26	1	1	0	2
필리핀	4	0	4	4	2
합계(명)	168	16	53	65	49
전체유학생대비(%) [†]	29.02	42.11	46.09	21.1	46.67
연도	2018				
국가	KAIST	DGIST	GIST	UNIST	POSTECH
라오스	0	0	0	0	0
말레이시아	7	2	7	1	2
미얀마	3	0	0	0	0
베트남	63	6	19	38	19
브루나이	0	0	0	0	0
싱가포르	2	0	0	1	0
인도	28	10	16	23	13
인도네시아	50	2	1	9	8
캄보디아	4	0	0	1	1
태국	24	0	1	1	2
필리핀	7	1	5	1	2
합계(명)	188	21	49	75	47

전체유학생대비(%) [†]	29.24	40.38	45.37	23.89	47.96
연도	2019				
	KAIST	DGIST	GIST	UNIST	POSTECH
라오스	0	0	0	0	0
말레이시아	11	2	4	2	1
미얀마	3	0	0	0	0
베트남	73	6	21	46	11
브루나이	0	0	0	0	0
싱가포르	1	0	0	1	0
인도	28	8	14	23	13
인도네시아	54	3	3	10	9
캄보디아	2	0	0	1	0
태국	39	0	1	1	0
필리핀	13	2	8	4	2
합계(명)	224	21	51	88	36
전체유학생대비(%) [†]	32.46	42	44.35	28.03	40.45

*출처: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 각 대학의 전체 유학생 수 대비 신남방 국가 유학생 비율

2.3.1. 한국과학기술원 (KAIST)

1) 기관 개요

○ 설립 목적 및 주요 연구 분야

KAIST는 1971년에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기초 및 응용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KAIST의 개교 목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1조와 역사적 배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기 진행 중인 경제 개발 계획과 산업화에 따라 과학기술인재의 고등교육을 수행해야 했고 동시에 두뇌 유출을 억제해야 했다.

1971년 개교 당시에 설립된 응용공학대학(전기 및 전자공학과와 기계공학 등) 과 자연과학대학(물리, 화학, 수학)을 중심으로 연구 및 교과 과정이 구성되었다. KAIST는 본래의 목적인 경제 성장과 산업화에 직접 기여할 인재의 육성과는 다르게 기초 연구 및 자연과학인재 육성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설립

된 과정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와 같이 학제적 전통이 강한 개발 연구 및 공학에 집중되어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설립된 바이오 및 뇌공학, 로봇융합학제전공, 문화기술대학원, 정보보호대학원 등 융복합 학문 분야의 학과와 프로그램도 이러한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현재, 연구비를 기준으로 전체 연구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보기술(27.2%), 생명공학기술(16.7%), 나노기술(12.7%)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을 비롯한 중대형 규모의 사업단과 한국연구재단이 지정한 선도/공학/융합 연구센터를 캠퍼스 내에 유치하고 있다.

집행 중인 연구비 규모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따라 상위 20개 연구분야를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제적 전통이 강한 분야에서 융복합 분야로 중점연구가 변경되었지만, KAIST의 주요 연구분야는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기술, 일부 기계 및 소재/부품과 원자력에 집중되어 있다.

표 14 한국과학기술원 상위 20개 연구분야 (2019년도)

순위	연구분야	금액(비율)
1	정보이론	180.4 (11.2%)
2	로봇/자동화기계	84.4 (5.3%)
3	인공위성	72.6 (4.5%)
4	반도체소자/시스템	65.4 (4.1%)
5	융합바이오	47.6 (3.0%)
6	자동차/철도차량	46.7 (2.9%)
7	소프트웨어	40.5 (2.5%)
8	이동통신	34.6 (2.2%)
9	고분자재료	34.5 (2.1%)
10	시설물안전/유지관리 기술	33.6 (2.1%)
11	의약품/의약품개발	32.6 (2.0%)
12	광학	29.7 (1.8%)
13	응집물질물리	28.9 (1.8%)
14	발생/신경생물학	28.7 (1.8%)
15	광응용기기	28.5 (1.8%)
16	원자력기반/첨단기술	27.3 (1.7%)
17	의생명과학	25.6 (1.6%)
18	국토공간개발기술	24.9 (1.5%)
19	신재생에너지	24.0 (1.5%)
20	학교교육	23.5 (1.5%)

*출처: NTIS

연도별로 동일 연구분야 내에서 연구과제가 변하기도 하고, 연구비 규모에 따라 연구분야 순위가 변동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난 6년간 KAIST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서 상위 20개 그룹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분야는 반도체, 원자로, 인공위성, 나노물질로 집중되어 있다.

2012년까지는 반도체소자와 도로교통, 신재생에너지, 정보이론이 가장 비중이 큰 연구였지만 2013년 이후 융합바이오에 대한 연구가 이후 2015년까지 성장했다. 2011년 이후 기초과학연구원을 캠퍼스 내에 유치하여 이론 물리, 에너지 물질, 나노 화학 연구 등 분야의 기초연구자를 육성하고 해당 분야의 첨단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5위부터 20위까지의 연구분야는 인공위성, 나노시스템, 소프트웨어, 유비쿼터스 컴퓨팅, 분자세포 생물학, 광학, 이동통신 등이다. 이들 항목은 융합연구 분야이며 동시에 중소규모 학제로서 순위 내에서 부상하고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다.

중점 및 특화 분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내에 설치된 여러 연구기관의 경로형성과 영향력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을 개발한 인공위성연구센터(SaTRec)은 최근 30주년을 맞아 현재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우주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나노종합계획에 따라 2002년 개원한 나노종합기술원이 있으며 크고 작은 반도체 교육 및 설계 중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해 KAIST는 2017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재출범했으며 최근 인공지능 대학원을 개원하며 인공지능을 차세대 중점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원자력 공학의 경우, 원자로 개발뿐 아니라 원자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 연구를 통해 의학과 에너지 연구에도 확장되고 있다.

2) 외국인 유학생 및 교원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별 유학생 재학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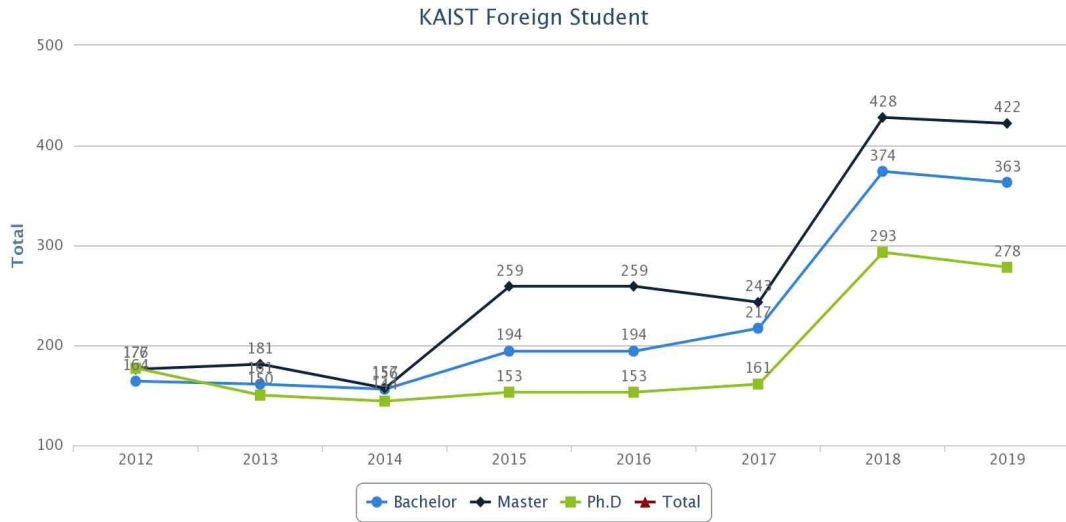


그림 2 한국과학기술원: 유학생의 과정별 구성

*출처: 한국과학기술원 국제협력처 웹페이지

표 15 한국과학기술원 신남방 출신 유학생 재학 현황 (2018)

	국가명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세로합
학사과정	어학연수	0	0	0	0	0	0	0	0	0	0	0
	인문사회	0	0	1	0	0	0	1	0	0	0	2
	공학	4	0	20	0	0	5	15	0	14	1	59
	자연과학	0	0	5	0	0	0	3	0	1	3	12
	예체능	0	0	0	0	0	0	0	0	0	0	0
	의학	0	0	0	0	0	0	0	0	0	0	0
	계	4	0	26	0	0	5	19	0	15	4	73
석사과정	인문사회	0	3	0	0	1	0	3	3	0	0	10
	공학	1	0	20	0	0	4	19	1	6	2	53
	자연과학	0	0	0	0	0	0	0	0	0	0	0
	예체능	0	0	0	0	0	0	0	0	0	0	0
	의학	0	0	0	0	0	0	0	0	0	0	0
	계	1	3	20	0	1	4	22	4	6	2	63
박사과정	인문사회	0	0	0	0	0	0	0	0	0	0	0
	공학	2	0	10	0	1	15	7	0	3	1	39
	자연과학	0	0	7	0	0	4	2	0	0	0	13
	예체능	0	0	0	0	0	0	0	0	0	0	0
	의학	0	0	0	0	0	0	0	0	0	0	0
	계	2	0	17	0	1	19	9	0	3	1	52
기타연수	2	0	3	3	17	5	5	0	2	0	37	
합계	9	3	66	3	19	33	55	4	26	7	225	

*출처: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통계

유학생은 석사, 학사, 박사과정의 순서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석사과정 학생은 422명, 학사과정 학생은 363명, 박사과정 학생은 278명이다.(<그림 2>) 이러한 비중은 2015년 이후 형성되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고, 박사과정 유학생이 더 많은 시기도 있었다. <표 15>은 2018년 현황을 신남방 국가 출신의 유학생 중 KAIST에 재학 중인 학사 및 석·박사과정 재학생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학생들이 재학 중으로 학사과정 중에는 베트남 학생이 가장 많고, 석사과정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학생이며 박사과정 중에서는 인도 학생이 제일 많다.

교육부의 대학알리미 공시정보에 따르면 2018년 KAIST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은 학사과정 3,910명, 석사과정 2,780명, 박사과정은 석박통합과정을 포함하여 3,905명이다. 신남방학생은 이 중 학사과정에서 약 1.9%, 석사과정에서 2.3%, 박사과정에서 1.3%를 차지하고 있다.

KAIST에 재학 중인 전체 외국인 대비 신남방 학생의 비율은 약 27%(225명/844명)이다. 기타연수생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29%(188명/643명)이다. 학부생은 31%, 석사과정 학생은 29%, 박사과정 학생은 27%이다.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 수 추이와 2019년 기준 외국인 전임교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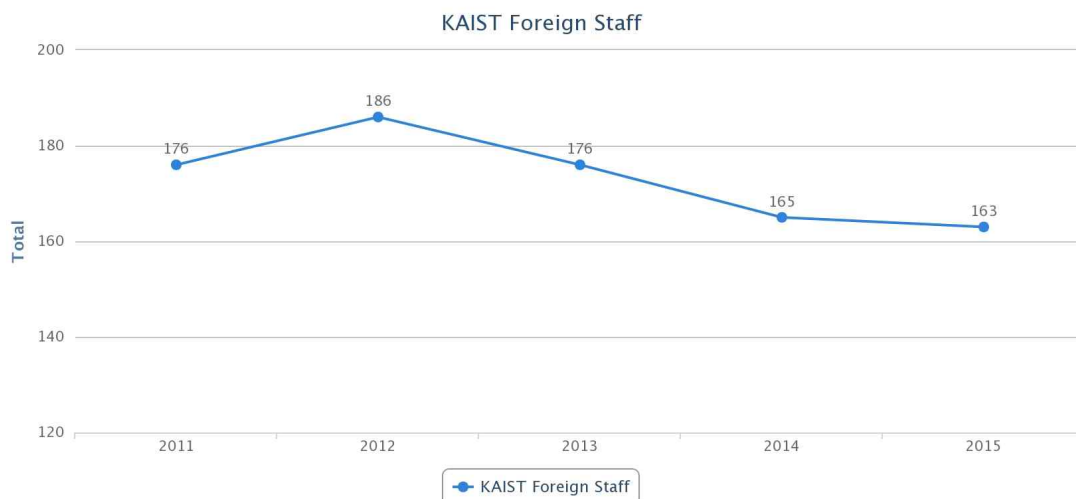


그림 3 한국과학기술원: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 수

*출처: 한국과학기술원 국제협력처 웹페이지

외국인 교원 비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186명이었던 교원 및 연구원의 수가 2015년 163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표 16 한국과학기술원 국가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2019)

	과정					
	교수		부교수		조교수	
	남	여	남	여	남	여
네덜란드	0	0	1	0	0	0
노르웨이	0	0	1	0	0	0
독일	3	0	1	0	1	0
러시아	0	0	0	0	1	0
미국	11	1	13	2	4	3
영국	1	0	2	0	0	0
오스트레일리아	0	0	0	0	1	0
이탈리아	0	0	1	0	1	0
중국	0	0	1	0	0	0
캐나다	1	0	0	1	0	0
프랑스	0	0	0	0	1	0
합계(명)	16	1	20	3	9	3
총계(명)	52					

*출처: 교육부 대학알리미 국가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2019)

KAIST에서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 전임교원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총 52명이다.(<표 16>) 국가별 현황을 보면, 중국 출신의 부교수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출신이다. 그 중, 미국 출신의 전임교원이 총 34명으로 전체 외국인 전임교원 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신남방지역 출신의 외국인 전임교원은 없다.

3) 국제협력

○ 소관 조직

KAIST는 대외 부총장실을 중심으로 유학생 정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대외 부총장실 산하의 국제협력처(International Office)는 본래 유학생과 교환 및 협업 프로그램을 전담하던 조직이었지만, 2019년 조직 정비 후 ODA와 학술 및 연구 활동에 관련된 대 국제기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했다. 조직 정비 전의 국제협력처는 예비유학생과 재학 중인 유학생 및 국제 교원 및 연구원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예비 유학생이 입학 승인을 받은 단계부터 유학생에게 연락을 취하여, 유학생이 학사를 시작하고 교육과정과 연구경험을 통해 졸업하기까지의 전 과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지원했다. 또한, 국제 및 교환 연구원과 교환학생의 방문과 한국인 학생의 해외 학교 교환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도 소관 업무로 포함하고 있었다.

국제협력처는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는 고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개 부처는 국제개발센터, 국제협력팀, 국제 교원 및 학생 지원팀과 국제공동체 증진 프로그램 전담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한국과학기술원: 국제협력처 조직 구성도

*출처: 한국과학기술원 국제협력처 웹페이지

국제개발센터(Center for Overseas Development)는 KAIST의 ODA 업무 조정과 사업 기획 및 진행을 전담한다. 2015년에 처 내부에 설치되었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도미니카와 에티오피아에 고등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최근 국제개발센터는 다음과 같이 내부 부서를 세분화했다. 학내 단체인 국경없는 공학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정보기술대학의 교원연수와 아제르바이잔 ADA대학의 IT 및 공과대학 설립에도 기여했다.

국제협력팀(International Relations Team)은 KAIST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연구기관 및 조직에 참여하여 협력 기회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원과 학생의 국제 협업 연구를 비롯하여 방문 및 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학점 및 학위 인증에

관한 사업이나 서머스쿨, 인턴십도 소관 사업이다.



그림 5 한국과학기술원: 국제개발센터 조직도

*출처: 한국과학기술원 국제협력처 웹페이지

국제 교원 및 학생 지원팀(International Scholar and Student Services)은 KAIST에 방문한 교원, 유학생, 교환학생의 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예비유학생이 입학 승인을 받은 단계부터 유학생에게 연락을 취하여, 유학생이 학사를 시작하고 교육 과정과 연구 활동을 통해 졸업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학사 업무를 지원한다. 비자와 보험을 비롯한 행정업무와 심리상담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 홍보 업무를 비롯한 등록, 수강, 성적 등 주요 학사는 입학처와 각 학과 대학별 팀의 소관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지원팀이 주관하지는 않는다. 다만 유학생과 교원이 참여에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해당 부서의 연락을 받아 국제 교원과 학생을 지원한다. 문화 및 교류 행사를 열고 유학생들에게 직업 및 교육 정보를 전달한다.

국제공동체 증진 프로그램 전담 부서(International Community Enhancement Program)는 학내 국제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증진 전담 부서는 국제 교원이 KAIST 내 주요 의사결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협력처 내의 국제협력처, 국제개발센터, 국제공동체 증진 프로그램 전담 부서가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KAIST는 연구개발의 국제적 협력을 위해 6개의 컨소시엄과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는 3

개의 컨소시엄과 모든 지역 및 국가를 포괄하는 3개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아시아 지역 3개 컨소시엄에는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Association of East Asian Research Universities(AEARU)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17개 연구개발중심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으로 정기 학술대회와 학교 단위의 교류회를 열고 있다. Asian Science and Technology Pioneering Institutes of Research and Education (ASPIRE) League는 아시아 지역 5개 학교가 모여 학생 간 친목과 학술 교류 행사를 열고 있다. Campus Asia는 칭화대학교, 도쿄공대, KAIST가 서머스쿨과 연구프로그램, 학점교환을 진행한다.

○ 국제협력 현황

총 231개의 대학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호주와 유럽의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의 학교와 다양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 전반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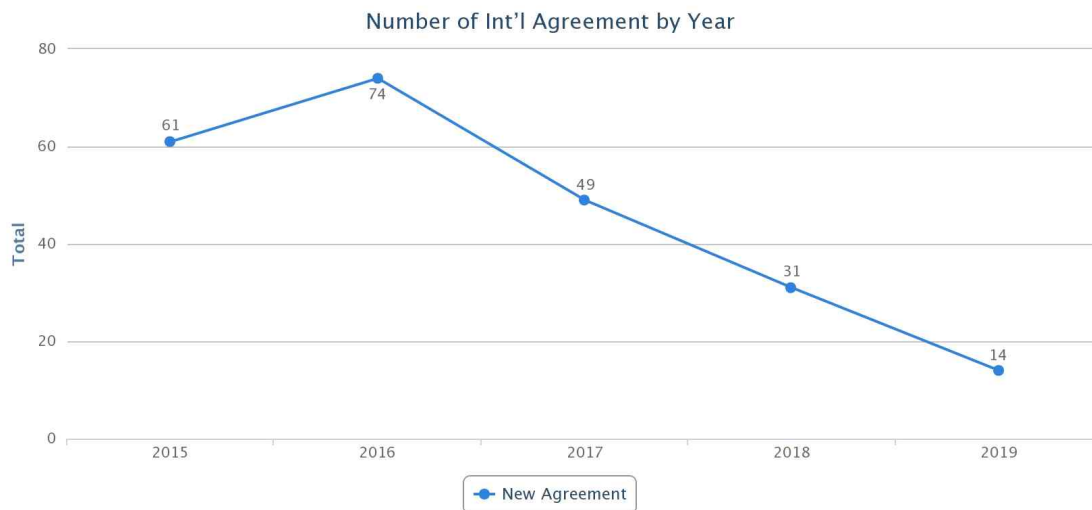


그림 6 한국과학기술원: 연도별 협약체결 횟수

*출처: 한국과학기술원 국제협력처 웹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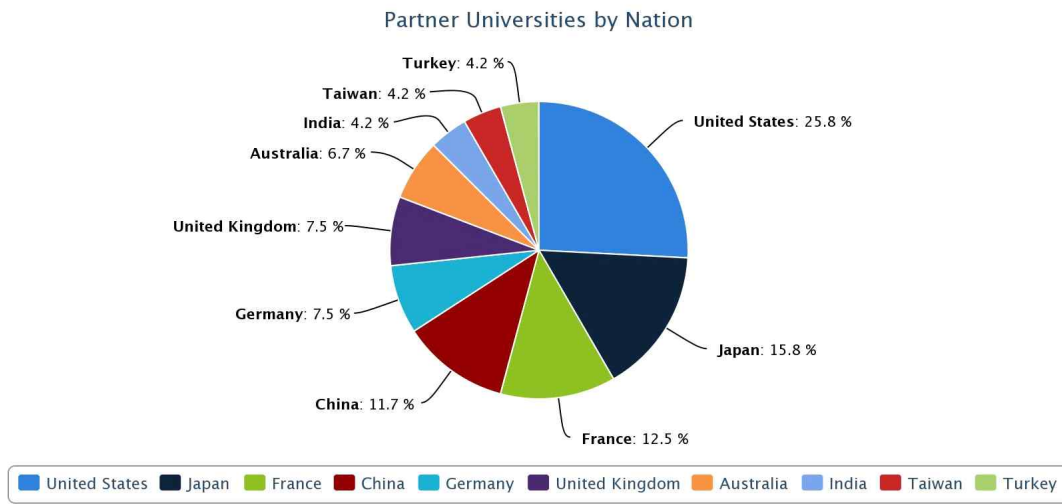


그림 7 한국과학기술원: 주요 국가별 협약 대학 분포

*출처: 한국과학기술원 국제협력처 웹페이지

표 17 한국과학기술원 신남방지역 기관 협약 현황

국가	기관명	기관형태	협약 형태
말레이시아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대학	일반
말레이시아	University of Malaya	대학	일반
말레이시아	University of Technology, Malaysia	대학	일반
베트남	Hano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대학	일반
베트남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	일반
베트남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대학	일반
브루나이	University of Brunei Darussalam	대학	일반, 교환학생
싱가포르	Google Asia Pacific Pte. Ltd.	기업	기타
싱가포르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대학	연구 협력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대학	일반, 교환학생
싱가포르	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	대학	일반, 교환학생
인도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Ahmedabad	대학	일반
인도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Calcutta	대학	일반
인도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Guwahati	대학	일반, 교환학생
인도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Madras	대학	일반
인도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Bombay	대학	일반
인도네시아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	일반

*출처: 한국과학기술원 국제협력처 웹페이지

KAIST는 신남방지역의 총 17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다. 인도가 5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협약 기관을 갖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 3개, 베트남 3개, 브루나이 1개, 싱가포르 4개, 인도네시아 1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있다. 협약 형태는 일반 협약이 다수이며, 몇몇 기관은 교환학생 협약을 맺고 있다.

4) 유학생 정책

○ 입학

KAIST는 학부과정 모집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진행하며, 수시모집의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정시모집은 2019년 기준 15명을 수능 성적만으로 진행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부 입학지원에 수능 성적을 요구받지 않으며, 지정된 형식의 입학 지원서와 고등학교 정보,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공인어학성적(영어), 수상실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별도의 모집 인원은 공고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자 면접 또한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등 학부과정 모집은 한국 국적의 학생을 모집하는 것과 별도의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은 국적에 관계 없이 모집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재정, 국적 증명 등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 외에 대학원 학위과정 지원은 한국 국적의 학생과 유사하며 같은 경쟁 절차를 거친다.

학위과정에 있는 유학생들은 모두 한국인 학생들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경쟁하는 절차를 거친다. KAIST의 외국인 입학 경쟁률은 2010년 이후로 상승하여 2014년에는 1:7.6으로 한국인 학생의 경쟁률인 1:6.7보다 높았다. 그러나 유학 지원자의 서류조작 등 부정입학 사건이 발생하여 유학생의 자격문제가 논쟁거리가 된 사례도 있다. 정부초청장학생제도나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학교의 특정 프로그램에 입학하기도 한다.

학사과정의 입학 절차는 'early', 'regular', 'late'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3개의 입학 과정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early와 late는 전년도 10월과 그해 5월에 입학처에서 별도 공지를 낸다. early 코스는 봄, 가을학기 중 희망 시기를 골라 학기를 시작할 수 있으나 regular와 late는 가을학기에만 등록을 시작할 수 있다. 지원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 고등학교 생활 기록 2) 출신 학교에 대한 설명 3) 영어 성적 4) 고등학교 성적 기록 5) 신원증명서 6) 재정 상태에 대한 서명 7) 선택적으로 수상 및 기타 성취 기록이다. 재정 상태에 대한 서명은 유학생이 재학 중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을 증빙하는 절차로 유학제도에 따라 모든 유학생이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학사과정에서 수능 점수를 요구하지

않으며, 면접은 서류를 통과한 학생에게 별도로 시행한다.

EARLY		
Application window opens	Sep.2. 2019	
Deadlines	Application	Oct. 25. 2019
	Recommendation	Oct. 31. 2019
Admission announcement	Jan. 3, 2020	
Reply to KAIST	Feb. 7, 2020	
Academic year begins	Spring 2020	Fall 2020
REGULAR		
Application window opens	Nov.4. 2019	
Deadlines	Application	Jan. 10. 2020
	Recommendation	Jan. 17. 2020
Admission announcement	Mar. 27, 2020	
Reply to KAIST	May. 15, 2020	
Academic year begins	Fall 2020	
LATE		
Application window opens	Mar.2. 2020	
Deadlines	Application	May. 22. 2020
	Recommendation Letter	May. 29. 2020
Admission announcement	Jun. 19, 2020	
Reply to KAIST	Jul. 10, 2020	
Academic year begins	Fall 2020	

그림 8 한국과학기술원: 모집절차 구분

*출처: 한국과학기술원 입학처 웹페이지

대학원 입학 절차는 ‘early’ 와 ‘regular’ 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보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더 많다. 연구 계획서와 장학 증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2장의 추천서도 필수 사항이다. 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과 과정에 대한 설명도 더 자세히 서술해야 하며 경력 기술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신원증명의 경우, 부모와 가족 관계에 대한 사항도 증명 내역에 포함된다.

○ 세부지원

• 재정지원

KAIST 내에는 두 종류의 장학생이 있다. 과기원장학생과 국비장학생이 있는데, 유학생은 국비장학생과 같은 지원을 받는다. KAIST에 입학하는 모든 유학생은 국

가장학생의 자격을 갖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과기원장학생은 등록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지만 국비장학생은 모든 등록금을 면제 받는다. 석사와 박사과정에 지원받는 생활비도 같은 액수를 지원받는다. 석사과정은 약 25만원을 받고 박사과정은 46만원의 금액을 2년 및 4년의 재학 기간 중 지원받는다.

학사과정의 경우, 카이스트 장학금과 국비초청장학금이 있으나, 대학원생의 경우 두 장학금 외에 특정 국적을 지닌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다. 중국 국적의 학생에게 생활비와 의료보험, 그리고 중국으로의 왕복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China-KAIST Scholarship’ 이 있다. 해당 장학금의 수혜자는 졸업 후 귀국해서 종사해야 한다. 러시아 국적의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등록금, 생활비, 의료보험, 여행지원금, 식대, 그리고 학술서적 구입비를 보조하는 ‘Russian Government Scholarship’ 도 있다. 해당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러시아로 귀국하여 3년간 러시아 내에서 의무 종사해야 한다. 또한, 대만 국적의 박사과정 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는 ‘Taiwan-KAIST Scholarship’ 이 있다. 브라질 시민에게 등록금과 여행지원금, 건강보험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Science without Borders Korea’ 의 지원 정책이 있다.

- 행정지원

국제 교원 및 학생 지원팀은 비자와 건강보험 등록/갱신을 지원하기 위해 학내의 외국인 구성원들의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등록/갱신 기간 중 지원팀이 동행하거나 위임받아 등록/갱신을 수행하기도 한다.

- 언어지원

대외협력처는 학교 내의 모든 학칙과 규정, 학교 외에서 요구하는 이민과 노동에 관한 제도를 번역하여 국제 학생과 교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학내 규칙과 규정은 과기원의 설립을 명시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의 소개부터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장학, 학과 선택 및 전과, 지도교수 활용 등에 대한 전반을 포괄한다. 해당 규정 및 학사와 관련된 영문 양식 또한 학교 포털과 협력처의 웹사이트와 사무실에 구비되어 있다. 교외에서 공간을 구하는 학생들에게 국제 교원 및 학생 지원팀은 부동산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제 교원 및 학생 지원팀은 기초/전공 교과목과 관련해 과목 수요조사를 통해 영어 사용이 가능한 멘토를 선발하고, 수업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KAIST는 재학생에게 영어졸업요건을 두고 있다. 교양과목에서 영어작문과 관련된 수업을 이수해야 하며 토익 775점 이상 등의 공인인증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학사과정 중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학 글쓰기(Scientific writing)’와 일부 입학 시 영어 기준이 미달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수업을 제외하면 2011년 당시 모든 수업은 영어 진행을 명시하고 있었다. 2015년 강성모 총장 재임 당시 영어 수업 비율 조정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했고, 교양 수업에서는 영어 수업과 한국어 수업의 비율이 동일해졌다. 2019년 현재 302개의 과목 중 194개의 과목이 한국어로 운영되고 있다. 전공과목은 모두 영어 수업 진행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과목에서는 한국어 설명을 병행하여 유학생들과의 소통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KAIST는 한국어 필수수업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외국인 교원과 학생(교환학생 포함)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업으로 총 1~3개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한국어 1과 2는 총 100시간의 한국어 연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한국어 3은 위 두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회화 중심의 실습과 퀴즈를 위주로 진행한다.

• 생활 및 문화지원

국제 교원 및 학생 지원팀은 정기 활동, 특별 행사,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기 활동은 주로 체육, 미술, 요리, 음악과 한국 문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권도 동아리와 타일 그림 그리기, 다도 수업이 열리고 있다. ‘국제 음식 행사(International Food Festival)’는 매 봄 학기 중에 열리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요리하고 음식을 나눈다. 이 행사에서는 구기 종목 게임과 달리기 등의 간단한 체육 행사도 같이 진행되며 사물놀이 등 한국 학생 동아리가 참여하기도 한다. 여행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된다. 템플 스테이, 민속촌 방문 등이 있다. 교원 및 연구원이 모이는 행사로 ‘국제 교원 모임(International Scholar’s Gathering)’과 모든 국제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송년회(Year-end Party)도 열린다. 이 밖에도 대전 외부로 이동하는 경로와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모든 외국인 학생은 내국인 학생과 같은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다. 일부 기숙사는 외국인 학생과 내국인 학생의 공동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곳도 있고, 외국인 학생 전용으로 구분된 구역도 있다. 전용 기숙사에는 요리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

어 있으나, 공간 부족과 관리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국제 교원 및 학생 지원팀은 외국인 학생의 심리상담과 기초/전공 교과목 학업 지원을 하고 있다. 상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상담사가 상담을 제공하며 1년 중 24시간 연락 채널을 개방하여 긴급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지원팀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어학센터에서 만든 한국어 가이드를 배포하고 있다.

또한, 국제 교원 및 학생 지원팀은 외국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해왔다. 현재는 국제학생조직(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 ISO)과 국제학생회(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를 제외하고는 국가별로 구성된 커뮤니티로부터 매년 신청서를 받아 지원금액을 선정하여 그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국제학생회는 학내 외국인 학생의 권익 향상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국제 음식 행사 등의 행사를 운영한다. 국제학생조직은 여행 등 친목/교류 행사를 주로 주관하지만, 취업 및 유학 기회 등을 공지하고 외국인 학생들의 서산 지역 플랜트 답사를 주최하기도 했다.

2.3.2. 포항공과대학교 (POSTECH)

1) 기관 개요

○ 설립 목적 및 주요 연구 분야

POSTECH은 1986년에 ‘과학기술분야의 지도자적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과학 연구와 산학협동 연구를 통하여 인류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중심의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연구 중심 대학이다. POSTECH은 2017년,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기술이전 수익과 산학협력 연구나 발명·특허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국제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연구비를 기준으로 전체 연구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입자/장물리(41.9%), 생화학/구조생물학 (7.0%), 반도체소자/시스템(3.5%)이다. 집행 중인 연구비 규모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따라 상위 20개 연구 분야를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포항공과대학교 상위 20개 연구분야 (2019년도)

순위	연구분야	금액(비율) *단위:억
1	입자/장물리	1035.7 (53.9%)
2	생화학/구조생물학	133.2 (6.9%)
3	분자세포 생물학	48.1 (2.5%)
4	반도체소자/시스템	43.8 (2.3%)
5	응집물질물리	35.2 (1.8%)
6	금속재료	31.2 (1.6%)
7	고분자재료	29.2 (1.5%)
8	나노화학공정기술	26.7 (1.4%)
9	의약품/의약품개발	25.9 (1.3%)
10	발생/신경생물학	22.2 (1.2%)
11	융합바이오	22.2 (1.2%)
12	유기화학	20.2 (1.0%)
13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17.4 (0.9%)
14	정보이론	17.2 (0.9%)
15	화학공정	16.3 (0.8%)
16	생물화학 공정기술	15.4 (0.8%)
17	광학	14.6 (0.8%)
18	나노화학	14.2 (0.7%)
19	신재생에너지	13.0 (0.7%)
20	고분자화학	12.8 (0.7%)

*출처: NTIS

2) 외국인 유학생

POSTECH에는 정규 외국인 유학생이 석사 및 박사과정에만 있다. 2019년 4월 기준 교육부에서 제공한 외국인 유학생 재학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9 포항공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현황

과정									합계 (명)
대학원								기타 연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학	자연과학	의학	계	공학	자연과학	의학	계		
17	2	0	19	34	36	0	70	53	142

*출처: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통계

2019년 4월 기준 신남방지역 외국인 유학생 재학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0 포항공과대학교 신남방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재학 현황

국가명	과정별							합계 (명)
	대학원						기타 연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학	자연과학	계	공학	자연과학	계		
말레이시아	0	0	0	1	0	1	2	3
베트남	1	0	1	4	6	10	1	12
싱가포르	0	0	0	0	0	0	5	5
인도	2	0	2	0	11	11	1	14
인도네시아	5	1	6	3	0	3	3	12
필리핀	0	0	0	2	0	2	0	2
합계(명)	8	1	9	10	17	27	12	48

*출처: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통계

3) 국제협력

○ 소관 조직

입학처와 기획처 내 국제협력팀 두 조직이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입학처 내 입학팀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최종 입학까지 진행을 한다. 국제협력팀에서는 입학이 확정된 학생이 학교에 도착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

갈 때까지 그 사이의 과정을 총괄하여 지원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업무는 국제협력팀과 입학팀이 협업한다.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교환학생을 포함한 비정규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한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전략 지역으로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현재는 이러한 지역을 따로 선정하지 않고 우수한 학생을 국적에 상관없이 유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매년 진행하는 유학박람회에 참석하여 홍보하고,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실시한다.

○ 국제협력 현황

POSTECH은 29개국 107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교수·학생 교류, 공동연구 진행 및 개도국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학술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 자매결연대학과의 단기유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공식 학점으로 인정한다.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중 신남방 국가의 대학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 포항공과대학교와 신남방 국가 대학 간의 학술교류협정

국가	대학	체결 연도
인도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Delhi	2010. 4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Madras	2010. 4
인도네시아	Institut Teknologi Bandung	2011. 8
대만	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	2010. 9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2006. 9
	National Taiwan University	2004. 10
태국	Chulalongkorn University	2012. 2
	Mahidol University	2015. 7
	Suranaree Univ. of Technology	2008.7
베트남	VNU Univ. of Science	2010. 5
	Hanoi Univ. of Science &Technology	1993. 11
	Ho Chi Minh City Univ. of Science	2010. 11
	Ho Chi Minh City Univ. of Technology	2010. 5
	Univ. of Engineering &Technology, VNU	2010. 5

*출처: POSTECH 국제협력팀 통계 (2018.10 기준)

4) 유학생 정책

○ 입학

POSTECH 내 외국인 유학생은 정규 학생과 비정규 학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원생에 한해 외국인 정규 학생을 내국인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비정규 학생으로는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자매결연학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연구프로그램을, 그 외 대학에 대해서는 방문프로그램(Visiting Program)을 최대 12개월 동안 POSTECH에서 진행한다.

외국인 유학생 선발 과정은 내국인 입학 전형과 동일하지만, 면접 과정에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별도의 한국어 공인 성적은 요구하지 않지만, TOEFL(IBT) 79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의 영어수준을 자격요건으로 가지고 있다.

○ 세부지원

• 재정지원

장학금과 관련한 업무는 학생처에서 담당한다.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의 하한선은 정해져있으나 능력 혹은 연구 참여의 차이에 따라 개개인이 받는 수입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전원은 대학원장학금을 받는다. 대학원 석사/통합은 1인당 월 1,219,000원을 지원하고, 박사는 월 1,495,000원을 지원한다. 신입생 특별 정착 장학금은 1인당 150~3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아시아 국적의 학생의 경우 POSCO Asia Fellowship 하에 2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 월 700,000원을 지원한다.

• 행정지원

교내 입학팀에서 선발부터 최종 입학 절차를 진행하고, 국제협력팀은 외국인 구성원 비자/출입국 업무 및 체류 관리를 위한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개강 이후 재학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외국인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2~3일 정도로 나누어 버스를 대절하고 출입국 사무소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외국인 등록 과정을 돕는다. 외국인 등록증은 학교에서 일괄 수령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POSTECH의 모든 외국인 학생은 본국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한국

사설 건강보험 중 하나를 가입해야한다. 학교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 언어지원

POSTECH은 국내 대학 중에서 최초로 ‘영어공용화 캠퍼스(Bilingual Campus)’를 실현했다. 외국인 구성원이 언어적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내 공문서 및 주요 행사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8학년 신입생부터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어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POSTECH은 정규 강의에 한국어 강좌가 없다. 대신 교내 어학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제공한다. 전문 강사가 주 2~3회 각 90분씩 진행한다. 비용은 월 10만원 정도이지만, 80%이상 출석할 경우 비용을 돌려준다. 초급과 중급과정이 있다.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희망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두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졸업요건에 한국어 능력 수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학원생의 연구실 출퇴근 시간과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협력팀에서는 한 학기에 10,000원의 비용으로 주 1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간단한 생활용어를 알려주는 한국어 수업을 제공한다. 국제협력팀에서 기획을 하고 강사를 자원 받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25~30명 정도의 학생들을 매 학기 가르치고 있다. 현재는 교수 사모 세 명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연습을 해보는 등 실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을 제공한다.

포항시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프로그램도 있다. 국제협력팀에서는 개설된 강좌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포항시청의 한국어 강좌를 등록하는 학생도 있다.

- 생활 및 문화지원

POSTECH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단기간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봄과 가을학기에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학생들이 학교에 도착하기 2~3개월 전부터 필요한 안내 내용을 준비하고 1대1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준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및 학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공한다. 오리엔테이션은 총 3일 동안 진행된다. 첫 날에는 정보마당(Information Session)으로 이루어지는데 오전부터 저녁까지 일반적인 생활 지원, 학사 안내(커리큘럼, 등록 과정), 성

폭력 교육, 연구윤리, 한국어 언어 교육 및 도서관 안내를 진행한다. 그 이후로는 법무부에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이틀정도에 걸쳐 포스코와 경주, 안동 마을 등을 견학하는 시간도 갖는다.

POSTECH은 외국인을 위한 2인 1실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다. 월 100,000원의 비용으로 비정규 외국인 학부 학생과 정규 대학원 학생이 지낼 수 있고, 총 144명을 수용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들이 직접 요리할 수 있도록 공동 부엌이 갖춰져 있다.

POSTECH의 특별한 점은 외국인 기숙사 외 기숙사 한 동이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숙사(Dorm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DICE)’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학생들도 생활할 수 있으며 학부와 대학원생이 모두 지낼 수 있고, 외국인 학생들도 정규와 비정규 학생 모두 생활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어 있고, 많은 시간을 연구에 집중하기 때문에 국제협력팀에서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 간의 교류를 도모하는 행사나 버디·멘토 프로그램은 따로 기획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DICE 내에서 많은 교류가 일어난다. 한국인 학생은 동장(Dean)과 집행부 역할을 한다. 국제협력팀에서 행정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생활관 운영 팀과 DICE 동장끼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것인지 논의한다. 엠티와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외국인 학생들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POSTECH은 외국인 전담 심리상담사를 두고 있다. 해외에서 심리상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교원이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 수업 안내와 학교생활 관련 심리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문화와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추석 및 설날 명절 행사와 송년회(Year-end Party)를 개최한다. 또한 5월에는 외국인 구성원들과 가족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소풍을 기획한다. POSTECH 학생 대사(POSTECH Student Ambassador, PSA)에서 문화행사,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돕고 내방객에게 안내를 한다. 내방객의 경우 해당국가 출신의 학생들에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 축제에 외국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DICE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협업하여 ‘국제 모임(International Pub)’ 공간을 운영한다. 국제협력팀에서 소액의 재정지원을 돕고 있다.

2.3.3. 울산과학기술원 (UNIST)

1) 기관 개요

○ 설립 목적 및 주요 연구 분야

UNIST는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2007년 9월 설립하였고 2009년 3월에 개교하였다. ‘창의’, ‘융합’, ‘글로벌화’, ‘선택과 집중’의 네 가지 전략 아래 각각 (1) IT 기반 학생주도적 토론식 수업 (Flipped Learning), (2) 전학생 무전공 입학, 2개 이상 학부 소속 의무화, (3)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전 교과 과정의 영어교육실시, 외국인 교수 및 학생 비중 20% 까지 확대, (4) 중점연구분야인 차세대에너지와 첨단신소재(기계, 에너지, 바이오) 분야 집중연구를 추구 혹은 시행하고 있다. UNIST는 2019년 현재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선도 대학’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상위 20개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표 22 울산과학기술원 상위 20개 연구 분야 (2019년도)

순위	연구분야	금액(비율) 단위:억
1	기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217.8 (20.3%)
2	신재생에너지	117.7.2 (11.0%)
3	기타 에너지/자원	42.4 (4.0%)
4	분자세포 생물학	39.7 (3.7%)
5	생물화학 공정기술	31.1 (2.9%)
6	화학공정	24.4 (2.3%)
7	반도체소자/시스템	23.5 (2.2%)
8	나노화학공정기술	23.3 (2.2%)
9	응집물질물리	21.6 (2.0%)
10	무기화학	19.8 (1.8%)
11	융합바이오	19.3 (1.8%)
12	소프트웨어	19.0 (1.8%)
13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18.4 (1.7%)
14	나노화학	18.3 (1.7%)
15	자동차/철도차량	17.2 (1.6%)
16	천문학	16.8 (1.6%)
17	고분자재료	15.2 (1.4%)
18	정보이론	12.8 (1.2%)
19	기타 경제/경영	12.1 (1.1%)
20	대기질관리	11.5 (1.1%)

*출처: NTIS

2) 외국인 유학생 및 교원

2019년 2월 기준으로 UNIST에는 총 49개국 319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70명의 외국인 교원이 있다.

표 23 울산과학기술원 신남방지역 유학생 및 교원 현황

국가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인도네시아	5	5	0
말레이시아	1	1	0
필리핀	4	0	0
싱가포르	0	1	1
태국	0	1	0
브루나이	0	0	0
캄보디아	0	0	0
라오스	0	1	0
미얀마	0	0	0
베트남	13	34	0
인도	1	23	3
소계(명)	24	66	4
총계(명)		90	4

*출처: UNIST 국제협력센터 구성원 통계 (2019. 2 기준)

외국인 유학생 319명 중 신남방지역 학생은 학부생 24명, 대학원생 66명으로 총 90명(28.2%)이다. 외국인 교원 70명 중 신남방지역 교원은 싱가포르 국적 1명, 인도 국적 3명으로 총 4명(5.7%)이다.

3) 국제협력

○ 소관 조직

UNIST에서는 국제협력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CIA)를 두고 UNIST의 국제화와 유학생 유치, 외국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캠퍼스의 글로벌 환경 구축, 문화 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외국

인 학생 및 교원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UNIST의 국제협력센터는 센터장 1명과 3명의 센터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협력 부서는 입학팀과 새내기 지원팀이다.

○ 국제협력 현황

UNIST는 총 16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러시아, 루마니아, 터키,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태국, 대만, 홍콩, 가나) 24개 대학과 협력 대학을 체결하여 꾸준한 학생 교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신남방지역의 대학은 총 2곳으로 태국 방콕(Bangkok)의 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Thonburi, 인도네시아 수라바야(Surabaya)의 Institut Teknologi Sepuluh Nopember(ITS)이다.

4) 유학생 정책

○ 입학

UNIST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학위과정(Degree Program), 교환학생 프로그램(Inbound Exchange Program), SPIKE(Summer Program of Internship and Korean Experience)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정규 학위과정은 학부과정과 석·박사과정 모두 외국인 학생이 정규 입학을 할 수 있다. 입학 절차는 크게 1차 서류 평가와 2차 면접 평가로 이뤄진다. 영어권 국가 출신이거나 학부 혹은 석사과정을 100% 영어로 이수한 학생을 제외한 모든 지원자는 1차 서류 평가에서 영어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세부지원

• 재정지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에는 크게 아래 네 종류가 있고 입학팀에서 장학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Global Uni-star Silver & Gold: 1인당 지원액은 Silver의 경우 월 33만원과 추가적인 Medal Plan, Gold의 경우 월 63만원과 추가적인 Medal Plan이며 지원자격은 국제 올림피아드 수상자이다.

(2) TA(Teaching Assistance) scholarship: UNIST 대학원생 중 조교(teaching assistant, TA)로 활동하는 학생(학기별 선발자에 한해 6개월간 지원)만 지원할 수 있다. 1인당 지원액은 수조교(head TA)는 석사급 월 30만원, 박사급 월 50만원, 일반조교는 석사급 월 20만원, 박사급 30만원이다.

(3) 학부 외국인학생 장학금: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입학생은 아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학기당 7,199,000원을 지급받는다. 단,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근로장학을 통해 매월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12학점 이상 이수

㉡ 1학년 중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 2학년 1학기 성적부터는 GPA 3.3 이상 등록금 전액, 2.7 이상 등록금 반액 지원

• 행정지원

(1) 보험: 국제협력센터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보험가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비자: 외국인 유학생은 다른 과학기술원들과 동일하게 D-2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국제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국 비자 포탈 웹사이트 주소와 국제협력센터 비자 업무 담당 직원의 이메일 주소도 제공한다.

• 언어지원

UNIST의 모든 교육 과정은 100% 영어 강의로 이루어지며,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언어에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은 Korean Language 1, 2로 각각 학습 기간은 7주, 수업료는 재학생일 경우 59,000원이다.

• 생활 및 문화지원

(1) 오리엔테이션: 국제협력센터에서는 학기별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주최한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업, 생활, 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기숙사: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는 7개동이며 모두 1인실과

2인실을 제공한다. 세탁실과 다림실은 모두 공동이지만 자치회실, 사감실, 공동취사장 등의 특별실 유무와 1인실, 2인실에 따라 기숙사비는 월 393,340원에서 659,650원 사이이다.

(3) 상담: UNIST 학생들은 헬스케어센터(Health Care Center)와 인권센터(UNIST Human Rights Center)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헬스케어센터는 UNIST 구성원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보호, 유지, 증진하기 위해 보건실, 상담실, 부속의원으로 이루어져있는 기관으로 센터장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임상심리사 1명, 간호사 1명, 전임상담사 3명, 행정원 1명, 객원상담사 2명을 두고 있다. 심리검사 및 부속 의원 진료, 개인상담, 채팅상담, 정신건강 도서대여, 수면 관리 등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4) 버디/멘토: 새내기 지원팀 내 기숙사 부서에서 담당하는 글로벌 정착 자문단(Global Residential Advisor, GRA)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새내기 외국인 유학생의 캠퍼스 및 한국 정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전에 국제협력센터에서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 간의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인 버디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지만 현재 GRA 프로그램만 남았고, 2019년 2학기부터 외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튜터링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5) 친목 행사: 외국인 유학생회(UNIST 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 UISO)는 신입생 환영 파티, 한국어 캘리그래피 클래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6) 책자: UNIST는 매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소개 책자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다. 책자에는 UNIST의 역사, 비전 및 목표, 교수진 소개, 연구 및 교육 역량과 인프라, 국제화, 캠퍼스 소개 등을 다루고 있다.

(7) 기타

본 절에서 언급한 생활 및 문화 지원 이외에도 UNIST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제협력센터에서 이민정책연구원(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er), 울주군 경찰서 등 타 기관의 도움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현재까지 ‘한국에서의 정착’, ‘한국 생활을 위한 기본법 지식’ 등의 강연이 진행된 바 있다. 또한 국제협력센터가 다양한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공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울주군 경찰서와 함께하는 야간 순찰 프로그램, 맹인을 위한 울산 복지센터와의 영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은

UNIST의 외국인 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3.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1) 기관 개요

○ 설립 목적 및 주요 연구 분야

DGIST는 2019년 현재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 대학(Innovative University Changing the World through Convergence)’ 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2034년까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를 6,000명 양성하는 것과, CoE(Center of Excellence) 10개 운영과 세계적 석학 50명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5개 설립하고, 연구소 기업을 200개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리더십 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융복합 교육’ 의 3대 교육철학을 통해 융합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표 2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위 19개 연구 분야 (2019년도)

순위	연구분야	금액(비율) 단위:억
1	정보이론	43.5 (5.3%)
2	치료/진단기기	33.7 (4.1%)
3	발생/신경생물학	33.1 (4.0%)
4	의약품/의약품개발	30.9 (3.8%)
5	뇌인지	23.3 (2.8%)
6	뇌공학	19.8 (2.4%)
7	뇌신경생물	19.1 (2.3%)
8	응집물질물리	16.0 (2.0%)
9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15.3 (1.9%)
10	기타 에너지/자원	15.3 (1.9%)
11	분자세포 생물학	12.9 (1.6%)
12	반도체소자/시스템	12.9 (1.6%)
13	뇌의약	11.7 (1.4%)
14	고분자재료	9.7 (1.2%)
15	금속재료	8.6 (1.1%)
16	신재생에너지	8.5 (1.0%)
17	로봇/자동화기계	8.5 (1.0%)
18	세라믹재료	8.4 (1.0%)
19	소프트웨어	8.0 (1.0%)

*출처: NTIS

2019년 DGIST는 86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약 340억 원을 과제연구비로 활용하고 있다. 금액에 따른 상위 19개 연구 분야는 <표 24>와 같다. DGIST 내 부설 연구소로는 한국뇌연구원이 있으며, 뇌·인지공학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등 뇌과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외국인 유학생

DGIST는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학사과정에 898명이, 대학원과정에 688명이 재적해 있다. 전체 학사 재적 학생 수 중 24명은 정원 외로 구분되어 있다.

표 2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재적 학생 수

학사 재적 학생			대학원 재적 학생		
계(명)	남	여	계(명)	남	여
898	614	284	688	523	165

*출처: 대학알리미 재적 학생 현황 (대학), 재적 학생 현황 (대학원) (2019. 4. 1. 기준)

DGIST는 2019년 현재 대학원에 한해 정규과정을 밟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총 50명의 유학생이 있으며, 그 중 자연과학계열 석사과정생 4명, 공학계열 석사과정생 11명이 재학 중이다. 석·박사통합과정은 자연과학계열 5명, 공학계열 2명, 총 7명이 있으며 박사과정은 자연과학계열 11명, 공학계열에 17명이 있어 총 28명이 재적해 있다. 유학생 중 TOEFL 530점 수준 이상의 학생 수는 23명이며, TOPIK 4급 이상의 어학 능력을 갖춘 학생은 없다. 외국인 유학생 중 35명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표 2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외국인 유학생 현황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자연·과학계열	4	11	5
공학계열	11	17	2
소계(명)	15	28	7
총계(명)			50

*출처: 대학알리미 외국인 유학생 현황 (대학원) (2019. 4. 1. 기준)

2018년 기준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이 석사과정에 19명, 박사과정에 26명, 석·

박사 통합과정에 7명, 총 52명이 재적했다. 이 중 석사과정 1명과 박사과정 1명이 중도탈락하여 2018년도에 3.8%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을 기록했다.

표 2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신남방지역 출신 유학생 현황

국가명	총계 (명)	석사과정			박사과정		
		자연	공학	계(명)	자연	공학	계(명)
말레이시아	2	1	0	1	1	0	1
베트남	6	0	0	0	5	1	6
인도	8	0	2	2	3	3	6
인도네시아	3	1	1	2	0	1	1
필리핀	2	1	1	2	0	0	0
총계(명)	21	3	4	7	9	5	14

*출처: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2019)

신남방지역 출신의 유학생 현황은 2019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말레이시아 출신 2명, 베트남 출신 6명, 인도 출신 8명, 인도네시아 출신 3명, 필리핀 출신 2명으로 총 21명이 재적해 있다. 학부과정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며 모두 대학원 과정에 재학하고 있다. 대학원의 전체 유학생 수 50명 중 신남방지역 출신 학생은 총 21명으로 42%에 해당한다. 전체 대학원 재적 학생 수 688명에 대해서는 약 3.0%에 해당한다. (2019년 기준, 교육부 대학알리미 재적 학생 현황(대학원))

DGIST에는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미국 국적의 교원 5명, 인도 국적의 교원 1명이 있다. 미국 국적의 교원 중 4명은 교수, 1명은 부교수이며 인도 국적의 교원은 부교수이다.

3) 국제협력

○ 소관 조직

외국인 구성원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대학원팀, 국제협력팀, 학생팀, 홍보팀이 있다. 홍보팀과 국제협력팀은 행정기구인 기획처의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으며, 학생팀은 행정기구인 학생처 산하에 있다. 대학원팀은 교육기구로, 대학원 산하에 있는 행정기관이다.

국제협력팀에서는 외국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 4회 정기 간담회를 통해 생활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구성원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행사를 연 2회 진행한다. 외국인 구성원들의 비자와 관련한 서류 발급 등의 절차는 국제협력팀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생활 지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학생팀은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건강보험 지출액 증빙 시 환급을 진행한다. 홍보팀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학교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외국인 학생 입학은 대학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 국제협력 현황

DGIST는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다. 다른 이공계 특성화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생대학인 DGIST는 입학 전형이 확정되면 해외 대사관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해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대사관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기도 한다.

스탠포드대학, 버클리대학, 버지니아대학, 괴팅겐대학, 총 4개 해외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영재학교 2개교, 과학고 7개교, 과학중점고 및 지역 일반고 5개교와 MOU를 체결하고 있다.

4) 유학생 정책

○ 입학

DGIST는 현재 학부과정은 유학생 모집을 진행하지 않는다. 대학원 학위과정의 유학생 입학 전형은 내국인 입학 전형과 동일한 양식의 입학 서류를 요구하며, 외국인 입학에 별도의 모집인원을 두지 않는다. 다만, 면접에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skype’ 를 활용한 면접을 시행하기도 한다. 별도의 한국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인영어시험 성적은 ‘신물질과학’ 전공과 ‘뉴바이올로지’ 전공 외에는 필수 제출 사항이 아니다. 제출 자료나 면접 방식은 학과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 세부 지원

• 재정지원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장학금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 액수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2019년 기준으로 한 학기 등록금은 학부와 대학원 모두 3,500,000원이다. 학사과정생들은 월 328,500원의 학자금

및 식비 지원, 생활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석사과정생과 통합과정생, 박사과정생은 연구 참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다른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으나, 공통적으로는 석사과정생이 월 620,000원, 통합과정생 및 박사과정생이 월 1,120,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 행정지원

유학생이 보험료를 지출한 후 이를 증빙하면 전액 환급하고 있다. 비자 획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 언어지원

DGIST의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유학생에게 지원되는 어학 과정은 ‘Korean Language 1, 2’가 있는데, 본 과정은 별도의 수업료 없이 외국인 교수, 연구원,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다.

- 생활 및 문화지원

국제협력팀에서는 외국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또한, ‘글로벌 라운지(Global Lounge)’를 운영하여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학내 구성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DGIST는 학부과정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며, 전부 대학원 과정에 있다. 따라서 별도의 버디나 멘토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국제협력팀은 연 4회 정기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구성원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연 2회 모든 외국인 구성원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하는 문화탐방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의 학사 정보와 학교 시설 안내, 인근의 마트나 병원 등 생활 정보를 담은 책자를 영문으로 발간하여 외국인 구성원들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2.3.5. 광주과학기술원 (GIST)

1) 기관 개요

○ 설립 목적 및 주요 연구 분야

1993년 설립된 GIST는 KAIST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과학기술원으로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한다. <표 28>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GIST는 기전공학, 신소재

공학, 정보통신공학, 환경공학 그리고 생명과학을 비롯한 첨단 공학 분야에 특성화되어 있다. 2009년까지는 대학원과정만 존재했으나 이후 학부생을 받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800명에 달하는 학부생을 포함하여 2,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GIST의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외국인 학생이 전체 대학원생의 10%를 차지한다.

표 28 광주과학기술원 상위 20개 연구 분야 (2019년도)

순위	연구분야	금액(비율) 단위:억
1	정보이론	57.0 (9.2%)
2	분자세포 생물학	40.2 (6.5%)
3	콘텐츠	31.5 (5.1%)
4	해양과학	22.7 (3.7%)
5	응집물질물리	22.4 (3.6%)
6	반도체소자/시스템	20.6 (3.3%)
7	고분자재료	19.8 (3.2%)
8	의생명과학	18.2 (3.0%)
9	소프트웨어	18.1 (2.9%)
10	치료/진단기기	16.0 (2.6%)
11	대기질관리	15.5 (2.5%)
12	의약품/의약품개발	15.2 (2.5%)
13	신재생에너지	13.9 (2.3%)
14	대기과학	13.0 (2.1%)
15	융합바이오	12.3 (2.0%)
16	위해성 평가/관리	12.2 (2.0%)
17	발생/신경생물학	11.5 (1.9%)
18	광학	11.2 (1.8%)
19	세라믹재료	9.2 (1.5%)
20	정보보호	8.7 (1.4%)

*출처: NTIS

2) 외국인 유학생 및 교원

2019년 기준으로 GIST에는 학사과정에 946명, 대학원과정에 1,317명이 재적해 있다. 전체 대학원 재적 학생 수 중 27명은 정원 외로 구분되어 있다.

표 29 광주과학기술원 재적 학생 수

학사 재적 학생			대학원 재적 학생		
계(명)	남	여	계(명)	남	여
946	720	226	1,317	1,028	289

*출처: 대학알리미 (2019. 4. 1. 기준)

GIST는 2019년 현재 학부과정에 유학생 1명이 있는 것 외에는 대학원과정에 한해서만 정규과정을 밟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총 114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으며, 자연과학계열의 석사과정이 7명, 공학계열의 석사과정이 32명, 자연과학계열의 박사과정이 13명, 공학계열의 박사과정이 62명 재적 중이다. 외국인 유학생 중 약 17.5%만 자연과학계열을 전공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중 103명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표 30 광주과학기술원 외국인 유학생 현황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자연·과학계열	7	11	2
공학계열	32	51	11
소계(명)	39	62	13
총계(명)	114		

*출처: 대학알리미 외국인 유학생 현황 (대학원) (2019. 4. 1. 기준)

2018년 기준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이 석사과정에 27명, 박사과정에 69명, 석·박사 통합과정에 11명, 총 107명이 재적했다. 이 중 석사과정 1명과 박사과정 5명, 석·박사 통합과정 1명이 중도탈락하여 2018년도에는 6.5%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을 기록했다.

표 31 광주과학기술원 신남방지역 출신 유학생 현황

국가명	총계	석사과정			박사과정		
		자연	공학	계	자연	공학	계
말레이시아	4	0	1	1	1	2	3
베트남	21	0	6	6	2	13	15
인도	14	0	3	3	2	9	11
인도네시아	3	0	2	2	0	1	1
태국	1	0	0	0	0	1	1
필리핀	8	0	4	4	0	4	4
총계(명)	51	0	16	16	5	30	35

*출처: 교육부 2019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2019. 4. 1. 기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2019년 4월 1일 기준 GIST의 전체 유학생 수는 114명이며, 이 중 신남방지역 출신 학생은 석사와 박사과정에만 총 51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 대비 약 44.7%에 해당한다. 신남방지역 출신의 유학생 총 51명은 말레이시아 출신 4명, 베트남 출신 21명, 인도 출신 14명, 인도네시아 출신 3명, 태국 출신 1명, 필리핀 출신 8명이다. 외국인 교원은 총 13명으로 전체 교원 190명의 6.8%를 차지한다.

3) 국제협력

○ 소관 조직

교내의 외국인 구성원과 관련된 업무는 GIST의 대외협력팀에서 총괄하고 있다. 대외협력처 산하의 대외협력팀은 여러 외국인지원 프로그램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진할 뿐 아니라 해외 대학과의 MoU를 체결하는 역할 또한 맡고 있다. 교학처의 학생팀에서도 외국인 입시와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외국인 입학 전형의 경우 입학사정관팀이 행정을 담당한다.

○ 국제협력 현황

GIST는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다. 하지만 수업과 학위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영어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GIST는 해외의 많은 대학과 MoU를 체결하였다. 현재 GIST는 아시아 39개, 유럽 17개, 미국 9개,

아프리카 5개, 오세아니아 3개, 그리고 남아메리카 1개 대학을 비롯하여 108개 연구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신남방 국가의 대학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 광주과학기술원 신남방 국가 협력 기관

국가	협력 기관 이름
베트남	Hanoi University of Technology
베트남	Vietnam National Centre for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NCST)
베트남	Vietnam Institute for Water Resources Research (VIWRR)
베트남	Ho Chi Mihn City University of Technology
베트남	Hanoi University of Science
필리핀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UPD)
태국	Chulabhorn Research Institute
태국	Chulalongkorn University
태국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미얀마	Yangon Technological University
말레이시아	University of Malaya
말레이시아	Universiti Putra Malaysia
말레이시아	Universiti Malaysia Sabah
말레이시아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라오스	Naional University of Laos (NUOL)
인도네시아	Institut Teknologi Bandung (ITB)
캄보디아	Institute of Technology of Cambodia
캄보디아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인도	National Chemical Laboratory
인도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haragpur (IIT-KGP)

*출처: 광주과학기술원 대외협력팀

4) 유학생 정책

○ 입학

GIST는 현재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 모두를 대상으로 유학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12페이지 가량의 영문 책자를 통해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를 비롯해 비전, 집중 연구 분야 및 연구 성과와 지원 요건 및 입학 과정, 공항에서 학교로 가는 경로 등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의 제출 서류 및 선발 과정이 동일하며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전화상으로 진행된다. 대학원 학위과정의 유학생 입학 전형은 내국인 입학 전형과 동일하다. 별도의 한국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인영어시험 성적은 필수 제출 사항이다.

○ 세부지원

• 재정지원

GIST에 진학하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GIST 외국인학생 장학금’을 통해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된다. 이에 더해 외국인 재학생들에게 생활비·연구장려비·국민건강보험·항공료 등을 지원한다.

• 행정지원

유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학생들이 지불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60%를 GIST에서 환급해준다. GIST 재학생 전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기숙사 시설이 제공되며, 외국인 재학생의 87%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 언어지원

GIST의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외국인 학생은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한국어 수업을 들어야 한다.

• 생활 및 문화지원

2018년의 집계를 기준으로 볼 때, GIST의 학부과정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 명뿐이다. 이 때문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버디나 멘토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 GIST의 국제협력팀은 학사 정보를 비롯하여 학내 조직, 인근의 마트나

종교 시설 등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배포하여 외국인 구성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국제협력팀은 매년 ‘문화의 밤(Culture Night)’ 이라는 행사의 개최를 지원하는 등 여러 문화권 출신의 학생들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4. 시사점

Study Korea (2004)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인해 2000년 초~2000년대 후반에 유학생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우수 유학생의 선발 및 질적 관리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고등교육 수요의 많은 부분이 중국의 상황에 의존적임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 수출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신남방지역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5개 대학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유학생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재정·행정·언어·생활·문화지원의 질적인 측면에서 학교 간 세부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간 편차가 존재하는 유학생 지원 제도 분야 중 하나로 한국에서의 적응 및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장학금 제도가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로부터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우리 측 대학 혹은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장학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유학생 유치 전략 및 지원의 측면에서 각 학교에서 눈여겨볼만한 강점들이 있다(<표 10> 참조). 첫째,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KAIST는 타 과기특성화대학에 비해 월등히 많은 231개의 해외대학(신남방지역 국가 대학은 17개)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남방지역 유학생들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정지원의 측면에서 DGIST를 제외한 4개 과기특성화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있어 유학지를 선택하는 외국인 학생의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GIST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고, 생활비, 연구장려비, 국민건강보험,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KAIST와 POSTECH에서는 비자 등록 및 갱신 시 지원팀이 직접 학생들과 동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DGIST의 경우 건강보험료 전액을 환급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언어

지원의 측면에서 각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의를 각기 다른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나, 특히 GIST의 경우 외국인 학생들의 졸업요건으로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의 생활 및 문화지원의 측면에서, KAIST와 UNIST의 경우 각각 국제학생회와 외국인 유학생회를 통해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창구를 마련하였고, KAIST와 POSTECH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유학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해 학교 차원에서 세심히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학생의 출신 국가 및 전공, 각 대학의 주요 연구 분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제도는 5개 대학에 전반적으로 결여되어있다. 일반 종합대학과 비교했을 때 과기특성화대학 특수성을 반영한 유학생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분야에 비해 학습 및 연구내용과 졸업 이후 진로 간의 관계가 밀접한 이공계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유학생의 재학 시기와 졸업 이후의 시기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진로설계 지원 제도를 교내·외 차원에서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5개 대학의 유학생 지원 제도는 학교 입학 이후부터 학교 졸업까지의 기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종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신남방지역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학교 입학 이전(신남방 현지에서의 한국 과기특성화대학 및 한국 고등교육 설명회 개최 등)부터 입학 이후(취업, 인턴십 연계 등)의 기간까지 아우르는 유치, 지원 제도 및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각 과기특성화대학의 우수 지원 제도 및 우수 사례 등을 학교 간에 공유하고 협력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3.1. 해외 사례 분석의 취지

본 절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과학기술 우수 인력 유치 정책에 대해 살펴 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 미, 일, 중, 호 5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분석을 주요정책, 현황으로 나누어 표33에 정리하였다. 주요 국가별 유학생 유치 정책은 미국, 일본, 중국, 호주의 순서로 분석한 뒤 3.6.장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33 한·미·일·중·호 5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주요정책	전개과정	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Study Korea 2020 (2013~2020)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초청 사업 확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1946) →국가방위 교육법(1958) →이민법개정 (1965)	Look East 정책 (1970년대 말) →유학생 30만인 계획	천인계획 (2008) →개혁개방정책(1978) →유학중국계획(2010)	ESOS법안 ·CRICOS제도 ·National Strategy for International Education 2025
	배경 및 목적	2020년까지 유학생 20만명 유치 목표, 우수 유학생의 선발을 비롯한 질적인 관리	스푸트니크 위기 →과학기술 연구와 대규모 투자 →경제적 실리 강조	교육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난 →2020년까지 유학생 30만명 목표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일본 국제경쟁력 강화	자국대학의 국제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유지 및 발전 →2020년까지 유학생 50만명 목표	2009년 세계경제위기 및 인도 유학생 대규모 시위 →유학생의 질적 경험을 중시함
	기관	교육부와 교육부 산하의 국립국제 교육원	별도의 연방 기구는 없지만 미국 국무부의 교육 문화국 산하 EducationUSA 유사 기능 수행	일본학생지원기구 (JASSO)	-	국제교육위원회 (Council for International Education)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정책	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 및 제반 규제 완화	STEM (과학·기술 ·엔지니어링·수학)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 전략적 유치정책	아시아 인재 자금구상: 산업계와 대학이 연계하여 우수한 유학생이 일본에서 유학 후 취업까지 지원	아세안-중국 협력센터 복지 정책 및 장학금 지원 외국유학생 종합보험	호주교육자격제도 ·대학교육수준 및 기준관리국을 통해 교육의 질 보장 유학생 교육서비스 ·유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연방정부에 등록하여 체계적 관리
현황	인원 (단위:명)	142,205	1,094,792	298,980	492,185	872,664
	국가 (단위:명)	중국: 68,537 베트남: 27,061 몽골: 6,768 우즈벡: 5,496 일본: 3,977	중국: 363,341 인도: 196,271 한국: 54,555 사우디아라비아: 44,432 캐나다: 25,909	중국: 86,439 베트남: 42,083 네팔: 15,329 한국: 14,557 대만: 7,423	한국: 50,600 태국: 28,608 파키스탄: 28,023 인도: 23,198 미국: 20,996	중국: 152,638 인도: 71,681 네팔: 28,124 베트남: 15,699 말레이시아: 13,983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신남방지역 국가별 유학생 수 (단위:명)	베트남: 27,061	인도: 196,271	베트남: 72,354	태국: 28,608	인도: 71,681	
	인도네시아: 1,438	베트남: 24,325	인도네시아: 6,277	인도: 23,198	베트남: 29,894	
학위과정 (단위:명)	말레이시아: 1,169	인도네시아: 8,540	태국: 3,962	인도네시아: 15,050	태국: 27,689	
	인도: 1,107	말레이시아: 8,271	말레이시아: 3,094	라오스: 14,645	인도네시아: 20,849	
	미얀마: 675	태국: 6,636	필리핀: 2,389	베트남: 11,299	필리핀: 12,696	
	어학연수: 20,033	학부: 442,736	전문연수대학: 67,475	비학위과정: 234,063	고등교육: 398,159	
대학 (전문대학): 7,187	석사: 225,883	대학: 84,857	학부: 173,060	전문기술학교: 243,013		
석사: 3,005	박사: 123,500	대학원: 50,184	대학원: 85,062	어학연수: 154,925		
박사: 2,048	비학위: 65,531					
기타연수: 1,408	OPT: 203,462					

*출처: 본 보고서 3장 내용 요약 (통계자료 2018년 기준)

3.2. 미국

3.2.1. 미국의 유학생 유치정책의 배경

미국은 세계 최대의 유학생 유치 국가다. 2018년 기준 1,094,792명의 외국인이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이다. 전세계 유학생 대비 미국 유학생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전세계 고등 교육 유학생의 24%에 달하는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유학생 산업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고등교육은 미국이 수출하는 서비스 중 5번째로 큰 분야이고, 미국 내 유학생들은 매년 39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집계된다⁶⁾.

미국은 가장 많은 유학생들을 수용하는 국가인 만큼 유학생 정책에 유구한 역사가 있다. 본 절에서는 Margaret O' Mara(2012)을 요약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정책 흐름을 개괄한다.

2차 대전 종식 이후 미국은 국제주의를 통한 평화의 추구하고 문화적 교류를 표방하며 유학생과 교환학생의 적극적인 유치를 추진하였다. 1946년 제정된 폴브라이트법과 이를 토대로 한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이를 방증한다. 폴브라이트법은 타국과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는 명목 하에 제정되었고,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은 국외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미국인뿐 아니라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우수한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장학금을 부여하였다.

미국이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을 비롯한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또다른 배경에는 40년대 말에 이르러 격화되었던 냉전 대립이 자리한다. 미국의 관료들은 유학생 유치 정책이 반공 프로파간다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폴브라이트 이사회에 보내는 서한에서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이 “공산당의 거짓과 왜곡에 맞서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 (Truman, 1951)⁷⁾ 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관료들은 미국을 체험한 유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미국적 자유’의 중요성을 설파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에 더해 1957년, 소비에트의 성공적인 우주선 발사가 미국 내에서 ‘스푸트니

6) National Association of Foreign Student Advisers (NAFSA)

<https://www.nafsa.org/policy-and-advocacy/policy-resources/nafsa-international-student-economic-value-tool>

7) Margaret O'Mara의 'The Uses of the Foreign Student'로부터 재인용.

크 위기' 를 촉발하면서 유학생 유치 정책 비롯한 대학의 행정적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소비에트에 과학기술 개발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의 정치인들은 1958년 국가방위교육법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을 통과시켰고, 미 연방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였다.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파견과 유치를 위한 대학 내 어학센터의 설치 또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 이르러 냉전이 데탕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유학 유치 정책의 정치적인 성격은 한결 열어졌다.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유학생을 수용하는 등 유학생 정책의 정치적 성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유학생 유치가 갖는 경제적인 실리가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65년 이민법의 개정으로 비-유럽계 유학생들도 미국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게 되자 미국 경제에 대한 엘리트 이민자들의 기여가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유학생의 유치는 세계 각국의 인재들을 흡수하여 대학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STEM 분야 유학생의 비율도 이 시기에 확대되었는데, 일각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유학생들이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1980년대에 집권한 레이건과 부쉬 행정부는 적극적인 친-시장 정책을 펼쳐 대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대폭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 재정의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졌고, 유학생의 유치는 대학의 재정 확보를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가 되었다. 많은 대학이 국제 학생들의 등록금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⁸⁾. 따라서 미국의 많은 대학은 개별 대학 차원의 아웃리치와 홍보를 통해 외국인 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유학생 유치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1954년 집계 당시 3만 4천명에 불과했던 미국 내 유학생의 숫자는 2018년 100만명에 달하게 되었다. 미국 연구 대학의 명망과 높은 세계 대학 순위가 미국 유학생들이 미국으로의 유학을 택하는 가장 큰 유인이라고 한다⁹⁾. 이 밖에도 일자리 전망, 영어의 사용, 이민자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문화 등이 유학생 유입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반-이민 정책의 시행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심화가 신규 유학생의 숫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

8)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American Science and Engineering' (2017).

9) Lee, J. J. (2008). Beyond Borders: International Student Pathways to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2(3), 308-327.

히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미국과 중국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미국 내 신규 중국인 유학생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정부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유학생 비자의 발급 절차가 부적 까다로워졌음을 지적하며 ‘미국 유학 경계령’을 발효하였다. 중국인 학생들이 미국 내 유학생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인 유학생의 지속적인 감소는 대학 차원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3.2.2. 미국의 유학생 정책 프로그램 및 거버넌스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크게 네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학을 비롯한 공식적인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은 F-1 비자를 발급받으며, 교환학생을 비롯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J-1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학이 아닌 기관에서 직업 교육을 받는 외국인의 경우 M-1 비자가 필요하다. F-3 과 M-3 비자는 미국의 교육 기관 혹은 직업 교육 기관으로 통학을 하는 캐나다와 멕시코 시민들에게 요구된다.

F-1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의 경우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제도를 통해 추가로 12개월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진학과 취직을 준비할 수 있다. OPT 비자 보유자는 비자 만료 전까지 현장 실습을 겸해 기업에서 일할 수 있지만, 1년 안에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스폰서를 찾아 비자를 전환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STEM 분야 전공자를 자국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STEM 분야 전공자에 한해 OPT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 STEM 전공자의 경우 졸업 이후 최장 36개월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고등교육 거버넌스의 분권화된 구조로 인해 비자를 제외하곤 유학생 관리와 지원을 수행하는 별도의 연방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미국무부(The U.S. Department of State)가 초기 비자 지원 및 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미국국토안보부(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입국 후 이민 과정을 담당한다. 대신 국무부의 교육문화국(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산하 EducationUSA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EducationUSA는 전세계 170여 국의 400여 개 국제학생지원센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로, 미국 유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대학 지원 및 등록, 비자 취득, 재원 조달, 미국 입국 등의 행정적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여러 행사를 통해 미국 대학의 우수성과 교육 및 장학제도를 홍보하고 미국 대학과 타국 대학의 협력을 도모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NeXXt Scholars Initiative’ 프로그램의 경우 STEM 분야 진학을 희망하는 이슬람 국가 출신 여학생들을 미국의 여자 대학교들과 매치하여 주고 이후의 학업을 비금전적인 방식으로 지원한다.

미국의 유학생 관련 정책은 군사 안보 이슈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중 ‘Visas Mantis’ 정책¹⁰⁾이 미국의 민감한 과학기술이 국외로 불법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자 허가 과정의 일부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기술 경계 리스트(TAL)에서 규정한 군사, 이학, 공학 등 17개의 학문 분야 200여 개의 전공에 속한 학생들은 모두 ‘Visas Mantis’ 심사 과정을 거쳐 통과해야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9.11 테러 이후 절차와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지기는 하였으나, 비자 발급이 지연됨에 따라 유학생들의 수업 참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며 2005년 절차를 개선하기도 하였다¹¹⁾. ‘Visas Mantis’ 심사에 있어 담당관을 더 배정하고 전자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었다. 또한, 2002년 의회가 ‘강화된 국경안보와 비자입국 개정법(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을 공포하며 미국의 DHS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방문 학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SEVIS)’을¹²⁾ 구축하기도 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정부 차원의 초청 장학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의 정부 장학금은 모두 미국 국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기에, 그 재원은 미국 국무부 예산에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개발도상국에 원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USAID의 장학 프로그램과 우수한 유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ECA(U.S. the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의 여러 장학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USAID의 교육 분야 협력에는 기초교육과 고등교육 분야로 크게 나누어져 있으며, 고등교육 분야 원조의 목적은 고등교육에의 접근성, 기여도, 질을 높이는 데 있으며 글로벌 지식경제 시스템에서 역량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함이다(Tarnoff, 2016)¹³⁾.

10) Extension of Validity for Science Related Interagency Visa Clearanc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Spokesman. February 11, 2005. <https://2001-2009.state.gov/r/pa/prs/ps/2005/42212.htm>

11) GAO. (2005). Streamlined Visas Mantis Program Has Lowered Burden on Foreign Science Students and Scholars, but Further Refinements Needed. <https://www.gao.gov/new.items/d05198.pdf>

12) Exchange Visitor Program: SEVIS Regulations. Federal Register Vol. 67, No. 239. Retrieved from https://j1visa.state.gov/wp-content/uploads/2012/09/sevis_12_12_02.pdf

13) USAID. (2019). USAID Education: Higher Education.

USAID는 고등교육 분야 훈련(training)의 명목으로 국가별로 몇몇 장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예로 미국에서의 학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동남아시아 국가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인도네시아 PRESTASI 장학 프로그램(Program to Extend Scholarships and Training to Achieve Sustainable Impacts) 및 필리핀의 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 연구 및 혁신프로그램(Science, Technology, Research,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등이 있다.

ECA의 장학 사업은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s)의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과 Timor Leste 장학 프로그램, Young African Leaders Initiatives 등이 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125,036,000으로 2020년 해당 사업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한다. 미국 국무부에서 제공한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예산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34 미국: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예산

	FY 2018 실제 집행액	FY 2019 추산	FY 2019 요청	FY 2020 요청	FY 2019 대비 요청 변화량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646,143	646,143	159,000	309,626	150,626

*단위: USD 1,000

*출처: FY 2020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¹⁴⁾

3.2.3. 미국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요약

본 절은 국제교육협회(IEE)의 Open Doors Report 17-18를 발췌하여 종합·요약하였다.

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1865/USAID_Education_HigherEd_FactSheet_Apr19.pdf

14)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2019).
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1868/FY_2020_CBJ.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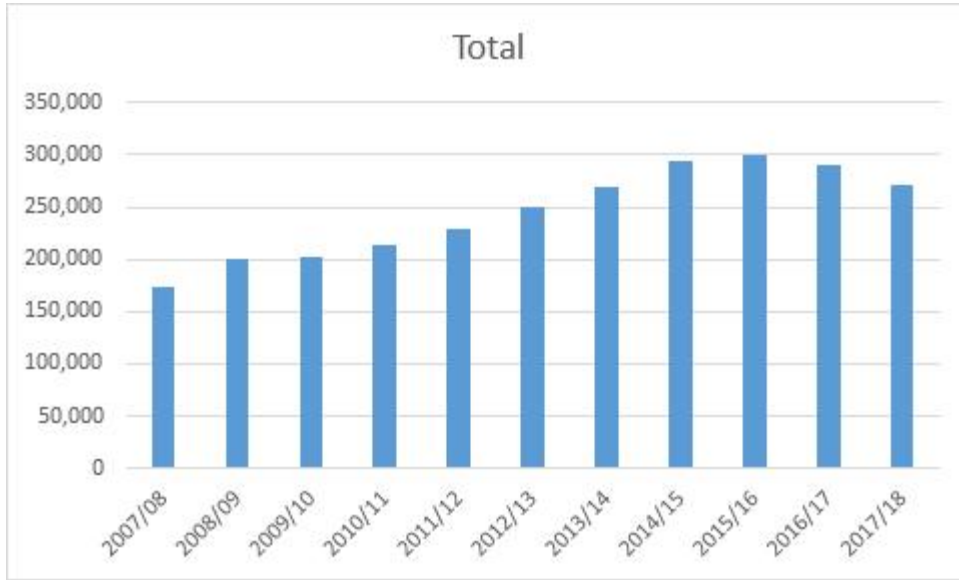


그림 9 미국: 연도별 신규 유학생 수(명)

*출처: Open Doors Report 홈페이지 연도별 데이터

2018년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은 총 1,094,792명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5% 증가한 숫자이지만,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신규 등록 외국인 학생의 경우 지난 2년간 오히려 줄어들었다. 미국 내 유학생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 출신의 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규 유학생의 감소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35 미국: 외국인 유학생 주요 출신 국가

구분	중국	인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기타	계
학생 수(명)	363,341	196,271	54,555	44,432	25,909	410,284	1,094,792
비율(%)	33.2	17.9	5.0	4.1	2.4	37.5	100

*출처: 2018 Open Doors Report

표 36 미국: 신남방 국가별 유학생 현황

구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학생 수 (명)	196,271	24,325	8,650	8,271	6,636	4,575
비율 (%)	77.2	9.6	3.4	3.3	2.6	1.8
구분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계
학생 수 (명)	3,225	1,569	659	104	53	254,338
비율 (%)	1.3	0.6	0.26	0.04	0.02	100

*출처: 2018 Open Doors Report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유학생 중 중국 출신의 학생이 363,34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인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캐나다 국적의 유학생이 중국인 유학생 다음으로 큰 비율을 차지한다. 미국 유학생의 23.2%가 신남방지역 출신이며 이 중 출신 유학생이 가장 많은 인도를 제외하면 총 58,067명의 학생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인도를 제외한 신남방 출신 학생 중에선 베트남 (24,325명), 인도네시아 (8,650명), 말레이시아 (8,271명) 순으로 많은 유학생이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중에서 베트남의 경우 이전 해와 비교했을 때 신규 유학생의 숫자가 8.9% 증가하였다.

교육과정으로 유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학사과정이 442,736명 (40.4%)로 가장 많고 이어 석사과정 225,883명 (20.6%), 박사과정 123,500명 (11.3%) 순으로 많다. 언급한 OPT 제도를 통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졸업생도 203,462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18.6%에 달한다. M-1 비자 등을 통해 비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65,631명으로 전체의 6.0%에 해당한다.

표 37 미국: 외국인 유학생 교육 과정

구분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비학위과정	OPT	계
학생 수(명)	442,736	225,883	123,500	65,631	203,462	1,094,792
비율(%)	40.4	20.6	11.3	6.0	18.6	100

*출처: 2018 Open Doors Report

유학생들을 전공별로 분류하면, 엔지니어링 전공이 232,71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비즈니스(196,054명), 수학과 컴퓨터 과학(186,003명), 사회과학(83,708명), 생명과학(78,700명)의 순이다. STEM 분야 유학생을 모두 합치면 총 532,582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48.6%에 해당한다. 신남방 출신 학생들의 경우 STEM 분야 전공자의 비율이 더욱 높다. 일례로 인도 출신 유학생들의 경우 81.1%가 STEM을 전공 중이며, 이 중 대부분은 수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한다.

3.3. 일본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유학생 유치 강국이다. 제도적, 교육 정책에 있어 유사점이 많은 일본의 사례는 시사점 도출에 중요한 사례이다. 본 절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책 동향과 참고자료를 파악하고 이중 「일본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시사점」(강동관, 설동훈, 임경택, 2012),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14),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김한나, 우한솔, 이승호, 2016)를 중심으로 재 분석 및 종합·요약하였다.

3.3.1.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의 배경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 중 유학생 유치 정책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이 펼쳤던 ‘아시아의 동쪽을 보라(Look East)’는 정책은 전통적인 유학국이었던 서부 유럽과 미국에서 일본으로 시선을 돌리게 했다 (강동관 외, 2012: 6). 1970년대 말부터 양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생을 대량 파견하기 시작했고, 이는 교육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난 등의 문제의식에 따라 교육개혁을 시행하려 했던 일본의 이해와 맞물려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시작되었다.

1983년 5월 진행된 ‘21세기 유학생정책간담회’ 이후, 1983년 8월 31일에 「21세기의 유학생정책에 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문부성이 이 보고서를 받아들여 유학생 수용을 위한 「21세기 유학생정책의 전개에 대하여」(1984.6.29.)로 정리해 21세기 일본 유학생 정책의 지침이 되어 왔다” (강동관 외 2012: 6). 1983년 나카소네 당시 수상이 주창한 ‘유학생 10만인 계획/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계획/ 유학생 수용 10만인 계획’은 첫째, 유학생 교류를 통해 외국과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교육이나 연구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며 개발도상국의 인재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유학생 정책이 일본의 문교정책 및 대외 정책과 관련하여 주요한 국책의 하나라는 점, 둘째, 유학 경험을 획득한 유학생이 각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귀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점, 셋째, 1983년 당시의 여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에서 수용하고 있는 유학생의 수가 매우 적다는 배경 아래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유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며, 유학생을 위한 일본어 교육과 기숙사 확보에 나서는 등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당시의 법무성은 문부과학성보다 일찍이 1984년에 유학생들의 비자취득을 위한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기 시작했고, 기존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던 유학생이나 일본어학교생이 자격 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 20시간 이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동관 외(2012: 17)는 정부 차원에서 유학생의 유치 기반을 다져온 덕에, “일본 내에서 유학생 수용의 중요성을 서서히 인식하게 되었고, ‘유학생문제’가 ‘외국인노동자문제’와 격리되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2006년 아베신조 총리는 일본이 더 열린 경제 사회 구축을 통해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가교가 되자는 지향점을 바탕으로 ‘아시아 Gate Way 구상’을 제안한다. 이에 2008년 7월 29일, 당시의 후쿠다 야스오 수상은 ‘유학생 30만인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약 30만 명을 수용해 일본에 세

계적인 인재들과 상품, 화폐 등이 활발하게 오갈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본 계획은 고도의 인재를 수용하는 것과 뛰어난 유학생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국제적 공헌의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지속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전개해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학생 30만인 계획’의 추진 방안에는 일본 유학의 홍보, 입시·입학·입국 절차, 대학의 국제화(Global 30), 외국인 유학생 생활환경, 졸업 후의 진로 및 취업의 다섯 단계로 이뤄진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계획이 기존까지의 유학생 정책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은, 일본에서 유학하는 유학생을 단기간의 체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인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일본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해 유학생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아시아 인재 자금구상(Career Development Program for Foreign Students in Japan)’으로 산업계와 대학이 연계해 뛰어난 유학생들이 학위를 마친 후에도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 정부는 유학생 지원 업무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관련한 여러 기관을 단일화했고, 2004년 4월 1일, 일본 유학생의 종합적인 생활 지원사업을 관장하는 독립 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설립되어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던 유학생 장학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3.3.2. 일본의 유학생 정책 프로그램 및 거버넌스

일본은 OECD 국가 중 대학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재일 외국인노동자 중 대졸자 비율이 24.6%로, 16~17% 수준인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 고학력자가 많은데, 인구에 대한 유입비율은 미국과 캐나다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을 자국에 머물게 하려는 적극적인 정책과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12)

일본은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펼치며, 관광사업과 연계해 교육 정보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설명회와 유학 박람회를 해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특히 일본 유학생 구성 비율 1위를 차지하는 중국을 대상으로는 일본의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현지에서 유치 활동을

꾸준히 별이고 있다. 또한, 김한나 외(2016)는 일본이 “외국인 유학생의 빠른 적응을 위하여 일본어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해외의 주요 대학과 체결을 맺어 일본어 교육 자체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 하는 것이 일본의 유학생 정책 프로그램의 큰 특징으로 설명하였다(김한나 외, 2016 :321).

본 절은 현재 일본의 유학생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JASSO에서 발간하는 일본 유학 홍보 책자 중 유학 환경과 장학금 정보 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2017년도 사비 외국인 유학생 생활실태 조사」의 설문 결과에서는 유학지로 일본을 선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38 일본: 일본 유학 동기에 대한 응답 (복수응답)

순위	유학지 선택 이유	응답비율(%)
1	일본 사회에 흥미가 있고,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60.8
2	일본어·일본문화를 공부하고 싶어서	48.2
3	일본의 대학 등의 교육, 연구가 매력적이어서	34.1
4	일본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어서	24.5
5	다른 문화를 접해보고 싶어서	23.7
6	흥미 있는 전문분야가 있어서	23.6
7	친구, 지인, 가족 등이 추천해서	18.4
8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17.5
9	다른 나라도 생각했지만, 학력이나 비용 등의 조건이 제일 잘 맞아서	16.8
10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5.5

*출처: 2017년도 사비 외국인 유학생 생활실태조사(JASSO)

본 설문 결과에 대한 제시와 함께, 같은 설문에서 일본 유학을 한 인상을 질문하는 설문에 대해서는 ‘좋았다’ 는 응답이 92%, ‘어느 쪽도 아니다’ 6.1%, ‘나빴다’ 1.2%, ‘불명확하다’ 0.7%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JASSO에서 일본 유학의 강점으로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의 세계 최고 레벨의 교육수준,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했을 때 적당한 학비, 기존의 많은 유학생 유치 기반을 통한 국제적인 환경 조성, 일본 자체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

화를 내세우고 있는 점과 비교해보았을 때, 실제 유학생들은 일본의 학술 연구 성과나 장학금 등의 이점보다는 일본 사회의 문화나 생활환경에 더 관심을 두고 유학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대학 등에 입학할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일본어능력 및 기초학력 증빙을 위해 일본유학시험(EJU)을 치러야 함을 JASSO에서 발행하는 일본 유학 홍보 책자는 설명하고 있다. 모든 학교에서 EJU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대학의 과반수(국립대학은 거의 전체)가 입학 전형에 EJU를 이용하고 있다. 본 시험은 일본 국내 16개 도시, 일본 국외 14개국(18개 도시)에서 치러지며, 1년에 2회(6월, 11월) 실시된다. EJU를 실시하는 일본 국외 도시는 한국(서울, 부산),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수라바야), 스리랑카(콜롬보), 싱가포르, 태국(방콕, 치앙마이), 태국(타이베이), 필리핀(마닐라), 베트남(하노이, 호찌민), 홍콩,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미얀마(양곤), 몽골(울란바토르),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이다. 일본 유학생 중 중국 국적의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비율이 41.4%에 해당함에도 중국 내 EJU 시험장이 없다는 점과 전체적으로 시험장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점이다¹⁵⁾.

JASSO에서는 장학금, 생활비와 관련해 장학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 철저한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사비 유학생의 약 76%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만으로는 학비나 생활비 전부를 충당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에 의존하지 않는 자금계획을 세우도록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이고 있다.

일본 정부(문부과학성)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종류는 월 242,000엔을 지급하는 영리더스프로그램(YLP) 유학생, 월 143,000엔을 지급하는 연구유학생(비정규과정생), 월 144,000엔을 지급하는 연구유학생(석사과정), 월 145,000엔을 지급하는 연구유학생(박사과정), 월 143,000엔을 지급하는 교원연수유학생, 월 117,000엔을 지급하는 학부유학생/ 고등전문학교유학생/ 전수학교유학생/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문부과학성에서 사비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습장려비(유학생 유치 촉진 프로그램 예약제도)는 일본유학시험(EJU)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대학 학부, 고등전문학교(3학년 이상) 또는 전수학교 전문과정에 정규과정생으로서 신규 입학하는 사비 외국인 유학생에게 월 48,000엔을 지급한다.

15) JASSO (2019). Student Guide to Japan 2019-2020. http://jasso.or.kr/pdf/sgtj_2019_text_ko-1.pdf: http://jasso.or.kr/pdf/sgtj_2019_text_ko-3.pdf

일본의 유학생은 출입국체류관리국 등에서 ‘자격 외 활동 허가’ 를 발급받을 경우, 1주일에 28시간 이내(방학 중에는 1일 8시간 이내)의 노동을 할 수 있다. 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의 취업을 장려하며 일찍부터 취업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유학생 유치와 고등교육 개발협력을 연계해나가고 있다. 일본의 대학 교원을 저개발 국가의 대학에 파견하거나 저개발국가의 교수나 교수 후보자를 일본 대학으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 분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협력, ODA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외무성 산하의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이다. 최근에는 대학의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수한 유학생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ODA 사업에 일본 대학들이 동참하고 있기도 하며 우수한 인재의 일본 취업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고등교육 분야 ODA 총 지출액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약 3,529백만 달러로 OECD DAC 회원국 중에서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¹⁶⁾. 일본의 ODA 총 예산 중 고등교육 분야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도 한다. 안해정 외(2019)는 일본의 개도국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특징으로 일본 대학에 대한 지원과 연계되고 있는 점, 개발협력과 국제협력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점, 협력의 주체로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공학계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고등교육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교육 장학사업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JICA의 ‘ASEAN University Network/Southeast Asia Engineering Education Development Network(AUN/SEED-Net)¹⁷⁾’ 을 들 수 있다. 2003년에 시작된 이 사업에서는 11개의 일본 대학이 협력단으로 참여하여 대학원 학위 과정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공동연구 진행,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아세안 대학들의 역량 강화와 엔지니어 양성에 주안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JICA의 재원으로 진행되는 ‘The Project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Scholarship(JDS)¹⁸⁾’ 에서는 2년간 영어로 석사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이때 지원 대상은 일본의 원조 대상국의 공무원으로서 본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자들이다¹⁹⁾. 또한, 일본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

16) OECD. (2020).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

17) ASEAN University Network/Southeast Asia Engineering Education Development Network. (n.d.).

<http://www.aunsec.org/aunseednet.php>

18) https://www.jica.go.jp/english/our_work/types_of_assistance/grant_aid/types_jds.html

계은행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의 일본 유학을 지원하기도 한다.

3.3.3.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요약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최근 5개년 동안 고등교육기관과 어학연수 유학생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고등교육기관 유학생이 208,901명, 어학연수 유학생이 90,079명으로 총 298,980명의 외국 국적 학생이 일본에서 유학 중이다.

표 39 일본: 최근 5개년도 일본의 유학생 추이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고등교육기관(명)	139,185	152,062	171,122	188,384	208,901
어학연수(명)	44,970	56,317	68,165	78,658	90,079
계(명)	184,155	208,379	239,287	267,042	298,980

*출처: JASSO(2019),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2018 Statistics (매해 5월 1일 기준)

어학연수와 달리 고등교육기관은 학위과정을 운영하는데, 학위를 위해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현황은 2018년 기준으로 중국 출신이 86,439명으로 전체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중 41.4%, 베트남 출신이 42,083명(20.1%), 네팔 유학생이 15,329명(7.3%), 한국 유학생이 14,557명으로 7%를 차지하고 있다.<표 40> 고등교육기관에서 유학하는 학생 중 중국과 베트남 국적의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다. 신남방지역의 국가별 유학생 현황<표 41>은 어학연수생까지 포함되어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 72,354명으로 신남방지역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이다. 그 외에는 인도네시아 국적 유학생이 6,277명, 미얀마가 5,928명, 태국이 3,962명 등으로, 전체 유학생 대비 신남방지역의 유학생의 비율은 높지 않다.

19) <https://jds-scholarship.org/>

표 40 일본: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주요 출신 국가 (2018)

구분	중국	베트남	네팔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기타	계
학생 수(명)	86,439	42,083	15,329	14,557	7,423	4,719	38,351	208,901
비율(%)	41.4	20.1	7.3	7	3.6	2.3	18.4	100

*출처: JASSO(2019). Result of an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2018. (2018년 5월 1일 기준)

표 41 일본: 신남방 국가별 유학생 현황 (2018)

구분	베트남	인도 네시아	미얀 마	태국	말레 이시 아	필리핀	인도	캄보 디아	싱가 포르	계
학생 수(명)	72,354	6,277	5,928	3,962	3,094	2,389	1,607	913	408	96,932
비율 (%)	24.2	2.1	2.0	1.3	1.0	0.8	0.5	0.3	0.1	32.3

*출처: JASSO(2019). Result of an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2018. (2018년 5월 1일 기준). 브루나이와 라오스는 '기타' 국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공고 되지 않음.

고등교육기관의 유학생 중 기관별 유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84,857명으로 전체의 40.6%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대학원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50,184명으로 전체의 24.0%이다.

표 42 일본: 기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8)

구분	대학 (학부)	전문 연수 대학	대학원	대학준비 과정 (University preparatory course)	주니어 대학 (Junior college)	기술대학 (College of technology)	계
학생 수(명)	84,857	67,475	50,184	3,436	2,439	510	208,901
비율(%)	40.6	32.3	24.0	1.6	1.2	0.2	100

*출처: JASSO(2019). Result of an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2018. (2018년 5월 1일 기준)

일본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35.4%인 74,037명은 사회과학을 전공하며 그 다음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인문학을 (50,121명, 24.0%) 전공하고 있다. 공학과 과학을 전공하는 유학생은 총 39,444명으로 전체 유학생 중 약 18.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단, 전공 구분이 한국과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보건과 농업 분야에서도 한국 기준으로 이공계열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표 43 일본: 전공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8)

구분	사회 과학	인문	공학	예술	경제	보건	농업	과학	교육	기타	계
학생 수 (명)	74,037	50,121	35,463	10,219	5,083	5,027	3,984	3,981	3,541	17,445	208,901
비율 (%)	35.4%	24.0%	17.0%	4.9%	2.4%	2.4%	1.9%	1.9%	1.7%	8.4%	100%

*출처: JASSO(2019). Result of an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2018. (2018년 5월 1일 기준)

3.4. 중국

본 절은 「중국의 외국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대학을 중심으로」(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김한나, 우한솔, 이승호, 2016),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중국정부의 천인계획의 시사점」(한국교육개발원, 2014)를 발췌하여 종합·요약하였으며 여기에 전문

가 인터뷰 분석 결과를 추가하였다.

3.4.1. 중국의 유학생 유치정책의 배경

유학생 유치에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국에 비해 중국은 외국 유학생 유치사업의 후발주자 중 하나이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중국은 급격하게 외국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과 더불어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외국 유학생 유치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외국 유학생 유치경쟁은 전반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이 외국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데에 대한 동기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주로 자국대학의 국제화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다. 중국은 특히 국가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서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국가이다.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유지 및 발전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과 결부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독특한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국의 유학생 유치 계획의 역사적 뿌리는 중국 경제발전의 기폭제로 작동한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이다. 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고급인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정부는 이를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해 해결하려 했다. 초기에는 “유치 시스템의 미비, 정부 및 각 기관의 이해관계, 국내 인재들의 형평성 문제, 유입된 해외 인재들의 불만요소 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자익 2014나: 1). 하지만 이후에도 중국 정부는 ‘211공정’, ‘985공정’, ‘세계일류대학 계획’ 등으로 이어지는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펼치게 되고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국가의 발전 및 경제 성장이라는 주된 동기 하에 최근에 이르러 막대해진 중국 정부의 지원과 투자와 맞물려 주목할 만한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는 ‘유학중국계획’과 ‘천인계획’을 꼽을 수 있다.

3.4.2. 중국의 유학생 정책 프로그램 및 거버넌스

‘유학중국계획(留學中國計劃)’은 2010년 9월 중국정부에서 “외국과의 교육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외국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프로젝트로 2020년까지 외국 유학생을 50만 명 유치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 (구자익 2014가: 36). 구자익 (2014가)은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였

는데, 중국대학 내 외국 유학생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외국 유학생의 출신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 외국 유학생의 중국 내 지역분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천인계획(千人計劃, The Recruitment Program of Global Experts)’은 중국 정부가 2008년에 발표한 ‘고급해외인재유치계획’에 근거하여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의 석학을 1천여 명을 유치한다는 해외인재 유치 전략이다. 특히 천인계획은 “핵심기술 발전, 첨단기술 산업발전, 신흥 학문발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과학자 및 핵심인재들을 유치하여 중국의 기술혁신 및 창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구자익, 2014가: 6) 점을 고려하면 본 계획이 유학생 유치를 직접 염두에 둔 계획은 아니지만 과학기술 인재를 유인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임은 분명하다.

중국의 유학생 유치 비전 및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의 계획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저렴한 수업료, 교수인력·대학특성화·교육성과 등의 질적 성장 도모, 다양한 유학생 장학금 정책과 막대한 예산 투자로 꼽을 수 있다. 특히 각 대학별 질적 성장 도모 프로그램과 다양한 유학생 장학금 정책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항목들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장학금 지원, 비자

중국은 아세안-중국 협력센터(ASEAN-China Center)를 통해 아세안 유학생의 유학, 교류 및 졸업 이후 진학 및 진출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2010년 발효된 중국-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인적 및 문화적 교류를 확대해온 결과이다.

협력센터의 교류 제도 외에 장학과 복지 정책은 중앙정부와 각 대학의 제도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 본래 90년대의 장학금은 중국 문화 연구나 어학 부문에 치중되어 ‘중화문화연구장학금(中華文化研究獎學金)’, ‘HSK 우수자 장학금(HSK優勝者獎學金)’이 ‘우수 학생장학금(優秀生獎學金)’과 더불어 주요 장학사업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교육부가 수립한 ‘중국유학계획(中國留學計劃)’을 따라 다음의 두 가지로 장학제도를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학업과정(학부, 석사, 박사, 중국어연구, 일반연수, 고급연수 등)과 장성장학금, 우수유학생, HSK장학이다. 둘째는 프로젝트 성격(외국인 중국어 교사연수, 중국문화연구 등)의 장학이다. 지급 금액은 학교마다 다르며 중국 우수 대학의 연맹인 중국 구교연맹(九校聯盟) 대학 중 하나인 저장대학은 박사연구생에게 월 2,000위안의 생활 지원금을 등록비 외에 지급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화와 함께, 유학생 유치 정책을 과학기술중장기 계획에 연동시키며 중앙정부는 유학생의 복지 정책을 성장시켰다. 교육부는 중국정부 장학생의 의료보험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생활비 기준을 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학생의 복지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중국평안보험(中國平安保險)회사에 외국유학생종합보험을 위임하여 학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중국대학을 다니는 유학생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학교는 사실 보험을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두고 있다. 보험료는 1년에 600~800위안으로 정부장학을 받는 경우 교육부가 일괄 납부하여 청구 제도 등 행정을 관리한다. 그러나 자비부담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장학생은 정부의 지원없이 스스로 행정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이때 보험 처리 체계가 복잡하고 외국인 진료 비용은 더 비쌌던데다 병원 이용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 주요 학교 프로그램

중국의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지원이라는 큰 틀 하에 대학별 세부 프로그램도 상당 부분 눈여겨볼 만하다. 큰 틀에서 유학생의 재학 중 생활 및 교육 지원과 유학생의 취업관리 및 지원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유학생의 재학 중 생활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발달한 저장대학, 베이징어언대학을 살펴 볼 수 있다. 저장대학의 입학, 등록, 체류, 교학관리, 기숙사, 장학금, 중국법규 및 학칙, 의료 등 내용을 포함한 ‘외국 유학생 수첩’ 배부는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징어언대학의 특징점이라 할 수 있는 유학생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는 중국어 연극·중국어 낭송 대회·한자쓰기 경연 등의 지식경연유형, 쇼핑·단체외식·길 묻기·공원 투어 등의 임무를 6~8명씩 나누어 팀으로 수행하게 하는 언어실천유형, 경극 감상 및 명승고적 투어 등을 통한 중국 전통문화 이해를 돕는 문화체험유형, 주변 도시탐방·중국 학생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생활환경 적응을 돕는 환경적응유형의 총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유학생의 취업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중국대학들에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임이 드러났다. 외국 유학생들이 중국에서 수학을 마친 후 본국으로 복귀해서 친중 인사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관리 및 노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3.4.3.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요약

본 절은 중국 외교부 및 중국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게시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중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하에 유학생을 유치 중이고 이에 힘입어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 중이다. 특히 2016년 중국의 유학생 수는 2012년에 비해 35%가 증가해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국가가 되었다.

2018년 중국 교육부 통계 자료에 근거하면 주요 출신 대륙별 학생 수는 아시아 295,043명(59.95%), 아프리카 81,562명(16.57%), 유럽 73,618명(14.96%), 아메리카 35,733명(7.26%), 오세아니아 6,229명(1.27%)이고, 국가별 학생 수는 196개 국가 중 한국 50,600명 (10.3%), 태국 28,608명 (5.8%), 파키스탄 28,023명 (5.7%), 인도 23,198명(4.71%), 미국 20,996명(4.27%)이다. 신남방 국가별 학생 수는 태국 28,608명, 인도 23,198명, 인도네시아 15,050명, 라오스 14,645명, 베트남 11,299명, 말레이시아 9,47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신남방 국가 학생 수는 따로 집계되어 있지 않다.

표 44 중국: 외국인 유학생 주요 출신 국가

구분	한국	태국	파키스탄	인도	미국	기타	계
학생 수(명)	50,600	28,608	28,023	23,198	20,996	340,760	492,185
비율(%)	10.3	5.8	5.7	4.71	4.27	69.22	100

*출처: 중국 교육부 (2018년) Statistical report on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a for 2018

유학생을 주로 유치하는 도시는 베이징, 상해, 장수, 저장, 랴오닝, 톈진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 통계 자료에 근거하면 중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은 63,041명으로 12.81%이고 나머지 87.19%는 자비 부담으로 유학을 온 것으로 집계되었다.

교육 수준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58,122명(52.44%)이 학위과정에 등록했으며 이는 2017년에 비해 16,579명(6.86%)이 증가한 수치이다. 대학원과정에는

85,062명(17.28%)의 학생이 등록했으며 이는 2017년에 비해 12.28% 가량 증가한 수치로 이 중 25,618명은 박사과정, 59,444명은 석사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34,063명(47.56%)은 비학위과정에 등록했다.

표 45 중국: 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구분	대학원	학부	비학위과정	계
학생 수(명)	85,062	173,060	234,063	492,185
비율(%)	17.28	35.16	47.56	100

*출처: 중국 교육부 (2018)

3.5. 호주

3.5.1. 호주의 유학생 유치정책의 배경

호주는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호주의 유학생 유치 정책은 유학시장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 교육기간 이후 호주의 노동인력으로 안착시키는데 주안점이 있다. 1970년대부터 유학시장의 개방과 상업화를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해왔으며, 유학생 시장과 연계하는 전략적인 이민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 (이용균, 2012) 유학생에게 교육기간동안 일주일에 20시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졸업 후 비자를 제공했다. (Sá and Sabzalieva, 2018)

호주는 2009년을 정점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했다. 이 시기를 ‘퍼펙트 스톰(the Perfect Storm)’ 이라고 부른다. 이는 개별적으로는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일어나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인데, 2009년에 사회·경제적으로 혼란스러웠던 호주가 유학생 유입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일컫는다. 2009년은 경제적으로는 세계경제위기와 호주 달러 감소가, 사회적으로는 인도 유학생 연쇄 폭행사건과 인도 유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맞물려 일어난, 호주로의 유학생 유치의 최저점을 맞이한 시기였다. 호주 연구재단은 이 ‘퍼펙트 스톰’ 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유학생 유치 정책을 위해서는 이민 정책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했다. 학생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보고서인

2009년 Baird Review와 2010년 The Knight Review가 이러한 주제의 연구에 해당한다. (Sá and Sabzalieva, 2018)

2013년에 호주의 국제교육자문회의는 정부의 조직적 혁신과 국가적 전략을 발전시켜야한다는 Chaney 보고서: 호주-국제적으로 교육하기 (Australia-Educating Globally)를 발표했다. 그리고 2016년에 처음으로 국제교육에 대한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한 국제교육 10년 전략인 ‘국제교육을 위한 국가전략 2025(National Strategy for International Education 2025)’를 발표했고, 6개의 정부부처와 9명의 국제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간 협력 부처인 국제교육위원회를 설립했다.

호주는 유학생 교육 서비스(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ESOS)법안과 교육부의 유학생 대상 학교 및 학위과정 인가제도(Commonwealth Register of Institutions and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 CRICOS)를 통해 유학생들이 연방정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학생들의 법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호주 고등교육은 호주교육자격제도(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QF)와 고등교육 수준 및 기준 관리국(Tertiary Education Quality and Standards Agency, TEQSA)등을 통해 국내외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보장한다. ESOS 법안과 CRICOS 제도는 1991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며, 유학생 관련 여러 법률 및 제도의 전반적인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많은 유학생들이 호주를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년마다 실시하는 유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2018년에는 98%가 양질의 교육 때문에 호주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호주 교육부, 2019)

3.5.2. 호주의 유학생 정책 프로그램 및 거버넌스

본 절은 호주 교육부가 발간한 「국가전략 2025」 보고서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호주의 ‘국가전략 2025’는 <표 46>와 같이 ‘기초 강화’, ‘전환적 파트너십 수립’, ‘국제적 경쟁’이라는 3개의 축 하에 9가지 세부 목표를 지향한다. 그리고 각 세부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2~3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9가지 세부 목표는 유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경험(Quality Experience)’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다.

표 46 호주 국가전략 2025 개요

<p>기초강화</p>	<p>목표1: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연수 및 연구 시스템 수립 목표2: 최고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 목표3: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p>
<p>전환적 파트너십 수립</p>	<p>목표4: 호주 내 파트너십 강화 목표5: 해외 파트너십 강화 목표6: 이동성 강화 목표7: 졸업생과의 지속적 연결망 구축</p>
<p>국제적 경쟁</p>	<p>목표8: 우리의 우수성 홍보 목표9: 국제교육을 성장시킬 기회 포용</p>

*출처: 호주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국가전략 2025’는 타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및 전략과는 다르게 목표로 하는 유학생 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가전략 2025’의 달성을 평가하는 요소로는 국제 표준 벤치마킹(비교분석), 졸업생의 고용가능성, 유학생 경험의 질, 국제협력과 졸업 후 학생과 국가 관계, 국제 교육 분야 6%의 시장점유율 증가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국가전략 2025’가 유학생 수라는 양적 증가보다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과 졸업 후 고용가능성 및 호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섹션 1의 ‘기초강화’는 학생 교육과 관련한 부분이다. 고등교육과 우수한 연구경험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직업·문화적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다. 첫 번째 목표가 교육, 직업 연수, 연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두 번째 목표는 학생지원과 관련된 목표로 유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편하고 저렴한 가격의 숙박시설과 다양한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 목표는 양질의 교육 제공과 규제를 통해 호주의 브랜드를 제고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동안 쌓아온 국제교육의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유학생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정부의 각오가 엿보인다.

섹션 2의 ‘파트너십’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산업, 커뮤니티 등 여러 차원에서의 협력관계를 의미하며,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국가전략으로 반영하고 있다. 네 번째 목표는 호주 내 유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더 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와 산업차원의 노력을 포함한다. 다섯 번째 목표는 외교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가 간, 기관 간의 협력이 국제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여섯 번째 목표는 비자 제도, 장학금 제도, 자격증 등 유학생들의 출입과 관련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에 대한 내용이다. 일곱 번째 목표는 졸업한 유학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호주 글로벌 졸업생 연대 전략(Australia Global Alumni Engagement Strategy)을 도입했다.

섹션 3의 ‘국제적 경쟁’은 국제교육 분야에서의 호주의 입지를 더 굳건히 유지시키고자 하는 고민이 담겨있다. 여덟 번째 목표는 국제교육의 장으로서 호주의 브랜드와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아홉 번째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목표이며, 혁신과 포용을 도모하고 유학생들과 고용인의 필요에 즉각 반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의 국제교육관련 책임자(Group Manager) Karen Sandercock와 호주 무역투자대표부 (Austrade) 산업부 선임 연구원 Rebecca Hall에 따르면 현재 호주는 ‘국가전략 2025’를 여러 차원에서 진행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유학생 유치에 호주 중심지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확대시키기 위해 소도시 및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와 도시 차원에서 ‘Study in’ 프로그램을 통해 그 도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소개하는 버디(buddy)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둘째, 중국과 인도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를 위험 요인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유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셋째, 호주는 유학생을 미래 노동인력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국내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학과와 비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학생 비자를 발급하는 정책을 펼쳤다. 또한, 유독 특정 학과에만 유학생 수가 많은 것에 문제를 느끼고, 유학생을 모집하는 학과의 범위를 다양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1950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영연방 외상회의의 결과로 시작된 ‘콜롬보 계획(Colombo Plan)’ 하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하기 시작하였다. 콜롬보 계획은 호주 인접국의 학생들을 초청하여 호주 대학에서 유학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는 고등교육협력의 중점 사업으로 자리하였다(Abimbola 외, 2016). 콜

롬보 계획은 국가 차원의 교육산업으로 유학생 유치에 본격화되며 일시 중단되지
만, 유학생 유치 사업이 확대되며 호주발전장학금(Australian Development
Scholarship)으로 다시 나타났으며, 2014년에는 ‘뉴 콜롬보 계획(New Colombo
Plan)’이 마련됨에 따라 호주 학생의 해외 유학까지 지원하는 등 장학사업을 확대
하기에 이르렀다. (안해정 외, 2019; 채재은, 박환보, 2017) 단, 뉴 콜롬보 계획하의
장학사업은 ODA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²⁰⁾. 한편, 2011년부터는 호주 외교통상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에서 호주정부초청장학금
(Australia Awards Scholarships)을 출범하여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중동 지역
국가 학생들의 호주 유학을 지원하고 있다²¹⁾. 호주의 이러한 고등교육 분야 국제
개발협력은 곧 개도국 출신 유학생의 유입으로 이루어진다.

호주의 고등교육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DFAT은 교육 분야 협력 전략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중 다섯 번째가 고등교육 유학에 관한 내용으로, “협력국
학생들의 지속적인 호주 고등교육 유학을 장려하고 사람 간의 연결을 통해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며 자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 하고자 한다.
(DFAT, 2014, p. 20)²²⁾ 또한, DFAT에서 설정한 2015-2020 교육 분야 원조 전략에
서는 전략적 우선순위로 ‘기초 확립(getting the foundations right), 모두를 위한
학습(learning for all), 보편적 참여(universal participation), 번영을 위한 기술(skills
for prosperity)’가 있다. 그중에서 번영을 위한 기술 항목에 고등교육에 관한 내용
이 포함되어있는데, 안정적인 고등교육과 훈련 시스템, 고등교육을 위한 지속 가
능한 재정 모델 등을 기대 성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호주 정부는 고
등교육 분야 협력 전략으로 개도국 고등교육 시스템 개선, 장학금 프로그램, 고등
교육과 노동시장 간 협력 강화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해정 외, 2019) 나아가 2016년 발표된 DFAT의 Australia Awards Global
Strategy에서는 호주 정부 지원 장학금의 방향성이 개발의 역할보다는 외교의 역
할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문서에서는 Australia Awards가 “경제 외교 및 공공 외
교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임을 명시하기도 한다. (DFAT, 2016, p. 10)²³⁾

20) <https://dfat.gov.au/aid/topics/investment-priorities/education-health/education/Pages/education.aspx>

21) <https://dfat.gov.au/people-to-people/australia-awards/Pages/australia-awards-scholarships.aspx>

22) <https://dfat.gov.au/about-us/publications/Documents/australian-aid-development-policy.pdf>

23) <https://dfat.gov.au/about-us/publications/Documents/australia-awards-global-strategy.pdf>

3.5.3.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요약

호주 교육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국제학생 데이터’ 라는 섹션을 만들어 매년 유학생 관련 통계자료와 2년마다 실시하는 유학생 만족도 조사의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러한 유학생에 대한 공개데이터는 호주 교육부와 호주 무역투자대표부와 호주 국가안전부(Department of Home Security)의 공동 노력으로 인한 결과물이다.

호주 교육부에서 제공한 유학생 관련 피벗 테이블을 통해 교육과정별, 국가별, 연도별, 월별, 재적(Enrolment)/신입(Commencement) 등의 내용을 구분하여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공급자 등록 및 외국인 학생 관리시스템(Provider Registr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 Management Systems)의 데이터에 근거하기 때문에 학생 비자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월별은 매년 1월 1일부터 매월 1일까지 축적된 통계자료를 의미한다. 호주는 재학생과 신입생을 구분하는데, 교육기관에 신규 입학한 학생들이 신입생이라는 기준을 세워 따로 집계한다. 이는 실질적인 유학생의 증감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반면, 재학생의 수는 특정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수를 의미한다.

표 47 호주: 최근 4개년도 호주의 고등교육 및 전체 유학생 추이

구분	2015	2016	2017	2018
고등교육 학생 수(명)	271,664	305,328	349,122	398,158
전체 유학생 수(명)	642,231	709,105	795,867	872,664

*출처: 호주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2018. 12 재적 기준)

표 48 호주: 외국인 유학생 주요 출신 국가

구분	중국	인도	네팔	말레이시아	베트남	계
학생 수(명)	255,151	107,475	51,950	33,562	29,894	478,032
비율(%)	29.2	12.3	6.0	3.8	3.4	54.8 [†]

*출처: 호주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2018. 12 재적 기준)

†: 전체 외국인 유학생 대비

표 49 호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주요 출신 국가

구분	중국	인도	네팔	베트남	말레이시아	계
학생 수(명)	152,638	71,681	28,124	15,699	13,983	282,125
비율(%)	38.3	18.0	7.0	3.9	3.5	70.9 [†]

*출처: 호주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2018. 12 재적 기준)

†: 전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대비

최근 4년간 호주의 전체 유학생과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중국(38.3%)과 인도(18.0%) 학생이 고등교육기관 전체 유학생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 밖에 네팔(7%), 베트남(3.9%), 말레이시아(3.5%)가 그 뒤를 따른다.<<표 49>> 호주는 외교관계와 국제 정세에 쉽게 영향을 받는 유학생 유치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에 과도하게 치중된 유학생 수를 위협적 요소로 보고 있다.

표 50 호주: 신남방 국가별 유학생 현황

구분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 외	계
학생 수(명)	71,681	33,562	29,894	27,689	20,849	12,696	13,949	210,320
비율(%)	18.0	3.8	3.4	3.2	2.4	1.5	1.6	24.1 [†]

*출처: 호주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2018. 12 재적 기준)

†: 전체 외국인 유학생 대비

표 51 호주: 고등교육기관 신남방 국가별 유학생 현황

구분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그 외	계
학생 수(명)	71,681	15,699	13,983	9,884	7,323	4,188	5,236	137,994
비율(%)	18.0	3.9	3.5	2.4	1.8	1.0	1.3	34.6 [†]

*출처: 호주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2018. 12 재적 기준)

†: 전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대비

2018년 12월 기준 신남방 국가 소속 10개국은 호주 전체 유학생 중 약 24.1%

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고등교육만 보았을 때는 약 34.6%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유학생을 기준으로 인도(18.0%) 다음으로 말레이시아(3.8%)가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차지하지만, 고등교육기관으로 한정했을 때는 인도(18.0%) 다음으로 베트남(3.9%)에서 비교적 많은 유학생이 유입되었다. 또한 태국은 고등교육기관 기준으로 2,525명으로 전체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수의 약 0.6%에 해당하지만, 전체 유학생을 기준으로 29,894명으로 약 3.4%를 차지하며 신남방 국가 중 네 번째로 많다. 이는 태국인 유학생의 대다수가 전문기술학교(VET) 혹은 어학연수(ELICOS)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표 52 호주: 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구분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전문기술학교 (VET)	어학연수 (ELICOS)	비학위 /비자격증 과정 (Non-award)	초·중·고등학교 (Schools)	계
학생 수(명)	398,158	243,013	154,925	49,840	26,728	872,664
비율(%)	45.6	27.8	17.8	5.7	3.0	100

*출처: 호주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2018. 12 재적 기준)

호주의 유학생 집계 자료는 <표 52>과 같이 다섯 가지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집계하는데, 이는 호주 교육자격제도에 근거를 둔다. ‘고등교육’은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지칭하고, ‘ELICOS(English Language Intensive Course for Overseas Students)’는 호주 정부가 규제하는 어학연수 기관을 의미한다. ‘비학위/비자격증 과정’은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일부 강의만 수강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표 52>에 정리된 것과 같이 2018년 12월 기준으로 호주 내 외국인 유학생 중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 수가 약 45.6%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전문기술학교(27.8%)와 어학연수기관(17.8%)이 뒤따른다. 특히 전문기술학교의 높은 비중은 유학생들을 졸업 후 국내 노동인력으로 안착시키려는 호주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기인한다.

3.6. 정책적 시사점

미국, 일본, 중국, 호주의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3.6.1. 미국

미국은 세계 최대의 유학생 유치 국가이자 오랜 유학생 정책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 내 외국인 학생들의 증가율이 주춤거리고 있고 신규 유학생의 절대적인 숫자 역시 줄어들었다. 반-이민 정책의 시행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심화가 유학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의 안보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더욱 엄격한 비자(H-1B, OPT 등) 심사 과정을 도입하였다. 미국 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타국 연구기관에 대한 선호도 증가 또한 최근 몇 년간 미국 유학생이 줄게 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²⁴⁾. 한편 미국 내 STEM 분야의 경우 타분야에 비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의존율이 훨씬 높는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²⁵⁾. 실제로 외국인 학생들은 미국 내 STEM 분야 대학원생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이러한 미국의 현황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교육의 질적 수준, 교육기관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민자를 대하는 방식을 포함한 정치·사회적 환경 또한 유학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민자들에 대해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별 대학 차원의 경쟁력 제고 전략과 더불어 신남방지역 출신 유학생들의 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고민과 협력이 필요하다.

3.6.2. 일본

일본은 1980년대부터 교육인구 감소 등의 문제의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 왔다. 정부 주도의 유학생 유치정책으로는 비자취득 절차 간소화, 유학생의 노동 허가 등이 있었다. 유학생 지원 사

24) Open Doors 2018 Presentation

<https://www.iie.org/Research-and-Insights/Open-Doors/Open-Doors-2018-Media-Information>

25)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Declining International Student Enrollment at U.S. Universities and Its Potential Impact' (2018).

26)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American Science and Engineering' (2017).

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학생생활 지원사업 전담을 위한 기구, 즉 JASSO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학생들이 단기간 체류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본 각지에서 취업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일본 내 유학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유학생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함께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유학생을 노동인구로 편입시키는 결과까지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의 유학생 유치 정책의 핵심은 유학생을 단기 체류자가 아닌, 졸업 후 일본 내에서 취업하고 장기적으로 정주하며 국력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인식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는 예로 ‘아시아 인재 자금구상’을 통해 산업계 및 학계가 우수한 외국인 졸업생들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우수한 신남방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유학생들에 대한 인식을 ‘체류자’에서 ‘잠재력을 지닌 인재’로 점차 개선하도록 대학 내외의 사회적 환경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학 기간에 초점을 두는 단기적 유학생 지원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까지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장기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3.6.3. 중국

중국은 유학생 유치사업의 후발주자이지만 막대한 투자와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가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유학생 유치 정책에 대한 중국의 주요 비전 및 전략, 유학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비전 및 전략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유학수지²⁷⁾의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반면 중국은 국가발전을 우선적 가치로 삼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의 차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장학금 예산 규모, 교육 정책에 투자할 수 있는 인력 측면에서 큰 간극이 존재함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 측면에서 과기특성화대학 재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베이징어언대학의 전략 등을 참고하여 다양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제

27) 자국에서 해외로 유학을 나가는 학생과 해외에서 자국으로 유학을 들어오는 학생의 균형

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 유학생 유치의 측면에서 유학생 유치 관련 기관 설립(아세안-중국 협력센터)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점,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우수 대학이 다양한 교내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은 한국의 과기특성화대학이 참고할만 하다.

3.6.4. 호주

호주의 유학생 유치 정책은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졸업생들을 교육기간 이후 자국의 노동인력으로 안착시키는데 주안점이 있다.

호주의 사례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질적인 요소를 중요시했다는 점이다. 유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Study in’ 프로그램과 같이 각 도시 차원에서 내국인과의 버디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교육기간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설계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유학생들의 졸업생 커뮤니티를 체계화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유학생 유입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국제 표준 벤치마킹, 졸업생의 고용가능성, 유학생 경험의 질, 졸업 후 학생과 자국 간의 관계 등 질적 요소를 중시하는 호주의 유학생 유치 정책은 우리나라에서의 유학생 유치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정부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이다. 호주의 ‘국가전략 2025’는 6개의 정부부처와 9명의 국제교육 전문가로 구성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부처 간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관리하는 점이다. 교육기관과 유학원 등은 이러한 통계자료의 활용을 통하여 시의적절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호주의 사례는 양적 증가를 중심으로 한 유학생 유치 전략에서 벗어나,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노동인력을 생산하는 유학생 유치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4. 과기특성화대학 신남방지역 유학생의 유학동기, 만족도 및 진로계획에 대한 연구

본 장에서는 정부 및 대학 차원의 과학기술분야 이공계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설계한 연구의 목적과 방법,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본 연구진은 과기특성화대학인 KAIST, UNIST, POSTECH, DGIST, GIST에 재학 중인 신남방지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의 1) 유학동기, 2) 현재 재학 중의 만족도, 3)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학생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1. 양적 연구 및 결과 분석

4.1.1. 연구 설계 및 조사 방법론

1) 조사 대상

본 설문은 2019년 하반기 기준 5개 과기특성화대학인 KAIST, UNIST, POSTECH, DGIST, GIST에 재학 중인 신남방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 만족도, 진로 계획을 조사하고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15일간 진행되었다.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5개 과기특성화대학의 전체 신남방지역 출신 유학생 420명²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9년부터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학교당국으로부터 조사대상의 인적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데에 제한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교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전수조사를 위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 중 384명의 동의를 얻어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발송하고, 최종적으로 193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회수율은 50.2%으로 계산되었다. 이 중 신남방지역 출신이 아닌 유학생들의 응답지 9부,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온 외국인 유학생의 응답지 2부, 결측값이 다수였던 응답지 1부를 포함한 총 12부를 제외하고 181부(47.1%)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설문은 연속으로 동일한 답을 선택하는 경우 주의 팝업창이 표시되도록 설계하였다. 주관식 문항 응답 패턴을 분석한 결과 12명을 제외하

28) 2019년 교육부 통계 기준.

고는 응답 내용이 부실하거나 한 가지 선택지만 연속적으로 선택하고 넘어가는 답변편향을 보인 응답자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은 <표 53>과 같다.

표 53 설문조사결과: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구분	내용
모집단	5개 과기특성화대학 신남방지역 유학생 (학사, 석사, 박사)
전체 표본크기	384명
회수대상	193명(50.2%)
실제분석대상	181명(47.1%)
표본추출방법	전수조사
조사기간	2019년 11월 19일 ~ 2019년 12월 4일(15일)

2)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설문설계에 앞서 기관 감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연구계획심의신청서, 연구계획서 요약본, 인간대상연구용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예비조사를 수행하였다. 첫째, 유학생의 유학 동기, 유학 만족도,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부서의 직원과 예비인터뷰를 실시하고 유학생 대상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를 통해 마련한 1차 설문안으로 두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pilot survey)를 실시하였고, 1차 설문안을 여러 차례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설문안을 확정하였다. 설문지는 설문조사 대행 전문 업체를 통해 웹과 모바일 플랫폼의 형태로 구현하였다.

4.1.2. 설문문항

설문 문항에 포함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 54>와 같다.

표 54 설문 문항 요약

조사항목	변수/요인	척도	
인구사회학적 정보	국적	범주형	
	성별		
	생년월		
	학교 및 학위 과정		
	이전 학위		
	장학금 (수혜 유무, 수여 기관 등)		
	비자 종류		
	건강 보험 종류		
	부모의 교육 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거주 형태		
	결혼 여부		
	동거인 여부		
	한국어 능력		
소통 매체 (메신저 앱, 학교 포탈)			
유학 전 기대 수준	한국 도착 전 기대 수준	개방형, 연속형(7점 리커트)	
	한국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범주형	
	학교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범주형	
유학동기	해외 유학 결심 이유	범주형	
	한국 선택 동기	1순위로 한국 선택 여부	범주형, 개방형
		한국 선택 영향 요인	연속형(7점 리커트)
	학교 선택 동기	1순위로 해당 학교 선택 여부	범주형, 개방형
학교 선택 영향 요인		연속형(7점 리커트)	
유학만족도	지원 과정	연속형(7점 리커트)	
	교육		

	연구		
	진로 설계 지원		
	타인과의 소통 (언어 등)		
	한국의 제도/법		
	재정 상태		
	사회적 환경		
	개인 생활 (종교활동, 사교활동, 음식 등)		
	스트레스 정도		
진로 계획	진로 선택 시 중요한 요소	범주형	
	졸업 후 계획	졸업 후 계획 (연구, 취업, 기타)	범주형, 개방형
		졸업 후 연구 희망 국가 및 이유	
		졸업 후 취업 희망 국가	
		졸업 후 거주 희망 국가 (졸업 후 계획이 연구 또는 취업이 아니거나 불분명할 경우)	
한국 내 취업과 관련하여 알고 싶은 내용 (임금, 근무 환경 등)			
마지막 질문	한국 유학의 의미, 가장 어려운 점과 개선점 제안	개방형	

설문문항은 5개 요인, 16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설문 문항은 별첨2에 수록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국적 ▷성별 ▷생년월일 ▷학교 및 학위 과정 ▷이전 학위 ▷장학금 ▷비자 종류 ▷건강 보험 종류 ▷부모의 교육 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거주 형태 ▷결혼 여부 ▷동거인 여부 ▷한국어 능력 ▷소통 매체의 총 15개 변수,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유학 전 기대 수준과 관련된 문항은 ▷한국 도착 전 기대 수준 ▷한국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학교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의 총 3개 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유학 동기는 크게 ▷해외 유학 결심 이유 ▷한국 선택 동기 ▷학교 선택

동기의 총 3개 요인으로 나뉘었으며 한국과 학교 선택 동기는 각각 1순위로 한국 선택 여부, 한국 선택 영향 요인과 1순위로 해당 학교 선택 여부, 학교 선택 영향 요인으로 나누어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유학 만족도는 ▷지원 과정 ▷교육 ▷연구 ▷진로 설계 지원 ▷타인과의 소통 ▷한국의 제도/법 ▷재정 상태 ▷사회적 환경 ▷개인 생활 ▷스트레스 수준의 총 9개 요인, 6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섯째, 진로 계획은 크게 ▷진로 선택 시 중요한 요소 ▷졸업 후 계획 ▷한국 내 취업과 관련하여 알고 싶은 내용의 총 3개 요인으로 나뉘었으며 졸업 후 계획은 졸업 후 연구 및 취업 희망 국가, 졸업 후 계획이 연구 또는 취업이 아니거나 불분명할 경우 거주 희망 국가와 그 이유로 나누어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외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재학 중인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국 유학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가장 큰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점을 제안하고 싶은가요?” 의 총 4개 질문을 추가함으로써 위의 5개 요인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문항의 내용 및 문항수를 요약, 정리하면 <표 55>과 같다.

표 55 조사내용 및 문항 수

조사항목	변수/요인	설문 문항 (번)	문항 수	
인구사회학적 정보	국적	1	1	
	성별	2	1	
	생년월	3	1	
	학교 및 학위 과정	4~7	4	
	이전 학위	8~8-1	2	
	장학금 (수혜 유무, 수여 기관 등)	9, 9-1~9-3	4	
	비자 종류	10	1	
	건강 보험 종류	11~12	2	
	부모의 교육 수준	13~14	2	
	가정의 경제적 수준	15	1	
	거주 형태	16, 16-1~16-2	3	
	결혼 여부	17	1	
	동거인 여부	18	1	
	한국어 능력	19, 20, 20-1, 21~22	5	
	소통 매체 (메신저 앱, 학교 포탈)	23~27	5	
유학 전 기대 수준	한국 도착 전 기대 수준	28~33	6	
	한국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34, 34-1	2	
	학교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35, 35-1	2	
유학동기	해외 유학 결심 이유	36	1	
	한국 선택 동기	1순위로 한국 선택 여부	37, 37-1~37-2	3
		한국 선택 영향 요인	38~52	15
	학교 선택 동기	1순위로 해당 학교 선택 여부	53, 53-1	2
학교 선택 영향 요인		54~71	18	
유학만족도	지원 과정	72~75	4	
	교육	76~81	6	
	연구	82~91	10	
	진로 설계 지원	92~96	5	
	타인과의 소통 (언어 등)	97~106	10	
	한국의 제도/법	107~112	6	
	재정 상태	113~116	4	

	사회적 환경	117~120	4	
	개인 생활 (종교활동, 사교활동, 음식 등)	121~129	9	
	스트레스 정도	130, 130-1~130-5	6	
진로 계획	진로 선택 시 중요한 요소	131	1	
	졸업 후 계획	졸업 후 계획 (연구, 취업, 기타)	132	1
		졸업 후 연구 희망 국가 및 이유	133, 133-1~133-3	4
		졸업 후 취업 희망 국가	134, 135, 135-2~135-3	4
		졸업 후 거주 희망 국가 (졸업 후 계획이 연구 또는 취업이 아니거나 불분명할 경우)	136	1
		한국 내 취업과 관련하여 알고 싶은 내용 (임금, 근무 환경 등)	137	1
마지막 질문	한국 유학의 의미, 가장 어려운 점과 개선점 제안	138~140, 140-1	4	
계			163	

4.1.3. 연구 결과 분석

설문조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학교, 학위과정, 국적, 한국어 능력, 장학금 수혜 유무, 경제 수준, 거주 형태), 한국 유학 선택 동기 요인, 한국 유학 정보 획득 경로, 유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 요인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학교, 국적)에 따른 한국 유학 선택 동기 및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각 요인별 정책개선점에 대한 개방형 응답결과를 정리 분석하고, 설문조사의 전반적 결과를 인터뷰와 삼각화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 소속 학교 및 학위과정, 국적, 한국어 능력, 장학금 수혜 유무, 경제 수준, 거주 형태에 대한 결과는 <표 56>와 같다.

표 56 설문조사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빈도와 백분율

변수	범주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01	55.8
	여성	76	42.0
	그 외	2	1.1
	응답 거부	2	1.1
학교	KAIST	85	47.0
	UNIST	38	21.0
	GIST	27	14.9
	POSTECH	16	8.8
	DGIST	15	8.3
학위과정	박사	71	39.2
	석사	56	30.9
	학부	33	18.2
	석박통합	21	11.6
국적	베트남	52	28.7
	인도	41	22.7
	인도네시아	36	19.9
	필리핀	20	11.0
	말레이시아	13	7.2
	태국	12	6.6
	미얀마	3	1.7
	싱가포르	2	1.1
	라오스	1	0.6
	브루나이	1	0.6
	캄보디아	0	0.0
한국어 능력	초급	105	58.0
	초중급	40	22.1
	중급	20	11.0
	중상급	11	6.1
	상급	5	2.8

	최상급	0	0.0
장학금 수혜 유무	유	175	96.7
	무	6	3.3
경제 수준	\$10K 이하	45	24.9
	\$10K이상 \$50K 이하	47	26.0
	\$50K이상 \$100K 이하	9	5.0
	\$100K이상 \$150K 이하	6	3.3
	\$150K 이상	3	1.7
	모름	43	24.9
	응답거부	28	15.5
거주 형태	기숙사	156	86.2
	스튜디오(오피스텔)	11	6.1
	아파트	10	5.5
	주택	1	0.6
	그 외	3	1.7

본 설문조사의 실제 분석 대상자는 학교별로 KAIST 85명(47.0%), UNIST 38명(21.0%), GIST 27명(14.9%), POSTECH 16명(8.8%), DGIST 15명(8.3%) 순으로 많았다. 학위과정별로는 박사과정생 71명(39.2%), 석사과정생 56명(30.9%), 학부생 33명(18.2%), 석·박사 통합과정생 21명(11.6%) 순이었다.

신남방지역 11개 국가 중 실제 분석 대상 응답자는 베트남 52명(28.7%), 인도 41명(22.7%), 인도네시아 36명(19.9%)에 치중되어있다. 미얀마 3명(1.7%), 싱가포르 2명(1.1%), 라오스 1명(0.6%), 브루나이 1명(0.6%)는 3명 이하로 아주 적었고, 캄보디아인 응답자는 없었다.

실제 분석 대상자들의 한국어 실력은 초급 105명(58.0%), 초중급 40명(22.1%), 중급 20명(11.0%), 중상급 11명(6.1%), 상급 5명(2.8%), 최상급은 0명의 순이었다. 초급과 초중급을 합치면 80.1%로 대다수가 본인의 한국어 실력이 기초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TOPIK을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149명(82.3%)으로 많았고, 104명(57.5%)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학교차원에서 입학 조건과 졸업 조건으로 한국어 성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분석 대상자 중 175명(96.7%)이 장학금을 받고, 6명(3.3%)만이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장학금을 받는 175명 중 134명(76.6%)은 ‘학교’를 통해, 42명(24.0%)은 ‘한국 정부’에게서, 6명(3.4%)은 ‘한국의 비영리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오직 4명(2.8%)만 ‘자국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복수 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20명은 서로 다른 종류의 장학금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를 선택한 10명(5.7%)에서는 ‘교수님’, ‘한국 국제협력단(KOICA)’, ‘고용자’ 등으로부터 학교 등록금 외의 장학금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을 지급받는 175명 유학생들 중 ‘장학금’으로 168명(96.0%)이 등록금을, 148명(84.6%)이 ‘생활비’까지 충당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분석 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의 지급 범위 외의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7명(53.6%)이 장학금으로 ‘모두 충당가능’하다고 대답한 반면, 65명(35.9%)은 ‘가족의 지원’, 15명(8.3%)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충당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장학금이 한국 과기특성화대학으로의 유학의 가장 큰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학금 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제 수준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 동안의 세전 가구 소득에 대한 질문에 미

국 달러 기준 \$10,000 이하 45명(24.9%)과 \$10,000 이상 \$50,000 이하 47명(26.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아버지가 학사 이상의 고등교육을 마친 학생의 수는 116명(64.1%)였고, 어머니가 학사 이상의 고등교육을 마친 학생의 수는 92명(50.8%)였다. 한편, 아버지가 정식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0명(5.5%), 어머니가 정식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1명(6.1%)이었다. 신남방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과기특성화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신남방지역 학생들은 부모의 경제력과 교육 수준이 평균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분석 대상자 중 156명(86.2%)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거주 응답자를 제외한 25명(13.8%) 중 다수는 ‘오피스텔/스튜디오(11명, 6.1%)’ 와 ‘아파트(10명, 5.5%)’ 에서 생활한다고 답변했다. 다중응답이 가능한 공동거주자에 대한 질문에서 84명(46.4%)은 ‘혼자’, 55명(30.4%)은 ‘친구’, 28명(15.5%)은 ‘배우자’, 14명(7.7%)은 ‘자녀’, 9명(5.0%)은 ‘아버지’, 10명(5.5%)은 ‘어머니’ 와 함께 살고 있다고 답했다. ‘그 외’ 를 선택한 11명(6.1%)의 다수는 룸메이트라고 답했다.

2) 한국 유학의 선택 이유

해외 유학 동기 중에서는 ‘경험을 넓히고 싶어서’ 가 98명(54.1%)로 가장 높았고 ‘자국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가 39명(21.5%), ‘재정 지원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가 26명(14.4%), ‘가족, 친구, 교수 등 주변인의 권유’ 가 16명(8.8%), ‘그 외’ (‘자신의 흥미와 딱 맞는 것을 찾아서,’ ‘연구 환경’ 가 2명(1.1%)로 나타났다. 한국이 1순위 유학 목적지였던 응답자는 71명(39.2%)인 반면, 1순위 유학 목적지가 아니었던 응답자는 110명(60.8%)로, 한국이 1순위가 아니었던 학생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1순위 유학 목적지였던 응답자에게 2순위 유학 주요 목적지로 일본(16명, 8.8%), 싱가포르(11명, 6.1%), 미국(9명, 5.0%)을 응답했다. 2순위 유학 목적지로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대만(3명, 1.7%), 홍콩(2명, 1.1%), 태국(1명, 0.6%), 중국(1명, 0.6%)의 아시아 국가가 많이 있었다. 3순위 유학 목적지에 대해서는 미국(14명, 7.7%), 일본(8명, 4.4%), 싱가포르(4명, 2.2%)가 있었다.

한국이 1순위 유학 목적지가 아니었던 응답자에게는 1순위 유학 주요 목적지로 미국(38명, 21.0%), 독일(14명, 7.7%), 호주(8명, 4.4%), 영국(6명, 3.3%), 싱가포르(6명, 3.3%), 일본(6명, 3.3%)이 있었다. 또한 2순위 유학 주요 목적지로는 한국(29명, 16.0%), 일본(13명, 7.1%), 호주(13명, 7.1%) 미국(9명, 5.0%), 영국(9명, 5.0%)이

있었다. 위의 결과를 고려해보았을 때, 한국을 1순위로 선택한 유학생들은 북미나 유럽 국가들보다도 아시아 국가를 유학 목적지로 염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유학의 동기

유학 전 한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하게 된 요인을 7점 만점 리퀴트 스케일로 총 14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7>와 같다.

표 57 한국으로의 유학 선택 요인

학교	총계		GIST		DGIST		UNIST		POSTECH		KAI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장학금 기회	6.02	1.120	6.04	1.192	5.60	1.298	5.74	1.131	6.19	1.276	6.19	1.006
한국 교육의 질	5.91	1.073	5.74	1.130	5.13	1.642	5.76	0.998	6.25	0.856	6.09	0.934
안전과 치안	5.80	1.249	5.56	1.502	5.80	1.082	5.68	1.526	6.06	0.854	5.88	1.117
한국 대학 학위의 국제적 인지도	5.72	1.231	5.52	1.122	5.07	1.486	5.24	1.422	6.13	0.806	6.04	1.074
유학비용	5.10	1.461	4.93	1.357	4.73	1.624	4.74	1.389	5.25	1.483	5.35	1.470
졸업 후 구직 가능성	4.80	1.863	4.93	1.708	5.07	1.751	4.45	1.927	5.06	1.769	4.82	1.935
낮은 인종차별 환경	4.76	1.747	4.85	1.834	4.53	1.457	4.58	1.855	4.94	1.879	4.81	1.722
한국어	3.97	1.759	3.67	1.617	3.67	1.759	3.47	1.672	4.44	1.711	4.26	1.807
주변인의 권유	3.98	1.724	4.30	1.436	3.80	1.474	3.68	1.802	3.81	2.007	4.08	1.768
졸업 후 한국 거주 기회	3.94	1.920	3.96	1.765	3.00	1.852	4.08	1.992	3.94	2.048	4.05	1.920
자국 커뮤니티 형성 여부	3.69	1.708	3.63	1.779	3.80	1.373	3.37	1.667	4.31	1.957	3.71	1.710
국가간 정치·경제적 관계	3.47	1.778	3.56	1.826	3.00	1.690	3.66	1.805	3.63	1.893	3.41	1.768
한국 체류 친구/가족	3.26	1.845	3.85	1.895	2.53	1.727	2.87	1.630	3.88	1.857	3.26	1.884
한류	2.88	1.637	3.07	1.752	2.80	1.612	2.87	1.679	2.56	1.861	2.91	1.571

이 중 두드러지게 낮은 점수를 보인 요소에는 ‘한류’가 있으며 평균 2.90점을 기록했다. 일반 종합대학에서의 설문조사의 결과가 없어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두드러진 결과는 미디어를 통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남방 지역 유학생들의 동기에 있어 한류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에는 상대적으로 과기특성화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업 목표 및 진로가 보다 뚜렷하고, 기타 한국의 종합대학과 비교하여 봤을 때 5개 과기특성화대학의 장학금, 연구환경 및 연구소의 연구역량이 높다는 요소가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반면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보인 요소에는 ‘장학금 기회(평균6.02점)’가 있었다. 이는 재정적 뒷받침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한국 교육의 질(평균 5.91점)’, ‘안전과 치안(평균 5.80점)’, ‘한국 대학 학위의 국제적 인지도(평균 5.72점)’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학비용(평균 5.10점)’과 ‘졸업 후 구직 가능성(평균 4.80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졸업 후 한국 거주 기회(평균 3.94점)’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체적으로 한국어를 배워서 졸업 후 장기적으로 한국에 머물며 생활한다는 계획보다는 한국의 선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더 큰 유학동기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 차이로는 POSTECH(6.25점)과 KAIST(6.09점)의 학생들이 평균(5.91점)보다 더 높게 ‘한국 교육의 질’이 한국으로의 유학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또한 POSTECH(6.13점)과 KAIST(6.04점) 재학생들은 평균(5.72점)보다 더 높게 한국으로의 유학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한국 대학 학위의 국제적 인지도’를 꼽았다. 반면, DGIST(5.07점)와 UNIST(5.24점)의 학생들의 경우 한국으로의 유학을 결정하는데 ‘한국 대학 학위의 국제적 인지도’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 유학 전 기대 수준

유학 전 한국 유학에 대한 기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7점 만점 리퀴트 스케일로 총 6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한국 유학의 전반적인 경험에 대한 기대 수준과 함께 세부적으로 연구 환경, 강의의 질, 국제화 정도,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해 가졌던 기대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8>과 같다.

표 58 한국 유학에 대한 기대 수준

	총계		GIST		DGIST		UNIST		POSTECH		KAI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국 유학의 전반적인 경험	5.18	1.157	4.96	1.160	5.00	1.254	4.95	1.293	5.25	1.528	5.38	0.976
연구 환경	5.70	1.266	5.19	1.442	5.00	1.890	5.82	1.136	6.00	1.366	5.87	1.033
강의	5.39	1.218	5.00	1.330	4.53	1.246	5.18	1.227	5.50	1.461	5.74	1.002
국제화 정도	4.69	1.284	4.48	1.014	4.20	1.320	4.61	1.242	4.75	1.653	4.87	1.289
사회적 관계 형성	4.59	1.483	4.41	1.338	3.73	1.944	4.37	1.303	4.19	1.721	4.98	1.380

한국 유학의 전반적인 경험에 대해 가졌던 기대 수준은 7점 만점에 평균 5.18 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학교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KAIST(5.38점)와 POSTECH(5.25점)의 학생들은 GIST(4.96점)와 UNIST(4.95점)의 학생들보다 한국 유학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과기특성화대학 모두 ‘연구 환경(연구실 시설, 지도교수, 인지도 등)’ 과 ‘강의의 질’ 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국제화 정도’ 와 ‘사회적 관계 형성’ 에 대해서는 낮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신남방지역의 유학생들이 과기특성화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동기로 사회적인 요소보다는 과학기술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기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과기특성화대학 선택 동기

현재 재학 중인 과기특성화대학이 1순위 목적지였던 응답자는 143명(79.0%)으로 1순위 목적지가 아니었던 응답자보다 네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유학희망국 1순위가 아니라는 문항의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신남방지역 이공계 유학생 중 한국을 유학 목적지로 정했을 경우 과기특성화대학이 그들의 유학 목적 학교로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것을 함의한다. <표 59>은 학교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에 대한 응답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9 학교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

		총계	GIST	DGIST	UNIST	POSTECH	KAIST
교수진과 연구실	빈도(명)	48	7	5	18	5	13
	비율(%)	26.5	25.9	33.3	47.4	31.3	15.3
학교의 국제적 인지도	빈도(명)	46	0	0	3	6	37
	비율(%)	25.4	0.0	0.0	7.9	37.5	43.5
등록비 및 생활비	빈도(명)	37	7	4	9	2	15
	비율(%)	20.4	25.9	26.7	23.7	12.5	17.6
주변인의 권유 (가족, 친구, 교수 등)	빈도(명)	24	7	5	4	1	7
	비율(%)	13.3	25.9	33.3	10.5	6.3	8.2
그 외	빈도(명)	12	4	0	0	1	7
	비율(%)	6.6	14.8	0.0	0.0	6.3	8.2
이전의 학업 성취도 및 성적	빈도(명)	9	1	1	3	1	3
	비율(%)	5.0	3.7	6.7	7.9	6.3	3.5
긍정적 진로 전망	빈도(명)	5	1	0	1	0	3
	비율(%)	2.8	3.7	0.0	2.6	0.0	3.5

과기특성화대학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로는 ‘교수진과 연구실(26.5%)’, ‘학교의 국제적 인지도(25.4%)’, ‘등록비 및 생활비(20.4%)’, ‘가족, 친구, 교수 등 주변인의 권유(13.3%)’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교수진과 연구실’, ‘학교의 국제적 인지도’, ‘등록비 및 생활비’가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GIST와 DGIST의 경우 ‘학교의 국제적 인지도’를 선택한 응답자가 없었다. ‘그 외’의 구체적인 답변으로는 ‘한국어 능력 요구조건 없음,’ ‘학업 자원의 질,’ ‘졸업 후의 의무 조건 없음,’ ‘KOICA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강의’ 등이 있었다.

다음은 현재 재학 중인 과기특성화대학을 목적지로 선택한 데 영향을 미친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7점 만점 리퀴트 스케일로 총 17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표 60>은 학교 선택 요인에 대한 학교 별 평균 점수 결과이다.

표 60 학교 선택 요인

학교	전체		GIST		DGIST		UNIST		POSTECH		KAI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장학금의 기회	6.30	0.990	6.33	0.920	6.13	1.187	6.00	1.139	6.50	0.966	6.42	0.891
연구실 시설의 질	6.12	1.134	6.37	0.884	6.00	1.558	5.95	1.293	6.56	0.727	6.06	1.095
영어강의의 수	5.86	1.367	5.41	1.526	5.20	1.897	5.76	1.515	6.06	1.181	6.12	1.096
교수의 전문성	5.82	1.239	6.15	1.099	5.07	1.981	5.68	1.472	6.25	0.931	5.84	0.986
등록금	5.70	1.438	5.96	1.454	6.07	1.163	5.37	1.731	5.63	1.544	5.71	1.308
졸업 후 직업 전망	5.64	1.353	5.70	1.295	5.27	1.831	5.29	1.469	6.13	0.885	5.75	1.272
학교의 국제인 지도	5.61	1.254	5.22	1.086	4.40	1.724	5.13	1.319	6.06	0.998	6.08	0.941
연구실 평판	5.55	1.364	5.96	1.192	5.00	1.890	5.42	1.500	5.94	0.929	5.49	1.288
학교시설	5.46	1.412	6.15	1.064	5.40	1.352	4.89	1.737	6.06	0.929	5.40	1.329
선호하는 강의 유무	5.39	1.381	5.19	1.388	4.93	1.335	5.05	1.576	5.81	1.276	5.61	1.273
질문에 대한 학교의 빠른 응답	4.98	1.588	5.44	1.251	4.87	1.885	4.39	1.748	5.88	1.310	4.94	1.515
학교 지원 과정 편의성	4.80	1.698	5.56	1.340	5.00	1.604	3.97	1.896	5.56	1.672	4.75	1.580
중요한 사람의 영향	4.56	1.736	5.22	1.553	4.80	1.740	3.97	1.896	4.56	1.825	4.56	1.651
국제 학생수	4.52	1.576	4.59	1.803	3.47	1.457	3.97	1.515	5.31	1.493	4.78	1.426
미디어에 비치는 학교 이미지	4.20	1.765	4.63	1.779	3.33	1.543	4.21	1.818	4.81	1.328	4.09	1.804

높은 점수를 보인 요인에는 ‘장학금의 기회(6.30점),’ ‘연구실 시설의 질(6.13점),’ ‘영어강의의 수(5.86점),’ ‘교수의 전문성(5.83점),’ ‘등록금(5.67점),’ ‘연구실 평판(5.55점)’ 이 있었다. 한국으로의 유학 선택요인 및 기대 수준과 마찬가지로 연구·교육 및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요인에 의해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학의 소재지(3.87점)’ 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정보 획득의 경로

<표 61>은 한국 관련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표 61 한국 관련 정보 획득 경로

	정보 획득 매체			온라인 플랫폼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인터넷 검색	121	66.9	페이스북	46	25.4
구전(친구/또래집단)	35	19.3	유튜브	28	15.5
TV	13	7.2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23	12.7
그 외	8	4.4	그 외	11	6.1
구전(가족)	3	1.7	블로그	8	4.4
한국 정부기관	1	0.6	인스타그램	5	2.7

‘인터넷 검색’ 이 121명(66.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와 또래집단’ 으로부터의 정보 획득이 35명(19.3%)이었다. ‘자국 내 한국 정부기관’ 에서의 정보 획득은 1명(0.6%)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 121명에 대해 어떤 플랫폼을 자주 이용했는지 추가로 질문한 결과, ‘페이스북’ 46명(25.4%), ‘유튜브’ 28명(15.5%), ‘한국유학종합시스템’ 23명(12.7%) 등의 순으로 답했다. ‘그 외’ 의 구체적으로 답변에는 다수가 ‘Google’ 이라고 답했으며, ‘특정 연구실 웹사이트’ 도 있었다.

<표 62>은 학교 관련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표 62 학교 관련 정보 획득 경로

	정보 획득 매체			온라인 플랫폼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인터넷 검색	99	54.7	학교 사이트	67	37.0
구전 (친구/또래집단)	39	21.5	국제학생 커뮤니티 페이지	25	13.8
학교 입학설명회	23	12.7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5	2.8
그 외	10	5.5	그 외	2	1.1
유학원 상담	5	2.8			
구전(가족)	4	2.2			
한국정부기관	1	0.6			

학교 관련 정보 획득의 경로도 한국 관련 정보 획득 경로와 비슷하게 ‘인터넷 검색(99명, 54.7%)’ 과 ‘친구와 또래집단에 의한 구전(39명, 21.5%)’ 이 큰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학교 정보와 관련해서는 유학생들이 학교 ‘입학설명회(23명, 12.7%)’ 에서도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그 외’ 라고 답한 10명의 학생들은 ‘현재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이전의 인턴십 경험’ 을 통해 정보를 획득했다고 한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국 내 교수’ 를 통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해 알게되었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기관’ 을 통해 학교에 대해 알게되었다고 답한 학생은 1명(0.5%)에 불과했다.

7) 진로계획

유학생들이 진로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자기 발전의 기회(91명, 50.3%)’ 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감(35명, 19.3%)’ , ‘임금(30명, 16.6%)’ , ‘귀국(23명, 12.7%)’ 이 그 뒤를 이었다. 졸업 이후의 진로계획에 대해서는 <표 63> 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63 진로계획

졸업 후 계획	빈도(비율)	졸업 후 체류 희망 국가	빈도(비율) ²⁹⁾	선택이유	빈도(비율) ³⁰⁾			
연구 활동	89(49.2%)	(한국과 자국이 아닌) 제3국	41(22.7%)	연구 기회	16(8.8%)			
				그 외	15(8.3%)			
				학계 네트워크	6(3.3%)			
				프로그램 명성	2(1.1%)			
				생활비용	2(1.1%)			
		한국	32(17.7%)	한국	32(17.7%)	연구 기회	28(15.5%)	
						학계 네트워크	4(2.2%)	
						가족	7(3.9%)	
		자국	16(8.8%)	자국	16(8.8%)	학계 네트워크	4(2.2%)	
						그 외	4(2.2%)	
						연구 기회	1(0.6%)	
						가족	9(5.0%)	
취업	51(28.2%)	자국	22(12.1%)	그 외	5(2.8%)			
				취업 기회	2(1.1%)			
				생활비용	2(1.1%)			
				삶의 질	2(1.1%)			
				직업 네트워크	2(1.1%)			
				삶의 질	9(5.0%)			
		한국	20(11.0%)	한국	20(11.0%)	취업 기회	6(3.3%)	
						직업 네트워크	3(1.7%)	
						생활비용	1(0.6%)	
						그 외	1(0.6%)	
						취업 기회	3(1.7%)	
		제3국	9(4.9%)	제3국	9(4.9%)	그 외	3(1.7%)	
						삶의 질	2(1.1%)	
						생활비용	1(0.6%)	
						그 외	3(1.7%)	
		그 외	3(1.7%)					
		모름/미정	38(21.0%)					

29) 총 실제 분석 대상자 대비.

30) 총 실제 분석 대상자 대비.

졸업 이후 계획에 89명(49.2%)가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것’ 이라고 응답했고, 그 중 32명(17.7%)가 한국에서, 16명(8.8%)가 자국으로 귀국해서, 41명(22.7%)가 한국과 자국이 아닌 제3국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연구를 이어나가길 희망하는 응답자 중 28명(15.5%)은 한국에 ‘더 많은 연구 기회’ 가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이 외에 4명(2.2%)은 ‘학문적 네트워크’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한국 유학 동기에서 중요한 요소였던 ‘생활비용’ 은 0명으로 졸업 후 한국에서 연구를 이어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자국에서 연구를 이어나가길 희망하는 응답자 중 7명(3.9%)는 ‘자국에 있는 가족’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4명(2.2%)은 ‘학문적 네트워크’, 4명(2.2%)은 기타, 1명(0.6%)은 자국에 ‘더 많은 연구 기회’ 가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자국에 있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드러났다. 기타 원인에는 ‘자국에 이미 직업이 있음,’ ‘자국 대학과의 졸업 후 의무 근로 조건(service bond),’ ‘자국에 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국에 부족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자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연구를 이어나가길 희망하는 응답자 중 16명(8.8%)는 ‘더 많은 연구 기회가 있기 때문’ 이라고 응답했으며, 6명(3.3%)는 ‘학문적 네트워크’, 2명(1.1%)은 ‘프로그램 명성’, 2명(1.1%)은 ‘생활비용’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기타 원인(15명, 8.3%)에는 기타 원인에는 ‘더 좋은 연구 환경,’ ‘삶의 질,’ ‘이주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위해,’ ‘한국의 언어 장벽 때문에’ 등이 있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질문에 취업을 선택한 유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사기업(31명, 17.1%),’ ‘정부기관(11명, 6.1%),’ ‘NGO(5명, 2.8%),’ ‘창업(4명, 2.2%)’ 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응답자(32명, 17.7%) 중 ‘삶의 질(9명, 5.0%)’ 과 ‘취업 기회(6명, 3.3%)’ 를 이유로 든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자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한 응답자는 16명(17.7%)이었다. 가장 큰 원인은 ‘자국에 있는 가족(9명, 5.0%)’ 때문이었으며, ‘생활비용(2명, 1.1%),’ ‘취직 기회(2명, 1.1%),’ ‘삶의 질(2명, 1.1%),’ ‘직업 네트워크(2명, 1.1%)’ 는 낮은 비율로 있었다. 기타 원인에는 ‘현재 자국 공무원이기 때문에’ 와 ‘문화적 차이가 커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자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응답자는 9명(5.0%)으로 가장 적었다. 이 들에게는 ‘취업기회(3명, 1.7%),’ ‘삶의 질(2명, 1.1%),’ ‘생활비용(1명, 0.6%)’ 가 이유였다. 기타 원인에는 ‘언어 장벽’ 이 있었다.

8) 유학생할 만족도

본 설문에서 만족도 조사의 대상 주제로 설정한 항목들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지원 과정에 대한 만족도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이공계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 경험에 대한 만족도 ▷향후 진로를 구상하거나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과 관련된 만족도 ▷한국에서의 언어 경험이나 제도와 법 같은 사회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유학 중의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 ▷유학 중 겪는 스트레스나 개인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이었다.

세부 항목별로 학교별 차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했다. 만족도 요인에 대한 성별 편차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지만, 성별에 따라 두드러진 편차를 보이는 요인은 없었다.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유학 지원 과정

표 64 학교 지원 과정에 대한 만족도

학교	총계		GIST		DGIST		UNIST		POSTECH		KAI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국에 대한 정보 획득	5.13	1.284	5.22	1.311	4.67	1.589	5.16	1.128	4.75	1.844	5.25	1.154
학교에 대한 정보 획득	5.29	1.224	5.22	1.368	4.67	1.543	5.29	1.160	5.13	1.408	5.46	1.086
학교 입학처와의 커뮤니케이션	5.45	1.343	5.37	1.471	5.47	1.922	5.53	1.224	5.38	1.360	5.46	1.259
한국 비자 획득과정에서의 학교 측 지원	5.84	1.230	5.52	1.477	5.20	1.897	5.87	1.166	5.81	1.167	6.05	0.987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대답이 우세했다. 한국 및 학교에 대한 정보 획득과 한국 비자를 취득하는 데 있어 학교의 도움에 만족했다는 세 가지 문항에 대한 대답은 과기특성화대학 중 KAIST 학생들의 평균 만족도가 각각 5.25, 5.46, 6.05점으로 가

장 높았으며, 학교 입학처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UNIST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평균 5.53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한국 비자 획득과 관련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KAIST는 0.987의 표준편차를 보여 대다수 학생이 비자 취득과 관련해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학교 교육

표 65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학교	총계		GIST		DGIST		UNIST		POSTECH		KAI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육 시설 (강의실, 도서관 등)	6.17	1.010	6.04	1.126	6.20	1.207	6.08	1.050	5.50	1.211	6.38	0.816
ICT 시설 /인프라(와이파이, 인터넷 속도 등)	6.04	1.102	6.07	1.299	6.07	1.163	5.97	1.150	5.88	1.258	6.08	0.991
강의의 질	5.11	1.433	4.81	1.711	5.07	1.486	5.11	1.429	5.38	1.088	5.35	1.395
강의의 다양성	5.18	1.387	4.89	1.368	4.80	1.521	4.92	1.383	5.69	1.078	5.35	1.395
평가제도 의 공평성	5.25	1.342	5.04	1.344	5.20	1.699	5.58	0.976	5.50	1.366	5.14	1.407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일반적이다. 특히 교육 시설(강의실, 도서관 등)이나 ICT 시설 및 인프라(와이파이, 인터넷 속도 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점 이상을 보여 강의의 질이나 강의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보다 평균 약 1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문항별로 가장 긍정적 응답을 한 집단을 살펴보면, 교육 시설 전반에 관련해서는 KAIST가 평균 6.38점으로 가장 높았고, ICT 시설 및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GIST와 DGIST가 모두 평균 6.07점을 기록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강의의 질과 다양성에서는

POSTECH이 각각 평균 5.38점, 평균 5.69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평가제도의 공정성은 UNIST가 평균 5.58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 연구

표 66 연구에 대한 만족도

학교	총계		GIST		DGIST		UNIST		POSTECH		KAI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도교수의 전문성	5.66	1.394	5.18	1.741	5.83	1.337	6.16	0.898	5.38	1.784	5.63	1.314
지도교수의 네트워크	5.74	1.239	5.35	1.579	5.83	1.115	6.00	1.041	5.88	1.147	5.67	1.264
지도교수의 지도 방식	5.27	1.626	5.18	2.007	5.42	1.564	5.68	1.520	4.94	1.843	5.17	1.505
영어 진행 랩미팅 빈도	5.17	1.910	5.53	1.908	5.08	1.621	5.72	1.595	4.94	2.016	4.88	2.064
연구실내 새로운 아이디어 포용도	5.22	1.629	5.47	1.772	4.83	1.586	5.72	1.568	4.69	2.056	5.15	1.447
연구실 규율 및 체계	4.87	1.758	4.94	2.045	4.83	1.586	5.44	1.356	4.06	2.175	4.83	1.689
연구실 동료와의 상호작용	4.78	1.761	5.06	2.045	5.25	1.658	5.20	1.633	4.06	2.235	4.60	1.537
연구실 시설	5.69	1.220	5.59	1.583	6.17	1.030	6.12	1.013	5.44	1.031	5.48	1.229

본 설문 이공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표 66>은 연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22명의 연구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정리한 것이다. 앞서 만족도 설문 결과와 유사하게 전반적인 만족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실 규율 및 체계와

연구실 동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평균 4.87점, 4.78점을 보여 평균 만족도 5점대를 기록한 여타 문항과 차이를 보였다.

지도교수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지도교수와의 네트워크에 대한 만족도, 지도교수의 지도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과기특성화대학 중 UNIST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영어로 랩미팅이 진행되는지와 연구실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용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 응답도 마찬가지로 UNIST가 가장 높았다. 보통인 4점보다는 높으나, 여타 항목보다 다소 낮은 평균 만족도를 보이는 연구실 규율 및 체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문항에서는 UNIST가 평균 5.4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연구실 동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도는 DGIST가 평균 5.25점으로 가장 긍정적이었다. 교육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연구실 분위기에 대해서도 중간 척도인 4점보다는 긍정적인 대답이 우세했지만 다른 항목에 비교해 만족도가 낮은 점으로 미뤄보았을 때, 유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문화 차이나, 한국 학생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방안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진로 설계 지원

표 67 진로 설계 지원에 대한 만족도

학교	총계		GIST		DGIST		UNIST		POSTECH		KAI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학생 대상 취업박람회	3.82	1.454	3.74	1.509	2.53	1.552	3.71	1.206	4.44	1.365	4.01	1.427
한국취업 정보제공	3.75	1.479	3.70	1.750	2.53	1.457	3.76	1.218	3.88	1.310	3.95	1.455
한국정부 주최 취업정보 박람회	3.66	1.469	3.85	1.769	2.60	1.502	3.66	1.236	3.75	1.291	3.78	1.442
교내 취업상담	3.77	1.545	4.00	1.687	2.73	1.710	3.84	1.305	4.00	1.789	3.81	1.484
한국 취업준비 지원	3.59	1.456	3.78	1.649	2.33	1.543	3.58	1.368	3.81	1.377	3.72	1.351

진로 설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평균(4점) 아래를 웃돌고 있다. 또한, 학교별 편차가 다소 크다.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에 대한 전체 만족도 평균은 3.82점이지만, POSTECH은 평균 4.44점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학교지원 과정, 학교의 전반 교육 환경, 연구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4점) 이상을 보였던 것에 반해 진로 설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평균 3점대에 머물고 있어, 유학생들이 유학을 결정한 이후 실제로 유학을 와서 지내는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지만, 졸업 이후의 진로를 설정하는 과정이나 진로 확정을 위해 도움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설문조사의 표본은 신남방지역 외국인 유학생이므로, 결과를 한국 학생 집단과 비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유학생들에게 적은 진로 상담 기회나 정보제공이 이뤄진다고 선불리 결론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항목의 만족도와 비교해 봤을 때 진로설계에 도움을 받는 것에 있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취업 또는 진로 상담이나 정보 제공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커뮤니케이션

<표 68>은 커뮤니케이션 및 타인과의 소통에 관련한 만족도 조사 결과이다. 유학생들이 커뮤니티 내외에서 진행하는 의사소통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교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질문 항목에서 UNIST가 가장 높은 평균 만족도를 보였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교해 조금 낮더라도 유학생들은 의사소통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인프라 또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유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환경이 외국어에 친화적인 환경이라면 유학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68 커뮤니케이션 및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만족도

학교	총계		GIST		DGIST		UNIST		POSTECH		KAI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교 내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4.39	1.533	4.04	1.698	4.27	1.280	4.74	1.465	3.81	1.721	4.48	1.493
영어강의 언어 능숙도	5.05	1.330	4.37	1.391	5.07	1.438	5.42	1.308	5.06	1.389	5.09	1.240
학교 행정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4.82	1.446	4.78	1.528	4.80	1.568	5.26	1.389	4.88	1.455	4.64	1.413
한국인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4.27	1.744	4.00	1.797	4.20	1.699	4.89	1.828	3.88	1.928	4.15	1.629
학교 직원 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4.29	1.508	4.19	1.570	3.67	1.952	4.82	1.540	4.69	1.448	4.12	1.340
포털사이트 내 정보의 질	5.22	1.279	4.93	1.385	5.20	1.014	5.42	1.030	4.75	1.732	5.31	1.282
교내 공지사항 내 영어 정보	4.88	1.637	4.33	1.861	4.67	1.589	5.50	1.247	4.13	1.821	4.96	1.607
캠퍼스 내 영어정보	4.61	1.648	3.67	1.569	4.80	1.699	5.21	1.398	3.75	1.653	4.76	1.616
교외 커뮤니케이션	4.04	1.563	3.93	1.492	3.73	2.017	4.50	1.573	3.63	1.668	4.01	1.460
교내 한국어교육	4.71	1.508	5.04	1.743	5.20	1.521	4.08	1.421	4.06	1.124	4.92	1.433

○ 관련 법과 제도

다음은 한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이다. 2019년 6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 예고가 생기며 유학생들이 한시적으로 국민보험 가입을 제한받게 되고, 국민보험 가입 의무화 예고에 따라 유학생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논의가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본 항목에서는 건강보험이나 여타 관련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위주로 설문을 진행했다.

표 69 한국의 법/제도에 대한 만족도

학교	총계		GIST		DGIST		UNIST		POSTECH		KAI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국의 제도 (건강보험, 비자 등)	5.34	1.270	5.19	1.415	5.67	1.175	4.95	1.488	5.19	0.911	5.53	1.161
건강보험 비용	4.98	1.390	5.19	1.075	5.47	1.642	4.50	1.390	4.25	1.390	5.18	1.356
건강보험 적용 범위	5.14	1.469	5.41	1.338	5.73	1.335	4.71	1.412	4.38	1.544	5.29	1.471
건강보험 서비스의 질	5.57	1.141	5.67	1.144	6.13	0.640	5.16	1.285	5.38	1.088	5.67	1.106
비자 연장/갱신 과정	5.21	1.321	5.11	1.281	5.27	1.223	5.00	1.507	5.44	1.590	5.28	1.221
비자 연장/갱신 관련 학교 측 지원	5.49	1.276	5.59	1.152	5.07	1.710	5.79	1.189	5.19	1.167	5.45	1.277

○ 건강 보험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나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각각 평균 5.34점, 5.57점으로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 비용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4.98점으로 제도 자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비용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약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자 취득에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평균 척도(4점)를 웃도는 5점대의 만족도를 보인다. 각 과기특성화대학별로 유학

생들의 건강보험이나 비자지원과 관련한 행정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고려할 때, 한국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어 나타나는 만족도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재정 상태 및 지원

다음은 유학생들의 재정 상태와 관련한 만족도 설문 결과이다. 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재정 상태에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이는 편이나, POSTECH의 경우 평균 만족도 3.88점과 2.062라는 높은 표준편차를 보여 유학생 개개인별로 체감하는 만족도에 큰 차이가 있었다. POSTECH은 유학 생활 비용과 학교 등록금, 학교 장학제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타 대학에 비교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여타 과기특성화대학과 달리 POSTECH이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체 평균 만족도에서 학교 등록금 자체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5.33점, 학교 장학금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4.98점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제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표 70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

학교	총계		GIST		DGIST		UNIST		POSTECH		KAI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재정 상태	4.57	1.450	4.56	1.368	4.53	1.506	4.50	1.351	3.88	2.062	4.75	1.362
유학 생활비용	4.36	1.490	4.33	1.544	4.07	1.751	4.05	1.469	3.75	1.915	4.67	1.295
학교 등록금	5.33	1.602	5.07	1.439	6.40	0.910	5.00	1.414	3.31	2.330	5.74	1.283
학교 장학금	4.98	1.612	4.78	1.396	4.93	2.052	4.68	1.772	4.31	2.056	5.31	1.372

○ 안전 및 사회문화적 환경

<표 71>은 한국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결과이다. 한국의 사회적 환경 전반, 한국사회의 안전도(치안), 낮은 인종차별 환경, 다문화주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 모두 중간 척도인 4점을 웃돈다. 주목할만한 점은 치안과 관련한 만족도 질문에서는 평균 6.13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유학생들은 한국 전반의 사회적 환경이나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환경적 측면에서는 큰 만족을 보이지 않았지만, 치안 부문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여 해당 지점이 유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을 결정하는 데에도 매력적인 요인이 되며, 실제로도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표 71 사회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학교	총계		GIST		DGIST		UNIST		POSTECH		KAI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국 사회적환경	4.39	1.489	4.15	1.634	4.40	1.454	4.63	1.567	3.75	1.483	4.47	1.402
한국사회 안전도	6.13	1.035	5.96	1.315	6.47	0.743	6.11	1.008	5.88	1.088	6.19	0.982
낮은 인종차별 환경	4.33	1.754	4.15	1.769	4.33	2.257	4.79	1.727	3.38	1.708	4.35	1.631
다문화주의 환경	4.13	1.691	4.15	1.854	4.07	2.017	4.53	1.672	3.13	1.746	4.15	1.531

○ 개인 일상 생활

다음은 유학생들의 개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이다.

표 72 개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교	총계		GIST		DGIST		UNIST		POSTECH		KAIS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개인생활	4.75	1.550	4.56	1.450	4.67	1.759	4.74	1.589	3.94	1.982	4.98	1.406
종교활동	4.44	1.404	4.89	1.013	3.47	1.598	4.45	1.465	3.75	1.483	4.60	1.338
한국인과의 사회적 활동	3.94	1.605	3.81	1.819	4.13	1.642	4.08	1.683	3.44	1.931	3.99	1.435
자국사람들과의 사회적 활동	5.20	1.339	5.44	1.086	4.87	1.187	4.71	1.558	4.69	1.352	5.49	1.250
교내 대외활동	4.48	1.511	4.37	1.445	4.00	2.070	4.63	1.422	3.69	1.352	4.67	1.451
교내 행사 (축제, 체육대회 등)	4.76	1.417	4.85	1.379	4.27	2.052	4.61	1.569	4.25	1.390	4.98	1.195
교내 음식	4.03	1.671	4.56	1.553	2.73	1.335	4.18	1.843	3.38	1.784	4.14	1.544
교외 음식	5.01	1.470	5.11	1.251	4.33	1.877	4.84	1.701	3.81	1.759	5.39	1.103

개인 생활과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 문항 중에서는, 한국인과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간 척도인 4점 이상을 보인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개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KAIST가 평균 4.98점으로 가장 높았고, 종교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GIST가 평균 4.89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이 중간 척도를 밑도는 한국인과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DGIST가 평균 4.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POSTECH이 평균 3.44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같은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과의 활동, 교내 대외활동, 교내 행사(축제, 체육대회 등)에 대한 만족도는 KAIST가 각각 평균 5.49점, 4.67점, 4.9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KAIST가 과기특성화대학 중 가장 큰 규모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과 국가별로도 많은 수의 학생이 재학 중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느끼는 생활면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교내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유학생들이 평균 4.03점의 만족도를 보이고, 교외 음식은 평균 5.01점의 만족도를 보여 학내에서도 유학생들이 식생활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다음은 유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내 심리상담센터에 대한 만족도, 한국 유학 생활 중 받는 스트레스 정도, 교내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문항은 최대 3개까지 다중선택이 가능하도록 응답을 받았다.

표 73 유학 생활 스트레스 정도

학교	총계		GIST		DGIST		UNIST		POSTECH		KAIS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교내 심리상담센터	4.39	1.420	4.41	1.526	3.13	1.767	4.00	1.273	4.06	1.181	4.84	1.243
한국 유학생 생활 스트레스 정도	5.28	1.252	5.07	1.299	5.53	1.187	5.21	1.189	5.88	1.258	5.21	1.264

한국 유학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는 1점(매우 낮음)부터 7점(매우 높음)으로 측정하였고, 응답자들은 평균 5.28점을 보이며 조금 높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모든 학교에서 평균 5점을 웃도는 결과를 보여 학교별 유학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유학생들이 공통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교내의 심리상담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39점을 보였고, 교내

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채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 응답에서 ‘있다’ 고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77명(42.5%), ‘없다’ 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04명(57.5%)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지원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유학생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유학생 활중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업과 관련된 압박을 123명이 선택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83명이 선택한 언어장벽 문제였다. 그 외 향수병, 문화 차이, 동료 혹은 지도교수와의 관계는 각각 30여 명이 선택하였다. 따라서 신남방지역 유학생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학업과 관련된 압박감과 언어 문제인 것으로 확인된다.

4.2. 질적 연구 및 결과 분석

4.2.1. 연구 설계 및 인터뷰 조사

연구진은 과학기술분야 이공계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5개 과기특성화대학 교직원과 신남방지역 유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제협력처 직원 인터뷰 중 추천 사례로 언급된 한양대 국제처의 유학생 지원 사례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정책전문가와 외국인 유학생이 참가한 간담회를 기획 및 주관하여 논의를 정리하였다.

우선 인터뷰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진행되었다. 첫째, 5개 과기특성화 대학에 재학 중인 신남방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 유학 만족도 및 진로 계획을 살펴보고, 둘째, 유학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 유학생들을 지원하고 관리할 때 겪는 어려움 등을 청취하기 위함이었다. 인터뷰는 모두 9회에 걸쳐 대면하여 진행하였으며 네 차례의 표적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인터뷰 설계에 앞서 기관 감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연구계획서의 신청서, 연구계획서 요약본, 인간대상연구용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 인터뷰 수행에 대한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이 <표74>에 정리하였다.

표 74 반구조화 인터뷰 및 표적집단면접

회차	일시 (2019년)	소요시간	장소	인터뷰 대상	인터뷰 형식
1	7월 31일	1시간 30분	KAIST	KAIST 유학생들	표적집단면접
2	8월 8일	1시간 20분	KAIST	KAIST 국제 교원 및 학생 지원팀(ISSS)	표적집단면접
3	8월 12일	1시간 10분	UNIST	UNIST 국제협력센터 직원	인터뷰
4	8월 12일	1시간	UNIST	UNIST 유학생들	표적집단면접
5	8월 12일	1시간	DGIST	DGIST 국제협력팀 직원	인터뷰
6	8월 13일	1시간	POSTECH	POSTECH 국제협력팀 직원	인터뷰
7	8월 13일	1시간 30분	POSTECH	POSTECH 유학생들	표적집단면접
8	10월 17일	20분	AIEC (호주 Perth)	대학국제교류위원회장	인터뷰
9	11월 15일	각 20분	KAIST	KAIST 및 POSTECH 유학생	인터뷰

DGIST와 GIST의 유학생과 GIST의 유학생 담당 부서를 제외한 각 과기특성화 대학의 유학생과 교직원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 초기 단계에서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하는 방식은 KAIST, UNIST, DGIST의 경우 연구팀 내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눈덩이 표집 방식(snowball sampling), POSTECH의 경우 웹검색을 통해 대학원 학생회장의 연락처를 획득하고 눈덩이 표집 방식을 취했다. DGIST와 GIST의 경우 인터뷰가 가능한 학교 담당자를 접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4.2.2. 비정형 인터뷰의 조사 문항

인터뷰 질문지에 포함된 내용을 회차별로 요약 정리하면 <표 75>와 같다. 모든 인터뷰는 연구원 소개, 개괄적인 연구 목적 및 인터뷰 지침 설명, 인터뷰 진행, 추가 및 확인 질문, 공식적 녹취 종료, 눈덩이 표집 방식을 통한 추가 인터뷰 대상자 연락처 확보, 감사 인사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표 75 회차별 인터뷰 질문지 구성 요약

회차	인터뷰 대상	질문지 구성
1, 4, 7	KAIST, UNIST, POSTECH 유학생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인구학적 정보(이름, 학위 과정 및 학년, 국적, 전공) - 주제1: 유학 동기(한국 유학 동기, 한국 과기특성화대학 유학에 대한 기대 수준, 한국 과기특성화대학 유학 정보 획득 방법 및 유학 준비 방법) - 주제2: 유학 만족도 (교육 환경(수학/연구), 재정 지원, 사회적 관계, 제도적/법적 환경, 기타 삶의 질(문화적 요인, 개인 생활), 한국 과기특성화대학의 장점 및 단점, 개선점 제안) - 주제3: 진로 계획 (졸업 후 계획, 재학 중인 대학의 진로 관련 정보제공 여부, 졸업 후 한국 체류 계획(체류 혹은 출국 희망 이유))
2, 3, 5, 6	KAIST 국제 교원 및 학생 지원팀(ISSS), UNIST, POSTECH, DGIST 국제협력센터(팀)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1: 입학 (유학생 유입 경로, 입학 지원 방식, 입학 이후 전공 현황 등) - 주제2: 장학 (장학금 및 조교 기회 정보제공 방식 등) - 주제3: 유학생 지원 사업(프로그램 & 행사, 버디 & 멘토링, 핸드북), 제도적/법적 지원 (비자, 건강보험, 상담), 교육 및 연구 지원, 기타 생활 지원 - 주제4: 유학생의 졸업 후 현황 - 주제5: 기타 학내 이슈 및 향후 정책, 애로사항
8	한국대학국제교류위원회 회장 (한양대 이기정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1: 과기특성화대학으로의 신남방 유학생 유치 및 평가 전략 (국제화 전략) - 주제2: 유학 동기 및 유학 만족도 조사 - 주제3: 한양대 사례
9	KAIST 및 POSTECH 유학생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1: 한국 유학 동기 - 주제2: 한국 유학의 어려움 및 어려움 극복 경험 - 주제3: 진로 계획

4.2.3. 연구 결과

비정형인터뷰 및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조사한 과기특성화대학 신남방지역 유학생의 만족도와 유학생 정책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더불어, 연구진이 기획한 정책간담회의 논의 사항을 기록하여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분석과 비교하였다. 정책간담회는 2019년 11월 15일 <신남방지역 유학생 정책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3시간 30분여간 진행되었고,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시작으로 참가한 30여명의 신남방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였다.

1) 한국 유학의 동기

앞서 정리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덧붙여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유학을 결정하는 다양한 계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지인의 소개나 추천, 대사관을 통한 홍보, 해당 대학 교수와의 연구 경험 혹은 연구 내용에 대한 정보, 기관 간 교류 협정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유학에 대한 기회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유학생 유치에 있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사례로, 한 과기특성화대학에 재직 중인 인도 국적의 교수를 통해 다른 국적의 학생들이 해당 대학으로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관을 통한 홍보는 학교 차원에서 입학전형 자료를 각국의 대사관에 배포하는데, 이를 통해 유학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와 관련된 요소를 중심으로 유학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대학 교수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유학을 오게 된 경우도 있었다. 한국에서의 유학 이후 본국에 돌아가 교수 혹은 강사로 일하는 외국인을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유학을 결심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한 학생은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의 특정 기관과 과기특성화대학(KAIST)이 맺은 교류 협정을 통해 해당 대학을 알게 되었고,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방문연구 중인 과기특성화대학 소속 교수(KAIST)와의 만남을 통해 해당 대학을 접하게 되어 유학을 오게 되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유학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

유학생 유치 전략과 관련해서, 국제교육 전문가이자 한국대학국제교류위원회(KAFSA) 회장을 역임했던 교육전문가는 한국은 아직 국제화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학생 유치정책에 있어 질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보다 양적으로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는 “교육 국제화”를 목표를 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해당 교수는 “개인적으로 상위 10개 대학 정도만 연구를 위한 국제화로 가고[즉, 질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에 주력하는 전략], 나머지 대학은 교육 국제화를 했으면 좋겠다” 고 나누었다. 이는 과기특성화대학에서 유치 목표대상 학생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적절한 유치 전략을 계획해야 함을 암시한다.

2) 유학생의 기대 수준

유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높은 학구열’ 과 ‘재정적 지원’, ‘국제화된 캠퍼스 환경’ 에 대해 기대를 갖고 유학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석·박사과정의 유학생들은 한국의 학업 환경이 매우 경쟁적이라는 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몇몇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이 대부분 생활비와 등록금 모두를 지원해준다는 것을 큰 강점으로 꼽았다. 독일이나 호주에서의 유학을 고려한 학생도 있었지만 생활비만 지원해준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한 학생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인도네시아인 학생에게는 해외 유학이 부담이 되는데 (이 때문에) 재정적 지원은 큰 의미가 있다” 고 언급했다.

2018년 진행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내국인 연구자-대학원생의 인식 설문조사” (BRIC-한겨레)와 2019년 진행된 “국내 외국인 유학생&연구자 취재 보도” (한겨레, 2019.3.30.)의 내용, 그리고 신남방지역 출신의 유학생으로서 한국 학계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유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연구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연구기회가 많고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한편 과기특성화대학이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bilingual) 캠퍼스” 이미지를 홍보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국제화 캠퍼스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고 한국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학교의 홍보 내용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를 느끼고 있었다.

3) 유학생

과기특성화대학 신남방지역 유학생들의 생활에 대해 ▷ 제도 및 유학생 지원 정책, ▷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 ▷ 문화 및 사회적 관계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해보았다.

○ 제도 및 유학생 지원 정책

설문 결과를 통해 유학생들은 한국의 비자 취득과 건강보험제도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개편안은 각 대학의 유학생 담당 업무 부처와 유학생들에게 혼선을 일으켰다. 그동안 과기특성화대학에서는 유학생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권장 및 안내하고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인터뷰에서 한 대학의 실무자는 이러한 정책적 혼선의 과정에서 유학생들이 한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인 자신들에게 많은 업무 부담이 지워진다고 하였다. 이 실무자는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이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가 변경되기 전 최대한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학생 관련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 유관기관에서의 가이드라인이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혹시 모를 전염병의 발생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 등 대처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과기특성화대학 국제협력처와의 인터뷰에서는 설문에서 드러나지 않은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 실무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사관리가 부족함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중도탈락률을 학교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비단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학생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지만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더 크고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다. 중도탈락한 유학생들은 대부분 학부 1학년 때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기초과목 성적이 부진하였고, 이러한 문제는 자국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의 차이에서 기인하였다. 중도탈락이 된 학생들은 학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등록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미등록 제적자가 되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UNIST의 경우 중도탈락자가 되면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이 모두 끊긴 채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이 학습 미진으로 인해 중도탈락을 하고 불법체류자까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교내에서 외국인 학생의 기초학습을 돕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

조사결과, 각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그 가족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환영회를 개최하여 학사와 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은 한국인 학생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과 다른 유학생과의 커뮤니티 형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나뉘볼 수 있다. 한국인 학생과의 연결을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다른 유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유학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AIST의 경우에는 ‘국제화인증동아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학내 동아리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선뜻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동아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관계자는 이 인증 프로그램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은 여전히 언어장벽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과기특성화대학들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유학생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유학 생활의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ST의 한 학부생은 인터뷰에서 대학이 ‘bilingual’ 캠퍼스라고 홍보하는 반면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라리 현실과 비슷하게 기대치를 설정해 달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수업 내에서 한국어 사용이 많아지면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또 다른 학생의 경우, 수업 중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수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POSTECH의 한 학생은 외국인 학생이 들어야 하는 세미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세미나지만 50%가 한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외국인 유학생들)는 그냥 가서 잔다”라며 “소외되는 기분”이 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언어장벽은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 학생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지 못하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한 학생은 동료 한국인 학생들이 대부분 영어를 잘하지만 한국어 대화 중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 웃지 못할 때 등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한 학생은 한국을 유학지로 선택한 이유로 입학과정이 복잡하지 않은 점을 꼽았고 한국어 능력 자격증 등의 언어 자격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에서 80.2%의 학생이 기초 수준의 한국어 실력만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고, 57.7%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답한 것을 보아 신남방지역 유학생들의 대다수가 위 학생과 비슷한 이유로 과기특성화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앞서 언급한 언어장벽 문제는 과기특성화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한국어 성적을 자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음으로

써 재학생들의 한국어 활용능력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결과를 낳고, 이는 장기적으로 유학 생활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유학생은 영어권 국가가 아닌 한국에서는 언어장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학생들에게 입학 전에 TOPIK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것이 언어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POSTECH 국제협력팀에서는 “한국에서 살아남기(Survival Korean Class)”라는 한국어 강의를 제공한다. 어학센터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강의의 경우 대학원생들이 시간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대안으로 학기당 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주 1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간단한 회화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강사는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자로, 유학생을 인솔하여 마트를 가는 등 실생활에서 한국어를 직접 사용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유학생들이 긴급상황 시에 강사들에게 한국어 관련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비록 언어 문제가 유학생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지만, 일상적으로 유학생들이 마주하는 환경이 유학생 친화적이라면 높은 유학 생활의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문화 및 사회적 관계

유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은 인터뷰에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한국에 남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문화적 차이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이공계 연구실 문화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힘든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 박사과정 유학생은 “이곳에서는 할 일이 없더라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연구실에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자국과는 완전히 다른 연구환경이 낯설다고 밝혔다. “때로는 기숙사와 같이 다른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샤워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연구실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한국의 이공계 연구실 문화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연구실 문화는 지도교수의 영향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 예로, 지도교수는 연구실 출퇴근 시간에 대해 다소 유연한 편이지만 정작 연구실 선배들이 일정관리에 대해 엄격한 경우가 있었다. “도서관에 가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볼 때조차도 보고를 하고 자리를 비워야 하는 연구실의 수직적 위계질서”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무슬림 학생들의 경우 엄격한 식단 규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아 고충을 느끼고 있었다. 신남방지역 국가 중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남부지방, 태국 남부지방은 무슬림과 힌두교도의 비율이 높은 국가이다. 이중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다음으로 과기특성화대학에 가장 많은 신남방지역 유학생을 보내고 있는 국가이다. 인도네시아인 무슬림 유학생은 교내에 할랄 식품(이슬람 율법에서 허용한 음식)이 거의 없어, 혼자서 요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엌이 갖춰져 있지 않은 기숙사에 살고 있는 경우 학생 스스로 종교적 규율에 맞게 요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터뷰에 참가한 유학생들과 전문가들은 STEM 분야의 특성상 양질의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한국 과기특성화대학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앞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학생들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적응이 어렵다고 하였다. 위계서열이 엄격한 한국 문화와 언어장벽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나누었다. 외국인 유학생이 있음에도 한국어로 소통하는 문화나,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특정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 등은 연구 이외에 한국 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반복해서 지적되었다. 한 한국인 연구자의 경우, 외국인 연구자와 함께 일을 할 때 ‘한국어로 연구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인 연구자가 부담해야 할 행정업무가 과중해진다’고 언급했다. 단순히 같은 연구실 내 동료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연구수행에 있어서도 언어가 주요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4.3. 정책적 시사점

설문조사에 기반한 양적연구, 인터뷰 및 표적집단면접에 기반한 질적연구를 통해 과기특성화대학의 신남방지역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인구사회학적 특징, 유학 전 기대 수준, 유학 동기, 진로 계획, 유학 만족도 결과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응답자의 35.9%가 지출에 있어 (장학금을 제외하고)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생활한다고 응답하였고, 64.1%의 응답자가 본인의 아버지가 학사이상의 고등교육을, 50.8%의 응답자가 본인의 어머니가 학사이상의 고등교육을 마쳤다고 답변하였는데 신남방지역 대부분 국가의 비교적 열악한 교육 및 경제 수준을 감안하였을 때, 과기

특성화대학에 유학 중인 신남방지역의 학생들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학생 유치의 철학에 있어 수월성과 개발협력적 관점이 상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두 가지 철학적 가치인 평등성과, 수월성 바탕의 교육에 있어 과기특성화대학의 이공계 인력 유치는 어떠한 정책으로 집행되어야 하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과기특성화대학에 유학 중인 신남방지역의 학생들 대다수가(80.1%)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기초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어를 배워서 졸업 후 장기적으로 한국에 머물 계획이 있다기보다 한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 유학 동기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기특성화대학의 입학 및 졸업에 한국어 과목 이수 및 한국어 활용능력이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언어 자격요건의 부재는 한국을 유학지로 선택하는 입장에서 포용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학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향후 입학 및 졸업에 있어 한국어 활용능력 관련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하게 된 주요 요소에는 유학 비용, 장학금 기회, 안전과 치안, 한국 교육프로그램의 질, 한국 대학 학위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및 평판(international recognition)이 있었다. 또한, 특정 교육기관을 선택하게 된 요소에는 교수진, 연구실, 해당 기관의 국제적 인지도 및 평판이 포함되었다. 과기특성화대학에 진학한 신남방지역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 자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보다 연구경쟁력과 재정적 지원이 주요 유학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학금 및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96.7%의 응답자가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 96.7%의 응답자 중 53.6%만이 장학금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답변하였고, 그 외는 가족의 지원이나 아르바이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충당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장학금이 과기특성화대학 유학으로의 중요한 동인이지만, 학생들의 생활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상당수의 응답자가 자신이 현재 아버지(5.0%), 어머니(5.5%), 배우자(15.5%), 자녀(7.7%)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유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과기특성화대학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요 통로는 인터넷(각 66.9%와 54.7%)과 또래집단(각 19.3%와 21.5%)이었다. 따라서 온라인 매체와 각국의 졸업생 커뮤니티를 활용한 유학생 유치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

이다. 더불어, 재학시절 유학생의 진로 관련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졸업 후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만족도 항목들에 비해 점수가 낮았던 것을 고려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현황 정보를 관리하고 진로설계를 돕는 정보플랫폼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결론에서 논하고자 한다.

유학생들은 비자취득, 건강보험, 교육 시설, ICT 인프라, 학업환경, 지도교수, 연구실 시설 등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들에서는 중간 척도(4점)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교육 시설(강의실, 도서관 등)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 6.18점, 치안과 관련해서는 전체 평균 6.14점, ICT 시설 및 인프라(와이파이, 인터넷 속도 등)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6.02점을 보였다. 반면, 유학생들의 진로 상담이나 진로와 관련한 정보제공, 한국인과의 사교활동, 한국의 다문화주의적 환경, 스트레스 해소 창구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과기특성화대학이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2010년대 이후 유학생의 학습 및 연구에 있어 제도와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학생이 마주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졸업 후 진로 지원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결론에서 언급할 장기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정책과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논의된 외교 다변화의 한 축으로 추진된 신남방정책은 2017년 11월 대통령의 아세안 3개국 순방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2018년 7월, 신남방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인도 순방, 2018년 아세안 의장국 싱가포르 순방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9년 11월 부산에서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계기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신남방지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융합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2017년 정부 출범 이후 핵심적 과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난 3년간, 우리 정부는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생명공학 분야 공동 연구와 5G 통신 협력 등 ICT 분야 등을 중심으로 여러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2020년 말 완공되는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등 거점 전략 역시 추진해왔다. 특히 국가전략 차원에서 혁신성장의 글로벌화와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신남방지역의 과학기술·ICT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신남방지역과 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의 핵심가치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중 ‘사람’은 인적교류 및 교육협력을 통한 상호 증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국정과제이며,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외교정책 및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최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화의 방향도 다각화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국제 사업의 수와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특히 신남방지역의 유학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KAIST, POSTECH, UNIST, GIST, DGIST의 5개 과기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화 흐름 및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일본, 중국, 호주 4개국의 유학생 유치 및 정책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신남방지역 이공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유학 지원 - 입학 - 교육 및 연구 - 졸업 후 관리의 유학생애주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전문가 인터뷰 및 유학생 표적집단조사를 통해 고등교육 정책과 동향, 유학생 관련 주요 정책 및 개선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재 신남방지역 유학생 유치 정책의 중요성과 과제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과기특성화대학에서 유학 중인 신남방지역 대학(원)생들의 상당수는 한국과 현재 수학하고 있는 대학이 1순위가 아니었으며, 한국 유학을 결정한 이유에서도 장학금 혜택이 높은 순위로 나

타났다. 한국 학위 취득 후 구직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는 재학시절 유학생의 진로 지원 및 졸업 후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현황과 연결된다. 신남방지역을 위한 과학기술, 고등교육 협력을 위한 재정적 확충은 환영할 일이나, 경제적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의 연구의 수준,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유학생의 상당수는 언어적, 제도적, 문화적 불편을 호소하였고, 특히 유학생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도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슬람 등 소수 종교에 대한 배려 부족도 유학생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부당함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비단 본 연구의 대상인 신남방지역 유학생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연장선에 있다고도 볼 수 있기에 단기적인 해결책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각 대학에서 현재의 유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과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성의 전환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국내외 국제협력 트렌드와 이에 따른 대응도 중요한데, 미-중 무역 갈등에 영향을 받은 중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 감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 등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으로서 신남방지역 유학생 유치 전략의 함의를 논의해야한다.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남방지역의 비교우위, 각 개별국가의 산업적, 무역적, 경제사회적 특징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고급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앞서 2장에서 정리한 국내의 관련 정책 현황, 3장의 해외사례, 4장의 설문조사, 인터뷰, 간담회 토론 등을 토대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7대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1. 연구역량, 수월성, 전공적합성 중심의 유학생 유치 전략
2. 5개 과기특성화대학의 유학생 지원 정책 강화 및 상호교류의 중요성
3. 신남방지역 국가별 유학생 유치 전략의 다변화
4. 대학 거버넌스에서 국제협력처의 위상 및 역량 강화
5. 유학생애주기를 고려한 유학생지원
6. 한국어 교육 및 지원, 졸업 요건 강화의 필요성
7. 유학생 현황 및 관리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공계 석·박사 유치 및 학위/연구프로그램의 구체적 개선에 반영하고, 5개 과기특성화대학 유학생 지원정책, 유학생 만족도 향후 평가 체계로 활용할 수 있겠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비전과 국가연구개발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융복합형 과학기술기반 국제협력 및 인재교류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

1. 연구역량, 수월성, 전공적합성 중심의 유학생 유치 전략

우선 과기특성화대학에서의 유학생 유치 전략은 종합대학과는 다르게 수월성 및 전공적합성에 중점을 맞추어야 한다. Study Korea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인해 2000년 초~2000년대 후반에 유학생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우수 유학생의 선발 및 질적 관리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과기특성화대학의 유학생 유치 전략은, 학령인구 감소 등의 국내적 요인, 신남방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서도, 이공계 유학생이 우리의 과학기술분야 연구역량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설립되어야 한다.

앞서 해외의 사례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바 있듯이, 미국은 전통적으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 유학생 유치 및 인재육성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쳐왔는데, 미국의 고등교육 및 인력정책은 과학기술경쟁력 유지 및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독일의 고용창출, Industry 4.0 시대의 디지털 전환 대응,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유사하다. 상대적으로 유학생 유치 후발주자인 중국 역시, 세계 1위의 유학생 공급국가라는 상황인식 속에 자국민의 인재 유출(brain-drain)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우수인력 인재유치를 통해 자국의 과학기술역량을 제고하는 데 전략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과기특성화대학의 유학생 유치 전략은 단순히 유학생 유치의 양적 성장이나 국제화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현재의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과학기술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진의 네트워킹 능력과 대학의 국제협력처 등의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우수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계에서의 명성을 높이거나, 학회 등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발굴하는 것이 교수진의 역할이라면, 행정적으로는 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신남방지역의 개별 국가와 학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기술하겠다.

2. 5개 과기특성화대학의 유학생 지원 정책 강화 및 상호교류의 중요성

5개 과기특성화대학은 기본적인 유학생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재정·행정·언어·생활·문화지원의 질적인 측면에서 학교 간 세부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역량 및 학교 명성, 지리적 강점 등 외에 제도 분야에서 학교 간 두드러진 차이는 장학금 제도가 있었으며, 이는 한국에서의 적응 및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신남방지역 국가로부터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우리 측 대학 혹은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장학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유학생 유치 전략 및 지원의 측면에서 눈여겨 볼만 한 5개 과기특성화대학의 강점들이 있었다.

첫째,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KAIST는 타 대학에 비해 월등히 많은 231개의 해외대학(신남방지역 국가 대학은 17개)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남방지역 유학생들의 유치에 향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재정지원의 측면에서 DGIST를 제외한 4개 과기특성화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있어 유학지를 선택하는 외국인 학생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GIST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고, 생활비, 연구장려비, 국민건강보험,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KAIST와 POSTECH에서는 비자 등록 및 갱신 시 지원팀이 직접 학생들과 동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DGIST의 경우 건강보험료 전액을 환급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언어지원의 측면에서 각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의를 각기 다른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나, 특히 GIST의 경우 외국인 학생들의 졸업요건으로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다른 대학에 비해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음은 아래 기술할 한국어 교육의 강화의 필요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의 생활 및 문화 지원 측면에서, KAIST와 UNIST의 경우 각각 국제학생회와 외국인 유학생회를 통해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창구를 마련하였고, KAIST와 POSTECH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유학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해 학교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유학생의 출신 국가 및 전공, 각 대학의 주요 연구 분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제도는 5개 대학에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향후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 종합대학과 비교했을 때 과기특성화대학 특수성을 반영한 유학생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 분야에 비해 학습 및 연구내용과 졸업 이후 진로 간의 관계가 밀접한 이공계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유학생의 재학 시기와 졸업 이후의 시기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진로설계 지원 제도를 교내·외 차원에서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신남방지역 국가별 유학생 유치전략의 다변화

외국인 유학생 정책, 그 중에서도 신남방지역을 타겟으로 한 유학생 정책 개선의 지향점은 신남방지역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 산업 지형, 국가발전전략, 사회문화적 맥락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고등교육 발전에 있어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등 다양한 목표를 갖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에서 신남방국가의 인재유치 전략으로 신남방지역의 국가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 1 (인도), 그룹 2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그룹 3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그룹 4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그룹별로 차별화되는 유학생 유치 전략을 고려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및 주요 대학들은 대륙별/지역별/국가별 맞춤형 고등교육 협력을 고려하고 있기보다 유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공에 국한되어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 중에서도 국가별 발전수준, 국가별 고등교육 진학률, STEM 관련 전공의 교육수준, 관련 산업구조 및 우리와의 국제교류협력 수준(ODA 중점협력국가 및 중점분야)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 중 특히 아세안 국가와 한국의 고등교육 협력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만 치중되어 있었으며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최근의 연구결과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Kang (2017)는 신남방 개별 국가의 여러 정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대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신남방지역 국가 중 그룹 1과 2의 경우 한국정부 장학금을 위한 장학생 유치보다 자비 유학생(특히 학부생) 혹은 부분적 장학금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유학 희망자는 자비를 활용하더라도 한국에 진학하는 데 경쟁력이 있는 특정한 전공분야 (아시아 지역 경쟁 국가의 STEM 전공 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에 진학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우수 고등학교 및 대학을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에 전략적 마케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별로 특수한 관계를 발전시켜왔던 연고가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대학 혹은 단과대학의 특성에 맞게 신남방지역 유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유학생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고, 학교 당국은 유학생 관리와 교육 효과도 제고할 수 있다. 개별 대학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특정 국가에 협력관계가 치우칠 수도 있겠으나, 과기특성화대학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유학생 출신 및 전공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학생 유치의 국가별 차별화 전략을 고려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력활동, 공동사업 및 연구, 연수, 국제장학이 선순환 되도록 프로그램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룹 3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과 그룹 4(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KOICA 고등교육 사업, 교육부의 글로벌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대학 간 협력, 정부초청장학사업을 통한 전액장학생 선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프로그램접근법 (program-based approach: PBA) 방식의 사업을 신남방지역 개발도상국 국가와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를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최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룹 3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우수 대학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관련 석·박사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그룹 4의 경우, 대학 간의 다년간 프로그램(연구 기자재 제공 등 교육환경 개선 등을 포함)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석·박사 학생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동시에 유학생 유치가 단순히 장학금 제공이라는 경제적 지원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연구, 협력사업, 연수와 함께 진행될 때 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가 우리나라 대학과 신남방 국가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 제안이다.

호주는 신남방지역에서 오랫동안 유학생 유치에 전략적, 지리적 우위를 확보해 왔는데, 특히 아세안지역의 고등교육 혁신, 과학기술협력 아젠다를 남남삼각협력 (South-South triangular cooperation) 등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원, 주도해 온 것

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남방 국가 중 개발도상국가이자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인 6개 국가(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근 우리정부의 고등교육 개발협력 (유학생 장학금 재원을 포함)이 눈에 띄게 확대된 것은 이러한 방향성 전환의 조건을 가능하게 한다.

아세안 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 인적, 물적 투자를 지속해왔던 일본은 2012년부터 ‘ASEAN+3 고등교육 워킹그룹 (ASEAN Plus Three Working Group on Mobility of Higher Education and Ensuring Quality Assurance of Higher Education: WG)’ 등의 창설을 통해 ASEAN 지역의 고등교육 교류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 한국도 ‘신남방정책’을 공표하며 ASEAN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 중인 현재, 유학생 정책과 관련해 아세안의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다자-양자적 전략을 구상하고, 중장기 고등교육 국제화를 유지하는 한편 유학생 지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4. 대학 거버넌스에서 국제협력처의 위상 및 역량 강화

2장에서 분석한 과기특성화대학의 유학생 정책 현황 및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종합대학에 비해 국제협력처의 위상 및 역량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종합대학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관의 중심 연구분야가 과학기술에 한정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국제업무,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분야가 대학행정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시기에 거버넌스 구조가 확립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유능한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대학의 고등교육 및 연구분야와 함께 매우 전문적인 분야임을 과기특성화대학의 행정가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제처 혹은 국제협력처의 위상을 제고하여 이를 중심에 두고 단과대 차원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세부적인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처 직원의 직렬을 새로 개설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UNIST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관리 담당자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다른 대학의 경우 순환보직의 전통을 따라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이 지속되는 것에 한계가 있는 단점이 있다. 국제협력 분야 직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국제 업무를 담당하거나, 적어도 타부서로 전보되는 경우에도 국제화 업무를 맡거나 향후 국제처로 복귀하여 개인으로서는 전문성을 키

을 수 있고 학교로서는 역량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한양대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5년 동안에는 국제처 직원을 단과대학에 파견하여 국제처의 전문성을 전수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단과대의 유학생 관리를 지원하고, 최근에는 국제화 주니어보드를 신설하여 영어 및 중국어 가능자로 신규 채용된 단과대의 국제화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국제화 및 유학생 업무에 대한 대학행정 내의 분절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과기특성화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처에서, 대학원 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학과 차원에서 이원화하여 유학생을 유치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었고 이는 이공계 분야 석, 박사과정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현재 유학생 유치를 비롯한 국제화 사업은 부서 간 분절화 혹은 부서 개편 및 직원의 잦은 부서 이동 등의 문제가 대부분의 과기특성화대학에서 현실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고등교육 국제협력의 업무를 대학의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단일화하며, 연구 섹터별, 학과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실정을 반영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유학생 유치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보았을 때도 이러한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행정 거버넌스에서 국제협력 및 유학생 지원에 대한 부처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유치홍보, 입학, 관리 및 지원 등으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유학생애주기를 전체를 고려한 유학생 지원

유학생애주기를 입학지원 및 준비, 유학, 졸업 및 향후 진로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5개 대학의 유학생 지원 제도는 학교 입학 이후부터 학교 졸업까지의 기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보다 효과적인 신남방지역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학교 입학 이전(신남방 현지에서의 한국 과기특성화대학 및 한국 고등교육 설명회 개최 등)부터 입학 이후(취업, 인턴십 연계 등)의 기간까지 아우르는 유치, 지원 제도 및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유학생들의 지원, 입학, 이주, 교육 및 연구, 졸업 후 진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유학생애주기’에서 많은 분절화와 혼란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서울 소재 모 종합대학의 경우 ‘원스탑 서비스’로 유학생 모집부터 입학 행정, 학사, 생활, 적응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른 부서를 거칠 필요 없이 국제처에서 관리하고 있어 우수사례로 논의될 수 있음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과정에서 중요한 숙소 및 비자 업무는 물론 입학 후 휴/복학 및 학습 부진 관리부터 취업 지원에 이르는 부분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취업 지원의 경우 외국인을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취업 면접 특강, 취업 박람회, 졸업생 선배초청 취업노하우 특강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하고 있는 것은 참고해볼 수 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많이 소재해 있는 대전, 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우수인력 취업 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다각도적인 프로그램 마련 및 과기특성화대학 간의 우수 지원 제도 및 우수 사례에 대한공유 및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상대적으로 유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인 비자 취득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과기특성화대학의 경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2019년 6월 발표된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개편안으로 인해 일부 혼선이 있었고, 향후 정책 변화 속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인터뷰에서 한국 문화 적응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었고, 이 공계 연구실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비롯한 독특한 문화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표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문화 차이로 비롯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연구에서 명확하게 제시될 수는 없지만, 할랄 식품의 부족 등 종교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유학생들을 위한 요리 환경 및 식당 환경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유학생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기술하였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과기특성화대학의 신남방지역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주요한 어려움 중 하나는 학업 및 생활에 대한 큰 스트레스였다. 학업 부진은 중도 탈락 및 불법체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는 유학생 대상 기초 학습을 돕는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 및 보완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의 중요성은 대학 당국도 인

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어 상담이 가능한 전문 심리상담사 및 정신과 전문의의 채용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문제 발생 후 사후 관리 차원의 개인상담 뿐 아니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의 개인 상담의 중요성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학업 부진 학생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서는 한국 학생들과의 매칭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한국어를 개별적으로 지도해주는 튜터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대학이나 단과대학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 학생들을 외국인 학생 인포메이션 센터에 근로장학생으로 채용하여 방문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 처리 등 대면 업무와 한국어 수업 지원 업무 등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 국제처 직원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업 지원과 생활 지원을 분리하여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버디 프로그램,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다각도로 생활 및 학업 적응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중도 포기 및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기특성화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내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6. 한국어 교육 및 지원, 졸업 요건 강화의 필요성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유학생들은 제도적, 언어장벽, 문화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과기특성화대학의 대부분은 영어 수업의 비중이 종합대학에 비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오히려 한국어 교육을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하는 것이 국제처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유학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학계 및 산업계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76>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과기특성화대학들은 입학 당시에 한국어 성적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졸업요건으로만 약간의 한국어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요건이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문턱을 낮추는 데는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입학 후 유학생들이 적응하는 데에 있어 문턱은 높이고 있었다. 각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 초기에 우수 이공계 학생 유치를 위해 한국어 기준을 대폭 낮춘 것은 명분이 있었겠지만,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는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표 76 각 과기특성화대학별 한국어 어학 능력 요구 수준

	학부 입학	학부 졸업	대학원 입학	대학원 졸업
GIST	X	'Korean I'이수	X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은 'Korean I'이수해야 하며, 박사과정은 'Korean I, II' 모두 이수해야 함.
DGIST	해당없음	해당없음	X	3급 이상 취득 또는 한국어 교육 1과목 이상 이수
UNIST	X	X	X	X
POSTECH	해당없음	해당없음	X	X
KAIST	X	2급 이상 취득	X	X

*출처: 각 대학 홈페이지; X는 필요 요건이 없는 것이며, '해당없음'은 과정 모집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일본의 대학에 학부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일본어 능력 및 기초학력 증빙을 위해 일본 유학 시험(EJU)를 치러야 하는 사례 등을 보았을 때 한국, 특히 과기특성화대학의 현지어에 대한 요구 기준은 낮은 편이다. 대학에서 유학생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대학이 마주한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언어 장벽(Language Barrier)'을 꼽으며, 언어장벽이 대학 관계자 및 유학생들 서로에게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학 차원에서도 입학 후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 수와 문과, 사회과학계열의 부재로 인해 과기특성화대학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후라도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구성원의 소통과 유학생들의 현지 적응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대다수의 유학생들도 한국어 교육이 원활하게 잘 될 때,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에도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한국 학생들과도 더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었다.

7. 유학생 현황 및 관리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유학생 현황 및 관리 데이터 플랫폼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신남방지역 외로 범위를 넓힌다 하더라도 현재 과기특성화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경로를 거쳐 수학하고 졸업 후 진로는 어떠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국가별 유학생 수, 전공 등 기초적인 통계만 교육부를 통해 집계되고 있을 뿐, 연구, 생활, 교육 등에 대한 만족도 및 지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없다. 최근의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 대상의 설문조사부터 시작하면 향후 유학생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1970년대부터 구축해 온 ‘국가과학기술자통계데이터시스템’ (Scientists and Engineers Statistical Data System, SESTAT)³¹⁾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SESTAT은 과학자 및 기술자 관련 통계 데이터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대학 학부 수준(College)의 교육을 마친 과학/기술 인력의 교육 및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축적한 시스템이다. 데이터는 다음의 경로로 2년마다 수집된다. 미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졸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The National Survey of College Graduates, NSCG)는 바탕으로 하는데, NSCG는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교육을 받았거나 취업한 인구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다. 한편, 박사학위 취득자 대상 설문조사 (The Survey of Doctorate Recipients, SDR)는 미국에서 박사수준의 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와 기술자의 데이터를 다룬다. SESTAT의 데이터는 직접 다운로드를 받거나 SESTAT 데이터 도구(SESTAT Data Tool)로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하고 표를 작성하여 조회할 수 있어,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에 큰 도움이 되어오고 있다. 향후 시스템 구축DP 있어 참고를 위해, SESTAT 대학졸업생 대상 데이터(NSCG)와 박사학위 취득자 대상 설문조사 (SDR)의 목적 및 활용, 데이터 수집에 대해 아래에 정리하였다.

31) <https://www.nsf.gov/statistics/sestat/#micro&generate&metadata&datatables&sestat-landing>

대학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 (The National Survey of College Graduates, NSCG)³²⁾

목적 및 활용: 모든 학문 분야에 걸친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과 진로 간의 관계, 취득 학위 분야와 직업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NSF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 인력에 대한 정보 및 보고서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 중인 여성, 소수인종, 장애인들에 대한 보고서 (Women, Minoritie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cience and Engineering), 과학/기술 관련 지표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등이 있다. 정부기관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의 교육 및 고용정책을 세우기도 하고, 교육기관은 과학/기술 분야 관련 교육과정 설계에 참고하기도 한다.

데이터 수집: 미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내 국립과학기술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NCSES)가 후원하여 미국의 대학 졸업생(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을 중심으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표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최소 학사 학위를 소지한 76세 미만의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추출한다. 조사 항목은 크게 취업 현황, 과거 취업 정보, 기타 근무 관련 경험, 교육 배경, 인구통계학적 정보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우편 혹은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며, 응답자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응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박사학위 취득자 대상 설문조사 (The Survey of Doctorate Recipients, SDR)³³⁾

목적 및 활용: 정부, 학계, 산업계, 그리고 기타 전문직 기관에 고용된 미국의 과학/기술/보건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의 수와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미국에서 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졸업 후 미국 안팎에서 거둔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미 국립과학기술통계센터(NCSES)와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이 공동후원하여 과학/기술/보건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표본은 미국 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보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7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추출한다. NSCG와 마찬가지로 조사 항목은 크게 취업 현황, 과거 취업 정보, 기타 근무 관련 경험, 교육 배경, 인구통계학적 정보 등, 5가지로 구분되며, 온라인, 우편 혹은 전화로 응답할 수 있다.

32) <https://www.nsf.gov/statistics/srvygrads/#sd&q>

33) <https://www.nsf.gov/statistics/srvydoctoratework/#qs&sd&tabs-1>

국내에서도 몇몇 종합대학의 경우 유학생 만족도 조사를 위한 지속적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 소재 모 대학의 경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학기 말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단과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 비율을 조절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단과대는 총장의 지시로 개선안 보고 의무를 통한 추후 관리도 이뤄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튜터링 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 외국인 학생 지도교수 배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학생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기특성화대학의 경우 학교별로 산발적인 조사 보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정기 설문조사 및 데이터 수집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동관, 설동훈, 임경택. (2012). 일본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시사점, IOM 이민정책 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2-06.

구자억. (2014가).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중국정부의 천인계획의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구자억. (2014나). 중국의 외국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대학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국립국제교육원. (2019). 2019년 ASEAN국가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기본계획. 국립국제교육원.

김미란, 홍영란, 김은영, 이병식, 윤나경. (2013).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미영, 이유아, 송연주. (2018). 베트남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과 극복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4(1), 481-503.

김한나, 우한솔, 이승호. (2016).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7(4), 311-337.

김희수, 배소현. (2014).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분석: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의 변화와 개선 방향. 교육연구, 37(0), 67-89.

문경희 (2014). 호주의 중견국 공공외교와 ODA 고등교육 장학협력사업, 21세기정치학회보, 24(3), 737-770.

박환보 (2013). 일본의 대학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비교교육연구, 23(1), 25-44.

민귀식. (2014).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

스에요시 카요. (2017). “한국과 일본의 유학생정책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동신. (2013). 캄보디아 일반 ODA 전문가 보고. 한국국제협력단.

안해정, 서예원, 윤종혁, 곽재성, 김선주, 박환보, 채재은, 최동주 (2020).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III): 고등교육 실천 전략. 한국교육개발원.

유애라. (2019). ASEAN의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현황과 특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용균. (2012).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서 자유시장 원리와 조절 메커니즘의 접합.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1), 33-45.

이현주, & 이미정. (2019).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내 지원 정책 연구. 인문사회 21, 10(4), 235-250.

채재은, 우명숙. (2012).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재은, 박환보. (2017). 교육 ODA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연구재단.

홍문숙, 박채원, 김성규 (201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담론과 실천: 국제개발협력 아카데미협력 프로그램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17권 제2호(2019) 115-161.

Tan Yong Kang. (2017). "ASEAN and Korea Education as a Means towards a Higher Plan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Future of ASEAN-Korea Partnership Vol.2. ASEAN-Korea Centre

해외문헌

Abimbola, S., Amazan, R., Vizintin, P., Howie, L., Cumming, R., & Negin, J. (2016). Australian higher education scholarships as tool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diplomacy in Africa.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72(2), 105-120.

ASEAN University Network/Southeast Asia Engineering Education Development Network. (n.d.). <http://www.aunsec.org/aunseednet.php>

Australian Government. (2016). National Strategy for International Education 2025.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9). 2018 International Student Survey Results.

Creswell, J. W., Plano Clark, V. L. (2011).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Deardorff, D., K. (2012). *The SAGE Handbook of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Los Angeles: SAGE.

Extension of Validity for Science Related Interagency Visa Clearanc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Spokesman. February 11, 2005. <https://2001-2009.state.gov/r/pa/prs/ps/2005/42212.htm>

Exchange Visitor Program: SEVIS Regulations. Federal Register Vol. 67, No. 239. https://j1visa.state.gov/wp-content/uploads/2012/09/sevis_12_12_02.pdf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2018). Open Doors Report 2018.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2017). Open Doors Report 2017.

JASSO. (2019). Student Guide to Japan 2019-2020.

Lee, J. J. (2008). Beyond Borders: International Student Pathways to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2(3), 308-327.

Jon, J. E., Lee, J. J., & Byun, K. (2014). The emergence of a regional hub: comparing international student choices and experiences in South Korea. *Higher Education*, 67(5), 691-710.

GAO. (2005). Streamlined Visas Mantis Program Has Lowered Burden on Foreign Science Students and Scholars, but Further Refinements Needed. <https://www.gao.gov/new.items/d05198.pdf>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2017).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American Science and Engineering.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2018). Declining International Student Enrollment at U.S. Universities and Its Potential Impact.

O' Mara, M. (2012). The Uses of the Foreign Student. *Social Science History*, 36(4), 583-615.

Sá, C. M. & Sabzalieva, E., (2018). The politics of the great brain race: public policy and international student recruitment in Australia, Canada, England, and the USA. *Higher Education*, 75(2), 231-253.

Tarnoff. C. (2016). Foreign Aid and the Education Sector: Programs and Priorities. <https://fas.org/sgp/crs/row/R44676.pdf>

USAID. (2019). USAID Education: Higher Education. 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1865/USAID_Education_HigherEd_FactSheet_Apr19.pdf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2019). 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1868/FY_2020_CBJ.pdf

웹사이트

광주과학기술원 (<https://www.gist.ac.kr/kr/>)

대구경북과학기술원 (<https://www.dgist.ac.kr/kr/>)

대학알리미. 2017, 2018, 2019년도 4-마. 대학 재적학생현황; 4-바. 대학 외국인 학생 현황; 4-마. 전문대학 재적학생현황; 4-바. 전문대학 외국인 학생 현황; 4-마. 대학원 재적학생현황; 4-바. 대학원 외국인 학생 현황; 4-마. 대학원대학 재적학생현황; 4-바. 대학원대학 재적학생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

울산과학기술원 (<https://www.unist.ac.kr>)

울산과학기술원 국제협력센터 (<https://cia.unist.ac.kr>)

일본학생지원기구 한국사무소 (www.jasso.or.kr)

중국 교육부 (<http://en.moe.gov.cn>)

중국 외교부 (https://www.fmprc.gov.cn/mfa_eng/)

포항공과대학교 (<http://www.postech.ac.kr/>)

포항공과대학교 국제협력팀 (<http://international.postech.ac.kr/>)

한국교육개발원(KEDI). 2017, 2018, 2019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list.do?boardID=350&m=0309&s=moe>)

한국유학종합시스템 (www.studyinkorea.go.kr)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ESTAT. Retrieved January 18th, 2019 from <https://www.nsf.gov/statistics/sestat/#micro&generate&metadata&datatables&sestat-landing>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ational Survey of College Graduates. Retrieved January 18th, 2019 from <https://www.nsf.gov/statistics/srvygrads/#sd&qs>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9). What is the National Survey of College Graduates? Retrieved January 18th, 2019 from <https://census.gov/programs-surveys/nscg/about.html>

별첨

<별첨 1.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 자료>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 / Policy Seminar with Intl' Students]

Policy for Supporting International Students & the Role of Korean S&T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신남방지역 유학생 정책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역할

2019년 11월 15일 (금) 15:00-18:00
KAIST 본원 KI 빌딩 (E4) Matrix HallNov. 15th, 2019. Fri. 15:00-18:00
KAIST KI Building (E4) Matrix Hall

Open Mic Booth (14:00-15:00)
Please participate and tell us about your experience in Korea

* Meals will be provided
* A Simultaneous Korean-English translation will be provided

Program 사회 : 박경렬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Organizer: Park, KyungRyul (KAIST, Graduate School of Science, Technology, and Policy)

Welcoming Remarks Yim, Man-Sung KAIST, Associate Vice President of International Office	
Session 1	Recruiting International Students from ASEAN Countries and India (In Korean, a simultaneous Korean-English translation will be provided) Korea and ASEAN Academic Cooperation Partnership: New Promis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Hong, Moon Suk Kyung Hee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Trends and Issues of International Student Recruiting Policy in STEM Field Lim, Heej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search Professor International Students' Research and Experience in Korea Oh, Cheol-Woo former Senior Reporter of Hankyoreh
Session 2	The Voice from the Field (In English) Studying and Living in Korea as an International Student and Professor (working title) Climag Joeffrey Ulsan University, President of Council of ASEAN Professors in Korea The Voice of STEM Student from ASEAN (working title) Sourav Sarkar President of Graduate Student Association, POSTECH Big Gap Between Ideal and Real Life on Campus Globalization Kim, Minji UNIST, former International Center
Discussion (*meals will be provided)	

* 문의: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우지수 (woojisu@kaist.ac.kr)
Inquiry: Jisu Woo, Graduate School of Science, Technology, and Policy (woojisu@kaist.ac.kr)



설문조사 기획안 요약

연구팀 토의 2019.10.30

설문조사 수행

1. 설문조사 목적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하 과기원)에 재학 중인 신남방(ASEAN+인도) 지역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 및 유학 만족도 및 진로 계획 분석.

2. 설문조사 일정

8월 중순~11월 첫째주: 설문 문항 구성 (초안 제작) 및 전문가 피드백

11월 둘째주: 설문 링크 구성 및 배포

11월 셋째주~넷째주: 설문 진행

12월 첫째주~둘째주: 설문 분석 및 결과보고서에 반영

3. 대상 인원 및 인원 수: 5개 과기원에 재학 중인 신남방지역 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총 454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

과기원별 인원수 (단위:명)	KAIST	POSTECH	UNIST	GIST	DGIST
학부생	244	0	24	0	0
석박사생		47	66	52	21
소계	244	47	90	52	21
총계	454				

4. 설문 문항 수: 약 165문항

5. 설문 문항

PART I. DEMOGRAPHICS

1. What is your nationality? For students who have dual citizenships, please answer multiple citizenships.

1)Indonesia 2)Malaysia 3)Viet Nam 4)Philippines 5)Thailand 6)Singapore 7)Brunei
8)Myanmar 9)Cambodia 10)Laos 11) India 12) Others: Please specify.

2. Gender

1)Male 2)Female 3)Others 4)I do not wish to respond

3. Birth year and month

YYYY-MM

4. Which institute are you currently attending?

1)GIST 2)DGIST 3)UNIST 4)POSTECH 5)KAIST

5. Which degree are you currently pursuing?

1)Undergraduate 2)Master 3)Ph.D. 4)Master and Doctorate Integrated Program
5)Others(please specify)

6. In which semester are you currently in?

1)1st semester 2)2nd semester 3)3rd semester 4)4th semester 5)5th semester 6)6th semester 7)7th semester 8)8th semester 9)Others (please specify):

7. Please select the major in which you are currently pursuing your degree.

8. Where did you acquire your previous degree?

1)Your home country 2)Republic of Korea 3)Others (please specify):

8-1. If you acquired your previous degree in Republic of Korea, how long have you studied in Republic of Korea?

1)1year 2)2 years 3)3years 4)4years 5)5-6years 6)more than 6 years

9. Are you currently receiving a scholarship?

1)Yes 2)No

9-1. (9. 1)Yes) Where do you receive your scholarship from? Check all that apply.

1)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2)Your home country's government 3)Private foundation in Republic of Korea 4)Private foundation of your home country 5)University 6)Others (please specify)

9-2. (9. 1)Yes) Which of the following does your scholarship cover? Check all that apply.

9-3. How do you cover your expenses other than your scholarship?

1)Family Support 2)Part-time Job 3)Student Loan 4)Your scholarship covers all 5)Others (please specify)

10. Which type of Republic of Korea's visa did you obtain?

1)D-2-1 2)D-2-2 3)D-2-3 4)D-2-4 5)D-2-5 6)D-2-6 7)D-4-1 8)D-4-7 9)Others (please specify)

11. Which type of health insurance did you arrange?

1)Republic of Korea's private company's health insurance 2)Republic of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3)Health insurance company from your home country 4)Others (Please specify) 5)I do not wish to answer

12. How are you paying for the health insurance?

1)Institute's financial aid 2)Yourself 3)Others (Please specify) 4)I do not wish to answer

13, 14.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that your father / mother has received?

1)No schooling completed 2)Nursery school to 8th grade 3)High school graduate, diploma or equivalent 4)Trade/technical/vocational training 5)Bachelor's degree 6)Master's degree 7)Doctorate degree 8)Others (Please specify) 9)I do not wish to answer

15. What was your household's income during the past 12months before deduction? Include wages, salaries, and family support.

1)Below \$10K 2)\$10k-\$50k 3)\$50k-\$100k 4)\$100k-\$150k 5)Over \$150k 6)I do not wish to answer 7)I do not know

16. Are you currently living in a campus dormitory?

1)Yes 2)No

16-1. (16. 2)선택자) Which type of accommodation are you currently living in?

1)Studio 2)Apartment 3)House 4)Others (Please specify):

16-2. (16. 2)선택자) Which type of payment method are you using for your accommodation?

1)Household 2)Monthly rent 3)*Jeonse* (Long-term rental deposit) 4)Others (Please specify):

17. What is your marital status?

1)Single, never married 2)Married or domestic partnership 3)Widowed 4)Divorced
5)Separated 6)I do not wish to answer

18. Who are you currently living with? Check all that apply and write the number of people you are living with.

1)Father 2)Mother 3)Spouse 4)Children (number) 5) Friends (number) 5)Alone
6)Others (Please specify)

The following items through 19 to 22 are questions related to you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19. How would you rate your Korean proficiency?

1)Beginner 2)Low intermediate 3)Intermediate 4)Upper intermediate 5)Advanced
6)Very advanced

20. Have you taken TOPIK test before?

1)Yes 2)No

20-1. If yes, which level did you attain?

1)1 (Beginner) 2)2 (Beginner) 3)3 (Intermediate) 4)4 (Intermediate) 5)5 (Advanced)
6)6 (Advanced)

21. How long have you studied Korean?

1)Less than 1 year 2)1~2 years 3)2~3 years 4)3~4 years 5)More than 4 years

22. Where did/do you study Korean? Check all that apply.

1)Regular courses from your institute 2)Korean language center at your institute
3)Korean language center outside of your institute 4)Self-study 5)Others (Please specify):

The following items through 23 to 27 are questions related to your use of online medium to obtain information at your institute.

23. Which messenger app do you mostly use with your friends in Republic of Korea?

1)Kakaotalk 2)Line 3)WhatsApp 4)Wechat 5)Telegram 6)Others (Please specify):

24. Which messenger app did you mostly use with your friends in your home country?

1)Kakaotalk 2)Line 3)Whatsapp 4)Wechat 5)Telegram 6)Others (Please specify):

25. What is your primary channel of communication with your colleagues in your lab or classmates?

1)Phone call 2)Messenger app (Kakaotalk, Wechat, Whatsapp, etc.) 3)Collaboration software (Slack, Jandi, etc.) 4)Email 5)SNS (Facebook, Instagram, Twitter) 6)In-person 7) Others (Please specify):

26. How often do you use your institute' s portal website?

1)Never 2)Seldom 3)Sometimes4)Frequently 5)Always

27. For which purpose do you mostly use your institute' s portal website?

1)Navigating information 2)Checking announcement 3)Communication and email 4) 5)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service 6)Others (Please specify):

EXPECTATIONS FOR STUDYING IN REPUBLIC OF KOREA(ROK) ANDY OUR INSTITUTE BEFORE ARRIVING IN ROK

28. What did you expect the most about studying in Republic of Korea?

Please specify:

(29~33) How would you rate your expectation level of the following items *before coming to Republic of Korea*?(1=Very low, 2=Moderately low, 3=Slightly low, 4=Moderate, 5=Slightly high, 6=Moderately high, 7=Very high)

29. Overall expectation level of studying in Republic of Korea

30. Expectation level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your institute (language barrier, high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etc.)

31. Expectation level of the quality of courses your institute would provide

32. Expectation level of the quality of research lab environment (research facility, research advisor, colleagues etc.)

33. Expectation level of social interactions during your study in Republic of Korea (interaction with Korean friends, participating in school events, alumni gatherings of your home country etc.)

34. Where did you obtain information *about Republic of Korea the most*?

1)Internet 2)TV show 3)Visit to Republic of Korea's government agencies 4)Visit to study abroad agencies 5)Word of mouth: friends (peer groups) 6)Word of mouth: family 7)Others (Please specify)

34-1. (34. 1)선택자) Which online medium did you obtain information the most?

1)Facebook 2)Instagram 3)YouTube 4)Blog 5)studyinkorea.go.kr website 6)Others (Please specify)

35. Where did you obtain information *about your institute the most*?

1)Internet 2)Institute's information session 3)Republic of Korea's governmental agency in your home country 4)Study abroad agencies 5)Word of mouth: friends (peer groups) 6)Word of mouth: family 7)Others (Please specify)

35-1. (35. 1)선택자) In which medium did you obtain information the most?

1)International students' community website 2)studyinkorea.go.kr website 3)Institute's admission website 4)Institute's SNS

PART II. MOTIVATION TO STUDY IN REPUBLIC OF KOREA

This part of the survey is related to your motivation to choose Republic of Korea as your destination country and is not about your institute.

36. Which factor influenced you *the most* to study overseas?

1)Desired education not available in your home country 2)Encouragement from significant others (family, friends, professor etc.) 3)Wished to broaden experience 4)Chance of receiving a financial support 5)Others (please specify)

37. Was Republic of Korea your first option for studying abroad?

1)Yes 2)No

37-1. (37.1)선택자) Which countries did you consider other than Republic of Korea to study?

1)First priority: Republic of Korea 2)Second priority: 3)Third priority:

37-2. (37.2)선택자) Which three countries did you consider as priority options to study? (Including Korea)

1)First priority: 2)Second priority: 3)Third priority:

(Question number 38 ~ 51) On a scale of 1 to 7, how important were the following items in determining **Republic of Korea** as a study destination?

(1=Not at all importance, 2=Low importance, 3=Slightly low importance, 4=Moderate importance, 5=Slightly high, 6=High importance, 7=Extremely high importance)

38. Korean language

39. *Hallyu* (Korean pop-culture) viewed via digital media (e.g. Youtube)

40. Political or economic ties with your home country

41. Encouragement from significant others

42. Cost of undertaking study
43. Scholarship opportunity
44. Safety/Security
45. Low racial discrimination
46. Established population of your home country
47. Friends/relatives staying in Republic of Korea
48. Quality of education program in Republic of Korea
49.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s university degree
50. Opportunity to reside in Republic of Korea after graduating
51. Ease of obtaining work after graduating
52. Who recommended you the most to study in Republic of Korea?
1)Myself 2)Parents/relatives 3)Professors/teachers from your home country
4)Friends/Alumni 5)Sponsor/employer 6)Others (please specify)

PART III. MOTIVATION TO CHOOSE YOUR INSTITUTE

53. Was your current institution your first option?
1)Yes 2)No
- 53-1. (53.2)선택자) Which other institutions did you consider before choosing your institution?
1)First priority: 2)Second priority: 3)Third priority:
54. Which factor influenced you *the most* to choosing your institute?

1)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institute 2)Professors and research lab 3)Cost of tuition fees/living expenses 4)Good career/employment prospects 5)Recommendations from significant others (family, friends, professor etc.) 6)Your academic achievements/records in your previous study 7)Others (please specify)

(55~71) On a scale of 1 to 7, how important were the following items in determining **your institute** as a study destination?

(1=Not at all importance, 2=Low importance, 3=Slightly low importance, 4=Moderate importance, 5=Slightly high, 6=High importance, 7=Extremely high importance)

55.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institute

56.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57. Offered particular course you wanted

58. Number of English courses offered

59. Expertise of the professor

60. Quality of the research facility

61. Reputation of the research lab

62. Tuition fee

63. Scholarship opportunity

64. Career/employment prospects

65. On-campus/accommodation facilities

66. Encouragement from significant others (family, friends, professor etc.)

67. Speed and ease of the application process

68. Your institute' s fast and considerate feedback to your inquiries

- 69. Easiness of obtaining information about your institute
- 70. Images on social media
- 71. Location of your institute

PART IV.
SATISFACTION LEVEL OF
YOUR EXPERIENCE STUDYING IN REPUBLIC OF KOREA

(72~75) How would you rate your satisfaction level of the following items regarding *the application process*? (1=Very dissatisfied, 2=Moderately dissatisfied, 3=Slightly dissatisfied, 4=Moderate, 5=Slightly satisfied, 6=Moderately satisfied, 7=Very satisfied)

- 72. Obtaining information about studying in Republic of Korea
- 73. Obtaining information about studying in your Institute
- 74. Communicating with your institute' s admission' s office
- 75. Your institute' s support in obtaining Korean visa?

(76-82.) How would you rate your satisfaction level of the following items regarding *your educational experience in your institute*? (*Educational experience only includes the experience from the regular courses at your institute.)

(1=Very dissatisfied, 2=Moderately dissatisfied, 3=Slightly dissatisfied, 4=Moderate, 5=Slightly satisfied, 6=Moderately satisfied, 7=Very satisfied)

- 76. Overall education experience in your institute
- 77. Studying facilities (Lecture room, library, collaboration room, etc.)
- 78. ICT facilities/infrastructure (Wifi access, Speed of internet, Laptop rental service)
- 79. Quality of the lectures

80. Variety of lectures provided

81. Fairness of the grading System

82. Have you participated in a research conducted in your institute's research lab?

1)Yes 2)No

If 'No' , you will directly move on to the section on **the career information provided by your institute.**

(83~91.) How would you rate your satisfaction level of the following items regarding *your research experience in your institute?* *Research experience only includes the regular research program with an advisor in your institute.

(1=Very dissatisfied, 2=Moderately dissatisfied, 3=Slightly dissatisfied, 4=Moderate, 5=Slightly satisfied, 6=Moderately satisfied, 7=Very satisfied)

83. Overall research experience in your institute

84. Research advisor expertise

85. Research advisor network

86. Research guidance and management by the research advisor

87. Frequency of the lab meetings in English

88. Openness to new ideas in the laboratory

89. Laboratory rules and hierarchy

90. Interaction with your colleagues

91. Laboratory facility

(92~96.) How would you rate your satisfaction level of the following items regarding **the career information provided by your institute?**

(1=Very dissatisfied, 2=Moderately dissatisfied, 3=Slightly dissatisfied, 4=Moderate, 5=Slightly satisfied, 6=Moderately satisfied, 7=Very satisfied)

92. Job fair for international students

93. Providing information on job opportunities in Korea

94. Providing information on career information session hosted by Republic of Korea' s government

95. Career counseling provided by your institute

96. Support in applying for a job in Republic of Korea

(97~106.) How would you rate your satisfaction level of the following items regarding **your communication with others?**

(1=Very dissatisfied, 2=Moderately dissatisfied, 3=Slightly dissatisfied, 4=Moderate, 5=Slightly satisfied, 6=Moderately satisfied, 7=Very satisfied)

97. Overall satisfaction level in communicating with others in your institute

98. Language proficiency of the courses delivered in English

99. Communication with your institute's administrative staffs

100. Communication with Korean friends

101. Communication with people working in the institute other than the administrative staffs, students, and professors

102. Quality of information provided from your institute' s portal site

103. English contents in your institute's notice (portal system and newsletter etc.)

104. Notice or Information written in English in the campus (cafeteria, library, welfare & amenity etc.)

105. Easiness of communicating outside the campus (transportation, hospital, bank etc.)

106. Qual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rom your institute

(107~112.) How would you rate your satisfaction level of the following items regarding *Korea' s institutional and legal system?*

(1=Very dissatisfied, 2=Moderately dissatisfied, 3=Slightly dissatisfied, 4=Moderate, 5=Slightly satisfied, 6=Moderately satisfied, 7=Very satisfied)

107. Overall satisfaction of institutional and legal system in Republic of Korea (visa, healthcare etc.)

108. Health insurance fee

109. Coverage of your health insurance

110.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

111. Process for extension or renewal of Republic of Korea' s visa

112. Your institute's support regarding the visa extension or renewal

How would you rate your satisfaction level of the following items regarding *the financial support?*

(1=Very dissatisfied, 2=Moderately dissatisfied, 3=Slightly dissatisfied, 4=Moderate, 5=Slightly satisfied, 6=Moderately satisfied, 7=Very satisfied)

113. Your financial status in Republic of Korea

114. Living expense

115. Tuition fee

116. Scholarship

(117~120.) How would you rate your satisfaction level of the following items regarding *the social environment of Korea?*

117. Republic of Korea' s overall social environment

118. Safety and Security

119. Racial discrimination

120. Diverse and multicultural environment

(121-129.) How would you rate your satisfaction level of the following items regarding *your personal life in Republic of Korea?*

(1=Very dissatisfied, 2=Moderately dissatisfied, 3=Slightly dissatisfied, 4=Moderate, 5=Slightly satisfied, 6=Moderately satisfied, 7=Very satisfied)

121. Overall satisfaction of your personal life studying in Republic of Korea

122. Religious activities

123. Social activities with Koreans

124. Social activities with people from your home country

125. Extracurricular club activities provided by your institute

126. Campus events (festival, sports day, etc.)

127. Food provided in on-campus cafeterias

128. Food provided outside the campus

129. Institute's psychology consultation center

The following items through 130 to 130-5 are questions related to your stress level studying in Republic of Korea.

130. How would you rate your stress level studying at the research-oriented university in Republic of Korea?

1)Very low 2)Moderately low 3)Slightly low 4)Moderate 5)Slightly high
6)Moderately high 7)Very high

130-1. Regarding your stress level studying in Republic of Korea, which of the

following factors affected you the most? (You may choose up to three.)

1)Homesickness 2)Cultural difference 3)Language barrier 4)Relationship with the colleagues 5)Relationship with the advisor 6)Academic pressure 6)Others (please specify):

130-2. Do you think there is a proper channel to relieve your stress provided by the Republic of Korea' s governmental agency?

1)Yes 2)No

130-3. (130-2. 1) 선택자) Please specify the channel you use to relieve your stress.

Please specify.

130-4. Do you think there is a proper channel to relieve your stress provided by your institute?

1) Yes 2)No

130-5. (130-4. 1) 선택자) Please specify the channel you use to relieve your stress.

Please specify.

PART V. CAREER PLANS

131. What is the most important to you when you are planning your career?

1)Feeling of achievement 2)Opportunity for development 3)Financial earning 4)Going back to your home country 5)Others (please specify):

132. What is your plan after graduation?

1)Continue conducting research (PhD, post-doc, teaching position, etc.)

2)Work for a government or governmental agency 3)Work for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4)Work for a private company 5)Start a company 6)Do not know/not sure 7)Others (please specify):

133. (132. 1) 선택자)

Which country are you planning to conduct research after graduation?

1)Republic of Korea 2)Your home country 3)Others (Please specify)

133-1. (133 1) 선택자) Why do you hope to remain in Republic of Korea?

1)More research opportunities in Republic of Korea 2)Reputation of the program
3)Living cost 4)Academic network 5)Married with a Korean resident 6)Others
(please specify):

133-2. (133 2)선택자) Why do you hope to go back to your home country?

1)More research opportunities in your home country 2)Reputation of the program
3)Living cost 4)Academic network 5)Family back in your home country 6)Others
(please specify):

133-3. (133 3) 선택자) Why do you hope to go to a foreign country other than Republic of Korea?

1)More research opportunities in that country 2)Reputation of the program
3)Living cost 4)Academic network 5)Others (please specify):

134. (132 2)~5) 선택자) Which country are you planning to get a job?

1)Republic of Korea 2)Your home country 3)Others (Please specify)

135-1. (134. 1) 선택자) Why do you hope to remain in Republic of Korea?

1)More job opportunities in Republic of Korea 2)Living cost 3)Quality of life
4)Job Network 5)Married with a Korean resident 6)Others (please specify):

135-2. (134. 2)선택자) Why do you hope to go back to your home country?

1)More job opportunities in your home country 2)Living cost 3)Quality of life
4)Job Network 5)Family back in your home country 6)Others (please specify):

135-3. (134. 3) 선택자) Why do you hope to go to a foreign country other than

Republic of Korea?

1)More opportunities in that country 2)Living cost 3)Quality of life 4)Job network
5)Others (please specify):

136. (132. 6), 7) 선택자) Which country are you planning to go after graduation?

1)Republic of Korea 2)Your home country 3)Others (Please specify)

137. Which of the following do you hope to learn more about the job market in Republic of Korea? Check all that apply.

1)Salary 2)Republic of Korea' s working visa 3)Promotion system 4)Foreigner friendly environment 5)Company' s working environment 6) Others (please specify):

FINAL QUESTIONS

138. What does studying in Korea mean to you?

139. What does studying in your institute mean to you?

140. What is the biggest challenge to study in Korea or in your institute?

140-1. How would you suggest a point to be improved regarding the challenge you pointed out ?

<별첨 3. 설문조사 결과>

1. Nationality

		조사완료 수	Indonesia a	Malaysia	Viet Nam	Philippin es	Thailand	Singapor e	Brunei	Myanmar	Cambodi a	Laos	India	Others: Please specify.	
전체		192	36 (18.8%)	14 (7.3%)	53 (27.6%)	20 (10.4%)	12 (6.3%)	2 (1%)	1 (0.5%)	3 (1.6%)	0 (0%)	1 (0.5%)	41 (21.4%)	9 (4.7%)	
nationality	Indonesia	36	36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alaysia	14	0 (0%)	14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Viet Nam	53	0 (0%)	0 (0%)	53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hilippines	20	0 (0%)	0 (0%)	0 (0%)	20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Thailand	12	0 (0%)	0 (0%)	0 (0%)	0 (0%)	12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Singapore	2	0 (0%)	0 (0%)	0 (0%)	0 (0%)	0 (0%)	2 (100%)	0 (0%)	0 (0%)	0 (0%)	0 (0%)	0 (0%)	0 (0%)	
	Brunei	1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0 (0%)	0 (0%)	
	Myanmar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100%)	0 (0%)	0 (0%)	0 (0%)	0 (0%)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India	4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1 (100%)	
	Others: Please specify.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100%)
	Gender	Male	108	21 (19.4%)	3 (2.8%)	33 (30.6%)	10 (9.3%)	5 (4.6%)	1 (0.9%)	0 (0%)	1 (0.9%)	0 (0%)	1 (0.9%)	27 (25%)	6 (5.6%)
Female		80	14 (17.5%)	9 (11.3%)	20 (25%)	10 (12.5%)	6 (7.5%)	1 (1.3%)	1 (1.3%)	2 (2.5%)	0 (0%)	0 (0%)	14 (17.5%)	3 (3.8%)	
Others		2	1 (50%)	0 (0%)	0 (0%)	0 (0%)	1 (5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I do not wish to respond		2	0 (0%)	2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institute	GIST	27	1 (3.7%)	3 (11.1%)	11 (40.7%)	8 (29.6%)	0 (0%)	0 (0%)	0 (0%)	0 (0%)	0 (0%)	0 (0%)	4 (14.8%)	0 (0%)	
	DGIST	24	2 (8.3%)	2 (8.3%)	4 (16.7%)	2 (8.3%)	0 (0%)	0 (0%)	0 (0%)	0 (0%)	0 (0%)	0 (0%)	5 (20.8%)	9 (37.5%)	
	UNIST	38	9 (23.7%)	1 (2.6%)	13 (34.2%)	2 (5.3%)	0 (0%)	1 (2.6%)	0 (0%)	0 (0%)	0 (0%)	0 (0%)	12 (31.6%)	0 (0%)	
	POSTECH	16	4 (25%)	1 (6.3%)	3 (18.8%)	1 (6.3%)	1 (6.3%)	0 (0%)	0 (0%)	0 (0%)	0 (0%)	0 (0%)	6 (37.5%)	0 (0%)	
	KAIST	87	20 (23%)	7 (8%)	22 (25.3%)	7 (8%)	11 (12.6%)	1 (1.1%)	1 (1.1%)	3 (3.4%)	0 (0%)	1 (1.1%)	14 (16.1%)	0 (0%)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9 (27.3%)	5 (15.2%)	5 (15.2%)	5 (15.2%)	6 (18.2%)	0 (0%)	1 (3%)	0 (0%)	0 (0%)	0 (0%)	2 (6.1%)	0 (0%)	
	Master	60	15 (25%)	4 (6.7%)	16 (26.7%)	8 (13.3%)	4 (6.7%)	1 (1.7%)	0 (0%)	3 (5%)	0 (0%)	1 (1.7%)	5 (8.3%)	3 (5%)	
	Ph.D.	75	7 (9.3%)	4 (5.3%)	21 (28%)	6 (8%)	2 (2.7%)	0 (0%)	0 (0%)	0 (0%)	0 (0%)	0 (0%)	31 (41.3%)	4 (5.3%)	

scholarship	Ma. and Doc	22	5 (22.7%)	1 (4.5%)	10 (45.5%)	1 (4.5%)	0 (0%)	1 (4.5%)	0 (0%)	0 (0%)	0 (0%)	0 (0%)	3 (13.6%)	1 (4.5%)
	Int Pro													
	Others (please specify)	2	0 (0%)	0 (0%)	1 (5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50%)
	Yes	185	35 (18.9%)	13 (7%)	50 (27%) (10.8%)	20 (6.5%)	12	2 (1.1%)	1 (0.5%)	3 (1.6%)	0 (0%)	1 (0.5%)	40 (21.6%)	8 (4.3%)
No	7	1 (14.3%)	1 (14.3%)	3 (42.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4.3%)	1 (14.3%)	

9. Are you receiving scholarship?

		조사완료 수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Your home country's government	Private foundation in Republic of Korea	Private foundation of your home country	University	Others (please specify)	
전체		208	44 (21.2%)	5 (2.4%)	6 (2.9%)	0 (0%)	141 (67.8%)	12 (5.8%)	
nationality	Indonesia	35	3 (8.6%)	3 (8.6%)	0 (0%)	0 (0%)	29 (82.9%)	4 (11.4%)	
	Malaysia	13	4 (30.8%)	1 (7.7%)	1 (7.7%)	0 (0%)	7 (53.8%)	1 (7.7%)	
	Viet Nam	50	12 (24%)	0 (0%)	2 (4%)	0 (0%)	39 (78%)	3 (6%)	
	Philippines	20	8 (40%)	0 (0%)	0 (0%)	0 (0%)	14 (70%)	1 (5%)	
	Thailand	12	2 (16.7%)	0 (0%)	1 (8.3%)	0 (0%)	10 (83.3%)	0 (0%)	
	Singapore	2	1 (50%)	0 (0%)	0 (0%)	0 (0%)	2 (100%)	0 (0%)	
	Brunei	1	0 (0%)	1 (100%)	0 (0%)	0 (0%)	0 (0%)	0 (0%)	
	Myanmar	3	2 (66.7%)	0 (0%)	0 (0%)	0 (0%)	1 (33.3%)	1 (33.3%)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0 (0%)	0 (0%)	0 (0%)	0 (0%)	1 (100%)	0 (0%)	
	India	40	10 (25%)	0 (0%)	2 (5%)	0 (0%)	30 (75%)	2 (5%)	
	Others: Please specify.	8	2 (25%)	0 (0%)	0 (0%)	0 (0%)	8 (100%)	0 (0%)	
	Gender	Male	105	21 (20%)	1 (1%)	2 (1.9%)	0 (0%)	88 (83.8%)	8 (7.6%)
		Female	77	21 (27.3%)	4 (5.2%)	3 (3.9%)	0 (0%)	52 (67.5%)	4 (5.2%)
Others		2	1 (50%)	0 (0%)	1 (50%)	0 (0%)	1 (50%)	0 (0%)	
I do not wish to respond		1	1 (100%)	0 (0%)	0 (0%)	0 (0%)	0 (0%)	0 (0%)	
institute	GIST	26	22 (84.6%)	0 (0%)	1 (3.8%)	0 (0%)	8 (30.8%)	2 (7.7%)	
	DGIST	22	5 (22.7%)	0 (0%)	1 (4.5%)	0 (0%)	21 (95.5%)	1 (4.5%)	
	UNIST	37	3 (8.1%)	0 (0%)	1 (2.7%)	0 (0%)	32 (86.5%)	2 (5.4%)	
	POSTECH	14	1 (7.1%)	1 (7.1%)	2 (14.3%)	0 (0%)	9 (64.3%)	2 (14.3%)	

	KAIST	86	13 (15.1%)	4 (4.7%)	1 (1.2%)	0 (0%)	71 (82.6%)	5 (5.8%)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2	2 (6.3%)	1 (3.1%)	0 (0%)	0 (0%)	29 (90.6%)	1 (3.1%)
	Master	58	17 (29.3%)	2 (3.4%)	1 (1.7%)	0 (0%)	41 (70.7%)	5 (8.6%)
	Ph.D.	72	21 (29.2%)	2 (2.8%)	5 (6.9%)	0 (0%)	52 (72.2%)	4 (5.6%)
	Ma. and Doc Int	21	3 (14.3%)	0 (0%)	0 (0%)	0 (0%)	18 (85.7%)	1 (4.8%)
	Pro							
	Others (please specify)	2	1 (50%)	0 (0%)	0 (0%)	0 (0%)	1 (50%)	1 (50%)
scholarship	Yes	185	44 (23.8%)	5 (2.7%)	6 (3.2%)	0 (0%)	141 (76.2%)	12 (6.5%)
	No	0	0 (0%)	0 (0%)	0 (0%)	0 (0%)	0 (0%)	0 (0%)

19. How would you rate your Korean proficiency?

		조사완료 수	Beginner	Low intermediate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Advanced	Very advanced
전체		192	110 (57.3%)	44 (22.9%)	22 (11.5%)	11 (5.7%)	5 (2.6%)	0 (0%)
nationality	Indonesia	36	21 (58.3%)	5 (13.9%)	4 (11.1%)	5 (13.9%)	1 (2.8%)	0 (0%)
	Malaysia	14	4 (28.6%)	4 (28.6%)	3 (21.4%)	2 (14.3%)	1 (7.1%)	0 (0%)
	Viet Nam	53	36 (67.9%)	12 (22.6%)	4 (7.5%)	0 (0%)	1 (1.9%)	0 (0%)
	Philippines	20	10 (50%)	7 (35%)	2 (10%)	1 (5%)	0 (0%)	0 (0%)
	Thailand	12	6 (50%)	2 (16.7%)	2 (16.7%)	2 (16.7%)	0 (0%)	0 (0%)
	Singapore	2	0 (0%)	1 (50%)	0 (0%)	1 (50%)	0 (0%)	0 (0%)
	Brunei	1	1 (100%)	0 (0%)	0 (0%)	0 (0%)	0 (0%)	0 (0%)
	Myanmar	3	3 (100%)	0 (0%)	0 (0%)	0 (0%)	0 (0%)	0 (0%)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1 (100%)	0 (0%)	0 (0%)	0 (0%)	0 (0%)	0 (0%)
	India	41	24 (58.5%)	10 (24.4%)	5 (12.2%)	0 (0%)	2 (4.9%)	0 (0%)
	Others: Please specify.	9	4 (44.4%)	3 (33.3%)	2 (22.2%)	0 (0%)	0 (0%)	0 (0%)
	Gender	Male	108	72 (66.7%)	19 (17.6%)	10 (9.3%)	5 (4.6%)	2 (1.9%)
Female		80	36 (45%)	25 (31.3%)	10 (12.5%)	6 (7.5%)	3 (3.8%)	0 (0%)
Others		2	1 (50%)	0 (0%)	1 (50%)	0 (0%)	0 (0%)	0 (0%)
I do not wish to respond		2	1 (50%)	0 (0%)	1 (50%)	0 (0%)	0 (0%)	0 (0%)
institute	GIST	27	12 (44.4%)	11 (40.7%)	4 (14.8%)	0 (0%)	0 (0%)	0 (0%)
	DGIST	24	13 (54.2%)	9 (37.5%)	2 (8.3%)	0 (0%)	0 (0%)	0 (0%)
	UNIST	38	24 (63.2%)	5 (13.2%)	3 (7.9%)	6 (15.8%)	0 (0%)	0 (0%)

	POSTECH	16	10 (62.5%)	1 (6.3%)	3 (18.8%)	1 (6.3%)	1 (6.3%)	0 (0%)
	KAIST	87	51 (58.6%)	18 (20.7%)	10 (11.5%)	4 (4.6%)	4 (4.6%)	0 (0%)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12 (36.4%)	9 (27.3%)	6 (18.2%)	5 (15.2%)	1 (3%)	0 (0%)
	Master	60	39 (65%)	12 (20%)	5 (8.3%)	2 (3.3%)	2 (3.3%)	0 (0%)
	Ph.D.	75	46 (61.3%)	16 (21.3%)	10 (13.3%)	2 (2.7%)	1 (1.3%)	0 (0%)
	Ma. and Doc Int	22	13 (59.1%)	7 (31.8%)	0 (0%)	2 (9.1%)	0 (0%)	0 (0%)
	Pro							
	Others (please specify)	2	0 (0%)	0 (0%)	1 (50%)	0 (0%)	1 (50%)	0 (0%)
scholarship	Yes	185	107 (57.8%)	42 (22.7%)	22 (11.9%)	10 (5.4%)	4 (2.2%)	0 (0%)
	No	7	3 (42.9%)	2 (28.6%)	0 (0%)	1 (14.3%)	1 (14.3%)	0 (0%)

21. How long have you studied Korean?

		조사완료 수	Less than 1 year	more than 1 less than 2 years	more than 2 less than 3 years	more than 3 less than 4 years	more than 4 years
전체		192	110 (57.3%)	43 (22.4%)	17 (8.9%)	8 (4.2%)	14 (7.3%)
nationality	Indonesia	36	17 (47.2%)	9 (25%)	5 (13.9%)	4 (11.1%)	1 (2.8%)
	Malaysia	14	6 (42.9%)	6 (42.9%)	1 (7.1%)	0 (0%)	1 (7.1%)
	Viet Nam	53	35 (66%)	8 (15.1%)	4 (7.5%)	1 (1.9%)	5 (9.4%)
	Philippines	20	12 (60%)	3 (15%)	1 (5%)	2 (10%)	2 (10%)
	Thailand	12	6 (50%)	2 (16.7%)	3 (25%)	0 (0%)	1 (8.3%)
	Singapore	2	1 (50%)	0 (0%)	0 (0%)	0 (0%)	1 (50%)
	Brunei	1	1 (100%)	0 (0%)	0 (0%)	0 (0%)	0 (0%)
	Myanmar	3	2 (66.7%)	1 (33.3%)	0 (0%)	0 (0%)	0 (0%)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1 (100%)	0 (0%)	0 (0%)	0 (0%)	0 (0%)
	India	41	25 (61%)	11 (26.8%)	3 (7.3%)	1 (2.4%)	1 (2.4%)
	Others: Please specify.	9	4 (44.4%)	3 (33.3%)	0 (0%)	0 (0%)	2 (22.2%)
	Gender	Male	108	65 (60.2%)	26 (24.1%)	8 (7.4%)	5 (4.6%)
Female		80	43 (53.8%)	16 (20%)	8 (10%)	3 (3.8%)	10 (12.5%)
Others		2	2 (100%)	0 (0%)	0 (0%)	0 (0%)	0 (0%)
I do not wish to respond		2	0 (0%)	1 (50%)	1 (50%)	0 (0%)	0 (0%)
institute	GIST	27	15 (55.6%)	8 (29.6%)	3 (11.1%)	0 (0%)	1 (3.7%)

	DGIST	24	13 (54.2%)	7 (29.2%)	1 (4.2%)	0 (0%)	3 (12.5%)
	UNIST	38	21 (55.3%)	2 (5.3%)	7 (18.4%)	5 (13.2%)	3 (7.9%)
	POSTECH	16	8 (50%)	6 (37.5%)	1 (6.3%)	0 (0%)	1 (6.3%)
	KAIST	87	53 (60.9%)	20 (23%)	5 (5.7%)	3 (3.4%)	6 (6.9%)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14 (42.4%)	7 (21.2%)	4 (12.1%)	5 (15.2%)	3 (9.1%)
	Master	60	41 (68.3%)	13 (21.7%)	4 (6.7%)	0 (0%)	2 (3.3%)
	Ph.D.	75	42 (56%)	18 (24%)	8 (10.7%)	1 (1.3%)	6 (8%)
	Ma. and Doc Int	22	11 (50%)	5 (22.7%)	1 (4.5%)	2 (9.1%)	3 (13.6%)
	Others (please specify)	2	2 (100%)	0 (0%)	0 (0%)	0 (0%)	0 (0%)
scholarship	Yes	185	106 (57.3%)	43 (23.2%)	16 (8.6%)	7 (3.8%)	13 (7%)
	No	7	4 (57.1%)	0 (0%)	1 (14.3%)	1 (14.3%)	1 (14.3%)

22. Where did/do you study Korean? Check all that apply.

		조사완료 수	Regular courses from your institute	Korean language center at your institute	Korean language center outside of your institute	Self-study	In your home country	Others (Please specify)
전체		285	107 (37.5%)	35 (12.3%)	15 (5.3%)	91 (31.9%)	24 (8.4%)	13 (4.6%)
nationality	Indonesia	36	22 (61.1%)	7 (19.4%)	4 (11.1%)	21 (58.3%)	8 (22.2%)	2 (5.6%)
	Malaysia	14	9 (64.3%)	2 (14.3%)	2 (14.3%)	8 (57.1%)	2 (14.3%)	2 (14.3%)
	Viet Nam	53	30 (56.6%)	8 (15.1%)	4 (7.5%)	25 (47.2%)	4 (7.5%)	1 (1.9%)
	Philippines	20	11 (55%)	1 (5%)	0 (0%)	8 (40%)	3 (15%)	2 (10%)
	Thailand	12	6 (50%)	2 (16.7%)	2 (16.7%)	8 (66.7%)	5 (41.7%)	0 (0%)
	Singapore	2	0 (0%)	1 (50%)	0 (0%)	1 (50%)	1 (50%)	0 (0%)
	Brunei	1	0 (0%)	1 (100%)	0 (0%)	0 (0%)	0 (0%)	0 (0%)
	Myanmar	3	3 (100%)	0 (0%)	0 (0%)	1 (33.3%)	0 (0%)	0 (0%)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1 (100%)	0 (0%)	0 (0%)	0 (0%)	0 (0%)	0 (0%)
	India	41	19 (46.3%)	10 (24.4%)	3 (7.3%)	14 (34.1%)	0 (0%)	5 (12.2%)
	Others: Please specify.	9	6 (66.7%)	3 (33.3%)	0 (0%)	5 (55.6%)	1 (11.1%)	1 (11.1%)
Gender	Male	108	65 (60.2%)	21 (19.4%)	6 (5.6%)	55 (50.9%)	11 (10.2%)	7 (6.5%)
	Female	80	41 (51.3%)	13 (16.3%)	9 (11.3%)	35 (43.8%)	13 (16.3%)	5 (6.3%)
	Others	2	0 (0%)	1 (50%)	0 (0%)	1 (50%)	0 (0%)	0 (0%)

	I do not wish to respond	2	1 (50%)	0 (0%)	0 (0%)	0 (0%)	0 (0%)	1 (50%)
institute	GIST	27	19 (70.4%)	4 (14.8%)	1 (3.7%)	8 (29.6%)	1 (3.7%)	2 (7.4%)
	DGIST	24	21 (87.5%)	4 (16.7%)	0 (0%)	11 (45.8%)	1 (4.2%)	1 (4.2%)
	UNIST	38	12 (31.6%)	7 (18.4%)	1 (2.6%)	18 (47.4%)	5 (13.2%)	5 (13.2%)
	POSTECH	16	4 (25%)	4 (25%)	4 (25%)	10 (62.5%)	2 (12.5%)	0 (0%)
	KAIST	87	51 (58.6%)	16 (18.4%)	9 (10.3%)	44 (50.6%)	15 (17.2%)	5 (5.7%)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20 (60.6%)	8 (24.2%)	1 (3%)	15 (45.5%)	8 (24.2%)	3 (9.1%)
	Master	60	38 (63.3%)	6 (10%)	6 (10%)	30 (50%)	8 (13.3%)	1 (1.7%)
	Ph.D.	75	38 (50.7%)	16 (21.3%)	8 (10.7%)	30 (40%)	6 (8%)	7 (9.3%)
	Ma. and Doc Int	22	10 (45.5%)	4 (18.2%)	0 (0%)	14 (63.6%)	1 (4.5%)	1 (4.5%)
	Pro Others (please specify)	2	1 (50%)	1 (50%)	0 (0%)	2 (100%)	1 (50%)	1 (50%)
scholarship	Yes	185	104 (56.2%)	34 (18.4%)	14 (7.6%)	88 (47.6%)	24 (13%)	12 (6.5%)
	No	7	3 (42.9%)	1 (14.3%)	1 (14.3%)	3 (42.9%)	0 (0%)	1 (14.3%)

29. Overall expectation level of studying in Republic of Korea

		조사완료											
		Moderatel		Slightlylo		SlightlyhigModeratel							
		수	Verylow	ylow	w	Moderate	h	yhigh	Veryhigh	좌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		192	2 (1%)	1 (0.5%)	8 (4.2%)	43 (22.4%)	53 (27.6%)	67 (34.9%)	18 (9.4%)	11 (5.7%)	138 (71.9%)	5.17 (73.86)	1.14 (1.14)
nationality	Indonesia	36	0 (0%)	0 (0%)	2 (5.6%)	4 (11.1%)	13 (36.1%)	14 (38.9%)	3 (8.3%)	2 (5.6%)	30 (83.3%)	5.33 (76.14)	0.97 (0.97)
	Malaysia	14	0 (0%)	0 (0%)	1 (7.1%)	3 (21.4%)	4 (28.6%)	3 (21.4%)	3 (21.4%)	1 (7.1%)	10 (71.4%)	5.29 (75.57)	1.22 (1.22)
	Viet Nam	53	0 (0%)	1 (1.9%)	0 (0%)	17 (32.1%)	16 (30.2%)	15 (28.3%)	4 (7.5%)	1 (1.9%)	35 (66%)	5.06 (72.29)	1.04 (1.04)
	Philippines	20	0 (0%)	0 (0%)	1 (5%)	2 (10%)	3 (15%)	9 (45%)	5 (25%)	1 (5%)	17 (85%)	5.75 (82.14)	1.09 (1.09)
	Thailand	12	0 (0%)	0 (0%)	0 (0%)	1 (8.3%)	4 (33.3%)	6 (50%)	1 (8.3%)	0 (0%)	11 (91.7%)	5.58 (79.71)	0.76 (0.76)
	Singapore	2	0 (0%)	0 (0%)	0 (0%)	2 (100%)	0 (0%)	0 (0%)	0 (0%)	0 (0%)	0 (0%)	4 (57.14)	0 (0)
	Brunei	1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1 (100%)	5 (71.43)	0 (0)
	Myanmar	3	0 (0%)	0 (0%)	1 (33.3%)	0 (0%)	0 (0%)	2 (66.7%)	0 (0%)	1 (33.3%)	2 (66.7%)	5 (71.43)	1.41 (1.41)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1 (100%)	5 (71.43)	0 (0)
	India	41	2 (4.9%)	0 (0%)	3 (7.3%)	10 (24.4%)	9 (22%)	15 (36.6%)	2 (4.9%)	5 (12.2%)	26 (63.4%)	4.88 (69.71)	1.36 (1.36)
	Others: Please specify.	9	0 (0%)	0 (0%)	0 (0%)	4 (44.4%)	2 (22.2%)	3 (33.3%)	0 (0%)	0 (0%)	5 (55.6%)	4.89 (69.86)	0.87 (0.87)
	Gender	Male	108	1 (0.9%)	1 (0.9%)	5 (4.6%)	21	26	44	10 (9.3%)	7 (6.5%)	80	5.24

					(19.4%)	(24.1%)	(40.7%)			(74.1%)	(74.86)	(1.15)	
	Female	80	1 (1.3%)	0 (0%)	3 (3.8%)	22 (27.5%)	27 (33.8%)	21 (26.3%)	6 (7.5%)	4 (5%)	54 (67.5%)	5.01 (71.57)	1.09 (1.09)
	Others	2	0 (0%)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2 (100%)	6.5 (92.86)	0.5 (0.5)
	I do not wish to respond	2	0 (0%)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2 (100%)	6.5 (92.86)	0.5 (0.5)
institute	GIST	27	0 (0%)	0 (0%)	2 (7.4%)	9 (33.3%)	7 (25.9%)	6 (22.2%)	3 (11.1%)	2 (7.4%)	16 (59.3%)	4.96 (70.86)	1.14 (1.14)
	DGIST	24	0 (0%)	0 (0%)	2 (8.3%)	8 (33.3%)	4 (16.7%)	9 (37.5%)	1 (4.2%)	2 (8.3%)	14 (58.3%)	4.96 (70.86)	1.1 (1.1)
	UNIST	38	1 (2.6%)	1 (2.6%)	1 (2.6%)	9 (23.7%)	14 (36.8%)	8 (21.1%)	4 (10.5%)	3 (7.9%)	26 (68.4%)	4.95 (70.71)	1.28 (1.28)
	POSTECH	16	1 (6.3%)	0 (0%)	0 (0%)	3 (18.8%)	4 (25%)	5 (31.3%)	3 (18.8%)	1 (6.3%)	12 (75%)	5.25 (75)	1.48 (1.48)
	KAIST	87	0 (0%)	0 (0%)	3 (3.4%)	14 (16.1%)	24 (27.6%)	39 (44.8%)	7 (8%)	3 (3.4%)	70 (80.5%)	5.38 (76.86)	0.96 (0.96)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0 (0%)	0 (0%)	0 (0%)	9 (27.3%)	10 (30.3%)	13 (39.4%)	1 (3%)	0 (0%)	24 (72.7%)	5.18 (74)	0.87 (0.87)
	Master	60	0 (0%)	0 (0%)	4 (6.7%)	7 (11.7%)	16 (26.7%)	27 (45%)	6 (10%)	4 (6.7%)	49 (81.7%)	5.4 (77.14)	1.04 (1.04)
	Ph.D.	75	2 (2.7%)	1 (1.3%)	3 (4%)	21 (28%)	21 (28%)	18 (24%)	9 (12%)	6 (8%)	48 (64%)	4.97 (71)	1.31 (1.31)
	Ma. and Doc	22	0 (0%)	0 (0%)	1 (4.5%)	6 (27.3%)	6 (27.3%)	8 (36.4%)	1 (4.5%)	1 (4.5%)	15 (68.2%)	5.09 (72.71)	1 (1)
	Int Pro	2	0 (0%)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2 (100%)	6.5 (92.86)	0.5 (0.5)
	Others (please specify)	2	0 (0%)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2 (100%)	6.5 (92.86)	0.5 (0.5)
scholarship	Yes	185	2 (1.1%)	1 (0.5%)	8 (4.3%)	42 (22.7%)	50 (27%)	64 (34.6%)	18 (9.7%)	11 (5.9%)	132 (71.4%)	5.17 (73.86)	1.15 (1.15)
	No	7	0 (0%)	0 (0%)	0 (0%)	1 (14.3%)	3 (42.9%)	3 (42.9%)	0 (0%)	0 (0%)	6 (85.7%)	5.29 (75.57)	0.7 (0.7)

33. Expectation level of social interactions during your study in Republic of Korea (interaction with Korean friends, participating in school events, alumni gatherings of your home country etc.)

	조사완료 수	Moderately low							Moderately high			최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Verylow	low	Slightlylow	Moderate	Slightlyhigh	high	Veryhigh							
전체	192	7 (3.6%)	13 (6.8%)	16 (8.3%)	52 (27.1%)	55 (28.6%)	29 (15.1%)	20 (10.4%)	36 (18.8%)	104 (54.2%)	4.57 (65.29)	1.48 (1.48)			
nationality	Indonesia	36	0 (0%)	2 (5.6%)	2 (5.6%)	8 (22.2%)	9 (25%)	9 (25%)	6 (16.7%)	4 (11.1%)	24 (66.7%)	5.08 (72.57)	1.36 (1.36)		
	Malaysia	14	1 (7.1%)	0 (0%)	2 (14.3%)	3 (21.4%)	3 (21.4%)	4 (28.6%)	1 (7.1%)	3 (21.4%)	8 (57.1%)	4.64 (66.29)	1.54 (1.54)		
	Viet Nam	53	1 (1.9%)	2 (3.8%)	4 (7.5%)	14 (26.4%)	22 (41.5%)	5 (9.4%)	5 (9.4%)	7 (13.2%)	32 (60.4%)	4.68 (66.86)	1.26 (1.26)		
	Philippines	20	1 (5%)	0 (0%)	2 (10%)	5 (25%)	7 (35%)	3 (15%)	2 (10%)	3 (15%)	12 (60%)	4.7 (67.14)	1.38 (1.38)		
	Thailand	12	0 (0%)	1 (8.3%)	1 (8.3%)	2 (16.7%)	4 (33.3%)	3 (25%)	1 (8.3%)	2 (16.7%)	8 (66.7%)	4.83 (69)	1.34 (1.34)		
	Singapore	2	0 (0%)	0 (0%)	1 (50%)	0 (0%)	1 (50%)	0 (0%)	0 (0%)	1 (50%)	1 (50%)	4 (57.14)	1 (1)		
	Brunei	1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0 (0%)	0 (0%)	4 (57.14)	0 (0)		
	Myanmar	3	0 (0%)	0 (0%)	0 (0%)	1 (33.3%)	1 (33.3%)	1 (33.3%)	0 (0%)	0 (0%)	2 (66.7%)	5 (71.43)	0.82 (0.82)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1 (100%)	5 (71.43)	0 (0)
	India	41	4 (9.8%)	6 (14.6%)	4 (9.8%)	13 (31.7%)	6 (14.6%)	3 (7.3%)	5 (12.2%)	14 (34.1%)	14 (34.1%)	3.98 (56.86)	1.76 (1.76)
	Others: Please specify.	9	0 (0%)	2 (22.2%)	0 (0%)	5 (55.6%)	1 (11.1%)	1 (11.1%)	0 (0%)	2 (22.2%)	2 (22.2%)	3.89 (55.57)	1.2 (1.2)
Gender	Male	108	5 (4.6%)	9 (8.3%)	8 (7.4%)	35 (32.4%)	27 (25%)	15 (13.9%)	9 (8.3%)	22 (20.4%)	51 (47.2%)	4.4 (62.86)	1.49 (1.49)
	Female	80	1 (1.3%)	4 (5%)	7 (8.8%)	17 (21.3%)	28 (35%)	13 (16.3%)	10 (12.5%)	12 (15%)	51 (63.8%)	4.83 (69)	1.36 (1.36)
	Others	2	0 (0%)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2 (100%)	6.5 (92.86)	0.5 (0.5)
	I do not wish to respond	2	1 (50%)	0 (0%)	1 (50%)	0 (0%)	0 (0%)	0 (0%)	0 (0%)	2 (100%)	0 (0%)	2 (28.57)	1 (1)
institute	GIST	27	2 (7.4%)	0 (0%)	3 (11.1%)	7 (25.9%)	10 (37%)	5 (18.5%)	0 (0%)	5 (18.5%)	15 (55.6%)	4.41 (63)	1.31 (1.31)
	DGIST	24	2 (8.3%)	5 (20.8%)	2 (8.3%)	7 (29.2%)	5 (20.8%)	1 (4.2%)	2 (8.3%)	9 (37.5%)	8 (33.3%)	3.79 (54.14)	1.66 (1.66)
	UNIST	38	1 (2.6%)	2 (5.3%)	4 (10.5%)	14 (36.8%)	12 (31.6%)	2 (5.3%)	3 (7.9%)	7 (18.4%)	17 (44.7%)	4.37 (62.43)	1.29 (1.29)
	POSTECH	16	2 (12.5%)	1 (6.3%)	1 (6.3%)	5 (31.3%)	2 (12.5%)	5 (31.3%)	0 (0%)	4 (25%)	7 (43.8%)	4.19 (59.86)	1.67 (1.67)
	KAIST	87	0 (0%)	5 (5.7%)	6 (6.9%)	19 (21.8%)	26 (29.9%)	16 (18.4%)	15 (17.2%)	11 (12.6%)	57 (65.5%)	5 (71.43)	1.37 (1.37)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0 (0%)	3 (9.1%)	2 (6.1%)	12 (36.4%)	9 (27.3%)	5 (15.2%)	2 (6.1%)	5 (15.2%)	16 (48.5%)	4.52 (64.57)	1.26 (1.26)
	Master	60	0 (0%)	2 (3.3%)	4 (6.7%)	13 (21.7%)	23 (38.3%)	8 (13.3%)	10 (16.7%)	6 (10%)	41 (68.3%)	5.02 (71.71)	1.26 (1.26)
	Ph.D.	75	7 (9.3%)	7 (9.3%)	6 (8%)	20 (26.7%)	16 (21.3%)	12 (16%)	7 (9.3%)	20 (26.7%)	35 (46.7%)	4.27 (61)	1.71 (1.71)
	Ma. and Doc Int	22	0 (0%)	1 (4.5%)	4 (18.2%)	6 (27.3%)	7 (31.8%)	4 (18.2%)	0 (0%)	5 (22.7%)	11 (50%)	4.41 (63)	1.11 (1.11)
	Pro												
	Others (please specify)	2	0 (0%)	0 (0%)	0 (0%)	1 (50%)	0 (0%)	0 (0%)	1 (50%)	0 (0%)	1 (50%)	5.5 (78.57)	1.5 (1.5)
scholarship	Yes	185	6 (3.2%)	13 (7%)	16 (8.6%)	48 (25.9%)	54 (29.2%)	29 (15.7%)	19 (10.3%)	35 (18.9%)	102 (55.1%)	4.59 (65.57)	1.47 (1.47)
	No	7	1 (14.3%)	0 (0%)	0 (0%)	4 (57.1%)	1 (14.3%)	0 (0%)	1 (14.3%)	1 (14.3%)	2 (28.6%)	4.14 (59.14)	1.64 (1.64)

37. Was Republic of Korea your first option for studying abroad?

		조사완료 수	Yes	No
전체		192	74 (38.5%)	118 (61.5%)
nationality	Indonesia	36	16 (44.4%)	20 (55.6%)
	Malaysia	14	2 (14.3%)	12 (85.7%)
	Viet Nam	53	14 (26.4%)	39 (73.6%)
	Philippines	20	7 (35%)	13 (65%)
	Thailand	12	6 (50%)	6 (50%)
	Singapore	2	2 (100%)	0 (0%)
	Brunei	1	0 (0%)	1 (100%)
	Myanmar	3	3 (100%)	0 (0%)

	Cambodia	0	0 (0%)	0 (0%)
	Laos	1	1 (100%)	0 (0%)
	India	41	20 (48.8%)	21 (51.2%)
	Others: Please specify.	9	3 (33.3%)	6 (66.7%)
Gender	Male	108	41 (38%)	67 (62%)
	Female	80	32 (40%)	48 (60%)
	Others	2	1 (50%)	1 (50%)
	I do not wish to respond	2	0 (0%)	2 (100%)
institute	GIST	27	7 (25.9%)	20 (74.1%)
	DGIST	24	8 (33.3%)	16 (66.7%)
	UNIST	38	18 (47.4%)	20 (52.6%)
	POSTECH	16	7 (43.8%)	9 (56.3%)
	KAIST	87	34 (39.1%)	53 (60.9%)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12 (36.4%)	21 (63.6%)
	Master	60	29 (48.3%)	31 (51.7%)
	Ph.D.	75	26 (34.7%)	49 (65.3%)
	Ma. and Doc Int	22	7 (31.8%)	15 (68.2%)
	Pro			
	Others (please specify)	2	0 (0%)	2 (100%)
scholarship	Yes	185	71 (38.4%)	114 (61.6%)
	No	7	3 (42.9%)	4 (57.1%)

(38~51.) On a scale of 1 to 7, how important were the following items in determining **Republic of Korea** as a study destination?

39. Hallyu (Korean pop-culture) viewed via digital media (e.g. Youtube)

		조사완료 수	Notatallim portance	Lowimpor tance	Slightlylow importanc e	Moderatei mportance	Slightlyhig himportan ce	Highimpor tance	Extremelyh ighimporta nce	좌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		192	56 (29.2%)	31 (16.1%)	35 (18.2%)	37 (19.3%)	20 (10.4%)	10 (5.2%)	3 (1.6%)	122 (63.5%)	33 (17.2%)	2.88 (41.14)	1.63 (1.63)
nationality	Indonesia	36	6 (16.7%)	10 (27.8%)	5 (13.9%)	4 (11.1%)	5 (13.9%)	6 (16.7%)	0 (0%)	21 (58.3%)	11 (30.6%)	3.28 (46.86)	1.74 (1.74)
	Malaysia	14	2 (14.3%)	3 (21.4%)	3 (21.4%)	2 (14.3%)	4 (28.6%)	0 (0%)	0 (0%)	8 (57.1%)	4 (28.6%)	3.21 (45.86)	1.42 (1.42)
	Viet Nam	53	14 (26.4%)	6 (11.3%)	12 (22.6%)	14 (26.4%)	5 (9.4%)	1 (1.9%)	1 (1.9%)	32 (60.4%)	7 (13.2%)	2.94 (42)	1.51 (1.51)
	Philippines	20	11 (55%)	3 (15%)	1 (5%)	3 (15%)	1 (5%)	0 (0%)	1 (5%)	15 (75%)	2 (10%)	2.2 (31.43)	1.69 (1.69)

	Thailand	12	3 (25%)	1 (8.3%)	4 (33.3%)	1 (8.3%)	2 (16.7%)	0 (0%)	1 (8.3%)	8 (66.7%)	3 (25%)	3.17 (45.29)	1.77 (1.77)
	Singapore	2	1 (50%)	0 (0%)	1 (50%)	0 (0%)	0 (0%)	0 (0%)	0 (0%)	2 (100%)	0 (0%)	2 (28.57)	1 (1)
	Brunei	1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0 (0%)	0 (0%)	4 (57.14)	0 (0)
	Myanmar	3	0 (0%)	0 (0%)	1 (33.3%)	2 (66.7%)	0 (0%)	0 (0%)	0 (0%)	1 (33.3%)	0 (0%)	3.67 (52.43)	0.47 (0.47)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0 (0%)	0 (0%)	4 (57.14)	0 (0)
	India	41	16 (39%)	5 (12.2%)	7 (17.1%)	8 (19.5%)	2 (4.9%)	3 (7.3%)	0 (0%)	28 (68.3%)	5 (12.2%)	2.61 (37.29)	1.61 (1.61)
	Others: Please specify.	9	3 (33.3%)	3 (33.3%)	1 (11.1%)	1 (11.1%)	1 (11.1%)	0 (0%)	0 (0%)	7 (77.8%)	1 (11.1%)	2.33 (33.29)	1.33 (1.33)
Gender	Male	108	33 (30.6%)	18 (16.7%)	17 (15.7%)	20 (18.5%)	10 (9.3%)	8 (7.4%)	2 (1.9%)	68 (63%)	20 (18.5%)	2.89 (41.29)	1.7 (1.7)
	Female	80	20 (25%)	13 (16.3%)	17 (21.3%)	17 (21.3%)	10 (12.5%)	2 (2.5%)	1 (1.3%)	50 (62.5%)	13 (16.3%)	2.93 (41.86)	1.51 (1.51)
	Others	2	1 (50%)	0 (0%)	1 (50%)	0 (0%)	0 (0%)	0 (0%)	0 (0%)	2 (100%)	0 (0%)	2 (28.57)	1 (1)
	I do not wish to respond	2	2 (100%)	0 (0%)	0 (0%)	0 (0%)	0 (0%)	0 (0%)	0 (0%)	2 (100%)	0 (0%)	1 (14.29)	0 (0)
institute	GIST	27	7 (25.9%)	4 (14.8%)	5 (18.5%)	6 (22.2%)	2 (7.4%)	2 (7.4%)	1 (3.7%)	16 (59.3%)	5 (18.5%)	3.07 (43.86)	1.72 (1.72)
	DGIST	24	8 (33.3%)	5 (20.8%)	3 (12.5%)	4 (16.7%)	4 (16.7%)	0 (0%)	0 (0%)	16 (66.7%)	4 (16.7%)	2.63 (37.57)	1.49 (1.49)
	UNIST	38	11 (28.9%)	6 (15.8%)	8 (21.1%)	8 (21.1%)	1 (2.6%)	3 (7.9%)	1 (2.6%)	25 (65.8%)	5 (13.2%)	2.87 (41)	1.66 (1.66)
	POSTECH	16	7 (43.8%)	3 (18.8%)	1 (6.3%)	2 (12.5%)	1 (6.3%)	2 (12.5%)	0 (0%)	11 (68.8%)	3 (18.8%)	2.56 (36.57)	1.8 (1.8)
	KAIST	87	23 (26.4%)	13 (14.9%)	18 (20.7%)	17 (19.5%)	12 (13.8%)	3 (3.4%)	1 (1.1%)	54 (62.1%)	16 (18.4%)	2.94 (42)	1.56 (1.56)
pursuing degree	Undergrad	33	10 (30.3%)	2 (6.1%)	10 (30.3%)	5 (15.2%)	3 (9.1%)	1 (3%)	2 (6.1%)	22 (66.7%)	6 (18.2%)	3 (42.86)	1.74 (1.74)
	Master	60	14 (23.3%)	14 (23.3%)	10 (16.7%)	10 (16.7%)	9 (15%)	2 (3.3%)	1 (1.7%)	38 (63.3%)	12 (20%)	2.93 (41.86)	1.58 (1.58)
	Ph.D.	75	25 (33.3%)	10 (13.3%)	12 (16%)	17 (22.7%)	7 (9.3%)	4 (5.3%)	0 (0%)	47 (62.7%)	11 (14.7%)	2.77 (39.57)	1.58 (1.58)
	Ma. and Doc Int	22	7 (31.8%)	4 (18.2%)	3 (13.6%)	4 (18.2%)	1 (4.5%)	3 (13.6%)	0 (0%)	14 (63.6%)	4 (18.2%)	2.86 (40.86)	1.74 (1.74)
	Pro Others (please specify)	2	0 (0%)	1 (50%)	0 (0%)	1 (50%)	0 (0%)	0 (0%)	0 (0%)	1 (50%)	0 (0%)	3 (42.86)	1 (1)
scholarship	Yes	185	54 (29.2%)	30 (16.2%)	34 (18.4%)	37 (20%)	17 (9.2%)	10 (5.4%)	3 (1.6%)	118 (63.8%)	30 (16.2%)	2.86 (40.86)	1.62 (1.62)
	No	7	2 (28.6%)	1 (14.3%)	1 (14.3%)	0 (0%)	3 (42.9%)	0 (0%)	0 (0%)	4 (57.1%)	3 (42.9%)	3.14 (44.86)	1.73 (1.73)

42. Cost of undertaking study

		조사완료 수	Notatallim portance	Lowimportance	Slightlylow importance	Moderateimportance	Slightlyhigh importance	Highimportance	Extremelyhighimportance	좌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		192	5 (2.6%)	5 (2.6%)	9 (4.7%)	52 (27.1%)	40 (20.8%)	43 (22.4%)	38 (19.8%)	19 (9.9%)	121 (63%)	5.07 (72.43)	1.46 (1.46)	
nationality	Indonesia	36	1 (2.8%)	0 (0%)	2 (5.6%)	11 (30.6%)	6 (16.7%)	9 (25%)	7 (19.4%)	3 (8.3%)	22 (61.1%)	5.11 (73)	1.41 (1.41)	
	Malaysia	14	0 (0%)	0 (0%)	0 (0%)	1 (7.1%)	4 (28.6%)	4 (28.6%)	5 (35.7%)	0 (0%)	13 (92.9%)	5.93 (84.71)	0.96 (0.96)	
	Viet Nam	53	2 (3.8%)	3 (5.7%)	4 (7.5%)	17 (32.1%)	10 (18.9%)	10 (18.9%)	7 (13.2%)	9 (17%)	27 (50.9%)	4.66 (66.57)	1.53 (1.53)	
	Philippines	20	0 (0%)	0 (0%)	0 (0%)	2 (10%)	2 (10%)	6 (30%)	10 (50%)	0 (0%)	18 (90%)	6.2 (88.57)	0.98 (0.98)	
	Thailand	12	0 (0%)	0 (0%)	0 (0%)	2 (16.7%)	5 (41.7%)	2 (16.7%)	3 (25%)	0 (0%)	10 (83.3%)	5.5 (78.57)	1.04 (1.04)	
	Singapore	2	0 (0%)	0 (0%)	0 (0%)	0 (0%)	2 (100%)	0 (0%)	0 (0%)	0 (0%)	2 (100%)	5 (71.43)	0 (0)	
	Brunei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Myanmar	3	0 (0%)	0 (0%)	0 (0%)	2 (66.7%)	0 (0%)	1 (33.3%)	0 (0%)	0 (0%)	1 (33.3%)	4.67 (66.71)	0.94 (0.94)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1 (100%)	5 (71.43)	0 (0)	
	India	41	2 (4.9%)	1 (2.4%)	2 (4.9%)	14 (34.1%)	9 (22%)	8 (19.5%)	5 (12.2%)	5 (12.2%)	22 (53.7%)	4.73 (67.57)	1.47 (1.47)	
	Others: Please specify.	9	0 (0%)	1 (11.1%)	1 (11.1%)	3 (33.3%)	1 (11.1%)	2 (22.2%)	1 (11.1%)	2 (22.2%)	4 (44.4%)	4.56 (65.14)	1.5 (1.5)	
	Gender	Male	108	3 (2.8%)	1 (0.9%)	4 (3.7%)	30 (27.8%)	23 (21.3%)	25 (23.1%)	22 (20.4%)	8 (7.4%)	70 (64.8%)	5.15 (73.57)	1.41 (1.41)
		Female	80	1 (1.3%)	4 (5%)	5 (6.3%)	22 (27.5%)	14 (17.5%)	18 (22.5%)	16 (20%)	10 (12.5%)	48 (60%)	5.03 (71.86)	1.48 (1.48)
Others		2	1 (50%)	0 (0%)	0 (0%)	0 (0%)	1 (50%)	0 (0%)	0 (0%)	1 (50%)	1 (50%)	3 (42.86)	2 (2)	
I do not wish to respond		2	0 (0%)	0 (0%)	0 (0%)	0 (0%)	2 (100%)	0 (0%)	0 (0%)	0 (0%)	2 (100%)	5 (71.43)	0 (0)	
institute	GIST	27	0 (0%)	1 (3.7%)	1 (3.7%)	11 (40.7%)	5 (18.5%)	4 (14.8%)	5 (18.5%)	2 (7.4%)	14 (51.9%)	4.93 (70.43)	1.33 (1.33)	
	DGIST	24	1 (4.2%)	1 (4.2%)	3 (12.5%)	6 (25%)	5 (20.8%)	5 (20.8%)	3 (12.5%)	5 (20.8%)	13 (54.2%)	4.67 (66.71)	1.55 (1.55)	
	UNIST	38	2 (5.3%)	0 (0%)	2 (5.3%)	13 (34.2%)	9 (23.7%)	9 (23.7%)	3 (7.9%)	4 (10.5%)	21 (55.3%)	4.74 (67.71)	1.37 (1.37)	
	POSTECH	16	0 (0%)	1 (6.3%)	0 (0%)	5 (31.3%)	2 (12.5%)	4 (25%)	4 (25%)	1 (6.3%)	10 (62.5%)	5.25 (75)	1.44 (1.44)	
	KAIST	87	2 (2.3%)	2 (2.3%)	3 (3.4%)	17 (19.5%)	19 (21.8%)	21 (24.1%)	23 (26.4%)	7 (8%)	63 (72.4%)	5.34 (76.29)	1.44 (1.44)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0 (0%)	0 (0%)	0 (0%)	4 (12.1%)	6 (18.2%)	14 (42.4%)	9 (27.3%)	0 (0%)	29 (87.9%)	5.85 (83.57)	0.96 (0.96)	
	Master	60	1 (1.7%)	2 (3.3%)	3 (5%)	16 (26.7%)	15 (25%)	9 (15%)	14 (23.3%)	6 (10%)	38 (63.3%)	5.08 (72.57)	1.45 (1.45)	
	Ph.D.	75	4 (5.3%)	2 (2.7%)	4 (5.3%)	24 (32%)	15 (20%)	11 (14.7%)	15 (20%)	10 (13.3%)	41 (54.7%)	4.83 (69)	1.59 (1.59)	
	Ma. and Doc Int	22	0 (0%)	1 (4.5%)	2 (9.1%)	7 (31.8%)	3 (13.6%)	9 (40.9%)	0 (0%)	3 (13.6%)	12 (54.5%)	4.77 (68.14)	1.2 (1.2)	

Pro Others (please specify)													
	2	0 (0%)	0 (0%)	0 (0%)	1 (50%)	1 (50%)	0 (0%)	0 (0%)	0 (0%)	1 (50%)	4.5 (64.29)	0.5 (0.5)	
scholarship	Yes	185	5 (2.7%)	5 (2.7%)	8 (4.3%)	50 (27%)	39 (21.1%)	41 (22.2%)	37 (20%)	18 (9.7%)	117 (63.2%)	5.08 (72.57)	1.46 (1.46)
	No	7	0 (0%)	0 (0%)	1 (14.3%)	2 (28.6%)	1 (14.3%)	2 (28.6%)	1 (14.3%)	1 (14.3%)	4 (57.1%)	5 (71.43)	1.31 (1.31)

43. Scholarship opportunity

		조사완료 수	Notatallim portance	Lowimport ance	Slightlylow importanc e	Moderatei mportance	Slightlyhigh importan ce	Highimport ance	Extremely ighimporta nce	좌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		192	0 (0%)	1 (0.5%)	4 (2.1%)	21 (10.9%)	33 (17.2%)	45 (23.4%)	88 (45.8%)	5 (2.6%)	166 (86.5%)	5.98 (85.43)	1.16 (1.16)
nationality	Indonesia	36	0 (0%)	0 (0%)	0 (0%)	0 (0%)	4 (11.1%)	12 (33.3%)	20 (55.6%)	0 (0%)	36 (100%)	6.44 (92)	0.68 (0.68)
	Malaysia	14	0 (0%)	0 (0%)	0 (0%)	1 (7.1%)	1 (7.1%)	2 (14.3%)	10 (71.4%)	0 (0%)	13 (92.9%)	6.5 (92.86)	0.91 (0.91)
	Viet Nam	53	0 (0%)	0 (0%)	0 (0%)	12 (22.6%)	11 (20.8%)	12 (22.6%)	18 (34%)	0 (0%)	41 (77.4%)	5.68 (81.14)	1.16 (1.16)
	Philippines	20	0 (0%)	0 (0%)	0 (0%)	1 (5%)	0 (0%)	1 (5%)	18 (90%)	0 (0%)	19 (95%)	6.8 (97.14)	0.68 (0.68)
	Thailand	12	0 (0%)	0 (0%)	0 (0%)	1 (8.3%)	1 (8.3%)	4 (33.3%)	6 (50%)	0 (0%)	11 (91.7%)	6.25 (89.29)	0.92 (0.92)
	Singapore	2	0 (0%)	0 (0%)	0 (0%)	0 (0%)	0 (0%)	2 (100%)	0 (0%)	0 (0%)	2 (100%)	6 (85.71)	0 (0)
	Brunei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Myanmar	3	0 (0%)	0 (0%)	0 (0%)	0 (0%)	1 (33.3%)	1 (33.3%)	1 (33.3%)	0 (0%)	3 (100%)	6 (85.71)	0.82 (0.82)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India	41	0 (0%)	1 (2.4%)	2 (4.9%)	5 (12.2%)	15 (36.6%)	7 (17.1%)	11 (26.8%)	3 (7.3%)	33 (80.5%)	5.41 (77.29)	1.27 (1.27)
	Others: Please specify.	9	0 (0%)	0 (0%)	2 (22.2%)	1 (11.1%)	0 (0%)	2 (22.2%)	4 (44.4%)	2 (22.2%)	6 (66.7%)	5.56 (79.43)	1.64 (1.64)
Gender	Male	108	0 (0%)	0 (0%)	2 (1.9%)	11 (10.2%)	22 (20.4%)	23 (21.3%)	50 (46.3%)	2 (1.9%)	95 (88%)	6 (85.71)	1.11 (1.11)
	Female	80	0 (0%)	1 (1.3%)	2 (2.5%)	10 (12.5%)	11 (13.8%)	21 (26.3%)	35 (43.8%)	3 (3.8%)	67 (83.8%)	5.93 (84.71)	1.22 (1.22)
	Others	2	0 (0%)	0 (0%)	0 (0%)	0 (0%)	0 (0%)	0 (0%)	2 (100%)	0 (0%)	2 (100%)	7 (100)	0 (0)
	do not wish to	2	0 (0%)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2 (100%)	6.5 (92.86)	0.5 (0.5)

respond													
institute	GIST	27	0 (0%)	0 (0%)	0 (0%)	5 (18.5%)	3 (11.1%)	5 (18.5%)	14 (51.9%)	0 (0%)	22 (81.5%)	6.04 (86.29)	1.17 (1.17)
	DGIST	24	0 (0%)	0 (0%)	3 (12.5%)	3 (12.5%)	4 (16.7%)	5 (20.8%)	9 (37.5%)	3 (12.5%)	18 (75%)	5.58 (79.71)	1.41 (1.41)
	UNIST	38	0 (0%)	1 (2.6%)	0 (0%)	3 (7.9%)	11 (28.9%)	12 (31.6%)	11 (28.9%)	1 (2.6%)	34 (89.5%)	5.74 (82)	1.12 (1.12)
	POSTECH	16	0 (0%)	0 (0%)	1 (6.3%)	1 (6.3%)	2 (12.5%)	2 (12.5%)	10 (62.5%)	1 (6.3%)	14 (87.5%)	6.19 (88.43)	1.24 (1.24)
	KAIST	87	0 (0%)	0 (0%)	0 (0%)	9 (10.3%)	13 (14.9%)	21 (24.1%)	44 (50.6%)	0 (0%)	78 (89.7%)	6.15 (87.86)	1.02 (1.02)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0 (0%)	0 (0%)	0 (0%)	2 (6.1%)	3 (9.1%)	9 (27.3%)	19 (57.6%)	0 (0%)	31 (93.9%)	6.36 (90.86)	0.88 (0.88)
	Master	60	0 (0%)	1 (1.7%)	0 (0%)	10 (16.7%)	7 (11.7%)	12 (20%)	30 (50%)	1 (1.7%)	49 (81.7%)	5.98 (85.43)	1.24 (1.24)
	Ph.D.	75	0 (0%)	0 (0%)	3 (4%)	9 (12%)	18 (24%)	17 (22.7%)	28 (37.3%)	3 (4%)	63 (84%)	5.77 (82.43)	1.18 (1.18)
	Ma. and Doc Int	22	0 (0%)	0 (0%)	1 (4.5%)	0 (0%)	4 (18.2%)	7 (31.8%)	10 (45.5%)	1 (4.5%)	21 (95.5%)	6.14 (87.71)	1.01 (1.01)
	Pro												
	Others (please specify)	2	0 (0%)	0 (0%)	0 (0%)	0 (0%)	1 (50%)	0 (0%)	1 (50%)	0 (0%)	2 (100%)	6 (85.71)	1 (1)
												159 (85.9%)	5.98 (85.43)
scholarship	Yes	185	0 (0%)	1 (0.5%)	4 (2.2%)	21 (11.4%)	32 (17.3%)	41 (22.2%)	86 (46.5%)	5 (2.7%)		5.98 (85.43)	1.17 (1.17)
	No	7	0 (0%)	0 (0%)	0 (0%)	0 (0%)	1 (14.3%)	4 (57.1%)	2 (28.6%)	0 (0%)	7 (100%)	6.14 (87.71)	0.64 (0.64)

49.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s university degree

	조사완료 수	Notatallim portance	Lowimport ance	Slightlylow importanc e	Moderatei mportance	Slightlyhigh importan ce	Highimport ance	Extremelyhighimporta nce	좌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	192	0 (0%)	6 (3.1%)	3 (1.6%)	30 (15.6%)	30 (15.6%)	65 (33.9%)	58 (30.2%)	9 (4.7%)	153 (79.7%)	5.66 (80.86)	1.27 (1.27)	
nationality	Indonesia	36	0 (0%)	0 (0%)	0 (0%)	1 (2.8%)	5 (13.9%)	17 (47.2%)	13 (36.1%)	0 (0%)	35 (97.2%)	6.17 (88.14)	0.76 (0.76)
	Malaysia	14	0 (0%)	0 (0%)	0 (0%)	0 (0%)	2 (14.3%)	7 (50%)	5 (35.7%)	0 (0%)	14 (100%)	6.21 (88.71)	0.67 (0.67)
	Viet Nam	53	0 (0%)	2 (3.8%)	1 (1.9%)	14 (26.4%)	10 (18.9%)	14 (26.4%)	12 (22.6%)	3 (5.7%)	36 (67.9%)	5.3 (75.71)	1.33 (1.33)
	Philippines	20	0 (0%)	0 (0%)	1 (5%)	2 (10%)	1 (5%)	7 (35%)	9 (45%)	1 (5%)	17 (85%)	6.05 (86.43)	1.16 (1.16)
	Thailand	12	0 (0%)	0 (0%)	0 (0%)	0 (0%)	0 (0%)	7 (58.3%)	5 (41.7%)	0 (0%)	12 (100%)	6.42 (91.71)	0.49 (0.49)
	Singapore	2	0 (0%)	0 (0%)	1 (50%)	1 (50%)	0 (0%)	0 (0%)	0 (0%)	1 (50%)	0 (0%)	3.5 (50)	0.5 (0.5)
	Brunei	1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1 (100%)	7 (100)	0 (0)
	Myanmar	3	0 (0%)	0 (0%)	0 (0%)	0 (0%)	0 (0%)	3 (100%)	0 (0%)	0 (0%)	3 (100%)	6 (85.71)	0 (0)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India	41	0 (0%)	2 (4.9%)	0 (0%)	10 (24.4%)	9 (22%)	8 (19.5%)	12 (29.3%)	2 (4.9%)	29 (70.7%)	5.39 (77)	1.38 (1.38)	

	Others: Please specify.	9	0 (0%)	2 (22.2%)	0 (0%)	2 (22.2%)	3 (33.3%)	1 (11.1%)	1 (11.1%)	2 (22.2%)	5 (55.6%)	4.44 (63.43)	1.57 (1.57)
Gender	Male	108	0 (0%)	4 (3.7%)	1 (0.9%)	18 (16.7%)	14 (13%)	33 (30.6%)	38 (35.2%)	5 (4.6%)	85 (78.7%)	5.71 (81.57)	1.32 (1.32)
	Female	80	0 (0%)	2 (2.5%)	2 (2.5%)	12 (15%)	16 (20%)	30 (37.5%)	18 (22.5%)	4 (5%)	64 (80%)	5.55 (79.29)	1.2 (1.2)
	Others	2	0 (0%)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2 (100%)	6.5 (92.86)	0.5 (0.5)
	I do not wish to respond	2	0 (0%)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2 (100%)	6.5 (92.86)	0.5 (0.5)
institute	GIST	27	0 (0%)	0 (0%)	0 (0%)	7 (25.9%)	5 (18.5%)	9 (33.3%)	6 (22.2%)	0 (0%)	20 (74.1%)	5.52 (78.86)	1.1 (1.1)
	DGIST	24	0 (0%)	3 (12.5%)	1 (4.2%)	5 (20.8%)	7 (29.2%)	4 (16.7%)	4 (16.7%)	4 (16.7%)	15 (62.5%)	4.83 (69)	1.52 (1.52)
	UNIST	38	0 (0%)	2 (5.3%)	2 (5.3%)	8 (21.1%)	7 (18.4%)	11 (28.9%)	8 (21.1%)	4 (10.5%)	26 (68.4%)	5.24 (74.86)	1.4 (1.4)
	POSTECH	16	0 (0%)	0 (0%)	0 (0%)	0 (0%)	4 (25%)	6 (37.5%)	6 (37.5%)	0 (0%)	16 (100%)	6.13 (87.57)	0.78 (0.78)
	KAIST	87	0 (0%)	1 (1.1%)	0 (0%)	10 (11.5%)	7 (8%)	35 (40.2%)	34 (39.1%)	1 (1.1%)	76 (87.4%)	6.03 (86.14)	1.06 (1.06)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0 (0%)	2 (6.1%)	0 (0%)	3 (9.1%)	4 (12.1%)	14 (42.4%)	10 (30.3%)	2 (6.1%)	28 (84.8%)	5.76 (82.29)	1.3 (1.3)
	Master	60	0 (0%)	1 (1.7%)	1 (1.7%)	7 (11.7%)	10 (16.7%)	22 (36.7%)	19 (31.7%)	2 (3.3%)	51 (85%)	5.8 (82.86)	1.15 (1.15)
	Ph.D.	75	0 (0%)	1 (1.3%)	1 (1.3%)	16 (21.3%)	14 (18.7%)	20 (26.7%)	23 (30.7%)	2 (2.7%)	57 (76%)	5.6 (80)	1.23 (1.23)
	Ma. and Doc Int	22	0 (0%)	2 (9.1%)	1 (4.5%)	3 (13.6%)	2 (9.1%)	9 (40.9%)	5 (22.7%)	3 (13.6%)	16 (72.7%)	5.36 (76.57)	1.52 (1.52)
	Pro												
	Others (please specify)	2	0 (0%)	0 (0%)	0 (0%)	1 (50%)	0 (0%)	0 (0%)	1 (50%)	0 (0%)	1 (50%)	5.5 (78.57)	1.5 (1.5)
scholarship	Yes	185	0 (0%)	6 (3.2%)	3 (1.6%)	30 (16.2%)	27 (14.6%)	61 (33%)	58 (31.4%)	9 (4.9%)	146 (78.9%)	5.66 (80.86)	1.29 (1.29)
	No	7	0 (0%)	0 (0%)	0 (0%)	0 (0%)	3 (42.9%)	4 (57.1%)	0 (0%)	0 (0%)	7 (100%)	5.57 (79.57)	0.49 (0.49)

54. Which factor influenced you the most to choosing your institute?

		조사완료 수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institute	Professors and research lab	Cost of tuition fees/living expenses	Good career/employment prospects	Recommendations from significant others (family, friends, professor etc.)	Your academic achievements/records in your previous study	Others (please specify)
전체		192	48 (25%)	53 (27.6%)	37 (19.3%)	6 (3.1%)	27 (14.1%)	9 (4.7%)	12 (6.3%)
nationality	Indonesia	36	8 (22.2%)	10 (27.8%)	5 (13.9%)	0 (0%)	7 (19.4%)	1 (2.8%)	5 (13.9%)
	Malaysia	14	3 (21.4%)	4 (28.6%)	5 (35.7%)	0 (0%)	1 (7.1%)	0 (0%)	1 (7.1%)
	Viet Nam	53	13 (24.5%)	9 (17%)	14 (26.4%)	2 (3.8%)	9 (17%)	5 (9.4%)	1 (1.9%)

	Philippines	20	3 (15%)	3 (15%)	7 (35%)	1 (5%)	2 (10%)	1 (5%)	3 (15%)
	Thailand	12	7 (58.3%)	1 (8.3%)	1 (8.3%)	0 (0%)	1 (8.3%)	0 (0%)	2 (16.7%)
	Singapore	2	0 (0%)	1 (50%)	1 (50%)	0 (0%)	0 (0%)	0 (0%)	0 (0%)
	Brunei	1	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Myanmar	3	1 (33.3%)	0 (0%)	0 (0%)	2 (66.7%)	0 (0%)	0 (0%)	0 (0%)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India	41	11 (26.8%)	20 (48.8%)	4 (9.8%)	0 (0%)	4 (9.8%)	2 (4.9%)	0 (0%)
	Others: Please specify.	9	0 (0%)	5 (55.6%)	0 (0%)	1 (11.1%)	3 (33.3%)	0 (0%)	0 (0%)
Gender	Male	108	28 (25.9%)	32 (29.6%)	17 (15.7%)	2 (1.9%)	15 (13.9%)	8 (7.4%)	6 (5.6%)
	Female	80	20 (25%)	20 (25%)	19 (23.8%)	4 (5%)	12 (15%)	1 (1.3%)	4 (5%)
	Others	2	0 (0%)	1 (50%)	0 (0%)	0 (0%)	0 (0%)	0 (0%)	1 (50%)
	I do not wish to respond	2	0 (0%)	0 (0%)	1 (50%)	0 (0%)	0 (0%)	0 (0%)	1 (50%)
institute	GIST	27	0 (0%)	7 (25.9%)	7 (25.9%)	1 (3.7%)	7 (25.9%)	1 (3.7%)	4 (14.8%)
	DGIST	24	0 (0%)	10 (41.7%)	4 (16.7%)	1 (4.2%)	8 (33.3%)	1 (4.2%)	0 (0%)
	UNIST	38	3 (7.9%)	18 (47.4%)	9 (23.7%)	1 (2.6%)	4 (10.5%)	3 (7.9%)	0 (0%)
	POSTECH	16	6 (37.5%)	5 (31.3%)	2 (12.5%)	0 (0%)	1 (6.3%)	1 (6.3%)	1 (6.3%)
	KAIST	87	39 (44.8%)	13 (14.9%)	15 (17.2%)	3 (3.4%)	7 (8%)	3 (3.4%)	7 (8%)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7 (21.2%)	1 (3%)	15 (45.5%)	1 (3%)	4 (12.1%)	1 (3%)	4 (12.1%)
	Master	60	16 (26.7%)	13 (21.7%)	10 (16.7%)	3 (5%)	11 (18.3%)	3 (5%)	4 (6.7%)
	Ph.D.	75	20 (26.7%)	29 (38.7%)	9 (12%)	2 (2.7%)	9 (12%)	3 (4%)	3 (4%)
	Ma. and Doc	22	5 (22.7%)	10 (45.5%)	3 (13.6%)	0 (0%)	2 (9.1%)	1 (4.5%)	1 (4.5%)
	Int Pro	2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Others (please specify)	2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scholarship	Yes	185	47 (25.4%)	51 (27.6%)	36 (19.5%)	6 (3.2%)	25 (13.5%)	9 (4.9%)	11 (5.9%)
	No	7	1 (14.3%)	2 (28.6%)	1 (14.3%)	0 (0%)	2 (28.6%)	0 (0%)	1 (14.3%)

60. Quality of the research facility

		조사완료 수	Notatallim portance	Lowimport ance	Slightlylow importanc e	Moderatei mportance	Slightlyhig himportan ce	Highimport ance	Extremelyh ighimporta nce	좌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		192	2 (1%)	1 (0.5%)	1 (0.5%)	14 (7.3%)	27 (14.1%)	52 (27.1%)	95 (49.5%)	4 (2.1%)	174 (90.6%)	6.12 (87.43)	1.14 (1.14)	
nationality	Indonesia	36	0 (0%)	0 (0%)	0 (0%)	1 (2.8%)	5 (13.9%)	6 (16.7%)	24 (66.7%)	0 (0%)	35 (97.2%)	6.47 (92.43)	0.83 (0.83)	
	Malaysia	14	0 (0%)	0 (0%)	0 (0%)	1 (7.1%)	1 (7.1%)	7 (50%)	5 (35.7%)	0 (0%)	13 (92.9%)	6.14 (87.71)	0.83 (0.83)	
	Viet Nam	53	1 (1.9%)	0 (0%)	0 (0%)	6 (11.3%)	11 (20.8%)	17 (32.1%)	18 (34%)	1 (1.9%)	46 (86.8%)	5.81 (83)	1.2 (1.2)	
	Philippines	20	0 (0%)	0 (0%)	0 (0%)	0 (0%)	2 (10%)	2 (10%)	16 (80%)	0 (0%)	20 (100%)	6.7 (95.71)	0.64 (0.64)	
	Thailand	12	0 (0%)	1 (8.3%)	0 (0%)	1 (8.3%)	2 (16.7%)	4 (33.3%)	4 (33.3%)	1 (8.3%)	10 (83.3%)	5.67 (81)	1.43 (1.43)	
	Singapore	2	0 (0%)	0 (0%)	0 (0%)	0 (0%)	2 (100%)	0 (0%)	0 (0%)	0 (0%)	2 (100%)	5 (71.43)	0 (0)	
	Brunei	1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0 (0%)	0 (0%)	4 (57.14)	0 (0)	
	Myanmar	3	0 (0%)	0 (0%)	0 (0%)	0 (0%)	0 (0%)	3 (100%)	0 (0%)	0 (0%)	3 (100%)	6 (85.71)	0 (0)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India	41	1 (2.4%)	0 (0%)	1 (2.4%)	2 (4.9%)	4 (9.8%)	11 (26.8%)	22 (53.7%)	2 (4.9%)	37 (90.2%)	6.15 (87.86)	1.28 (1.28)	
	Others: Please specify.	9	0 (0%)	0 (0%)	0 (0%)	2 (22.2%)	0 (0%)	1 (11.1%)	6 (66.7%)	0 (0%)	7 (77.8%)	6.22 (88.86)	1.23 (1.23)	
	Gender	Male	108	2 (1.9%)	1 (0.9%)	1 (0.9%)	7 (6.5%)	12 (11.1%)	27 (25%)	58 (53.7%)	4 (3.7%)	97 (89.8%)	6.14 (87.71)	1.26 (1.26)
		Female	80	0 (0%)	0 (0%)	0 (0%)	7 (8.8%)	15 (18.8%)	25 (31.3%)	33 (41.3%)	0 (0%)	73 (91.3%)	6.05 (86.43)	0.97 (0.97)
Others		2	0 (0%)	0 (0%)	0 (0%)	0 (0%)	0 (0%)	0 (0%)	2 (100%)	0 (0%)	2 (100%)	7 (100)	0 (0)	
I do not wish to respond		2	0 (0%)	0 (0%)	0 (0%)	0 (0%)	0 (0%)	0 (0%)	2 (100%)	0 (0%)	2 (100%)	7 (100)	0 (0)	
institute	GIST	27	0 (0%)	0 (0%)	0 (0%)	1 (3.7%)	4 (14.8%)	6 (22.2%)	16 (59.3%)	0 (0%)	26 (96.3%)	6.37 (91)	0.87 (0.87)	
	DGIST	24	1 (4.2%)	0 (0%)	0 (0%)	2 (8.3%)	2 (8.3%)	6 (25%)	13 (54.2%)	1 (4.2%)	21 (87.5%)	6.08 (86.86)	1.41 (1.41)	
	UNIST	38	1 (2.6%)	0 (0%)	0 (0%)	3 (7.9%)	8 (21.1%)	9 (23.7%)	17 (44.7%)	1 (2.6%)	34 (89.5%)	5.95 (85)	1.28 (1.28)	
	POSTECH	16	0 (0%)	0 (0%)	0 (0%)	0 (0%)	2 (12.5%)	3 (18.8%)	11 (68.8%)	0 (0%)	16 (100%)	6.56 (93.71)	0.7 (0.7)	
	KAIST	87	0 (0%)	1 (1.1%)	1 (1.1%)	8 (9.2%)	11 (12.6%)	28 (32.2%)	38 (43.7%)	2 (2.3%)	77 (88.5%)	6.05 (86.43)	1.1 (1.1)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1 (3%)	1 (3%)	1 (3%)	6 (18.2%)	7 (21.2%)	7 (21.2%)	10 (30.3%)	3 (9.1%)	24 (72.7%)	5.36 (76.57)	1.53 (1.53)	
	Master	60	0 (0%)	0 (0%)	0 (0%)	4 (6.7%)	7 (11.7%)	18 (30%)	31 (51.7%)	0 (0%)	56 (93.3%)	6.27 (89.57)	0.91 (0.91)	
	Ph.D.	75	1 (1.3%)	0 (0%)	0 (0%)	3 (4%)	8 (10.7%)	17 (22.7%)	46 (61.3%)	1 (1.3%)	71 (94.7%)	6.36 (90.86)	1.04 (1.04)	
	Ma. and Doc Int	22	0 (0%)	0 (0%)	0 (0%)	1 (4.5%)	5 (22.7%)	9 (40.9%)	7 (31.8%)	0 (0%)	21 (95.5%)	6 (85.71)	0.85 (0.85)	
	Pro													

	Others (please specify)	2	0 (0%)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2 (100%)	6.5 (92.86)	0.5 (0.5)
scholarship	Yes	185	2 (1.1%)	1 (0.5%)	1 (0.5%)	14 (7.6%)	27 (14.6%)	51 (27.6%)	89 (48.1%)	4 (2.2%)	167 (90.3%)	6.09 (87)	1.15 (1.15)
	No	7	0 (0%)	0 (0%)	0 (0%)	0 (0%)	0 (0%)	1 (14.3%)	6 (85.7%)	0 (0%)	7 (100%)	6.86 (98)	0.35 (0.35)

PART IV. SATISFACTION LEVEL OF YOUR EXPERIENCE STUDYING IN REPUBLIC OF KOREA

72. Obtaining information about studying in Republic of Korea

		조사완료 수	Verydissatisfied	Moderatelydissatisfied	Slightlydissatisfied	Moderate	Slightlysatisfied	Moderatelysatisfied	Verysatisfied	좌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		192	3 (1.6%)	7 (3.6%)	5 (2.6%)	50 (26%)	46 (24%)	52 (27.1%)	29 (15.1%)	15 (7.8%)	127 (66.1%)	5.09 (72.71)	1.35 (1.35)
nationality	Indonesia	36	0 (0%)	3 (8.3%)	0 (0%)	9 (25%)	7 (19.4%)	12 (33.3%)	5 (13.9%)	3 (8.3%)	24 (66.7%)	5.11 (73)	1.37 (1.37)
	Malaysia	14	0 (0%)	0 (0%)	1 (7.1%)	4 (28.6%)	5 (35.7%)	2 (14.3%)	2 (14.3%)	1 (7.1%)	9 (64.3%)	5 (71.43)	1.13 (1.13)
	Viet Nam	53	0 (0%)	0 (0%)	1 (1.9%)	24 (45.3%)	11 (20.8%)	10 (18.9%)	7 (13.2%)	1 (1.9%)	28 (52.8%)	4.96 (70.86)	1.12 (1.12)
	Philippines	20	0 (0%)	0 (0%)	0 (0%)	2 (10%)	2 (10%)	12 (60%)	4 (20%)	0 (0%)	18 (90%)	5.9 (84.29)	0.83 (0.83)
	Thailand	12	0 (0%)	0 (0%)	1 (8.3%)	1 (8.3%)	2 (16.7%)	7 (58.3%)	1 (8.3%)	1 (8.3%)	10 (83.3%)	5.5 (78.57)	1.04 (1.04)
	Singapore	2	0 (0%)	0 (0%)	0 (0%)	0 (0%)	2 (100%)	0 (0%)	0 (0%)	0 (0%)	2 (100%)	5 (71.43)	0 (0)
	Brunei	1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1 (100%)	5 (71.43)	0 (0)
	Myanmar	3	0 (0%)	0 (0%)	0 (0%)	0 (0%)	1 (33.3%)	2 (66.7%)	0 (0%)	0 (0%)	3 (100%)	5.67 (81)	0.47 (0.47)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1 (100%)	5 (71.43)	0 (0)
	India	41	2 (4.9%)	2 (4.9%)	2 (4.9%)	7 (17.1%)	12 (29.3%)	7 (17.1%)	9 (22%)	6 (14.6%)	28 (68.3%)	5 (71.43)	1.62 (1.62)
	Others: Please specify.	9	1 (11.1%)	2 (22.2%)	0 (0%)	3 (33.3%)	2 (22.2%)	0 (0%)	1 (11.1%)	3 (33.3%)	3 (33.3%)	3.78 (54)	1.75 (1.75)
Gender	Male	108	1 (0.9%)	4 (3.7%)	3 (2.8%)	31 (28.7%)	23 (21.3%)	28 (25.9%)	18 (16.7%)	8 (7.4%)	69 (63.9%)	5.1 (72.86)	1.34 (1.34)
	Female	80	2 (2.5%)	3 (3.8%)	2 (2.5%)	18 (22.5%)	23 (28.8%)	23 (28.8%)	9 (11.3%)	7 (8.8%)	55 (68.8%)	5.03 (71.86)	1.34 (1.34)
	Others	2	0 (0%)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2 (100%)	6.5 (92.86)	0.5 (0.5)
	I do not wish to respond	2	0 (0%)	0 (0%)	0 (0%)	1 (50%)	0 (0%)	0 (0%)	1 (50%)	0 (0%)	1 (50%)	5.5 (78.57)	1.5 (1.5)
institute	GIST	27	0 (0%)	1 (3.7%)	0 (0%)	9 (33.3%)	4 (14.8%)	8 (29.6%)	5 (18.5%)	1 (3.7%)	17 (63%)	5.22 (74.57)	1.29 (1.29)
	DGIST	24	2 (8.3%)	3 (12.5%)	0 (0%)	7 (29.2%)	6 (25%)	4 (16.7%)	2 (8.3%)	5 (20.8%)	12 (50%)	4.33 (61.86)	1.67 (1.67)
	UNIST	38	0 (0%)	0 (0%)	0 (0%)	14 (36.8%)	11 (28.9%)	6 (15.8%)	7 (18.4%)	0 (0%)	24 (63.2%)	5.16 (73.71)	1.11 (1.11)

	POSTECH	16	0 (0%)	3 (18.8%)	1 (6.3%)	4 (25%)	0 (0%)	5 (31.3%)	3 (18.8%)	4 (25%)	8 (50%)	4.75 (67.86)	1.79 (1.79)	
	KAIST	87	1 (1.1%)	0 (0%)	4 (4.6%)	16 (18.4%)	25 (28.7%)	29 (33.3%)	12 (13.8%)	5 (5.7%)	66 (75.9%)	5.29 (75.57)	1.16 (1.16)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0 (0%)	0 (0%)	1 (3%)	8 (24.2%)	12 (36.4%)	10 (30.3%)	2 (6.1%)	1 (3%)	24 (72.7%)	5.12 (73.14)	0.95 (0.95)	
	Master	60	1 (1.7%)	1 (1.7%)	1 (1.7%)	13 (21.7%)	11 (18.3%)	24 (40%)	9 (15%)	3 (5%)	44 (73.3%)	5.33 (76.14)	1.26 (1.26)	
	Ph.D.	75	2 (2.7%)	4 (5.3%)	3 (4%)	23 (30.7%)	17 (22.7%)	13 (17.3%)	13 (17.3%)	9 (12%)	43 (57.3%)	4.87 (69.57)	1.49 (1.49)	
	Ma. and Doc Int Pro	22	0 (0%)	2 (9.1%)	0 (0%)	4 (18.2%)	6 (27.3%)	5 (22.7%)	5 (22.7%)	2 (9.1%)	16 (72.7%)	5.23 (74.71)	1.44 (1.44)	
	Others (please specify)	2	0 (0%)	0 (0%)	0 (0%)	2 (100%)	0 (0%)	0 (0%)	0 (0%)	0 (0%)	0 (0%)	4 (57.14)	0 (0)	
	scholarship	Yes	185	3 (1.6%)	7 (3.8%)	5 (2.7%)	46 (24.9%)	45 (24.3%)	50 (27%)	29 (15.7%)	15 (8.1%)	124 (67%)	5.1 (72.86)	1.36 (1.36)
		No	7	0 (0%)	0 (0%)	0 (0%)	4 (57.1%)	1 (14.3%)	2 (28.6%)	0 (0%)	0 (0%)	3 (42.9%)	4.71 (67.29)	0.88 (0.88)

73. Obtaining information about studying in your institute

		조사완료											
		Verydissatisfied	Moderatelydissatisfied	Slightlydissatisfied	Moderatelysatisfied	Slightlysatisfied	Moderatelysatisfied	Verysatisfied	좌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수	d	d	d	d	d	d					
전체		192	2 (1%)	4 (2.1%)	11 (5.7%)	37 (19.3%)	46 (24%)	60 (31.3%)	32 (16.7%)	17 (8.9%)	138 (71.9%)	5.23 (74.71)	1.3 (1.3)
nationality	Indonesia	36	0 (0%)	0 (0%)	3 (8.3%)	6 (16.7%)	13 (36.1%)	9 (25%)	5 (13.9%)	3 (8.3%)	27 (75%)	5.19 (74.14)	1.13 (1.13)
	Malaysia	14	0 (0%)	0 (0%)	3 (21.4%)	3 (21.4%)	2 (14.3%)	4 (28.6%)	2 (14.3%)	3 (21.4%)	8 (57.1%)	4.93 (70.43)	1.39 (1.39)
	Viet Nam	53	0 (0%)	0 (0%)	0 (0%)	18 (34%)	18 (34%)	12 (22.6%)	5 (9.4%)	0 (0%)	35 (66%)	5.08 (72.57)	0.97 (0.97)
	Philippines	20	0 (0%)	0 (0%)	0 (0%)	2 (10%)	0 (0%)	11 (55%)	7 (35%)	0 (0%)	18 (90%)	6.15 (87.86)	0.85 (0.85)
	Thailand	12	0 (0%)	1 (8.3%)	0 (0%)	1 (8.3%)	1 (8.3%)	6 (50%)	3 (25%)	1 (8.3%)	10 (83.3%)	5.67 (81)	1.37 (1.37)
	Singapore	2	0 (0%)	0 (0%)	0 (0%)	0 (0%)	2 (100%)	0 (0%)	0 (0%)	0 (0%)	2 (100%)	5 (71.43)	0 (0)
	Brunei	1	0 (0%)	0 (0%)	1 (100%)	0 (0%)	0 (0%)	0 (0%)	0 (0%)	1 (100%)	0 (0%)	3 (42.86)	0 (0)
	Myanmar	3	0 (0%)	0 (0%)	0 (0%)	0 (0%)	0 (0%)	3 (100%)	0 (0%)	0 (0%)	3 (100%)	6 (85.71)	0 (0)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1 (100%)	5 (71.43)	0 (0)
	India	41	1 (2.4%)	1 (2.4%)	3 (7.3%)	5 (12.2%)	7 (17.1%)	15 (36.6%)	9 (22%)	5 (12.2%)	31 (75.6%)	5.37 (76.71)	1.46 (1.46)
Others: Please specify.	9	1 (11.1%)	2 (22.2%)	1 (11.1%)	2 (22.2%)	2 (22.2%)	0 (0%)	1 (11.1%)	4 (44.4%)	3 (33.3%)	3.67 (52.43)	1.76 (1.76)	
Gender	Male	108	1 (0.9%)	2 (1.9%)	6 (5.6%)	20 (18.5%)	27 (25%)	33 (30.6%)	19 (17.6%)	9 (8.3%)	79 (73.1%)	5.27 (75.29)	1.29 (1.29)
	Female	80	1 (1.3%)	2 (2.5%)	4 (5%)	17 (21.3%)	19 (23.8%)	27 (33.8%)	10 (12.5%)	7 (8.8%)	56 (70%)	5.15 (73.57)	1.29 (1.29)
	Others	2	0 (0%)	0 (0%)	0 (0%)	0 (0%)	0 (0%)	0 (0%)	2 (100%)	0 (0%)	2 (100%)	7 (100)	0 (0)
	I do not wish to	2	0 (0%)	0 (0%)	1 (50%)	0 (0%)	0 (0%)	0 (0%)	1 (50%)	1 (50%)	1 (50%)	5 (71.43)	2 (2)

institute	respond												
	GIST	27	0 (0%)	1 (3.7%)	1 (3.7%)	8 (29.6%)	3 (11.1%)	9 (33.3%)	5 (18.5%)	2 (7.4%)	17 (63%)	5.22 (74.57)	1.34 (1.34)
	DGIST	24	2 (8.3%)	2 (8.3%)	3 (12.5%)	5 (20.8%)	6 (25%)	4 (16.7%)	2 (8.3%)	7 (29.2%)	12 (50%)	4.29 (61.29)	1.67 (1.67)
	UNIST	38	0 (0%)	0 (0%)	2 (5.3%)	8 (21.1%)	12 (31.6%)	9 (23.7%)	7 (18.4%)	2 (5.3%)	28 (73.7%)	5.29 (75.57)	1.14 (1.14)
	POSTECH	16	0 (0%)	0 (0%)	2 (12.5%)	4 (25%)	4 (25%)	2 (12.5%)	4 (25%)	2 (12.5%)	10 (62.5%)	5.13 (73.29)	1.36 (1.36)
	KAIST	87	0 (0%)	1 (1.1%)	3 (3.4%)	12 (13.8%)	21 (24.1%)	36 (41.4%)	14 (16.1%)	4 (4.6%)	71 (81.6%)	5.49 (78.43)	1.09 (1.09)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0 (0%)	1 (3%)	2 (6.1%)	7 (21.2%)	6 (18.2%)	13 (39.4%)	4 (12.1%)	3 (9.1%)	23 (69.7%)	5.21 (74.43)	1.25 (1.25)
	Master	60	1 (1.7%)	0 (0%)	2 (3.3%)	11 (18.3%)	16 (26.7%)	21 (35%)	9 (15%)	3 (5%)	46 (76.7%)	5.33 (76.14)	1.19 (1.19)
	Ph.D.	75	1 (1.3%)	2 (2.7%)	5 (6.7%)	16 (21.3%)	19 (25.3%)	18 (24%)	14 (18.7%)	8 (10.7%)	51 (68%)	5.13 (73.29)	1.38 (1.38)
	Ma. and Doc	22	0 (0%)	1 (4.5%)	2 (9.1%)	2 (9.1%)	4 (18.2%)	8 (36.4%)	5 (22.7%)	3 (13.6%)	17 (77.3%)	5.41 (77.29)	1.4 (1.4)
	Int Pro												
	Others (please specify)	2	0 (0%)	0 (0%)	0 (0%)	1 (50%)	1 (50%)	0 (0%)	0 (0%)	0 (0%)	1 (50%)	4.5 (64.29)	0.5 (0.5)
scholarship	Yes	185	2 (1.1%)	4 (2.2%)	9 (4.9%)	36 (19.5%)	45 (24.3%)	58 (31.4%)	31 (16.8%)	15 (8.1%)	134 (72.4%)	5.25 (75)	1.3 (1.3)
	No	7	0 (0%)	0 (0%)	2 (28.6%)	1 (14.3%)	1 (14.3%)	2 (28.6%)	1 (14.3%)	2 (28.6%)	4 (57.1%)	4.86 (69.43)	1.46 (1.46)

74. Communicating with your institute's admission's office

		조사완료 수	Verydissatisfied	Moderatelydissatisfied	Slightlydissatisfied	Moderate	Slightlysatisfied	Moderatelysatisfied	Verysatisfied	좌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		192	2 (1%)	3 (1.6%)	13 (6.8%)	25 (13%)	41 (21.4%)	62 (32.3%)	46 (24%)	18 (9.4%)	149 (77.6%)	5.45 (77.86)	1.34 (1.34)
nationality	Indonesia	36	0 (0%)	0 (0%)	5 (13.9%)	3 (8.3%)	11 (30.6%)	10 (27.8%)	7 (19.4%)	5 (13.9%)	28 (77.8%)	5.31 (75.86)	1.27 (1.27)
	Malaysia	14	0 (0%)	1 (7.1%)	2 (14.3%)	1 (7.1%)	3 (21.4%)	4 (28.6%)	3 (21.4%)	3 (21.4%)	10 (71.4%)	5.14 (73.43)	1.55 (1.55)
	Viet Nam	53	0 (0%)	0 (0%)	4 (7.5%)	10 (18.9%)	12 (22.6%)	17 (32.1%)	10 (18.9%)	4 (7.5%)	39 (73.6%)	5.36 (76.57)	1.2 (1.2)
	Philippines	20	0 (0%)	0 (0%)	0 (0%)	2 (10%)	1 (5%)	8 (40%)	9 (45%)	0 (0%)	18 (90%)	6.2 (88.57)	0.93 (0.93)
	Thailand	12	0 (0%)	0 (0%)	0 (0%)	1 (8.3%)	4 (33.3%)	3 (25%)	4 (33.3%)	0 (0%)	11 (91.7%)	5.83 (83.29)	0.99 (0.99)
	Singapore	2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0 (0%)	2 (100%)	5.5 (78.57)	0.5 (0.5)
	Brunei	1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1 (100%)	5 (71.43)	0 (0)
	Myanmar	3	0 (0%)	0 (0%)	0 (0%)	0 (0%)	1 (33.3%)	1 (33.3%)	1 (33.3%)	0 (0%)	3 (100%)	6 (85.71)	0.82 (0.82)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1 (100%)	5 (71.43)	0 (0)
	India	41	2 (4.9%)	2 (4.9%)	1 (2.4%)	6 (14.6%)	3 (7.3%)	16 (39%)	11 (26.8%)	5 (12.2%)	30 (73.2%)	5.39 (77)	1.67 (1.67)
	Others: Please specify.	9	0 (0%)	0 (0%)	1 (11.1%)	2 (22.2%)	3 (33.3%)	2 (22.2%)	1 (11.1%)	1 (11.1%)	6 (66.7%)	5 (71.43)	1.15 (1.15)
Gender	Male	108	2 (1.9%)	1 (0.9%)	7 (6.5%)	16 (14.8%)	20 (18.5%)	31 (28.7%)	31 (28.7%)	10 (9.3%)	82 (75.9%)	5.48	1.41 (1.41)

												(78.29)	
	Female	80	0 (0%)	1 (1.3%)	6 (7.5%)	9 (11.3%)	21 (26.3%)	31 (38.8%)	12 (15%)	7 (8.8%)	64 (80%)	5.39 (77)	1.17 (1.17)
	Others	2	0 (0%)	0 (0%)	0 (0%)	0 (0%)	0 (0%)	0 (0%)	2 (100%)	0 (0%)	2 (100%)	7 (100)	0 (0)
	I do not wish to respond	2	0 (0%)	1 (50%)	0 (0%)	0 (0%)	0 (0%)	0 (0%)	1 (50%)	1 (50%)	1 (50%)	4.5 (64.29)	2.5 (2.5)
institute	GIST	27	0 (0%)	2 (7.4%)	1 (3.7%)	3 (11.1%)	7 (25.9%)	7 (25.9%)	7 (25.9%)	3 (11.1%)	21 (77.8%)	5.37 (76.71)	1.44 (1.44)
	DGIST	24	1 (4.2%)	1 (4.2%)	2 (8.3%)	2 (8.3%)	4 (16.7%)	8 (33.3%)	6 (25%)	4 (16.7%)	18 (75%)	5.29 (75.57)	1.65 (1.65)
	UNIST	38	0 (0%)	0 (0%)	3 (7.9%)	5 (13.2%)	8 (21.1%)	13 (34.2%)	9 (23.7%)	3 (7.9%)	30 (78.9%)	5.53 (79)	1.21 (1.21)
	POSTECH	16	0 (0%)	0 (0%)	1 (6.3%)	5 (31.3%)	1 (6.3%)	5 (31.3%)	4 (25%)	1 (6.3%)	10 (62.5%)	5.38 (76.86)	1.32 (1.32)
	KAIST	87	1 (1.1%)	0 (0%)	6 (6.9%)	10 (11.5%)	21 (24.1%)	29 (33.3%)	20 (23%)	7 (8%)	70 (80.5%)	5.49 (78.43)	1.26 (1.26)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0 (0%)	0 (0%)	3 (9.1%)	5 (15.2%)	10 (30.3%)	9 (27.3%)	6 (18.2%)	3 (9.1%)	25 (75.8%)	5.3 (75.71)
Master		60	0 (0%)	0 (0%)	4 (6.7%)	7 (11.7%)	15 (25%)	21 (35%)	13 (21.7%)	4 (6.7%)	49 (81.7%)	5.53 (79)	1.15 (1.15)
Ph.D.		75	2 (2.7%)	3 (4%)	5 (6.7%)	9 (12%)	12 (16%)	22 (29.3%)	22 (29.3%)	10 (13.3%)	56 (74.7%)	5.4 (77.14)	1.57 (1.57)
Ma. and Doc Int Pro		22	0 (0%)	0 (0%)	1 (4.5%)	4 (18.2%)	3 (13.6%)	9 (40.9%)	5 (22.7%)	1 (4.5%)	17 (77.3%)	5.59 (79.86)	1.15 (1.15)
Others (please specify)		2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0 (0%)	2 (100%)	5.5 (78.57)	0.5 (0.5)
scholarship		Yes	185	2 (1.1%)	2 (1.1%)	12 (6.5%)	25 (13.5%)	39 (21.1%)	60 (32.4%)	45 (24.3%)	16 (8.6%)	144 (77.8%)	5.47 (78.14)
	No	7	0 (0%)	1 (14.3%)	1 (14.3%)	0 (0%)	2 (28.6%)	2 (28.6%)	1 (14.3%)	2 (28.6%)	5 (71.4%)	4.86 (69.43)	1.64 (1.64)

76. Overall education experience in your institute

		조사완료								좌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수	Very dissatisfied	Moderately dissatisfied	Slightly dissatisfied	Moderate	Slightly satisfied	Moderately satisfied	Very satisfied				
	전체	192	6 (3.1%)	7 (3.6%)	9 (4.7%)	31 (16.1%)	36 (18.8%)	75 (39.1%)	28 (14.6%)	22 (11.5%)	139 (72.4%)	5.19 (74.14)	1.45 (1.45)
nationality	Indonesia	36	2 (5.6%)	2 (5.6%)	3 (8.3%)	1 (2.8%)	6 (16.7%)	19 (52.8%)	3 (8.3%)	7 (19.4%)	28 (77.8%)	5.11 (73)	1.61 (1.61)
	Malaysia	14	0 (0%)	1 (7.1%)	0 (0%)	4 (28.6%)	2 (14.3%)	5 (35.7%)	2 (14.3%)	1 (7.1%)	9 (64.3%)	5.14 (73.43)	1.36 (1.36)
	Viet Nam	53	1 (1.9%)	0 (0%)	1 (1.9%)	15 (28.3%)	13 (24.5%)	18 (34%)	5 (9.4%)	2 (3.8%)	36 (67.9%)	5.13 (73.29)	1.17 (1.17)
	Philippines	20	1 (5%)	0 (0%)	3 (15%)	0 (0%)	2 (10%)	7 (35%)	7 (35%)	4 (20%)	16 (80%)	5.55 (79.29)	1.69 (1.69)
	Thailand	12	0 (0%)	2 (16.7%)	0 (0%)	1 (8.3%)	3 (25%)	5 (41.7%)	1 (8.3%)	2 (16.7%)	9 (75%)	5 (71.43)	1.53 (1.53)
	Singapore	2	0 (0%)	0 (0%)	0 (0%)	1 (50%)	0 (0%)	1 (50%)	0 (0%)	0 (0%)	1 (50%)	5 (71.43)	1 (1)
	Brunei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Myanmar	3	0 (0%)	0 (0%)	0 (0%)	0 (0%)	1 (33.3%)	2 (66.7%)	0 (0%)	0 (0%)	3 (100%)	5.67 (81)	0.47 (0.47)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India	41	1 (2.4%)	2 (4.9%)	2 (4.9%)	6 (14.6%)	6 (14.6%)	15 (36.6%)	9 (22%)	5 (12.2%)	30 (73.2%)	5.32 (76)	1.52 (1.52)
	Others: Please specify.	9	1 (11.1%)	0 (0%)	0 (0%)	3 (33.3%)	3 (33.3%)	1 (11.1%)	1 (11.1%)	1 (11.1%)	5 (55.6%)	4.56 (65.14)	1.57 (1.57)
Gender	Male	108	3 (2.8%)	4 (3.7%)	5 (4.6%)	14 (13%)	24 (22.2%)	40 (37%)	18 (16.7%)	12 (11.1%)	82 (75.9%)	5.26 (75.14)	1.44 (1.44)
	Female	80	2 (2.5%)	2 (2.5%)	4 (5%)	16 (20%)	12 (15%)	35 (43.8%)	9 (11.3%)	8 (10%)	56 (70%)	5.19 (74.14)	1.37 (1.37)
	Others	2	1 (50%)	0 (0%)	0 (0%)	0 (0%)	0 (0%)	0 (0%)	1 (50%)	1 (50%)	1 (50%)	4 (57.14)	3 (3)
	I do not wish to respond	2	0 (0%)	1 (50%)	0 (0%)	1 (50%)	0 (0%)	0 (0%)	0 (0%)	0 (0%)	1 (50%)	0 (0%)	3 (42.86)
institute	GIST	27	1 (3.7%)	2 (7.4%)	2 (7.4%)	4 (14.8%)	6 (22.2%)	9 (33.3%)	3 (11.1%)	5 (18.5%)	18 (66.7%)	4.89 (69.86)	1.57 (1.57)
	DGIST	24	2 (8.3%)	0 (0%)	1 (4.2%)	7 (29.2%)	5 (20.8%)	6 (25%)	3 (12.5%)	3 (12.5%)	14 (58.3%)	4.79 (68.43)	1.58 (1.58)
	UNIST	38	2 (5.3%)	0 (0%)	0 (0%)	10 (26.3%)	7 (18.4%)	13 (34.2%)	6 (15.8%)	2 (5.3%)	26 (68.4%)	5.18 (74)	1.43 (1.43)
	POSTECH	16	1 (6.3%)	1 (6.3%)	1 (6.3%)	5 (31.3%)	1 (6.3%)	4 (25%)	3 (18.8%)	3 (18.8%)	8 (50%)	4.75 (67.86)	1.75 (1.75)
	KAIST	87	0 (0%)	4 (4.6%)	5 (5.7%)	5 (5.7%)	17 (19.5%)	43 (49.4%)	13 (14.9%)	9 (10.3%)	73 (83.9%)	5.48 (78.29)	1.25 (1.25)
pursuing degree	Undergradu ate	33	1 (3%)	1 (3%)	0 (0%)	3 (9.1%)	9 (27.3%)	17 (51.5%)	2 (6.1%)	2 (6.1%)	28 (84.8%)	5.33 (76.14)	1.22 (1.22)
	Master	60	2 (3.3%)	2 (3.3%)	4 (6.7%)	5 (8.3%)	9 (15%)	27 (45%)	11 (18.3%)	8 (13.3%)	47 (78.3%)	5.37 (76.71)	1.49 (1.49)
	Ph.D.	75	2 (2.7%)	4 (5.3%)	5 (6.7%)	18 (24%)	13 (17.3%)	23 (30.7%)	10 (13.3%)	11 (14.7%)	46 (61.3%)	4.93 (70.43)	1.5 (1.5)
	Ma. and Doc Int Pro	22	1 (4.5%)	0 (0%)	0 (0%)	5 (22.7%)	4 (18.2%)	7 (31.8%)	5 (22.7%)	1 (4.5%)	16 (72.7%)	5.36 (76.57)	1.43 (1.43)
	Others (please specify)	2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0 (0%)	2 (100%)	5.5 (78.57)	0.5 (0.5)
scholarsh ip	Yes	185	6 (3.2%)	6 (3.2%)	9 (4.9%)	29 (15.7%)	34 (18.4%)	74 (40%)	27 (14.6%)	21 (11.4%)	135 (73%)	5.21 (74.43)	1.45 (1.45)
	No	7	0 (0%)	1 (14.3%)	0 (0%)	2 (28.6%)	2 (28.6%)	1 (14.3%)	1 (14.3%)	1 (14.3%)	4 (57.1%)	4.71 (67.29)	1.48 (1.48)

83. Overall research experience in your institute

	조사완료 수	Verydissati sfied	Moderatel ydissatisfi ed	Slightlydis satisfied	Moderate	Slightlysati sfied	Moderatel Verysatisfi ed	최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	128	2 (1.6%)	4 (3.1%)	10 (7.8%)	20 (15.6%)	21 (16.4%)	47 (36.7%)	24 (18.8%)	16 (12.5%)	92 (71.9%)	5.27 (75.29)	1.43 (1.43)	
nationality	Indonesia	27	1 (3.7%)	2 (7.4%)	4 (14.8%)	2 (7.4%)	2 (7.4%)	9 (33.3%)	7 (25.9%)	7 (25.9%)	18 (66.7%)	5.11 (73)	1.81 (1.81)
	Malaysia	7	0 (0%)	1 (14.3%)	0 (0%)	1 (14.3%)	1 (14.3%)	4 (57.1%)	0 (0%)	1 (14.3%)	5 (71.4%)	5 (71.43)	1.41 (1.41)
	Viet Nam	35	0 (0%)	0 (0%)	2 (5.7%)	11 (31.4%)	8 (22.9%)	10 (28.6%)	4 (11.4%)	2 (5.7%)	22 (62.9%)	5.09 (72.71)	1.13 (1.13)
	Philippines	12	1 (8.3%)	0 (0%)	0 (0%)	2 (16.7%)	0 (0%)	6 (50%)	3 (25%)	1 (8.3%)	9 (75%)	5.5 (78.57)	1.66 (1.66)

	Thailand	5	0 (0%)	1 (20%)	0 (0%)	0 (0%)	1 (20%)	3 (60%)	0 (0%)	1 (20%)	4 (80%)	5 (71.43)	1.55 (1.55)
	Singapore	1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1 (100%)	5 (71.43)	0 (0)
	Brunei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yanmar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India	34	0 (0%)	0 (0%)	1 (2.9%)	4 (11.8%)	8 (23.5%)	11 (32.4%)	10 (29.4%)	1 (2.9%)	29 (85.3%)	5.74 (82)	1.09 (1.09)
	Others: Please specify.	6	0 (0%)	0 (0%)	3 (50%)	0 (0%)	0 (0%)	3 (50%)	0 (0%)	3 (50%)	3 (50%)	4.5 (64.29)	1.5 (1.5)
Gender	Male	74	1 (1.4%)	2 (2.7%)	6 (8.1%)	12 (16.2%)	12 (16.2%)	26 (35.1%)	15 (20.3%)	9 (12.2%)	53 (71.6%)	5.3 (75.71)	1.42 (1.42)
	Female	52	1 (1.9%)	1 (1.9%)	4 (7.7%)	8 (15.4%)	9 (17.3%)	21 (40.4%)	8 (15.4%)	6 (11.5%)	38 (73.1%)	5.27 (75.29)	1.37 (1.37)
	Others	1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1 (100%)	7 (100)	0 (0)
	I do not wish to respond	1	0 (0%)	1 (10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2 (28.57)	0 (0)
institute	GIST	17	1 (5.9%)	1 (5.9%)	1 (5.9%)	3 (17.6%)	3 (17.6%)	6 (35.3%)	2 (11.8%)	3 (17.6%)	11 (64.7%)	4.88 (69.71)	1.64 (1.64)
	DGIST	18	0 (0%)	0 (0%)	3 (16.7%)	1 (5.6%)	3 (16.7%)	7 (38.9%)	4 (22.2%)	3 (16.7%)	14 (77.8%)	5.44 (77.71)	1.34 (1.34)
	UNIST	25	0 (0%)	0 (0%)	1 (4%)	5 (20%)	4 (16%)	7 (28%)	8 (32%)	1 (4%)	19 (76%)	5.64 (80.57)	1.23 (1.23)
	POSTECH	16	1 (6.3%)	0 (0%)	1 (6.3%)	4 (25%)	2 (12.5%)	7 (43.8%)	1 (6.3%)	2 (12.5%)	10 (62.5%)	4.94 (70.57)	1.48 (1.48)
	KAIST	52	0 (0%)	3 (5.8%)	4 (7.7%)	7 (13.5%)	9 (17.3%)	20 (38.5%)	9 (17.3%)	7 (13.5%)	38 (73.1%)	5.27 (75.29)	1.4 (1.4)
pursuing degree	Undergradu ate	11	0 (0%)	0 (0%)	1 (9.1%)	4 (36.4%)	0 (0%)	4 (36.4%)	2 (18.2%)	1 (9.1%)	6 (54.5%)	5.18 (74)	1.34 (1.34)
	Master	38	0 (0%)	3 (7.9%)	4 (10.5%)	3 (7.9%)	3 (7.9%)	16 (42.1%)	9 (23.7%)	7 (18.4%)	28 (73.7%)	5.37 (76.71)	1.56 (1.56)
	Ph.D.	61	1 (1.6%)	1 (1.6%)	4 (6.6%)	12 (19.7%)	12 (19.7%)	20 (32.8%)	11 (18%)	6 (9.8%)	43 (70.5%)	5.25 (75)	1.36 (1.36)
	Ma. and Doc Int Pro	17	1 (5.9%)	0 (0%)	1 (5.9%)	1 (5.9%)	6 (35.3%)	6 (35.3%)	2 (11.8%)	2 (11.8%)	14 (82.4%)	5.18 (74)	1.42 (1.42)
	Others (please specify)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scholarsh ip	Yes	123	2 (1.6%)	3 (2.4%)	9 (7.3%)	19 (15.4%)	21 (17.1%)	45 (36.6%)	24 (19.5%)	14 (11.4%)	90 (73.2%)	5.32 (76)	1.4 (1.4)
	No	5	0 (0%)	1 (20%)	1 (20%)	1 (20%)	0 (0%)	2 (40%)	0 (0%)	2 (40%)	2 (40%)	4.2 (60)	1.6 (1.6)

84. Research advisor's expertise

		조사원료	Verydissati	Moderatel	Slightlydis	Slightlydissati	Moderatel	Verysatisfi						
		수	sfied	d	satisfied	Moderate	sfied	ysatisfied	ed	좌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		128	3 (2.3%)	4 (3.1%)	3 (2.3%)	10 (7.8%)	25 (19.5%)	43 (33.6%)	40 (31.3%)	10 (7.8%)	108 (84.4%)	5.65 (80.71)	1.41 (1.41)	
nationality	Indonesia	27	1 (3.7%)	2 (7.4%)	2 (7.4%)	1 (3.7%)	1 (3.7%)	9 (33.3%)	11 (40.7%)	5 (18.5%)	21 (77.8%)	5.59 (79.86)	1.79 (1.79)	
	Malaysia	7	0 (0%)	1 (14.3%)	0 (0%)	1 (14.3%)	1 (14.3%)	1 (14.3%)	3 (42.9%)	1 (14.3%)	5 (71.4%)	5.43 (77.57)	1.76 (1.76)	
	Viet Nam	35	0 (0%)	0 (0%)	0 (0%)	2 (5.7%)	15 (42.9%)	13 (37.1%)	5 (14.3%)	0 (0%)	33 (94.3%)	5.6 (80)	0.8 (0.8)	
	Philippines	12	1 (8.3%)	0 (0%)	0 (0%)	1 (8.3%)	0 (0%)	5 (41.7%)	5 (41.7%)	1 (8.3%)	10 (83.3%)	5.83 (83.29)	1.67 (1.67)	
	Thailand	5	1 (20%)	0 (0%)	0 (0%)	0 (0%)	2 (40%)	2 (40%)	0 (0%)	1 (20%)	4 (80%)	4.6 (65.71)	1.85 (1.85)	
	Singapore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Brunei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yanmar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India	34	0 (0%)	0 (0%)	1 (2.9%)	4 (11.8%)	6 (17.6%)	9 (26.5%)	14 (41.2%)	1 (2.9%)	29 (85.3%)	5.91 (84.43)	1.15 (1.15)	
	Others: Please specify.	6	0 (0%)	1 (16.7%)	0 (0%)	1 (16.7%)	0 (0%)	2 (33.3%)	2 (33.3%)	1 (16.7%)	4 (66.7%)	5.33 (76.14)	1.8 (1.8)	
	Gender	Male	74	2 (2.7%)	3 (4.1%)	2 (2.7%)	7 (9.5%)	13 (17.6%)	20 (27%)	27 (36.5%)	7 (9.5%)	60 (81.1%)	5.62 (80.29)	1.53 (1.53)
		Female	52	1 (1.9%)	0 (0%)	1 (1.9%)	3 (5.8%)	12 (23.1%)	23 (44.2%)	12 (23.1%)	2 (3.8%)	47 (90.4%)	5.73 (81.86)	1.13 (1.13)
Others		1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1 (100%)	7 (100)	0 (0)	
I do not wish to respond		1	0 (0%)	1 (10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2 (28.57)	0 (0)	
institute	GIST	17	1 (5.9%)	1 (5.9%)	0 (0%)	3 (17.6%)	3 (17.6%)	5 (29.4%)	4 (23.5%)	2 (11.8%)	12 (70.6%)	5.18 (74)	1.69 (1.69)	
	DGIST	18	0 (0%)	1 (5.6%)	1 (5.6%)	2 (11.1%)	2 (11.1%)	5 (27.8%)	7 (38.9%)	2 (11.1%)	14 (77.8%)	5.67 (81)	1.49 (1.49)	
	UNIST	25	0 (0%)	0 (0%)	0 (0%)	1 (4%)	5 (20%)	8 (32%)	11 (44%)	0 (0%)	24 (96%)	6.16 (88)	0.88 (0.88)	
	POSTECH	16	1 (6.3%)	1 (6.3%)	0 (0%)	2 (12.5%)	1 (6.3%)	7 (43.8%)	4 (25%)	2 (12.5%)	12 (75%)	5.38 (76.86)	1.73 (1.73)	
	KAIST	52	1 (1.9%)	1 (1.9%)	2 (3.8%)	2 (3.8%)	14 (26.9%)	18 (34.6%)	14 (26.9%)	4 (7.7%)	46 (88.5%)	5.63 (80.43)	1.3 (1.3)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11	0 (0%)	0 (0%)	0 (0%)	0 (0%)	4 (36.4%)	4 (36.4%)	3 (27.3%)	0 (0%)	11 (100%)	5.91 (84.43)	0.79 (0.79)	
	Master	38	1 (2.6%)	3 (7.9%)	1 (2.6%)	2 (5.3%)	7 (18.4%)	13 (34.2%)	11 (28.9%)	5 (13.2%)	31 (81.6%)	5.47 (78.14)	1.6 (1.6)	
	Ph.D.	61	1 (1.6%)	1 (1.6%)	2 (3.3%)	6 (9.8%)	11 (18%)	22 (36.1%)	18 (29.5%)	4 (6.6%)	51 (83.6%)	5.67 (81)	1.31 (1.31)	
	Ma. and Doc Int Pro	17	1 (5.9%)	0 (0%)	0 (0%)	2 (11.8%)	3 (17.6%)	4 (23.5%)	7 (41.2%)	1 (5.9%)	14 (82.4%)	5.71 (81.57)	1.56 (1.56)	

	Others (please specify)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1 (100%)	7 (100)	0 (0)
scholarship	Yes	123	3 (2.4%)	3 (2.4%)	3 (2.4%)	10 (8.1%)	25 (20.3%)	39 (31.7%)	40 (32.5%)	9 (7.3%)	104 (84.6%)	5.67 (81)	1.4 (1.4)	
	No	5	0 (0%)	1 (20%)	0 (0%)	0 (0%)	0 (0%)	4 (80%)	0 (0%)	1 (20%)	4 (80%)	5.2 (74.29)	1.6 (1.6)	

85. Research advisor's network

		조사완료	Verydissatisfied	Moderatelydissatisfied	Slightlydissatisfied	Moderate	Slightlysatisfied	Moderatelysatisfied	Verysatisfied	좌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수	sfied	d	satisfied	Moderate	sfied	ysatisfied	ed				
nationality	전체	128	0 (0%)	4 (3.1%)	2 (1.6%)	17 (13.3%)	23 (18%)	40 (31.3%)	42 (32.8%)	6 (4.7%)	105 (82%)	5.71 (81.57)	1.26 (1.26)
	Indonesia	27	0 (0%)	0 (0%)	1 (3.7%)	2 (7.4%)	5 (18.5%)	8 (29.6%)	11 (40.7%)	1 (3.7%)	24 (88.9%)	5.96 (85.14)	1.1 (1.1)
	Malaysia	7	0 (0%)	1 (14.3%)	0 (0%)	1 (14.3%)	0 (0%)	1 (14.3%)	4 (57.1%)	1 (14.3%)	5 (71.4%)	5.71 (81.57)	1.83 (1.83)
	Viet Nam	35	0 (0%)	0 (0%)	1 (2.9%)	4 (11.4%)	12 (34.3%)	13 (37.1%)	5 (14.3%)	1 (2.9%)	30 (85.7%)	5.49 (78.43)	0.97 (0.97)
	Philippines	12	0 (0%)	1 (8.3%)	0 (0%)	1 (8.3%)	1 (8.3%)	4 (33.3%)	5 (41.7%)	1 (8.3%)	10 (83.3%)	5.83 (83.29)	1.46 (1.46)
	Thailand	5	0 (0%)	0 (0%)	0 (0%)	0 (0%)	2 (40%)	2 (40%)	1 (20%)	0 (0%)	5 (100%)	5.8 (82.86)	0.75 (0.75)
	Singapore	1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0 (0%)	0 (0%)	4 (57.14)	0 (0)
	Brunei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yanmar	1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1 (100%)	7 (100)	0 (0)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India	34	0 (0%)	1 (2.9%)	0 (0%)	7 (20.6%)	3 (8.8%)	9 (26.5%)	14 (41.2%)	1 (2.9%)	26 (76.5%)	5.79 (82.71)	1.32 (1.32)
	Others: Please specify.	6	0 (0%)	1 (16.7%)	0 (0%)	1 (16.7%)	0 (0%)	3 (50%)	1 (16.7%)	1 (16.7%)	4 (66.7%)	5.17 (73.86)	1.67 (1.67)
	Gender	Male	74	0 (0%)	2 (2.7%)	1 (1.4%)	13 (17.6%)	11 (14.9%)	23 (31.1%)	24 (32.4%)	3 (4.1%)	58 (78.4%)	5.68 (81.14)
Female		52	0 (0%)	1 (1.9%)	1 (1.9%)	4 (7.7%)	12 (23.1%)	17 (32.7%)	17 (32.7%)	2 (3.8%)	46 (88.5%)	5.81 (83)	1.14 (1.14)
Others		1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1 (100%)	7 (100)	0 (0)
I do not wish to respond		1	0 (0%)	1 (10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2 (28.57)	0 (0)
institute	GIST	17	0 (0%)	2 (11.8%)	0 (0%)	2 (11.8%)	3 (17.6%)	6 (35.3%)	4 (23.5%)	2 (11.8%)	13 (76.5%)	5.35 (76.43)	1.53 (1.53)
	DGIST	18	0 (0%)	1 (5.6%)	0 (0%)	3 (16.7%)	2 (11.1%)	7 (38.9%)	5 (27.8%)	1 (5.6%)	14 (77.8%)	5.61 (80.14)	1.34 (1.34)
	UNIST	25	0 (0%)	0 (0%)	0 (0%)	3 (12%)	4 (16%)	8 (32%)	10 (40%)	0 (0%)	22 (88%)	6 (85.71)	1.02 (1.02)
	POSTECH	16	0 (0%)	0 (0%)	0 (0%)	3 (18.8%)	2 (12.5%)	5 (31.3%)	6 (37.5%)	0 (0%)	13 (81.3%)	5.88 (84)	1.11 (1.11)
	KAIST	52	0 (0%)	1 (1.9%)	2 (3.8%)	6 (11.5%)	12 (23.1%)	14 (26.9%)	17 (32.7%)	3 (5.8%)	43 (82.7%)	5.67 (81)	1.25 (1.25)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11	0 (0%)	1 (9.1%)	0 (0%)	0 (0%)	4 (36.4%)	4 (36.4%)	2 (18.2%)	1 (9.1%)	10 (90.9%)	5.45 (77.86)	1.3 (1.3)
	Master	38	0 (0%)	1 (2.6%)	1 (2.6%)	3 (7.9%)	9 (23.7%)	10 (26.3%)	14 (36.8%)	2 (5.3%)	33 (86.8%)	5.79 (82.71)	1.24 (1.24)
	Ph.D.	61	0 (0%)	2 (3.3%)	0 (0%)	10 (16.4%)	8 (13.1%)	20 (32.8%)	21 (34.4%)	2 (3.3%)	49 (80.3%)	5.75 (82.14)	1.26 (1.26)
	Ma. and Doc Int Pro	17	0 (0%)	0 (0%)	1 (5.9%)	4 (23.5%)	2 (11.8%)	5 (29.4%)	5 (29.4%)	1 (5.9%)	12 (70.6%)	5.53 (79)	1.29 (1.29)
	Others (please specify)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scholarship	Yes	123	0 (0%)	3 (2.4%)	2 (1.6%)	17 (13.8%)	23 (18.7%)	36 (29.3%)	42 (34.1%)	5 (4.1%)	101 (82.1%)	5.73 (81.86)	1.24 (1.24)
	No	5	0 (0%)	1 (20%)	0 (0%)	0 (0%)	0 (0%)	4 (80%)	0 (0%)	1 (20%)	4 (80%)	5.2 (74.29)	1.6 (1.6)

87. Frequency of the lab meetings in English

	조사완료 수	Verydissatisfied	Moderatelydissatisfied	Slightlydissatisfied	Moderate	Slightlysatisfied	Moderatelysatisfied	Verysatisfied	좌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sfied	d	satisfied	sfied	ysatisfied	ed						
전체	128	10 (7.8%)	6 (4.7%)	6 (4.7%)	18 (14.1%)	18 (14.1%)	29 (22.7%)	41 (32%)	22 (17.2%)	88 (68.8%)	5.18 (74)	1.86 (1.86)	
nationality	Indonesia	27	6 (22.2%)	1 (3.7%)	0 (0%)	4 (14.8%)	5 (18.5%)	5 (18.5%)	6 (22.2%)	7 (25.9%)	16 (59.3%)	4.48 (64)	2.2 (2.2)
	Malaysia	7	0 (0%)	0 (0%)	1 (14.3%)	0 (0%)	0 (0%)	1 (14.3%)	5 (71.4%)	1 (14.3%)	6 (85.7%)	6.29 (89.86)	1.39 (1.39)
	Viet Nam	35	1 (2.9%)	2 (5.7%)	2 (5.7%)	6 (17.1%)	7 (20%)	7 (20%)	10 (28.6%)	5 (14.3%)	24 (68.6%)	5.2 (74.29)	1.64 (1.64)
	Philippines	12	0 (0%)	2 (16.7%)	0 (0%)	1 (8.3%)	0 (0%)	5 (41.7%)	4 (33.3%)	2 (16.7%)	9 (75%)	5.5 (78.57)	1.76 (1.76)
	Thailand	5	0 (0%)	0 (0%)	2 (40%)	1 (20%)	1 (20%)	0 (0%)	1 (20%)	2 (40%)	2 (40%)	4.4 (62.86)	1.5 (1.5)
	Singapore	1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1 (100%)	7 (100)	0 (0)
	Brunei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yanmar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India	34	3 (8.8%)	1 (2.9%)	1 (2.9%)	5 (14.7%)	3 (8.8%)	7 (20.6%)	14 (41.2%)	5 (14.7%)	24 (70.6%)	5.38 (76.86)	1.91 (1.91)
	Others: Please specify.	6	0 (0%)	0 (0%)	0 (0%)	1 (16.7%)	2 (33.3%)	3 (50%)	0 (0%)	0 (0%)	5 (83.3%)	5.33 (76.14)	0.75 (0.75)
	Gender	Male	74	6 (8.1%)	4 (5.4%)	3 (4.1%)	13 (17.6%)	10 (13.5%)	17 (23%)	21 (28.4%)	13 (17.6%)	48 (64.9%)	5.05 (72.14)
Female		52	3 (5.8%)	2 (3.8%)	2 (3.8%)	5 (9.6%)	8 (15.4%)	12 (23.1%)	20 (38.5%)	7 (13.5%)	40 (76.9%)	5.48 (78.29)	1.75 (1.75)
Others		1	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1 (14.29)	0 (0)
I do not wish to respond		1	0 (0%)	0 (0%)	1 (100%)	0 (0%)	0 (0%)	0 (0%)	0 (0%)	1 (100%)	0 (0%)	3 (42.86)	0 (0)
institute	GIST	17	1 (5.9%)	1 (5.9%)	1 (5.9%)	0 (0%)	4 (23.5%)	2 (11.8%)	8 (47.1%)	3 (17.6%)	14 (82.4%)	5.53 (79)	1.85 (1.85)

	DGIST	18	0 (0%)	2 (11.1%)	0 (0%)	2 (11.1%)	4 (22.2%)	9 (50%)	1 (5.6%)	2 (11.1%)	14 (77.8%)	5.17 (73.86)	1.34 (1.34)
	UNIST	25	1 (4%)	0 (0%)	1 (4%)	4 (16%)	2 (8%)	6 (24%)	11 (44%)	2 (8%)	19 (76%)	5.72 (81.71)	1.56 (1.56)
	POSTECH	16	1 (6.3%)	1 (6.3%)	2 (12.5%)	3 (18.8%)	2 (12.5%)	1 (6.3%)	6 (37.5%)	4 (25%)	9 (56.3%)	4.94 (70.57)	1.95 (1.95)
	KAIST	52	7 (13.5%)	2 (3.8%)	2 (3.8%)	9 (17.3%)	6 (11.5%)	11 (21.2%)	15 (28.8%)	11 (21.2%)	32 (61.5%)	4.88 (69.71)	2.04 (2.04)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11	0 (0%)	0 (0%)	0 (0%)	2 (18.2%)	1 (9.1%)	3 (27.3%)	5 (45.5%)	0 (0%)	9 (81.8%)	6 (85.71)	1.13 (1.13)
	Master	38	6 (15.8%)	1 (2.6%)	1 (2.6%)	7 (18.4%)	9 (23.7%)	8 (21.1%)	6 (15.8%)	8 (21.1%)	23 (60.5%)	4.58 (65.43)	1.93 (1.93)
	Ph.D.	61	3 (4.9%)	5 (8.2%)	4 (6.6%)	8 (13.1%)	5 (8.2%)	14 (23%)	22 (36.1%)	12 (19.7%)	41 (67.2%)	5.25 (75)	1.88 (1.88)
	Ma. and Doc Int Pro	17	1 (5.9%)	0 (0%)	1 (5.9%)	1 (5.9%)	3 (17.6%)	3 (17.6%)	8 (47.1%)	2 (11.8%)	14 (82.4%)	5.71 (81.57)	1.67 (1.67)
	Others (please specify)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scholarship	Yes	123	10 (8.1%)	6 (4.9%)	5 (4.1%)	16 (13%)	17 (13.8%)	29 (23.6%)	40 (32.5%)	21 (17.1%)	86 (69.9%)	5.2 (74.29)
	No	5	0 (0%)	0 (0%)	1 (20%)	2 (40%)	1 (20%)	0 (0%)	1 (20%)	1 (20%)	2 (40%)	4.6 (65.71)	1.36 (1.36)

89. Laboratory rules and hierarchy

		조사완료 수	Verydissat sified	Moderatel dissatisfie d	Slightlydiss atisfied	Moderate	Slightlysat sified	Moderatel satisfied	Verysatisfi ed	좌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	128	9 (7%)	9 (7%)	9 (7%)	17 (13.3%)	20 (15.6%)	48 (37.5%)	16 (12.5%)	27 (21.1%)	84 (65.6%)	4.86 (69.43)	1.74 (1.74)
nationality	Indonesia	27	3 (11.1%)	2 (7.4%)	2 (7.4%)	2 (7.4%)	4 (14.8%)	9 (33.3%)	5 (18.5%)	7 (25.9%)	18 (66.7%)	4.81 (68.71)	1.96 (1.96)
	Malaysia	7	1 (14.3%)	1 (14.3%)	0 (0%)	0 (0%)	1 (14.3%)	4 (57.1%)	0 (0%)	2 (28.6%)	5 (71.4%)	4.57 (65.29)	1.99 (1.99)
	Viet Nam	35	1 (2.9%)	1 (2.9%)	2 (5.7%)	9 (25.7%)	7 (20%)	10 (28.6%)	5 (14.3%)	4 (11.4%)	22 (62.9%)	5 (71.43)	1.43 (1.43)
	Philippines	12	2 (16.7%)	0 (0%)	1 (8.3%)	2 (16.7%)	1 (8.3%)	5 (41.7%)	1 (8.3%)	3 (25%)	7 (58.3%)	4.58 (65.43)	1.93 (1.93)
	Thailand	5	0 (0%)	0 (0%)	1 (20%)	1 (20%)	0 (0%)	3 (60%)	0 (0%)	1 (20%)	3 (60%)	5 (71.43)	1.26 (1.26)
	Singapore	1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1 (100%)	7 (100)	0 (0)
	Brunei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yanmar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India	34	2 (5.9%)	4 (11.8%)	3 (8.8%)	1 (2.9%)	7 (20.6%)	13 (38.2%)	4 (11.8%)	9 (26.5%)	24 (70.6%)	4.82 (68.86)	1.79 (1.79)
	Others: Please specify.	6	0 (0%)	1 (16.7%)	0 (0%)	2 (33.3%)	0 (0%)	3 (50%)	0 (0%)	1 (16.7%)	3 (50%)	4.67 (66.71)	1.49 (1.49)
Gender	Male	74	6 (8.1%)	5 (6.8%)	5 (6.8%)	9 (12.2%)	13 (17.6%)	29 (39.2%)	7 (9.5%)	16 (21.6%)	49 (66.2%)	4.8 (68.57)	1.74 (1.74)

	Female	52	2 (3.8%)	4 (7.7%)	4 (7.7%)	8 (15.4%)	7 (13.5%)	19 (36.5%)	8 (15.4%)	10 (19.2%)	34 (65.4%)	4.98 (71.14)	1.66 (1.66)
	Others	1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1 (100%)	7 (100)	0 (0)
	I do not wish to respond	1	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1 (14.29)	0 (0)
institute	GIST	17	2 (11.8%)	1 (5.9%)	1 (5.9%)	1 (5.9%)	3 (17.6%)	5 (29.4%)	4 (23.5%)	4 (23.5%)	12 (70.6%)	4.94 (70.57)	1.98 (1.98)
	DGIST	18	1 (5.6%)	1 (5.6%)	1 (5.6%)	4 (22.2%)	2 (11.1%)	9 (50%)	0 (0%)	3 (16.7%)	11 (61.1%)	4.78 (68.29)	1.51 (1.51)
	UNIST	25	0 (0%)	1 (4%)	2 (8%)	2 (8%)	5 (20%)	10 (40%)	5 (20%)	3 (12%)	20 (80%)	5.44 (77.71)	1.33 (1.33)
	POSTECH	16	2 (12.5%)	4 (25%)	1 (6.3%)	1 (6.3%)	2 (12.5%)	4 (25%)	2 (12.5%)	7 (43.8%)	8 (50%)	4.06 (58)	2.11 (2.11)
	KAIST	52	4 (7.7%)	2 (3.8%)	4 (7.7%)	9 (17.3%)	8 (15.4%)	20 (38.5%)	5 (9.6%)	10 (19.2%)	33 (63.5%)	4.83 (69)	1.67 (1.67)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11	0 (0%)	1 (9.1%)	3 (27.3%)	2 (18.2%)	0 (0%)	5 (45.5%)	0 (0%)	4 (36.4%)	5 (45.5%)	4.45 (63.57)
Master		38	1 (2.6%)	2 (5.3%)	2 (5.3%)	5 (13.2%)	7 (18.4%)	18 (47.4%)	3 (7.9%)	5 (13.2%)	28 (73.7%)	5.13 (73.29)	1.42 (1.42)
Ph.D.		61	7 (11.5%)	6 (9.8%)	4 (6.6%)	7 (11.5%)	11 (18%)	19 (31.1%)	7 (11.5%)	17 (27.9%)	37 (60.7%)	4.54 (64.86)	1.91 (1.91)
Ma. and Doc Int Pro		17	1 (5.9%)	0 (0%)	0 (0%)	3 (17.6%)	2 (11.8%)	5 (29.4%)	6 (35.3%)	1 (5.9%)	13 (76.5%)	5.59 (79.86)	1.57 (1.57)
Others (please specify)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scholarship		Yes	123	8 (6.5%)	9 (7.3%)	9 (7.3%)	15 (12.2%)	20 (16.3%)	47 (38.2%)	15 (12.2%)	26 (21.1%)	82 (66.7%)	4.88 (69.71)
	No	5	1 (20%)	0 (0%)	0 (0%)	2 (40%)	0 (0%)	1 (20%)	1 (20%)	1 (20%)	2 (40%)	4.4 (62.86)	2.06 (2.06)

92. Job fair for international students

	조사완료 수	조사원료								최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Verydissatisfied	Moderatelydissatisfied	Slightlydissatisfied	Moderatelysatisfied	Slightlysatisfied	Moderatelysatisfied	Verysatisfied	ed				
전체	192	20 (10.4%)	18 (9.4%)	27 (14.1%)	68 (35.4%)	39 (20.3%)	15 (7.8%)	5 (2.6%)	65 (33.9%)	59 (30.7%)	3.8 (54.29)	1.47 (1.47)	
nationality	Indonesia	36	4 (11.1%)	2 (5.6%)	6 (16.7%)	13 (36.1%)	10 (27.8%)	1 (2.8%)	0 (0%)	12 (33.3%)	11 (30.6%)	3.72 (53.14)	1.3 (1.3)
	Malaysia	14	1 (7.1%)	2 (14.3%)	4 (28.6%)	4 (28.6%)	2 (14.3%)	1 (7.1%)	0 (0%)	7 (50%)	3 (21.4%)	3.5 (50)	1.3 (1.3)
	Viet Nam	53	3 (5.7%)	4 (7.5%)	7 (13.2%)	20 (37.7%)	13 (24.5%)	4 (7.5%)	2 (3.8%)	14 (26.4%)	19 (35.8%)	4.06 (58)	1.35 (1.35)
	Philippines	20	2 (10%)	5 (25%)	2 (10%)	8 (40%)	2 (10%)	1 (5%)	0 (0%)	9 (45%)	3 (15%)	3.3 (47.14)	1.35 (1.35)
	Thailand	12	1 (8.3%)	1 (8.3%)	1 (8.3%)	2 (16.7%)	4 (33.3%)	2 (16.7%)	1 (8.3%)	3 (25%)	7 (58.3%)	4.42 (63.14)	1.66 (1.66)
	Singapore	2	0 (0%)	0 (0%)	0 (0%)	2 (100%)	0 (0%)	0 (0%)	0 (0%)	0 (0%)	0 (0%)	4 (57.14)	0 (0)
	Brunei	1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0 (0%)	0 (0%)	4 (57.14)	0 (0)
	Myanmar	3	0 (0%)	0 (0%)	0 (0%)	1 (33.3%)	0 (0%)	2 (66.7%)	0 (0%)	0 (0%)	2 (66.7%)	5.33 (76.14)	0.94 (0.94)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1 (100%)	5 (71.43)	0 (0)
	India	41	7 (17.1%)	2 (4.9%)	5 (12.2%)	15 (36.6%)	7 (17.1%)	3 (7.3%)	2 (4.9%)	14 (34.1%)	12 (29.3%)	3.73 (53.29)	1.64 (1.64)
	Others: Please specify.	9	2 (22.2%)	2 (22.2%)	2 (22.2%)	2 (22.2%)	0 (0%)	1 (11.1%)	0 (0%)	6 (66.7%)	1 (11.1%)	2.89 (41.29)	1.52 (1.52)
Gender	Male	108	17 (15.7%)	10 (9.3%)	11 (10.2%)	35 (32.4%)	24 (22.2%)	6 (5.6%)	5 (4.6%)	38 (35.2%)	35 (32.4%)	3.71 (53)	1.63 (1.63)
	Female	80	3 (3.8%)	7 (8.8%)	16 (20%)	31 (38.8%)	14 (17.5%)	9 (11.3%)	0 (0%)	26 (32.5%)	23 (28.8%)	3.91 (55.86)	1.23 (1.23)
	Others	2	0 (0%)	0 (0%)	0 (0%)	1 (50%)	1 (50%)	0 (0%)	0 (0%)	0 (0%)	1 (50%)	4.5 (64.29)	0.5 (0.5)
	I do not wish to respond	2	0 (0%)	1 (50%)	0 (0%)	1 (50%)	0 (0%)	0 (0%)	0 (0%)	1 (50%)	0 (0%)	3 (42.86)	1 (1)
institute	GIST	27	4 (14.8%)	2 (7.4%)	1 (3.7%)	12 (44.4%)	7 (25.9%)	0 (0%)	1 (3.7%)	7 (25.9%)	8 (29.6%)	3.74 (53.43)	1.48 (1.48)
	DGIST	24	7 (29.2%)	6 (25%)	3 (12.5%)	6 (25%)	0 (0%)	2 (8.3%)	0 (0%)	16 (66.7%)	2 (8.3%)	2.67 (38.14)	1.52 (1.52)
	UNIST	38	3 (7.9%)	3 (7.9%)	6 (15.8%)	17 (44.7%)	8 (21.1%)	1 (2.6%)	0 (0%)	12 (31.6%)	9 (23.7%)	3.71 (53)	1.19 (1.19)
	POSTECH	16	0 (0%)	2 (12.5%)	1 (6.3%)	5 (31.3%)	5 (31.3%)	2 (12.5%)	1 (6.3%)	3 (18.8%)	8 (50%)	4.44 (63.43)	1.32 (1.32)
	KAIST	87	6 (6.9%)	5 (5.7%)	16 (18.4%)	28 (32.2%)	19 (21.8%)	10 (11.5%)	3 (3.4%)	27 (31%)	32 (36.8%)	4.05 (57.86)	1.42 (1.42)
pursuing degree	Undergradu ate	33	2 (6.1%)	6 (18.2%)	6 (18.2%)	9 (27.3%)	7 (21.2%)	2 (6.1%)	1 (3%)	14 (42.4%)	10 (30.3%)	3.7 (52.86)	1.45 (1.45)
	Master	60	7 (11.7%)	4 (6.7%)	4 (6.7%)	23 (38.3%)	15 (25%)	7 (11.7%)	0 (0%)	15 (25%)	22 (36.7%)	3.93 (56.14)	1.45 (1.45)
	Ph.D.	75	10 (13.3%)	8 (10.7%)	12 (16%)	26 (34.7%)	14 (18.7%)	4 (5.3%)	1 (1.3%)	30 (40%)	19 (25.3%)	3.56 (50.86)	1.45 (1.45)
	Ma. and Doc Int Pro	22	0 (0%)	0 (0%)	5 (22.7%)	10 (45.5%)	3 (13.6%)	2 (9.1%)	2 (9.1%)	5 (22.7%)	7 (31.8%)	4.36 (62.29)	1.19 (1.19)
	Others (please specify)	2	1 (50%)	0 (0%)	0 (0%)	0 (0%)	0 (0%)	0 (0%)	1 (50%)	1 (50%)	1 (50%)	4 (57.14)	3 (3)
scholarsh ip	Yes	185	19 (10.3%)	17 (9.2%)	25 (13.5%)	68 (36.8%)	38 (20.5%)	13 (7%)	5 (2.7%)	61 (33%)	56 (30.3%)	3.8 (54.29)	1.45 (1.45)
	No	7	1 (14.3%)	1 (14.3%)	2 (28.6%)	0 (0%)	1 (14.3%)	2 (28.6%)	0 (0%)	4 (57.1%)	3 (42.9%)	3.71 (53)	1.83 (1.83)

97. Overall satisfaction level in communicating with others in your institute

		조사원료											
		Verydissatis	Moderately	Slightlydiss	Slightlysatis		Moderately	Verysatisfie					
		수	fied	dissatisfied	atisfied	Moderate	fied	satisfied	d	최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	192	11 (5.7%)	17 (8.9%)	19 (9.9%)	44 (22.9%)	51 (26.6%)	43 (22.4%)	7 (3.6%)	47 (24.5%)	101 (52.6%)	4.38 (62.57)	1.52 (1.52)
nationality	Indonesia	36	1 (2.8%)	7 (19.4%)	4 (11.1%)	7 (19.4%)	6 (16.7%)	9 (25%)	2 (5.6%)	12 (33.3%)	17 (47.2%)	4.25 (60.71)	1.66 (1.66)
	Malaysia	14	2 (14.3%)	1 (7.1%)	0 (0%)	3 (21.4%)	6 (42.9%)	2 (14.3%)	0 (0%)	3 (21.4%)	8 (57.1%)	4.14 (59.14)	1.6 (1.6)
	Viet Nam	53	3 (5.7%)	0 (0%)	4 (7.5%)	15 (28.3%)	18 (34%)	13 (24.5%)	0 (0%)	7 (13.2%)	31 (58.5%)	4.58 (65.43)	1.25 (1.25)
	Philippines	20	2 (10%)	3 (15%)	3 (15%)	4 (20%)	1 (5%)	7 (35%)	0 (0%)	8 (40%)	8 (40%)	4 (57.14)	1.76 (1.76)
	Thailand	12	0 (0%)	2 (16.7%)	2 (16.7%)	0 (0%)	4 (33.3%)	3 (25%)	1 (8.3%)	4 (33.3%)	8 (66.7%)	4.58 (65.43)	1.61 (1.61)

	Singapore	2	0 (0%)	0 (0%)	0 (0%)	1 (50%)	1 (50%)	0 (0%)	0 (0%)	0 (0%)	1 (50%)	4.5 (64.29)	0.5 (0.5)
	Brunei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Myanmar	3	0 (0%)	0 (0%)	0 (0%)	0 (0%)	1 (33.3%)	2 (66.7%)	0 (0%)	0 (0%)	3 (100%)	5.67 (81)	0.47 (0.47)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1 (100%)	5 (71.43)	0 (0)
	India	41	2 (4.9%)	4 (9.8%)	4 (9.8%)	10 (24.4%)	11 (26.8%)	6 (14.6%)	4 (9.8%)	10 (24.4%)	21 (51.2%)	4.41 (63)	1.58 (1.58)
	Others: Please specify.	9	1 (11.1%)	0 (0%)	2 (22.2%)	4 (44.4%)	2 (22.2%)	0 (0%)	0 (0%)	3 (33.3%)	2 (22.2%)	3.67 (52.43)	1.15 (1.15)
Gender	Male	108	5 (4.6%)	10 (9.3%)	12 (11.1%)	23 (21.3%)	27 (25%)	27 (25%)	4 (3.7%)	27 (25%)	58 (53.7%)	4.43 (63.29)	1.52 (1.52)
	Female	80	4 (5%)	7 (8.8%)	7 (8.8%)	20 (25%)	24 (30%)	16 (20%)	2 (2.5%)	18 (22.5%)	42 (52.5%)	4.36 (62.29)	1.44 (1.44)
	Others	2	0 (0%)	0 (0%)	0 (0%)	1 (50%)	0 (0%)	0 (0%)	1 (50%)	0 (0%)	1 (50%)	5.5 (78.57)	1.5 (1.5)
	I do not wish to respond	2	2 (100%)	0 (0%)	0 (0%)	0 (0%)	0 (0%)	0 (0%)	0 (0%)	2 (100%)	0 (0%)	1 (14.29)	0 (0)
institute	GIST	27	4 (14.8%)	1 (3.7%)	3 (11.1%)	7 (25.9%)	7 (25.9%)	4 (14.8%)	1 (3.7%)	8 (29.6%)	12 (44.4%)	4.04 (57.71)	1.67 (1.67)
	DGIST	24	1 (4.2%)	2 (8.3%)	4 (16.7%)	7 (29.2%)	8 (33.3%)	2 (8.3%)	0 (0%)	7 (29.2%)	10 (41.7%)	4.04 (57.71)	1.24 (1.24)
	UNIST	38	2 (5.3%)	1 (2.6%)	3 (7.9%)	8 (21.1%)	12 (31.6%)	9 (23.7%)	3 (7.9%)	6 (15.8%)	24 (63.2%)	4.74 (67.71)	1.45 (1.45)
	POSTECH	16	1 (6.3%)	4 (25%)	1 (6.3%)	5 (31.3%)	2 (12.5%)	2 (12.5%)	1 (6.3%)	6 (37.5%)	5 (31.3%)	3.81 (54.43)	1.67 (1.67)
	KAIST	87	3 (3.4%)	9 (10.3%)	8 (9.2%)	17 (19.5%)	22 (25.3%)	26 (29.9%)	2 (2.3%)	20 (23%)	50 (57.5%)	4.52 (64.57)	1.48 (1.48)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1 (3%)	4 (12.1%)	4 (12.1%)	4 (12.1%)	10 (30.3%)	9 (27.3%)	1 (3%)	9 (27.3%)	20 (60.6%)	4.48 (64)	1.52 (1.52)
	Master	60	3 (5%)	5 (8.3%)	7 (11.7%)	10 (16.7%)	17 (28.3%)	16 (26.7%)	2 (3.3%)	15 (25%)	35 (58.3%)	4.48 (64)	1.52 (1.52)
	Ph.D.	75	7 (9.3%)	8 (10.7%)	7 (9.3%)	21 (28%)	17 (22.7%)	13 (17.3%)	2 (2.7%)	22 (29.3%)	32 (42.7%)	4.07 (58.14)	1.59 (1.59)
	Ma. and Doc	22	0 (0%)	0 (0%)	1 (4.5%)	8 (36.4%)	6 (27.3%)	5 (22.7%)	2 (9.1%)	1 (4.5%)	13 (59.1%)	4.95 (70.71)	1.07 (1.07)
	Int Pro Others (please specify)	2	0 (0%)	0 (0%)	0 (0%)	1 (50%)	1 (50%)	0 (0%)	0 (0%)	0 (0%)	1 (50%)	4.5 (64.29)	0.5 (0.5)
scholarshi P	Yes	185	10 (5.4%)	17 (9.2%)	18 (9.7%)	43 (23.2%)	50 (27%)	41 (22.2%)	6 (3.2%)	45 (24.3%)	97 (52.4%)	4.37 (62.43)	1.5 (1.5)
	No	7	1 (14.3%)	0 (0%)	1 (14.3%)	1 (14.3%)	1 (14.3%)	2 (28.6%)	1 (14.3%)	2 (28.6%)	4 (57.1%)	4.57 (65.29)	1.92 (1.92)

107. Overall satisfaction of institutional and legal system in Republic of Korea (visa, healthcare etc.)

		조사완료												
		Verydissatis	Moderately	Slightlydiss	Slightlysatis			Moderately	Verysatisfie	좌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수	fied	dissatisfied	atisfied	Moderate	fied	satisfied	d					
전체		192	2 (1%)	3 (1.6%)	8 (4.2%)	36 (18.8%)	48 (25%)	60 (31.3%)	35 (18.2%)	13 (6.8%)	143 (74.5%)	5.32 (76)	1.27 (1.27)	
nationality	Indonesia	36	1 (2.8%)	1 (2.8%)	2 (5.6%)	6 (16.7%)	11 (30.6%)	9 (25%)	6 (16.7%)	4 (11.1%)	26 (72.2%)	5.11 (73)	1.41 (1.41)	
	Malaysia	14	0 (0%)	1 (7.1%)	0 (0%)	1 (7.1%)	5 (35.7%)	5 (35.7%)	2 (14.3%)	1 (7.1%)	12 (85.7%)	5.36 (76.57)	1.23 (1.23)	
	Viet Nam	53	1 (1.9%)	0 (0%)	1 (1.9%)	14 (26.4%)	17 (32.1%)	11 (20.8%)	9 (17%)	2 (3.8%)	37 (69.8%)	5.17 (73.86)	1.22 (1.22)	
	Philippines	20	0 (0%)	0 (0%)	1 (5%)	3 (15%)	2 (10%)	11 (55%)	3 (15%)	1 (5%)	16 (80%)	5.6 (80)	1.07 (1.07)	
	Thailand	12	0 (0%)	0 (0%)	0 (0%)	0 (0%)	4 (33.3%)	4 (33.3%)	4 (33.3%)	0 (0%)	12 (100%)	6 (85.71)	0.82 (0.82)	
	Singapore	2	0 (0%)	0 (0%)	0 (0%)	2 (100%)	0 (0%)	0 (0%)	0 (0%)	0 (0%)	0 (0%)	4 (57.14)	0 (0)	
	Brunei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Myanmar	3	0 (0%)	0 (0%)	0 (0%)	0 (0%)	0 (0%)	3 (100%)	0 (0%)	0 (0%)	3 (100%)	6 (85.71)	0 (0)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India	41	0 (0%)	1 (2.4%)	3 (7.3%)	6 (14.6%)	8 (19.5%)	12 (29.3%)	11 (26.8%)	4 (9.8%)	31 (75.6%)	5.46 (78)	1.35 (1.35)	
	Others: Please specify.	9	0 (0%)	0 (0%)	1 (11.1%)	4 (44.4%)	1 (11.1%)	3 (33.3%)	0 (0%)	1 (11.1%)	4 (44.4%)	4.67 (66.71)	1.05 (1.05)	
	Gender	Male	108	1 (0.9%)	1 (0.9%)	5 (4.6%)	21 (19.4%)	21 (19.4%)	35 (32.4%)	24 (22.2%)	7 (6.5%)	80 (74.1%)	5.42 (77.43)	1.28 (1.28)
		Female	80	0 (0%)	1 (1.3%)	3 (3.8%)	15 (18.8%)	27 (33.8%)	24 (30%)	10 (12.5%)	4 (5%)	61 (76.3%)	5.25 (75)	1.09 (1.09)
Others		2	1 (50%)	0 (0%)	0 (0%)	0 (0%)	0 (0%)	1 (50%)	0 (0%)	1 (50%)	1 (50%)	3.5 (50)	2.5 (2.5)	
I do not wish to respond		2	0 (0%)	1 (50%)	0 (0%)	0 (0%)	0 (0%)	0 (0%)	1 (50%)	1 (50%)	1 (50%)	4.5 (64.29)	2.5 (2.5)	
institute	GIST	27	0 (0%)	1 (3.7%)	2 (7.4%)	6 (22.2%)	6 (22.2%)	6 (22.2%)	6 (22.2%)	3 (11.1%)	18 (66.7%)	5.19 (74.14)	1.39 (1.39)	
	DGIST	24	0 (0%)	0 (0%)	2 (8.3%)	6 (25%)	2 (8.3%)	11 (45.8%)	3 (12.5%)	2 (8.3%)	16 (66.7%)	5.29 (75.57)	1.21 (1.21)	
	UNIST	38	2 (5.3%)	1 (2.6%)	1 (2.6%)	8 (21.1%)	12 (31.6%)	9 (23.7%)	5 (13.2%)	4 (10.5%)	26 (68.4%)	4.95 (70.71)	1.47 (1.47)	
	POSTECH	16	0 (0%)	0 (0%)	0 (0%)	5 (31.3%)	3 (18.8%)	8 (50%)	0 (0%)	0 (0%)	11 (68.8%)	5.19 (74.14)	0.88 (0.88)	
	KAIST	87	0 (0%)	1 (1.1%)	3 (3.4%)	11 (12.6%)	25 (28.7%)	26 (29.9%)	21 (24.1%)	4 (4.6%)	72 (82.8%)	5.55 (79.29)	1.15 (1.15)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0 (0%)	1 (3%)	1 (3%)	4 (12.1%)	10 (30.3%)	12 (36.4%)	5 (15.2%)	2 (6.1%)	27 (81.8%)	5.39 (77)	1.15 (1.15)	
	Master	60	1 (1.7%)	0 (0%)	2 (3.3%)	14 (23.3%)	11 (18.3%)	21 (35%)	11 (18.3%)	3 (5%)	43 (71.7%)	5.35 (76.43)	1.26 (1.26)	
	Ph.D.	75	1 (1.3%)	2 (2.7%)	5 (6.7%)	14 (18.7%)	20 (26.7%)	20 (26.7%)	13 (17.3%)	8 (10.7%)	53 (70.7%)	5.16 (73.71)	1.36 (1.36)	
	Ma. and Doc	22	0 (0%)	0 (0%)	0 (0%)	4 (18.2%)	6 (27.3%)	6 (27.3%)	6 (27.3%)	0 (0%)	18 (81.8%)	5.64 (80.57)	1.07 (1.07)	
	Int Pro	2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0 (0%)	2 (100%)	5.5 (78.57)	0.5 (0.5)	

specify)													
scholarship	Yes	185	2 (1.1%)	2 (1.1%)	8 (4.3%)	33 (17.8%)	47 (25.4%)	58 (31.4%)	35 (18.9%)	12 (6.5%)	140 (75.7%)	5.35 (76.43)	1.25 (1.25)
	No	7	0 (0%)	1 (14.3%)	0 (0%)	3 (42.9%)	1 (14.3%)	2 (28.6%)	0 (0%)	1 (14.3%)	3 (42.9%)	4.43 (63.29)	1.29 (1.29)

117. Republic of Korea ' s overall social environment

		조사완료 수	Very dissatisfied	Moderately dissatisfied	Slightly dissatisfied	Moderately satisfied	Slightly satisfied	Moderately satisfied	Very satisfied	최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		192	7 (3.6%)	17 (8.9%)	20 (10.4%)	55 (28.6%)	46 (24%)	36 (18.8%)	11 (5.7%)	44 (22.9%)	93 (48.4%)	4.4 (62.86)	1.46 (1.46)	
nationality	Indonesia	36	1 (2.8%)	6 (16.7%)	5 (13.9%)	11 (30.6%)	7 (19.4%)	3 (8.3%)	3 (8.3%)	12 (33.3%)	13 (36.1%)	4.06 (58)	1.53 (1.53)	
	Malaysia	14	0 (0%)	1 (7.1%)	2 (14.3%)	6 (42.9%)	3 (21.4%)	2 (14.3%)	0 (0%)	3 (21.4%)	5 (35.7%)	4.21 (60.14)	1.08 (1.08)	
	Viet Nam	53	2 (3.8%)	2 (3.8%)	6 (11.3%)	19 (35.8%)	13 (24.5%)	8 (15.1%)	3 (5.7%)	10 (18.9%)	24 (45.3%)	4.42 (63.14)	1.34 (1.34)	
	Philippines	20	2 (10%)	4 (20%)	0 (0%)	5 (25%)	6 (30%)	3 (15%)	0 (0%)	6 (30%)	9 (45%)	3.9 (55.71)	1.61 (1.61)	
	Thailand	12	0 (0%)	0 (0%)	3 (25%)	1 (8.3%)	5 (41.7%)	2 (16.7%)	1 (8.3%)	3 (25%)	8 (66.7%)	4.75 (67.86)	1.23 (1.23)	
	Singapore	2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0 (0%)	2 (100%)	5.5 (78.57)	0.5 (0.5)	
	Brunei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Myanmar	3	0 (0%)	0 (0%)	0 (0%)	0 (0%)	1 (33.3%)	2 (66.7%)	0 (0%)	0 (0%)	3 (100%)	5.67 (81)	0.47 (0.47)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India	41	2 (4.9%)	4 (9.8%)	3 (7.3%)	8 (19.5%)	9 (22%)	11 (26.8%)	4 (9.8%)	9 (22%)	24 (58.5%)	4.63 (66.14)	1.63 (1.63)	
	Others: Please specify.	9	0 (0%)	0 (0%)	1 (11.1%)	5 (55.6%)	1 (11.1%)	2 (22.2%)	0 (0%)	1 (11.1%)	3 (33.3%)	4.44 (63.43)	0.96 (0.96)	
	Gender	Male	108	4 (3.7%)	10 (9.3%)	7 (6.5%)	32 (29.6%)	27 (25%)	19 (17.6%)	9 (8.3%)	21 (19.4%)	55 (50.9%)	4.49 (64.14)	1.49 (1.49)
		Female	80	3 (3.8%)	6 (7.5%)	13 (16.3%)	22 (27.5%)	19 (23.8%)	17 (21.3%)	0 (0%)	22 (27.5%)	36 (45%)	4.24 (60.57)	1.35 (1.35)
Others		2	0 (0%)	0 (0%)	0 (0%)	0 (0%)	0 (0%)	0 (0%)	2 (100%)	0 (0%)	2 (100%)	7 (100)	0 (0)	
I do not wish to respond		2	0 (0%)	1 (50%)	0 (0%)	1 (50%)	0 (0%)	0 (0%)	0 (0%)	1 (50%)	0 (0%)	3 (42.86)	1 (1)	
institute	GIST	27	2 (7.4%)	4 (14.8%)	1 (3.7%)	9 (33.3%)	3 (11.1%)	8 (29.6%)	0 (0%)	7 (25.9%)	11 (40.7%)	4.15 (59.29)	1.6 (1.6)	
	DGIST	24	1 (4.2%)	0 (0%)	3 (12.5%)	10 (41.7%)	5 (20.8%)	4 (16.7%)	1 (4.2%)	4 (16.7%)	10 (41.7%)	4.42 (63.14)	1.26 (1.26)	
	UNIST	38	2 (5.3%)	2 (5.3%)	4 (10.5%)	7 (18.4%)	12 (31.6%)	7 (18.4%)	4 (10.5%)	8 (21.1%)	23 (60.5%)	4.63 (66.14)	1.55 (1.55)	
	POSTECH	16	2 (12.5%)	1 (6.3%)	2 (12.5%)	7 (43.8%)	2 (12.5%)	2 (12.5%)	0 (0%)	5 (31.3%)	4 (25%)	3.75 (53.57)	1.44 (1.44)	
	KAIST	87	0 (0%)	10 (11.5%)	10 (11.5%)	22 (25.3%)	24 (27.6%)	15 (17.2%)	6 (6.9%)	20 (23%)	45 (51.7%)	4.48 (64)	1.39 (1.39)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1 (3%)	3 (9.1%)	4 (12.1%)	9 (27.3%)	12 (36.4%)	4 (12.1%)	0 (0%)	8 (24.2%)	16 (48.5%)	4.21 (60.14)	1.25 (1.25)

	Master	60	0 (0%)	6 (10%)	5 (8.3%)	20 (33.3%)	9 (15%)	15 (25%)	5 (8.3%)	11 (18.3%)	29 (48.3%)	4.62 (66)	1.42 (1.42)
	Ph.D.	75	6 (8%)	7 (9.3%)	7 (9.3%)	21 (28%)	20 (26.7%)	11 (14.7%)	3 (4%)	20 (26.7%)	34 (45.3%)	4.16 (59.43)	1.54 (1.54)
	Ma. and Doc Int Pro	22	0 (0%)	1 (4.5%)	4 (18.2%)	5 (22.7%)	4 (18.2%)	5 (22.7%)	3 (13.6%)	5 (22.7%)	12 (54.5%)	4.77 (68.14)	1.44 (1.44)
	Others (please specify)	2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0 (0%)	2 (100%)	5.5 (78.57)	0.5 (0.5)
	scholarsh ip	Yes	185	7 (3.8%)	16 (8.6%)	20 (10.8%)	52 (28.1%)	45 (24.3%)	34 (18.4%)	11 (5.9%)	43 (23.2%)	90 (48.6%)	4.39 (62.71)
	No	7	0 (0%)	1 (14.3%)	0 (0%)	3 (42.9%)	1 (14.3%)	2 (28.6%)	0 (0%)	1 (14.3%)	3 (42.9%)	4.43 (63.29)	1.29 (1.29)

121. Overall satisfaction of your personal life studying in Republic of Korea

	조사완료 수	Verydissatis Moderately Slightlydiss			Slightlydissatis Moderately Verysatisfie				좌측합	우측합	평균점수	표준편차	
		dissatisfied	atisfied	Moderate	fied	satisfied	d						
전체	192	12 (6.3%)	9 (4.7%)	14 (7.3%)	33 (17.2%)	54 (28.1%)	54 (28.1%)	16 (8.3%)	35 (18.2%)	124 (64.6%)	4.74 (67.71)	1.56 (1.56)	
nationality	Indonesia	36	4 (11.1%)	0 (0%)	2 (5.6%)	5 (13.9%)	9 (25%)	11 (30.6%)	5 (13.9%)	6 (16.7%)	25 (69.4%)	4.89 (69.86)	1.73 (1.73)
	Malaysia	14	1 (7.1%)	1 (7.1%)	2 (14.3%)	4 (28.6%)	2 (14.3%)	4 (28.6%)	0 (0%)	4 (28.6%)	6 (42.9%)	4.21 (60.14)	1.52 (1.52)
	Viet Nam	53	2 (3.8%)	2 (3.8%)	4 (7.5%)	11 (20.8%)	20 (37.7%)	12 (22.6%)	2 (3.8%)	8 (15.1%)	34 (64.2%)	4.68 (66.86)	1.31 (1.31)
	Philippines	20	0 (0%)	3 (15%)	2 (10%)	1 (5%)	5 (25%)	8 (40%)	1 (5%)	5 (25%)	14 (70%)	4.8 (68.57)	1.54 (1.54)
	Thailand	12	0 (0%)	1 (8.3%)	1 (8.3%)	0 (0%)	5 (41.7%)	3 (25%)	2 (16.7%)	2 (16.7%)	10 (83.3%)	5.17 (73.86)	1.4 (1.4)
	Singapore	2	0 (0%)	0 (0%)	0 (0%)	1 (50%)	1 (50%)	0 (0%)	0 (0%)	0 (0%)	1 (50%)	4.5 (64.29)	0.5 (0.5)
	Brunei	1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1 (100%)	5 (71.43)	0 (0)
	Myanmar	3	0 (0%)	0 (0%)	0 (0%)	0 (0%)	1 (33.3%)	2 (66.7%)	0 (0%)	0 (0%)	3 (100%)	5.67 (81)	0.47 (0.47)
	Cambod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os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6 (85.71)	0 (0)
	India	41	4 (9.8%)	1 (2.4%)	3 (7.3%)	8 (19.5%)	9 (22%)	10 (24.4%)	6 (14.6%)	8 (19.5%)	25 (61%)	4.73 (67.57)	1.74 (1.74)
	Others: Please specify.	9	1 (11.1%)	1 (11.1%)	0 (0%)	3 (33.3%)	1 (11.1%)	3 (33.3%)	0 (0%)	2 (22.2%)	4 (44.4%)	4.22 (60.29)	1.69 (1.69)
	Gender	Male	108	7 (6.5%)	4 (3.7%)	8 (7.4%)	20 (18.5%)	27 (25%)	33 (30.6%)	9 (8.3%)	19 (17.6%)	69 (63.9%)	4.77 (68.14)
Female		80	4 (5%)	5 (6.3%)	5 (6.3%)	13 (16.3%)	27 (33.8%)	21 (26.3%)	5 (6.3%)	14 (17.5%)	53 (66.3%)	4.71 (67.29)	1.48 (1.48)
Others		2	0 (0%)	0 (0%)	0 (0%)	0 (0%)	0 (0%)	0 (0%)	2 (100%)	0 (0%)	2 (100%)	7 (100)	0 (0)
I do not wish to respond		2	1 (50%)	0 (0%)	1 (50%)	0 (0%)	0 (0%)	0 (0%)	0 (0%)	2 (100%)	0 (0%)	2 (28.57)	1 (1)
institute	GIST	27	1 (3.7%)	2 (7.4%)	3 (11.1%)	4 (14.8%)	10 (37%)	6 (22.2%)	1 (3.7%)	6 (22.2%)	17 (63%)	4.56 (65.14)	1.42 (1.42)
	DGIST	24	3 (12.5%)	1 (4.2%)	0 (0%)	7 (29.2%)	4 (16.7%)	8 (33.3%)	1 (4.2%)	4 (16.7%)	13 (54.2%)	4.5 (64.29)	1.71 (1.71)
	UNIST	38	2 (5.3%)	1 (2.6%)	5 (13.2%)	6 (15.8%)	13 (34.2%)	5 (13.2%)	6 (15.8%)	8 (21.1%)	24 (63.2%)	4.74 (67.71)	1.57 (1.57)
	POSTECH	16	3 (18.8%)	2 (12.5%)	0 (0%)	4 (25%)	3 (18.8%)	3 (18.8%)	1 (6.3%)	5 (31.3%)	7 (43.8%)	3.94 (56.29)	1.92 (1.92)

	KAIST	87	3 (3.4%)	3 (3.4%)	6 (6.9%)	12 (13.8%)	24 (27.6%)	32 (36.8%)	7 (8%)	12 (13.8%)	63 (72.4%)	5.01 (71.57)	1.4 (1.4)
pursuing degree	Undergraduate	33	1 (3%)	2 (6.1%)	4 (12.1%)	4 (12.1%)	11 (33.3%)	10 (30.3%)	1 (3%)	7 (21.2%)	22 (66.7%)	4.7 (67.14)	1.4 (1.4)
	Master	60	2 (3.3%)	2 (3.3%)	2 (3.3%)	10 (16.7%)	15 (25%)	21 (35%)	8 (13.3%)	6 (10%)	44 (73.3%)	5.15 (73.57)	1.41 (1.41)
	Ph.D.	75	8 (10.7%)	4 (5.3%)	8 (10.7%)	13 (17.3%)	19 (25.3%)	18 (24%)	5 (6.7%)	20 (26.7%)	42 (56%)	4.4 (62.86)	1.71 (1.71)
	Ma. and Doc	22	1 (4.5%)	1 (4.5%)	0 (0%)	6 (27.3%)	8 (36.4%)	4 (18.2%)	2 (9.1%)	2 (9.1%)	14 (63.6%)	4.77 (68.14)	1.38 (1.38)
	Int Pro												
	Others (please specify)	2	0 (0%)	0 (0%)	0 (0%)	0 (0%)	1 (50%)	1 (50%)	0 (0%)	0 (0%)	2 (100%)	5.5 (78.57)	0.5 (0.5)
scholarship	Yes	185	11 (5.9%)	9 (4.9%)	14 (7.6%)	30 (16.2%)	54 (29.2%)	52 (28.1%)	15 (8.1%)	34 (18.4%)	121 (65.4%)	4.75 (67.86)	1.55 (1.55)
	No	7	1 (14.3%)	0 (0%)	0 (0%)	3 (42.9%)	0 (0%)	2 (28.6%)	1 (14.3%)	1 (14.3%)	3 (42.9%)	4.57 (65.29)	1.84 (1.84)

<별첨 4. 인터뷰 예시 질문>

인터뷰 토픽 가이드

FOCUS GROUP 1: 신남방지역 유학생 (KAIST•DGIST•POSTECH•UNIST)

주제	인터뷰 질문
유학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What made you to choose to study in Korea? ·What did you think of Korea before you thought of applying for the university? ·What did you expect from studying in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Oriented University? ·What made you come to this university?
학교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e you satisfied with studying in your university? ·What are you satisfied the most and the least about studying in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Oriented University?
교육·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How is the education environment different from your home country (or any other places you have experienced)? ·How is your relationship with your advisor? ·How much time do you spend in the lab? ·Do you get to pursue your own research interests? ·How is the research environment different from your home country (or any other places you have experienced)? ·What were your difficulties adjusting in your lab?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 there any linguistic difficulties in your classes? ·Is there any linguistic difficulties in your lab meetings and seminars? ·Are you satisfied with the Korean classes or language support

	provided by your university?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 you get financial support from institutions(your country, Korea, university)? ·Are you satisfied with the financial support by your institution? ·If the financial support is not sufficient, how do you earn money for living?
인간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 which ways do you make friends and socialize in Korea? ·How are you getting along with Koreans friends and colleagues? ·In what way do you learn about your university or your department's events?
법률·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e you satisfied with the institutional and legal environment for studying in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Oriented University? ·What were your difficulties attaining Korean visa? ·How are you getting your medical services? ·Are you satisfied with the medical insurance fee and coverage?
개인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 you have a religion, are you satisfied with the Korean environment pursuing your religious activities? ·Can you find a suitable place to eat in or near the campus? ·Are you satisfied with the quality and cost of living in Korea? ·What do you usually do during your leisure time?
진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 you think studying in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Oriented University will help fulfill your aims? ·Does your university provide enough job opportunities and career information sessions? ·If you plan to leave or not leave Korea, what is the main reason?

FOCUS GROUP 2: 유학생 지원 담당 교직원 (KAIST•DGIST•POSTECH•UNIST)

주제	인터뷰 질문
입학·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협력팀에서는 입학팀과 어떻게 협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유학생들이 귀하의 학교를 알고 지원하게 되는 경로는 무엇인가요? ·ASEAN 및 인도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이 있나요?
장학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장학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ASEAN 및 인도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장학제도가 있나요? ·장학금과 조교 기회 정보는 유학생들에게 어떻게 제공되나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생 비자 발급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귀하의 학교는 어떻게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돕고 있나요? ·귀하의 학교는 유학생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어떻게 권유하고 있었나요? ·최근 변화된 건강보험정책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유학생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또는 학교 적응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한국인 학생과 유학생의 교류 증진, 유학생 커뮤니티 지원 사업) ·만일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면, 이에 대한 유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입학 전과 후 학교생활을 돕는 가이드 핸드북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 서비스가 있나요? ·상담센터와는 어떻게 일을 분업하고 있나요? ·유학생들이 전문 상담가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나요? ·상담 지원은 어느 정도로 이용되며,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졸업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있나요? ·졸업 후 유학생들의 진출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졸업 후 유학생 알럼나이 프로그램이 있나요?

기타	<p>·유학생 입학 및 관리 과정에서 있었던 학내 이슈가 있다면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p> <p>·대내적으로 혹은 대외적으로 외국인 구성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p>
----	--

FOCUS GROUP 3: 유학생을 지도하는 교수 (DGIST•POSTECH)

인터뷰 질문
1. 교수님께서 유학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느 국가로, 언제 유학을 다녀오셨나요?
2. 유학생이 연구실에 들어오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입학 전형, 지도교수 선정 절차 과정)
3. 한국 학생들을 지도할 때와 다른 점이 있나요? 또, 유학생을 지도할 때 특히 더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유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5.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지점이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부, 학교 등)
6. 연구할 때, 유학생이 있어 생기는 장점이 있나요?
7. 연구할 때, 유학생이 있어 생기는 단점이 있나요?

<별첨 5. 인터뷰 참가자 목록>

번호	성명	소속 및 직위	일자	소요시간	방법
1	학생1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2019년 7월 31일	1시간 30분	표적집단면접
2	학생2	KAIST 생명과학과	2019년 7월 31일	1시간 30분	표적집단면접
3	학생3	KAIST 화학공학과	2019년 7월 31일	1시간 30분	표적집단면접
4	학생4	KAIST 전산학과 박사	2019년 7월 31일	1시간 30분	표적집단면접
5	학생5	KAIST Global IT Technology Program	2019년 7월 31일	1시간 30분	표적집단면접
6	한.스태프1	KAIST 국제 교원 및 학생 지원팀(ISSS)	2019년 8월 8일	1시간 20분	표적집단면접
7	한.스태프2	KAIST 국제 교원 및 학생 지원팀(ISSS)	2019년 8월 8일	1시간 20분	표적집단면접
8	한.스태프3	KAIST 국제 교원 및 학생 지원팀(ISSS)	2019년 8월 8일	1시간 20분	표적집단면접
9	한.스태프4	UNIST 국제협력센터	2019년 8월 12일	1시간 10분	인터뷰
10	학생6	UNIST 재료공학과 학부	2019년 8월 12일	1시간	표적집단면접
11	학생7	UNIST 화학공학과 학부	2019년 8월 12일	1시간	표적집단면접
12	학생8	UNIST 생명과 학부	2019년 8월 12일	1시간	표적집단면접
13	한.스태프5	DGIST 국제협력팀	2019년 8월 12일	1시간	인터뷰
14	한.교수1	DGIST 로봇공학전공	2019년 8월 12일	1시간	인터뷰
15	한.스태프6	POSTECH 국제협력팀	2019년 8월 13일	1시간	인터뷰
16	학생9	POSTECH 화학공학과	2019년 8월 13일	1시간 30분	표적집단면접
17	학생10	POSTECH 원자력공학과	2019년 8월 13일	1시간 30분	표적집단면접
18	학생11	POSTECH 생명과학과	2019년 8월 13일	1시간 30분	표적집단면접

19	학생12	POSTECH 금속공학과	2019년 8월 13일	1시간 30분	표적집단면접
20	학생13	POSTECH 화학공학과	2019년 8월 13일	1시간 30분	표적집단면접
21	한.교수2	POSTECH 인문사회학부	2019년 8월 13일	1시간	인터뷰
22	학생14	태국에서 유학 온 북경이공대 학생	2019년 9월 19일	1시간 30분	표적집단면접
23	학생15	베트남에서 유학 온 북경이공대 학생	2019년 9월 19일	1시간 30분	표적집단면접
24	외.공무원1	말레이시아 Offic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2019년 9월 20일	1시간	인터뷰
25	외.교수3	Universities UK International	2019년 10월 16일	15분	인터뷰
26	외.교수4	한국대학국제교류위원회 회장,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수	2019년 10월 17일	20분	인터뷰
27	외.직원1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Director, International Research & Analysis Unit International Strategy Branch	2019년 11월 05일	x	서면인터뷰 (이메일)
28	외.직원2	Australian Trade and Investment Commission (AUSTRADE) International Education Data Analyst and Research Adviser	2019년 11월 07일	x	서면인터뷰 (이메일)
29	학생3	KAIST 화학공학과	2019년 11월 15일	20분	인터뷰
30	학생13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2019년 11월 15일	20분	인터뷰
31	학생9	POSTECH 화학공학과	2019년 11월 15일	20분	인터뷰

<별첨 6. 주요 참여 전문가>

번호	성명	소속	주요 참여 분야
1	Joeffrey Maddatu Calimag	울산대학교	정책자문, 간담회 발제 및 집중 토의
2	Sourav Sarkar	포항공과대학교	정책자문, 간담회 발제 및 집중 토의
3	김민지	울산과학기술원	정책자문, 간담회 발제 및 집중 토의
4	박영실	통계개발원	설문 설계
5	오철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학생 정책 자문, 간담회 발제 및 집중 토의
6	이기정	한양대학교	대학 국제화 정책, 유학생 지원 정책 자문
7	임문정	University of Washington	연구 설계 및 결과보고서 작성
8	임희진	한국교원대학교	정책자문, 간담회 발제 및 집중 토의
9	홍문숙	경희대학교	간담회 발제, 신남방지역 교육, 과학기술협력 자문, 결과보고서 작성